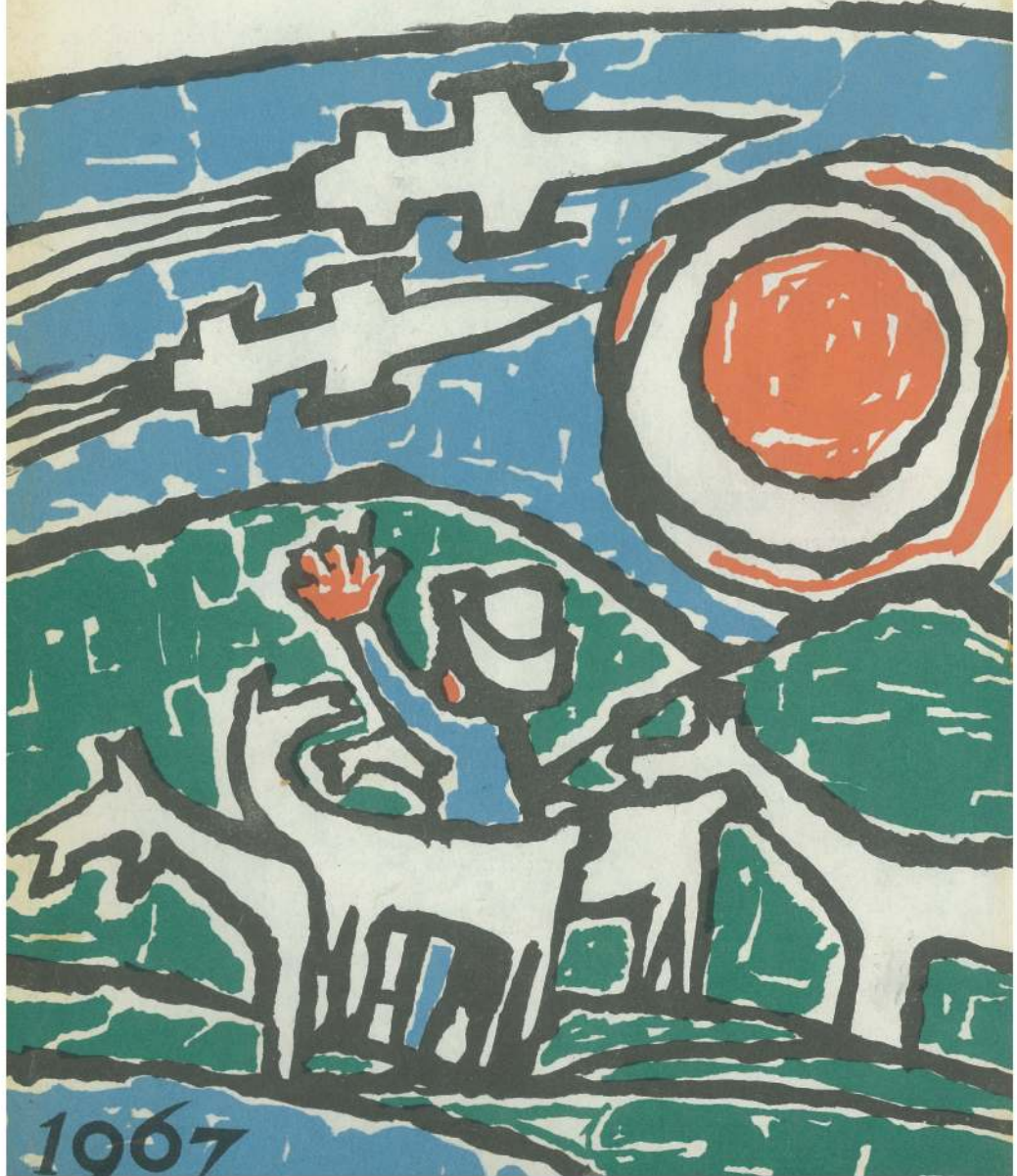


1967年 8月 1日 印刷
1967年 8月 10日 發行

공군

第 101 號
공군중앙도서관



1067



統領閣下 就任



CHOON 67

表紙 및 目次欄..... 김희환
△ 사진과 보/V 表紙 2·3면, 目次귀

人間關係에서 본 민주主義..... 高永復 (一)

後進國의 近代化와 軍隊의 役割..... 姜秉奎 (二)

(共同執筆)
戰後共產主義侵略史..... 黃載善 (三)
(中共篇) 禹載潤 (四)
(北傀篇) 全元鉉 (五)

管理向上策..... 許祥鎮 (六)

軍風紀確立의 效果的方案..... 金鎮守 (七)

將校夫人 隨筆帖

生日날의 約束..... 姜善子 (八)

週番..... 姜善子 (九)

아빠의 階級과 軍人家族..... 姜善子 (十)

特輯·豐饒한 社會에의 途程!

1970年代의 未來像..... 李勝雨 (十一)

增産 石油化學工業의 앞날..... 咸秉昭 (十二)

輸出 人力海外進出의 展望..... 李熙均 (十三)

建設 住宅建設計劃..... 金得兆 (十四)

軍에 있어서의

自由主義的 思考方式의 挑戰..... 池昇龍 (十五)

昨今의 「베트남」空戰..... 文甲龍 (十六)

空中勤務者에게 要求되는 人格..... 이광용 (十七)

貴官이 初任飛行教官이라면(上)..... 조승대 (十八)

飛行準備의 安全..... 유현웅 (十九)

地上勤務者의 選拔과 配置問題..... 한충효 (二十)

北極에서 살아오다..... 양춘고 (二十一)

落書와 安全..... 윤갑수 (二十二)

이전 決코 장난감이 아냐..... 박장환 (二十三)

安全은 나自身을 爲한 것..... 강기봉 (二十四)

안 全 살 동

북괴間諜船을 擊沈하라!..... 大尉 安商田 (二十五)

非常出動!..... 中尉 李寬榮 (二十六)

末世의 條件..... 현경협 (二十七)

能力的 留保..... 이영결 (二十八)

宗教의 對象..... 김두식 (二十九)

軍陣講壇

크리스도 論..... 崔元振 (三十)

하늘은 우리 머리 위로 조국의 반포
나가지 말라가자 승리를 위하여

綜合取材

果然

氣合

必要思想인가?

指揮統率과 氣合(將校의 立場에서) 李相惠 (100)

氣合을 받드는 心情(士兵의 立場에서) 李奇完 (101)

「元山爆撃」..... 曁장탁 (102)

月世界の「토끼뎀」..... 曁병김민희 (103)

半裸의 美貌..... 曁사진도원 (104)

鼠生員들의 장난으로..... 曁명김능찬 (105)

잊혀지지 않는「自己忠告」..... 曁명허충 (106)

0.5秒內의 集合..... 曁사장우 (107)

國庫金 3원이..... 曁위강신복 (108)

氣合論..... 劉庚煥 (109)

韓國의 國防政策方向..... 崔星烈 (110)

國防과 經濟政策..... 姜哲洙 (111)

擴大된 作戰空域..... 金相泰 (112)

銀翼의 十字軍..... 盧在星 (113)

(銀馬部隊座談會)越南空輪作戰任務를 맡으면서..... 編輯室 (114)

操縱士手記
나의 F-86F 첫單獨飛行..... 曁위희재 (115)

曁위김무신 (116)

曁위김종식 (117)

曁위이대규 (118)

海瑞罷官과 中共 文化革命分析..... 李永柱 (119)

豫編人士 칼럼
나의 空軍時節..... 李昌淳 (120)

李寅燮 (121)

李泰昌 (122)

李昌淳 (123)

나의 趣味公開

藥水더 周邊..... 曁事通信社長金喜鍾 (124)

읽고 쓰는 일..... 曁立國樂院長成慶麟 (125)

下午의 靜思(바둑)..... 曥譯文學家鄭成煥 (126)

文學의 消費..... 延世大講師崔澄子 (127)

幻想 속에서 그림을..... 梨花女高敎師吳澄子 (128)

載
榮光에의 脫出(의식소더스)..... 曥은·유리스文赫(譯) (129)

(世界作家의 巡禮)⑩ 존·스타인백篇..... 曥昌烈 (130)

孫子兵法으로 본 韓國戰爭⑥..... 曥鍾學 (131)

(文章講論)文章作法①..... 曥致遠 (132)

連
國民이 주는 感謝의 賞受賞者의 榮光이 있기까지..... 洪淳正 (133)

내가 걸어온 오솔길..... 曥淳正 (134)

創作
豫備役..... 曥병로 (135)

編輯後記..... 曥天 (136)



大 正 熙 第 6 代

◇...第6代 朴正熙大統領閣下の 就任式이 67年 7月 1日 下午 2時, 中央廳廣場에서 外國慶祝 使節과 3部要人 및 各界人士와 2萬餘 市民 이 雲集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上 · 朴大統領 就任宣誓 中 · 就任式全景
下 · 外國慶祝使節들



◇...張志良參謀總長은 「메코넬」美 空軍參謀總長의 招請으로 지난 6月 13日 美空軍基地 視察旅程에 올라 約 2週間에 걸쳐 美國 務省을 비롯하여 主要基地를 視察하고 6月 29日 K-16基地에 安着, 歸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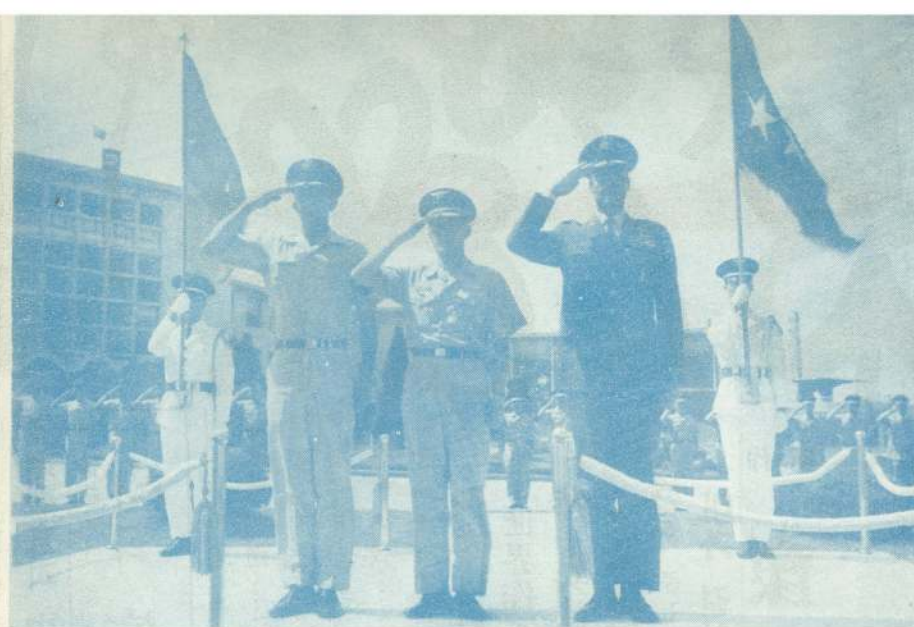




◇...空士校에서는 5月 1日 同校 大講堂 및 生徒會館起工式을 張參謀總長과 金空士校長을 위시한 內外貴賓 多數가 參席裡에 盛大히 舉行하였다.



◇...美 6146顧問團「화이트」中領은 지난 65년에 洪水로 因하여 汝矣島 駐屯 空軍樂隊의 樂器流失 後聞을 듣고 이를 도와 주고자 本國과 連絡, 樂器收集運動을 展開하여, 「크라리넷」, 「스자폰」等 總 21點을 4月 21日 우리 空軍에 傳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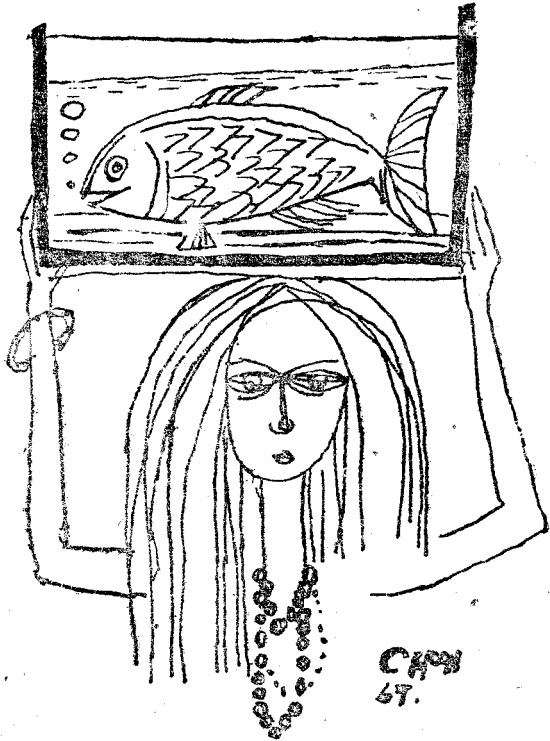
◇...新任 駐韓 美空軍司令官겸 314飛行師團長 「존. W. 하넬」准將(左)은 7月 5日 新任人事次 駐韓 UN軍參謀長 「데이비스」中將과 同途, 空本을 禮訪하였다.



◇...2年間の 任期를 마치고 美第 21空輸司令部 副司令官으로 轉任되어 가는 「스미스」前 駐韓 美空軍司令官이 6月 28日 離任人事次 空本으로 張總長을 禮訪하였다(張總長이 「스미스」准將과 惜別의 情을 나누면서, 기념패를 贈呈하고 있다).

공관

<제 101 호>



1967년 제 3호

<非賣品：無斷轉載禁>

發行人：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 李忠甲
印刷處：空軍教材廠
印刷人：空軍大領 朴性鎮

人間關係에서 본 民主主義

高 永 復

△서울대·助教授▽



民主主義라는 概念은 그 意味가 多樣性을 띠고 있으며 그 精確한 概念을 考察하는 데는 多角的인 研究를 필요로 하고 있다. 民主主義의 歷史가 그리 길지 못한 韓國에서는 民主主義가 濫用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民主主義本質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그 反對概念인 專制主義, 權威主義에 대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理解될 수도 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人間關係가 어떻게 民主主義를 形成하는가를 考察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民主主義와 人間關係를 다루는 基本要素로 세 가지의 民主主義 즉 生活方式으로서의 民主主義, 社會學的으로 본 民主主義, 政治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生活方式으로서의 民主主義

獨逸의 社會學者 레빈(Lewin) 教授의 見解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現象이 나타난다. 즉 그는 독일과 미국의 子女教育方式을 비교하여 生活속의 民主主義가 어떻게 形成돼 가고 있나를 설명하였다. 獨逸에 있어서는 子息은 父母에게 豫속되어 그 태두리 內에서 行動하도록 習性化되어 있어 父母는 子息에게 指示하고 잘못이 있으면 여지없이 꾸지람을 한다. 한편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父母가 子息에게 獨斷的인 指示를 하기보다도 「이렇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式으로 나오며 일을 잘하면 고맙다는 말을 해준다. 만약 잘못했다면 說得을 통해 子女에게

보다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다시 말하면 獨逸에서는 子息은 父母가 限定해 준 一定한 테두리 內에서 行動할 것이 要求되며 美國에서는 子息이 선택해서 행동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未來의 成人으로서 子息의 行動의 幅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가 決定되는 것인데 반면에 獨逸人이 自己世界의 幅이 넓고 美國人이 그 幅이 좁다는 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教育 환경 아래서 成長한 兩國人의 親友관계 역시 美國과 獨逸人은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獨逸人 두 사람이 같은 職場에서 근무할 경우 業務를 떠나서 個人의인 秘密等에까지 의사가 통해야만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서로 존중할 만한 立場이 보장되어야 交友關係를 맺는 것이다. 따라서 獨逸인은 社會活動을 할 경우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면 친구를 얻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美國人들은 社會活動을 할 경우 자기 자신을 全部 내맡기지 않아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性格形成으로 因해 團體가 커지면 커질수록 獨逸인은 異質的인 要素가 커지며 美國人의 경우 是 同質的인 要素가 커진다. 여기에서 「레빈」教授는 前近代의 性格과 現代의 性格이 獨逸人和 美國人의 相異한 점이며 獨逸이 2次大戰前 專制主義로 指向한 것도 이상과 같은 生活과정이 主要原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社會學者 「리스만」(Riseman)은 美國人의 性格을 分析하여 다음과 같이 結論지었다. 즉 美國에는 俸給者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社會活動面에서 上級者의 指示를 기다리는 位置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生活을 겪어 나가는 동안 自身의 自主性을 점차로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그 子女들의 教育에 대해서도 方向을 提示해 주지 않기 때문에 子女들은 모든 것을 자기 주위의 交友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로 因해 생기는 主體性 상실은 오늘날 美國人의 性格面에 큰 問題點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他者志向型」이라 해서 오늘날 韓國現實에도 이 理論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이 좋으나 나쁘냐는 各其 一長一短이 있기 때문에 성급히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다소간의 문제점은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도 下流中學의 學生들은 先生의 말을 많이 따르고 中流 以上の 學生들은 그들의 父母나 先生보다 친구들의 말을 많이 따르고 있다. 以上과 같은 現象을 고려해 볼 때 生活方式에 의한 民主主義는 一定한 틀이 없고 各 要素間에 타협하는 方式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專制, 극단적인 民主는 다같이 배격해야 되는 것이다.

社會學的으로 본 民主主義

美國의 社會學者 호만스(Homans)는 社會學的 見地에서 集團組織과 課業動機 사이의 相關關係를 다음과 같이 解說하였다.

즉 각각 5名の 學生으로 구성된 2 팀에게 記號를 表示한 카아드를 各者에게 나누어 주고 공동된 記號를 找하려고 할 때 民主型인 팀은 서로 協議해서 그 記號를 找하려고 하나 專制型인 팀은 어느 一人이 主導하여 各者를 「리더」해서 記號를 找하려고 한다. 이 두 팀이 記號를 找는 能率은 民主型이 專制型보다 時間上으로는 늦으나 대신에 各者의 課業에 대한 만족도는 專制型보다 강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實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集團의 能率은 集團組織이 있어야 하며 同時에 일하려고 하는 意慾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集團組織이 強하면 課業動機는 반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集團組織과 課業動機 양쪽을 잘 조정해야만 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즉 「리더십」인 것이다. 社會學的으로 본 民主主義는 이와같이 集團組織이 너무 강해도 안 되며 集團에 참여하는 各者가 다같이 課業動機를 갖고 참여해야만 비로소 民主主義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한다면 集團組織, 즉 制度가 民主化되었다고 해서 民主主義가 實現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組織에 참가한 人間역시 民主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人間이 權威主義에 빠져 있다면 重大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며 심한 마찰이 계속된다. 따라서 組織과 人間이 맞아야만 한다. 그런데 앞서도 말한바와같이 이를 조정하는 데에는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리더십」問題를 가지고 美國에서는 재미있는 實驗을 하였다. 民主的 「리더」와 專制的 「리더」下에서 아이들이 各已 作業을 할 경우 民主的 「리더」下의 아이들은 ① 유리라는 말을 많이 씀 ② 모르는 것은 서로 가르쳐 줌 ③ 「리더」가 없어도 스스로 할 ④ 분위기가 명랑함 등의 특징이 나타나며 專制的 「리더」下의 아이들에게서는 ① 조용의 대상인 아이가 생기며 ② 가령 「남이 못하더라」하는 式의 공격적인 언사를 많이 쓰게 되며 ③ 「리더」가 없으면 일을 안 하게 된다는 現象이 나타났다. 民主的인 「리더십」은 「리더」가 成員의 하나로서 決定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하고 다만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리더십」이 달라지면 集團의 行動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리더십」의 重要性이 대두되는 것이며 社會를 例를 들어 볼 때 「리더십」의 方向如何에 따라 그 社會가

民主的이나 專制的이나가 決定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더십」이 지극히 關重要的이면 集團目標은 확고하지만 人間的인 面이 發達되기 때문에 「人間關係의 接近」(Human Relations Approach)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經濟用語

職務給制度

직부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職務에 대한 職務評價를 하고 이에 따르는 職務等級을 정하며 賃金を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個人的인 年功序列이나 學歷、經歷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從事員이 담당하는 職務의 重要度を 測定하여 分類된 職務階級에 따라 賃금이 支拂되는 것이다.

이 制度의 특징은 同一勞動、同一賃金の 原則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同一職級에 속하는 職種에는 同一한 賃금이 支拂된다.

그런데 각 職務가 요구하는 勞動의 量과 質이 客觀的으로 確定되는 것과 각 職務에의 人員배치가 適材適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大韓鐵鑛會社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制度는 能力給에 對立되는 制度이기도 하다.

近來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로 要求되고 있는 까닭은 다시 말해서 社會관계가 關重要的으로 치우쳐 危機에 직면했을 때 이를 구제할 方法이 없음을 示하는 것이다.

美國에도 「리더십」에 關係 組織志向型과 成員志向型的의 區別으로 나누고 있다. 前者는 人間性보다 組織을 重하게 여기는 것이고 後者는 人間性에 重要性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官廳、會社、軍隊等에서는 組織志向型이 알맞고 學會、敎會等에서는 成員志向型이 알맞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兩者가 절충되어야만 理想的인은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즉 集團의 目標이 무엇이나에 따라 兩者를 적당히 調整하여 理想的인 民主化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政治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

이것은 쉽게 말해 制度的인 民主主義로서 考察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政治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는 制度的으로 모든 成員이 集團의 意思를 決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 原則이 곧 民主社會를 이룩하는 決定的인 要素인 것이다. 制度的인 面에서는 上向性 組織에서는 반드시 民主主義가 許容되어야 하며 下向性 組織에서는 組織의 原則을 인정하며 民主主義的 要素가 最大限 加味되어야만 비로소 民主主義的 社會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將校夫人

隨筆帖

生日날의約束

송 신 자

△11전비·정덕진중위 부인▽

질투든 녹색의 대자연 속에서 짙살한
버찌를 따먹으며 한없이 아름다운 신혼
의 실계를 떠돌던 그날부터 7개월이 넘
는 오늘까지 그이한테서 불만을 말한다
는 것은 오히려 죄스라울 만큼 가정에
충실하였고 그이도 더없이 만족스러워
하였다.

그이의 한 번쯤 실수에 트집을 잡고
알가알부하는 것은 오히려 무엇이든 얹
전져 못한 나의 성격의 탓도 있었지만
너무 너그러운 그의 성격이 나를 그



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작년 내 생일은 장마철인데도 맑은
날씨에 무척이나 더웠다.

그날이 결혼 후 첫 생일이기도 했다.

아침에 아무 말씀도 없이 출근하는
그이가 야속하기는 했지만 내 생일이라
고 다짐하기도 속스러운 일 같아서 일
을 다 못하고 말았다.

결혼 전 그이는 눈코 뜰사이없이 바

쁘신 김해 대구에서의 비행훈련 생활중

에도 내 생일에는 축전이나 책 같은 선

물을 보내주셔서 나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했었는지 모른다.

어느 때 생일에는 편지에서 맞느라

나도 잊어버린 생일엔 전보를 쳐주서

서 항상 그의 생활을 염려하고 있는
나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이는 우리들이 처음 만난 날짜를 기
억하고 계셔서 나를 무안하게도 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더없이 귀중하
고 아름다운 그이에 대한 기억으로 남
아 있는 것이다.

그러하면 그이가 결에 항상 같이 있
다는 안정감에서인지 어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도무저 관
심이 없이 등한해저는 것이다.

아무리 직장에서 사업에 바쁜 남편이
라도 아내의 생일쯤 기억해 두었다 저
녁식사라도 함께 밖에서 하자고 권할
수 있다면 며칠 전부터 아내가 자기 생
일을 다짐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연
스럽고 흐뭇한 일인가?

부유한 어느 나라의 주부들과 달리
화려한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겠고
오히려 남편들의 이러한 권유를 반찬값
적정에 사양할런지도 모르는 알뜰한 한
국의 아내들이 아니겠는가?

결혼 전 친구들과의 출제였던 그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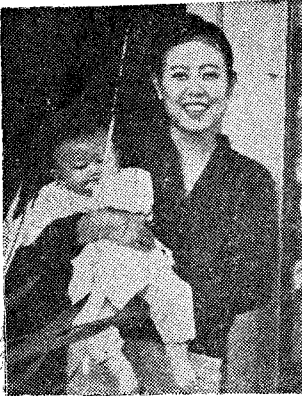
생각하며 온종일 그이의 퇴근만을 기다린 나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버렸지만 그렇게도 섭섭해 하는 나를 새 약속을 함으로써 풀어주었다.

앞으로의 모든 가정기념일엔 뚜 잊지 않고 간단한 자축을 하기로.

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여 주는 그의 너그러운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週 番

정 광 숙
 ^ 30 방판단 · 최홍선 소령 부인 ^



주변이란 말은 굳이들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낱말일 것이다. 나도 아파와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주변이란 인연이 먼 말이었다. 오래 전 이야기다. 가을도 한 발 늦은 우리의 결혼 한 달을 맞은 날이었다. 집과 친구들을 떠나 시골 생활을 하게 된 나는 쓸쓸하나마 저녁에는 추베라도 들고픈 기분이 되어 서투른 손씨를 다 해서 오찬준비에 즐거운 한나절을 보냈다.

그러나 저녁 때 돌아오신 아파는(그 당시 는 아파가 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 갑자기 주변을 서게 되었으니 곧 돌아가야 된다고 몹시 민망해 하신다. 무척 서운했다.

그뿐이 아니다. 당시 우리가 살던 집은 바로 옆에 큰 농협창고가 있고 해가지면 인적조차 끊어져버리는 외딴 곳이었으니 겁이 많기로 유명한 나는 도저히 그 밤을 새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낯설은 고장이고 보니 동무해 줄만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밤으로 문을 잠그고 서울로 가야 할

수밖에....., 그리하여 결혼 일 주된 은 추배는커녕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운수사나운(?) 날이 되고 말았다.

요즈음도 주변은 매개 두 달 간격으로 찾아오는 것 같다. 3박 4일 또는 4박 5일....., 며칠간을 헤어져 있다는 건 평온한 생활에 하나의 조그마한 여율로서 만난다는 기쁨이 있어 좋다.

며칠간 아파를 보지 못한 우리 꼬마도 오늘은 아파가 오신다고 귀땀이라도 해주면 무척 신나하며 저녁 때가 되어 문소리만 나도 아파 오셨다고 환성을 올리며 뛰어 나간다(물론 꼬마는 아파보다 가방 속에 숨어 있을 과자가 더 반갑겠지만.....). 그러나 엄마가 된 지금까지도 짐장이를 완전히 탈피 못한 나는 주변이 가까와 오면 서울로 전화를 걸어 구원병을 청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날 저녁차로 어김없이 꼬마의 이모가 와 준다. 이모가 올 때면 꼬마가 좋아하는 호두빵을 사다 주니 때아닌 최재애 꼬마는 신나서 더욱 조잘댄다.

나도 오랜만에 서울의 이모처럼 소식을 듣고 그들 20대 젊은이의 싱싱한 체취를 한껏 호흡하며 지난 날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가 밤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뜻을 띄운다.

주변은 시골생활 몇 년에 손부가 다 된 나에게 참시나마 옛날을 되찾는 즐거움을 주지만 갑자기 나에게 도전해와 나를 당황케도 한다. 저녁 배식사 준비를 마치고 아빠를 기다리는 나에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주변을(대계 주변담당자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서게 되었으니 기다리지 말고 식사하라는 아빠의 전갈이 온다. 그러면 나는 다음의 무장을 하고 퍼리말해 골프채를 준비해 놓고는 그 한밤을 책을 뒤적이며 새운다. 아마도 그럴 날 도록이 들어온다면 나는 골프채를 휘두르기 전에 구도의 집장으로 기질을 했을게다.

이건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지만 주변의 이런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있다. 또 데

리 주변인가?..... 짜증이 난다.

초조하게 기다리노라면 자정이나 다 되어 돌아오신다. 어찌된 일인냐고 묻는 나에게 야근을 축하노라고....., 마음 초조했던 나는 반가움과는 반대로 느닷없이 한 마디 쏘아버린다. 『아빠 특근수당은 얼마나 타오셨어요?』 싱긋 웃는 아빠의 씩쓸한 미소를 보면 아차 공연한 말을 했구나 후회가 된다. 특근을 하면 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셀터라면 어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아빠와 같은 군인은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녁식사까지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나 아빠는 군인, 나는 그분의 아내이고 보니 불평 불만은 금물이다. 여자의 삼종지법(三從之法) 중의 절혼을 하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 나도 진실한 아빠의 내조자가 되려면 노력할 참을 줄 아는 여자가 되어야 하는 모양이다.

군인의 아내는 모든 것을 참을 줄만

아야 한다는 것이 아빠와 결혼한 후에 가 체들한 질리인 것 같다. 좀더 일찌기 인내의 교훈을 받아들이 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우스운 이야기거리될 남기지 않았으리라.

아빠의 階級과 軍人家族

이 금 인

△11진비·정종석대위 부인▽

원고 청탁을 받고 보니 쓸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펜을 들고 보니 망서림이 앞서는군요.

저희가 결혼한 지도 여덟 8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들도 자라 금년엔 어엿한 학부형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생활에서 깨닫고 느낀 것도 많읍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배우고 느낀 것이 남편의 군인인 탓인지 군대란 것이 무엇하는 단체이며 군대사회란 특수 조직체를 배운 듯합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군대란 사회 일반단체와 달라 일단

유사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바치고 명령을 통해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특수단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급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급이란 것을 한 가정으로부터서 한 군인의 아내로서 볼 때,

옛날 중세 때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에는 나면서부터 제한된 천부의 계급이 있었지만 오늘날 민주국가란 형태를 갖춘 나라에선 이러한 계층을 나면서부터 인정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란 특수단체에서 통칭하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 아닌가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의 목적달성의 방법으로서는 또는 통솔의 방편으로서 한 수단의 소산물이 계급이란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 한 인간의 값을 규약하는 그러한 가치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군인이란 중세기의 기사처럼 개인, 소수의 무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는 그런



무사와는 다른 줄 압니다. 물론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같을지라도.

우리 군인가족 가운데 이러한 현대의 군인의 계급 인식이 오해되어 부끄럽게 얼굴을 붉힐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남편이 소위이면 그 부인은 중위이고 남편이 대위이면 그 부인은 소령이며 또한 남편이 대령이면 부인은 장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릇한 현상이 그 사람의 人品을 결정지워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 되겠지만 한 군인의 아내로서 볼 때 올바른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행히 우리 공군에는 없었지만, 아직 군인가

족과 많이 사귀어 보지는 못했어요.

애기들이 서로 모여 놀다가도 시비가 나면 서로 자기 아버지 계급이나 자기 아버지의 지이프차 유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애기들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그럴때면 결코 무심히 아이들의 철없는 말이라 웃고 넘길 일들이 아니라 는 것

은 군인의 가족으로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명을 들게 할까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의 풍조의 소산이라 하겠지만 부모들의 그 책임이 아닐까요? 그런데 군대사회의 계급 인식, 이것은 군인되시는 남편들과 그의 가족들 스스로가 올바르게 고쳐나가야 될 일인줄 압니다. 또한 군용 지이프차에 애기들을 태우고 학교에 등교하는 사례는 없는지? 무의식중에 우리를 가정에 오인된 사고와 풍조가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며 끝으로 편견적이고 체제가 서지 않는 일개 군인의 아내의 마음을 허물하지 마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필을 높을까 합니다.

後進國의 近代化와 軍隊의 役割

△後進國의 集約的 實例와 比較▽

姜 秉 奎

△中央大教授▽

後進國政治現象을 比較論究함에 있어서 가장 問題되
는 것은 後進國 「내셔널리즘」의 本質과 그 當面目標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러한 後進民族主義의 共
通的 當面課題인 「祖國의 近代化」는 決코 어느 特殊階層
이나 集團의 獨占物일 수 없는 「全國民的」, 「全民族的」
課業이기는 하지만 特히 後進諸國에서 하나의 類型的인
로 抽出될 수 있는 共通的 現象은 「軍」이 그 近代化의
原動力的 役割을 스스로 또는 國家的 要請에 依해서擔
當되고 있다는 點이다.

勿論 後進國 政治에 있어서 軍의 役割에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고 또 그 長短이 있지만 特히 一調될 수 있는

集約的 特徵은 「軍」의 本質的 屬性인 國家的 忠誠心과 愛
國心の 集結이 國家近代化의 原動力的 役割을 擔當케 하
였으며 그것의 比較的 意味는 國家間의 어느 階層이나
集團에 못지않은 特徵的 役割을 現在에 있어서도 하고
있다는 點이다. 本稿는 「空軍」將兵 여러분에게 筆者가
平素 確信하고 있는 그 意義를 序說의 序說으로 傳達코자 하
는데 그 目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意義的 論
述은 後進 各國의 現象的 實例와 그 比較政治學的 考
察이 꼭 必要한 것인데 制限된 紙面은 그 詳論을 뒤에
미루게 하고 있으므로 原則的 序說의 論述을 하고자
한다.

後進 「내셔널리즘」의 志向性

舊西歐列強的 植民地秩序와 羈束에서 解放된 오늘날의 後進國의 政治的 範圍는 「아시아·中東·아프리카」 등 地球의 切半을 차지할 만큼 광범하다. 同時에 이들 A·A 諸國의 政治的 經驗 亦是 植民地化過程부터 離脫의 經過에 이르기까지 各樣各色이며 따라서 이들 「民族主義」의 基盤도 多樣的인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後進 諸國에게 共通된 政治的 事實은 첫째 新生獨立國이라는 點과 둘째 社會經濟的 自立과 繁榮의 追求, 셋째 國際政治的 意味에서의 自己實現이라는 點이다. 이제 가지 共通의 事實의 基礎는 要컨대 民族主義이며 後進國 政治에 있어서 이 民族主義理念을 排除하고서는 아무런 政治的 意味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後進民族主義는 植民地 秩序下에서는 單純한 政治的 獨立을 追求하였던바 그것이 이 곧 民族解放運動 또는 獨立鬭爭이고 이는 韓國·印度·印尼·越南 더 나아가서는 中東, 「아프리카」 諸國에서도 共通의 으로 管見할 수 있는 政治經驗이었다. 後進 諸國이 第2次大戰의 終結이라는 世界史的 區劃으로 解放, 獨立되자 後進民族主義는 「單純性 獨立志向」에서 「多樣的

의 自己實現」을 內面的으로 志向하고 있는바 그것이 곧 「祖國의 近代化」와 「世界史 속의 自由實現」인 것이다. 後進國에 있어서 「近代化作業」은 韓國을 빼놓고서는 舉 皆 獨立直後부터 着手되었다. 即 1948년부터 始作된 「버마」의 「피다우다」計劃, 印度의 5개년計劃, 印尼, 「필리핀」의 經濟開發政策 등은 「自國의 社會經濟的 近代化」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發展政策의 集約的 表現이었고 그 基底에는 恒常 그들의 「내셔널리즘」이 흐르고 있었으며 또 根底하고 있었다. 韓國은 그동안 特殊事情(6·25)과 舊政治人들의 政治鈍覺으로 因해 他 後進國보다 約 10年 間 뒤늦게 出發하여 5·16以後부터 「近代化」로 當面 國家目標로 設定되어 追求되고 있다. 後進 「내셔널리즘」의 外面的 志向은 國際政治環境에서의 自己實現이다. 「베루」 「넛세르」 領導下的 中立主義는 그 本質에 있어서 이러한 後進民族主義가 根底하고 있었으며 「O·A·U」나 「콜롬보」圈 形成이나 韓國의 主導하고 있는 ASPAC 亦是 그 本質은 國際政治社會에 있어서의 自己實現을 志向하는 後進民族主義의 外面的 表現인 것이며 이는 1964년부터 「南北問題」까지 擴大되고 있다. 後進民族主義의 內面的 志向인 「近代化」는 後進國의 共通의 政治問題이며 當面 國家目標이다. 이 課業은 全民族의 次元에서 定立되었고 또 追求되고 있다. 이 近代化課

業은 決코 어는 特殊集團의 獨占物일 수 없었다. 그러나 國內社會를 構成하는 諸集團과 階層의 參與度를 比較하면 「軍」은 斷然 그 先導의 役割을 하고 있음에 異見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家社會를 構成하는 政黨、社會團體、官僚集團、言論機關、經濟人、教育界 등과 軍을 比較하여 그 어느 層과 集團이 近代化되었고 또한 「國家近代化」의 模型的 役割과 動力的 役割을 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가 곧 主題이기도 하다. 後進社會에 있어서 政黨、社會團體는 民主主義의 過剩自由와 不成熟한 政治風土 속에서 權力鬭爭과 利益配分競爭에 타락한 나머지 全國民의 大衆 政黨이나 社會團體라기보다 特殊指導者를 頂上으로 하는 派黨 또는 徒黨化하여 後進國民民主政治에 危機를 招來하였음을 보았다. 即、後進國 民主政治의 危機下에 나타난 1958년부터 지난 10年間的 軍事革命의 連發은 單純히 「軍人의 執權慾」이 造出한 「구테타」만은 아니었다. 同時에 後進社會에 있어서 官僚集團은 國民의 公僕이 아니라, 「支配者」로 타락하여 官權의 橫暴 속에 官尊民卑의 前近代의 風潮가 橫行하고 있음이 一般의 現象이다. 其外 經濟人들 의 謀利的、高行的、買辦資本化 및 非生產的 營利追求는 結果에 있어서 國民生活에 赤信號를 가져 왔고 「메스킴」의 自由化、教育의 肥大는 健全한 社會發展을 沮害한 點 도 적지않다. 다시 말하면 後進社會에 있어서 「近代化」의

模型과 動力이 될 수 있는 어떤 集團이나 階層이 없었던 것이 事實이며 오직 「軍」만은 그 例外일 수 있는 榮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近代化」의 模型으로서의 軍隊와 그 役割

그러면 왜 「軍隊」가 近代化의 模型이 되었으며 動力의 役割을 해 왔는가? 後進國 軍隊의 成長史는 그 政治經驗의 多樣性을 集約적으로 反映하고 있다. 即、印度나 「파키스탄」軍隊는 舊英印軍을 母體로 하여 英國의 軍事傾向에 依해서 成長했으며 韓國이나 「필리핀」 등은 美國의 反共 戰略上の 所要 同盟國을 設定하여 美國의 支援下에 成長하였다. 反面 「인도네시아」軍隊나 「이집트」軍隊는 混成 自立的으로 成長하기도 했다. 即、「인도네시아」軍은 舊 蘭印軍、舊日本軍、獨立軍이 混成되어 自立的으로 發展되었고 「UAR」은 그 王政軍 舊 아랍 軍團、英國軍들이 混成되었다. 獨立後 20年未滿의 짧은 歷史를 갖는 後進國 軍隊는 그 成長率과 幅은 先進國을 능가할 만큼 飛躍적이었으며 그것이 곧 「近代化」의 「모델」이 될 수 있는 素地인 것이다. 後進國 軍隊는 先進同盟國의 指導下에 「近代

化」의 精粹를 集約한 集團이다。即、編成、訓練、統帥系統、武器科學과 管理補給 및 士氣操作 등 軍隊運營의 諸敎理와 原則 및 그 經驗은 「後進國 近代化」가 必要로 하는 模型的 要因을 「커버」하고 있으며 이는 自然發展努力에 依해서 더욱 더 消化、發展되었다。

後進國 軍隊가 創設되었을 때 軍隊의 運營은 共通的으로 無經驗狀態이거나 또는 下級部隊의 運營經驗밖에 없었다。그러나 後進國 軍隊의 基幹要員들은 先進國 軍隊의 敎範、運營、管理要領、訓練方法 및 教育制度를 模倣、實施하였고 이는 經驗的 事實의 反復에 따라서 漸次自國의 인 것으로 消化되고 體質化되는 發展을 볼 수 있었다。그리하여 大體로 後進國 軍隊는 10年間의 自立發展期를 가졌던바 그 時期가 1958年~63년까지 約5年間이 後進國 軍隊 成長의 10년에 해당된다。後進國에 있어서 軍이 國家發展에 寄與한 方途는 各國의 政治環境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類型的으로 分類한다면 直接的 方途와 間接的 方途로 나누어진다。前者는 國家權力의 直接的 掌握乃至 國內政治에 「壓力團體」的 役割에 依한 貢獻이고 後者는 軍이 스스로 發展시킨 近代的 要素를 社會制度化하고 軍의 運營과 그 派生事項이 國家 近代化에 寄與한 點을 말한다。

後進國 軍事革命의 要因은 職業的 政治家에 依해서 專

斷되어 온 國內政治가 國家發展을 阻害하고 國民의 政治的 要求와 相馳될 때 發生한다。換言하면 國內政治의 不安과 政治變動 波長의 長期化、經濟不安、民族社會의 分裂의 動向 등이 政治現象이나 社會風潮의 一般化를 이룰 때 軍事革命은 發生하는 것이다。後進社會에 있어서 軍은 가장 組織化되고 訓練되며、또 集團의 發展을 스스로 經驗하여 온 特殊集團이다。軍의 本來的 使命은 國民의 委任에 依해서 國家를 防衛하는 데 있지만 特히 後進社會에 있어서 職業的 政治家들의 政治樣式과 行動이 「國家」를 危機化할 때 軍의 役割은 不可避하다。後進社會에 있어서 軍이 革命勢力化하는 理由는 ① 軍統帥系統上 文官優越의 原則이 確立되어 있지 못하며 ② 軍의 特殊性格 即、國家의 忠誠과 愛國의 理念이 國家主義的 志向을 낳아 政治權力의 次元에까지 비약하며 ③ 어느 集團、團體、階層보다 「구루센」土耳其革命、61~63년까지의 韓國、越南、「알제리아」革命 등은 軍이 政權掌握을 通하여 國家近代化의 先導的 役割을 擔當하고 또 이를 發展시킨 證據이다。軍은 그 自體特殊集團이며 그 使命이 分明하고 따라서 軍은 高度의 組織과 指揮系統에 依해서 運營되고 또 20代~40代에 이르는 活動性 要員을 保有하고 있다。이 活動性

要員은 「軍」이라는 特殊社會에 服務함에 있어서 本人의 自意나 希望과는 並行, 一致 또는 一致하는 三曲線을 펴면 서 軍이 要求하는 服務節次에 服從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要員이 軍隊社會에서 벗어날 때에는 軍人이라기보다 하나의 特殊技術者로서 나타나며 이것이 國家社會에 있어서 技術的 役割을 擔當하게 된다. 即, 兵站, 輸送, 軍需, 步兵, 機甲, 醫務, 通信 등 諸兵科로부터 海空軍에 이르기까지 軍人은 高度로 訓練되고 熟練된 技能者이며 따라서 軍은 國家近代化의 技術者들이다. 軍은 自體의 教育制度를 活用하여 不斷히 向上發展하고 아울러 軍指揮官들의 參謀機能, 指揮機能 등은 經營管理者의 素養을 保유케 하며 이들은 社會進出後 곧 近代의 經營管理의 主導者가 된다. 其外 特히 海空軍은 後進國의 海運發展이나 航空發展의 原動力이며 이들을 排除하고서는 後進國의 海空運을 論할 수 없다. 郷土師團은 農業의 近代化를 가져오는 學校며 實驗場이 되어 있고 自動車 運轉手와 「트럭더」 運轉은 舉皆 輸送兵 出身에 依해서 充當된다. 이와 같이 軍이 輩出하는 自立的 作用에 依한 技能者, 管理者, 行政家 또는 指揮家들은 國內社會의 多元的 諸分野에서 中堅的 役割을 하게 되고 그들이 國家的 忠誠心과 愛國心을 그 職業과 結付하여 發揮할 때 多元的 近代化를 通한 國家發展은 比약의 인 것이다. 우리는 그 實例를 韓越, 土耳

其, 「버마」, 「인도네시아」 또는 「이집트」나 「알제리아」에서 보고 있으며 그것은 곧 軍의 國家近代化의 原動力이라는 結論이 된다.

結 尾

後進國에 있어서 軍의 役割에 對한 著作이나 論評에는 角度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共通的 結論은 近代化의 源泉的 動力이라는 點일 것이다. 軍事政權의 政治行爲에 對해서는 그 功過에 對한 價値評價에 異論이 있을 수 있겠지만 後者, 即 近代化의 役軍이며 先導的 役割에 對해서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注意를 喚起한다면 「軍人」이나 또는 「軍」이 社會參與를 하거나 國家權의 次元에 섰을 때에 軍의 全體主義的 思考方式이 國家主義化를 招來한다면 이는 그 功을 抹殺할 可能性이 많다. 우리는 그 先例를 舊日, 獨, 伊에서 보았다. 軍이 社會參與를 하여 不正勢力으로 타락하고 參與軍人(現役, 豫備役을 莫論하고)이 腐敗한다면 國家의 方向은 混沌되고 國民은 依支할 곳이 없게 된다. 故로 軍人이 스스로 지켜야 할 鐵則인 「國家的 忠誠心」과 「奉仕」는 清廉할 때 빛나는 것이다.



五
聯
篇

戰後共產主義

侵
略
史

五聯篇
中
北

黃

載

善

△國際問題研究所▽

目次

- 1、國際共產主義運動과 소련의 對
外政策과의 關聯性
- 2、「스탈린」의 赤化戰略
- 3、「호르시호프」의 平和共存
- 4、「브레즈네프」·「코시킨」 新政權의
外交路線

- 1、國際共產主義運動과 소
련의 對外政策과의 關聯性

國際共產主義運動이 存在하지 않는다면 소련의 對外政策은 自由世界列強의 對外政策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國際共產主義運動 때문에 소련은

自由友邦國에 比하여 對外政策을 有利하게 展開할 수 있다。一國의 對外政策 遂行을 保障하는 힘은 主로 그 나라의 軍事力과 經濟力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軍事力이 強力할수록 對外政策의 遂行이 容易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또한 原料、製品、技術 등의 輸出에 의하여 他國에 미치는 影響力、即 經濟力이 크면 클수록 對外政策을 推進하는 힘이 더욱 有效해진다는 데도 異議가 없을 것이다。

美國은 소련을 制壓할 수 있는 經濟力과 軍事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美소 外交戰에 있어서 소련을 壓倒하고 있지만, 때로는 소련의 對外政策에 試鍊을 겪는 수도 없지 않다. 이것은 소련이 國際共產主義 運動을 利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國際共產主義 運動은 不可分の 存在이다. 이리하여 國際共產主義 運動과 소련軍은 恒常 소련 外務省과 完全히 三位一體化되어 있다. 三者가 渾然一體화된 힘은 力學的으로 上昇의 効果를 그 實體以上으로 發揮하게 된다. 이러한 힘은 소련共產黨中央委 政治局 幹部에 依하여 自由로이 一元的으로 運用되고 있다. 軍事와 外交의 一致는 自由友邦國에 있어서 常時 나타나는 것이므로 珍奇한 것이 아니지만 소련 外交와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一致는 留意해야 할 點이 있다。

世界各國의 共產黨과 그 同調團體 그리고 世界平和評議會、世界勞動組織聯盟、世界民主青年聯盟、國際學生同盟 등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戰線機構의 主張과 宣傳이 소련의 外交活動에서도 適時的으로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兩者間에는 恒常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소련政府는 國際共產主義 運動과는 一切 無關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一例를 들면, 美國은 10月 革命後 16年 동안 소련을 承認하지 않다가 소련이 美國의 現政治體制를 轉覆하려는 어떠한 活動도 美國內에서 하지 않는다는 條件下에서 1933年 11月에 大使를 交換하였다. 그러나 1935年 「모스크바」의 「코민테른」大會는 소련共產黨의 指導下에서 上記約束을 어기고 美國을 辛辣하게 攻擊할 뿐만 아니라 以前부터도 美國의 赤化工作을 擔當한 共產分子를 連이어 派美시킨 일이 있다. 이에 對해 美國은 소련 政府에 抗議했으나 소련은 「코민테른」의 活動에 關한 아무런 責任도 없다고 一蹴해 버렸던 것이다. 이와같이 소련은 國際共產主義 運動을 戰術的으로 對外政策의 方便으로서 巧妙하게 利用하고 있다. 소련의 對外政策은 國際共產主義 運動과 軍事力과 더불어 完全히 一元化되어 있기 때문에 強力하게 展開할 수 있으며, 特히 國際共產主義 運動은 소련의 對外政策 遂行에 가장 寄與한 바가 컸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소련의 對外政策과

國際共產主義運動과의 緊密한 關聯性을 通하여 소련의 世界赤化企圖와 勢力膨脹計劃이 對外政策에 集約되어 있으므로 소련의 對外政策을 通한 侵略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탈린」의 赤化戰略

「스탈린」은 第2次大戰以後 소련이 戰爭中에 遂行한 業績을 利用하여 領土를 擴大하면서 소련에 依存하는 領域을 넓히고, 또한 全世界 共產黨의 實力和 影響력을 增強시키기 爲하여 侵略政策을 活潑하게 展開하였다. 當初 「스탈린」은 소련 周邊에 國家群으로 이루어진 防衛帶 形成을 目標로 한 戰略과 소련 支配圈 밖의 國家에 있어서 現地民族主義者들의 勢力和 野合하는 戰略을 樹立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소련의 軍事占領下에 있던 東歐에서 는 소련에 屈服하는 共產黨政府가 1944년부터 48年間에 樹立되었으며 이들 衛屋諸國은 事實上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소련의 中核地帶의 一個 構成體로 되었다. 한편 「스탈린」은 소련에 隣接한 他國의 一部領域을 勢力膨脹을 爲한 豫定地로 選定하여 現地共產黨의 支配력을 強化하고 戰略的 基地를 建設함으로써 그 領域을 母國으로 부터 分離시킬 뿐만 아니라 將次 새로운 勢力擴大를 爲한 橋頭堡로 삼으려고 하였다.

1948年 2월에 이르러 共產黨에 依한 「체코」의 「쿠데타」가 前 「체코」駐在 소련 大使였던 「조린」에 依하여 直接 調整되어 成功하게 된 時期를 頂點으로 上昇期에 있던 「스탈린」의 戰略은 漸次 下降狀態로 기울어지기 始作했다. 1947年 3月 土耳其와 「그라이스」에 對한 反소 軍事力의 強化를 目的으로 한 援助와 1948年 「마야살」計劃의 成立以後 北太平洋 條約, 歐洲防衛共同體 등 소련을 對象으로 한 自由世界의 集團安保體制가 美國을 中心으로 整備되어 간에 따라 소련의 對外政策과 國際共產主義 運動은 暗礁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事態에 對處하기 爲하여 소련은 從前의 戰術을 變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소련은 西歐에서 遂行해 오던 從來의 攻勢戰術로부터 防衛戰術로 後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防衛戰術에의 後退가 西歐側에 全面的으로 「이니셔티브」를 넘겨 주었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소련은 防衛를 爲한 最善의 方法이 攻擊이라는 것도 知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西歐에 對한 退潮期의 攻擊手段으로서 「平和擁護鬭爭」을 採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平和擁護鬭爭은 소련이 日本과 獨逸에 依한 軍事攻擊의 危險을 느끼기 始作한 1935年에 「코민테른」大會에서 出產된 것이지만 第2次大戰後 美國으로부터 攻擊의 危險을 느끼게 되었다

시採用하게 된다는 것이다. 卽軍事的으로나 經濟的인劣勢로 退潮期에 접어들었지만 소련은 一方으로는 「民族獨立」과 他方으로는 「帝國主義戰爭 反對, 平和擁護」라는 「슬로진」으로 不斷하게 政治的 攻勢를 世界全非共產國家를 對象으로 展開하였다.

이러한 民族獨立과 平和擁護라는 2個의 「슬로진」은 共히 共產圈外 諸國家의 國內的 또는 國際的으로 國家間的 離間으로 分裂 및 對立시키려는데 그 底意가 있었다. 그리하여 諸共產勢力은 國內外的 分裂에 依한 國民의 不滿에 便乘하여 歐美自由諸國의 軍備增強이 소련을 目標로 하는 帝國主義 戰爭準備라고 宣傳하고 軍備의 直接的 責任者인 政府와 厭戰思想에 젖은 國民間에 衝突을 激化시키고자 企圖하였다.

이러한 方法으로 亞阿地域에 殘留하고 있는 西歐列強의 植民地와 從屬國家의 民衆에 對해서는 오래 前부터 내려온 西歐支配者에 對한 民族의 反感을 利用하여 民族主義를 鼓吹시키고 支配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現地 總督이나 政府와 民衆間的 離間에 힘을 기울였다. 以外에도 大戰後 特徵의인點은 英·佛·獨·伊 등 自由陣營 列強의 國民에 對하여 「美國으로부터의 獨立」을 使喚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對小安全保障을 爲한 美軍의 駐留로 因하여 共產勢力 膨脹에 障得가 되고 있기 때문에 現地 諸國民의

不滿을 造成하여 美國과 協助하는 諸國政府와 이들과의 對立을 促進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특히 亞阿地域의 新生 後進諸國에 있어서 政府와 國民間 對立이 造成되면 國內는 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도 混亂을 招來함은 勿論이며 이로 因하여 國力이 弱화되어 失業者와 貧困者가 增加함에 따라 革命에의 氣運을 高調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스탈린」은 國內的 離間 뿐만 아니라 國家間的 離間, 卽 新生 後進諸國과 西歐先進諸國 그리고 美國과 自由友邦 諸國間的 離間을 劃策해 왔다.

上述한 바와같이 「스탈린」은 소련의 安全保障이란 口實과 世界赤化라는 共產主義의 窮極의 目的을 達成하기爲하여 大戰以後 軍事的 侵略, 破壞活動, 힘에 依한 威脅과 脅迫, 防衛戰術, 民族獨立 및 平和擁護 등 侵略的인 對外政策을 遂行했던 것이다.

3, 「호르시초프」의 平和共存

「스탈린」死後 소련 政治에는 一大變化가 일어났다. 國內의 緩和政策을 背景으로 對外政策에서도 陰險하고 冷酷한 「스탈린」的 外交로부터 會談을 通한 外交, 卽 妥協外 交로 轉換을 가져왔다. 그러나 國際共產主義 運動面에서

反帝國爭과 方法上 柔軟性을 띠고 있으나 世界赤化를 爲한 共產勢力 膨脹 陰謀는 別般 變化된 바 없다.

그런데 同時期를 前後하여 世界, 特히 歐洲에는 冷戰에 지쳐 東西交涉을 促求하는 世論이 나타나고 漸次 亞阿圖의 國際問題에 對한 發言權이 強化되고, 또한 世界平和에의 運動이 하나의 政治的 勢力으로까지 成長하게 되자 「호르시초프」는 이러한 國際的 雰圍氣를 敏感하게 捕捉하여 平和共存을 提唱하였다.

「호르시초프」는 1956年 2月 소련 共產黨第22次大會에서 國際情勢를 分析하고 資本主義體制의 矛盾激化, 勞動者 階級의 鬪爭의 尖銳化, 世界社會主義 體制의 存在와 그 影響力의 增大, 平和擁護運動의 擴大와 政治勢力化, 植民地體制 崩壞過程의 遂行 등을 指摘하면서 國際的 힘의 相對關係가 變化됐기 때문에 兩體制의 平和共存, 戰爭防止, 平和革命은 可能하다고 結論을 내렸다. 同理論의 當否는 別問題로 하고 그 分析和 結論은 「호르시초프」外 外政策의 理論的 基礎가 되었다.

그後 2次에 걸친 黨大會에서 理論的 基礎를 發展시켜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는 三段階에 들어섰으며 世界帝國主義 體制는 深刻한 矛盾에 依하여 分裂되고 있다. 世界社會主義 體制는 確立되고 今日 世界發展의 主要한 方向을 決定하는 것은 社會主義이다. 民族解放運動의 強打

로 植民地 體制는 事實上 崩壞되었다」고 修正하였다.

이러한 平和共存은 「호르시초프」가 創案한 것은 아니다. 革命의 물결은 退潮하여 革命에 依해 既得한 成果를 維持 防衛하는 것이 當面의 主要課題로 되고 있는 情勢下에서 共產主義者들이 이러한 常套의 인 戰術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호르시초프」보다 以前의 소련 執權層의 어느 누구도 平和共存을 強力히 主唱한 者는 없다. 그는 平和共存의 原則下에서 平和的 經濟競爭에 依하여 社會主義가 資本主義를 勝利하는데 있다고 하고, 따라서 社會主義 勝利를 爲해서는 戰爭을 必要로 하지않고 必要한 것은 오직 平和共存이라고 하였다.

그後 「쿠바」事件을 契機로 「호르시초프」는 漸漸 美소 關係 改善에 性急하게 沒頭하고 1963年에는 部分核 停止條約의 締結, 美소 直通通信線 設置協定, 領事協定の 締結 등 急速한 接近이 이루어졌다. 反面 소련의 民族解放鬪爭 支援態勢도 消極的으로 變하였다.

이 때문에 中소 關係는 對立狀態로 激化되었으며 北傀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非友好的 相互 非難으로까지 번졌다.

上述한 바와같이 「호르시초프」의 平和共存은 「이데올로기」상의 共存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戰爭을 通한 世界征服의 野慾을 버리고 있을 뿐 窮極의 目標로서 資本

主義 打倒와 世界赤化에는 變함이 없다는데 留意해야 할 것이다.

對西歐關係에 있어서 「호루시초프」는 歐洲安全保障問題、獨逸問題 등을 中心으로 外交戰을 벌였다. 한편 소련이 希望하는 東獨의 承認、西「베를린」의 獨立된 政治的 地位의 確認을 前提로 한 歐洲의 現狀維持政策을 遂行하였다. 그리고 「드골」의 歐洲主義를 支持하면서 NATO의 瓦解와 西獨의 核保有 沮止 및 美國의 西歐에서의 影響力 排除를 爲한 一貫된 政策을 遂行했으며, 西獨을 除外한 西歐諸國과 漸次 關係를 改善해 갔다.

소련의 對亞阿關係에서 非同盟政策을 取하고 있는 이들 諸國의 協助을 얻기 爲하여 이미 確立된 政治秩序에 混亂을 일으키는 破壞活動 등을 避하면서 經濟·軍事·技術援助나 文化交流를 通하여 友好關係를 維持하고 西方과 中共 勢力에 對抗하여 소련의 影響力을 浸透시키고자 企圖했다. 「스탈린」時代에는 植民地에 있어서의 非共產民族運動을 非難하고 同運動의 指導者들을 「帝國主義者들의 앞잡이」라는 낙인을 찍은바 있는데 「호루시초프」는 이 指導者들을 「모스크바」와 緊密한 連絡을 맺도록 說得工作을 벌였다. 그리고 宣傳機關도 이들 「民族 부르조아」들을 進歩的 「그루우프」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호루시초프」는 對亞阿政策에 있어서 新政權과 같이 積極의 이고 多角的의 로

外交를 벌이지 않았다. 이와같이 소련의 對亞阿政策에 있어서 若干 發展의 인 變化는 現地 急進派의 退潮에 依해서 前보다 柔軟性을 띠기 始作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4. 「브레즈네프」·「코지긴」 新政權의 外交路線

「브레즈네프」·「코지긴」 新政權은 第22와 23次黨大會에서 決定된 外交路線을 踏襲한다고 宣言하였다. 1965年 9月 共產黨中央委 總會에서 「브레즈네프」演說基調는 ① 社會主義 陣營의 強化、② 民族解放鬪爭의 支持、③ 平和 共存이라고 要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호루시초프」 外交方針과 本質的으로 變化하지 않았음이 明白하기 때문에 「호루시초프」 없는 「호루시초프」路線이라고 中共이 非難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호루시초프」 外交가 平和 共存을 美소 共存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中소 對立을 誘發시켜 中소의 國家的 利害衝突에까지 擴大되었으며 이 機會를 利用한 美國의 「힘의 反共政策」 앞에서 美소 協助는 도리어 破産되기에 이르렀다는 評價下에 소련 新政權은 社會主義 陣營의 強化、民族解放鬪爭의 支持、平和 共存 등 세 가지 政策을 均衡 있게 調整해나가고 있다. 平和 共存의 本質에 對한 評價가 變化되고 있다는 證據를 들면(우

리는 우리의 外交를 積極的이고 攻勢的으로 展開하고자 努力하는 同時에 柔軟性과 慎重性を 發揮하고자 努力하고 있다」고 「브레즈네프」가 宣言한바 있다.

其後 1965年 10月 4日에는 第7次 「코민테른」 大會 30周年記念式典에서 行한 「스슬로프」 演說 및 宣傳物에서 反 「과시즘」 人民統一戰線의 現代的 意義를 強調하고 「베트남」 戰爭을 둘러싼 美國의 「帝國主義的 行動」에 對하여 廣範한 平和勢力의 統一戰線의 必要性을 블러 일으킨 것이 特徵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平和統一戰線의 呼訴를 利用하여 소련 指導部는 亞阿諸國에 浸透하기 始作했다. 「나세르」 大統領의 訪索에 依해 第2次 亞阿會議에 參加支持를 얻은 直後에 發生한 印度·파키스탄 紛爭, 印尼內紛, 더우기 「알제리아」의 「쿠데타」에 잇따라 情勢가 流動的임에도 不拘하고 소련 外交의 柔軟性を 發揮할 機會를 얻었던 것이다. 한편 中共의 印度에 對한 武力行爲나 印尼內紛에 對한 介入의 態度가 亞阿地域의 民族主義 政權 首腦에게 危懼를 자아내게 한 反面, 이와는 對照的으로 소련은 「印度·파키스탄 紛爭」을 平和的 解決에 呼訴하고 中立을 維持했으며 印尼內紛에서도 慎重한 態度를 보였다. 이러한 소련의 態度는 「알제리아」의 「부메후리카」 外相이 「소련의 第2次 亞阿會議 參加를 大多數가 支持하였다」라는 特別聲明을 發表한

動機가 되었다.

新政權은 「호루시 초프」와는 달리 64年末부터 亞阿會議 參加를 爲해 積極的인 說得工作을 展開했으며 參加目的은 亞阿地域의 民族解放運動을 舞臺로 人民戰線에서 소련의 主導權을 確立하여 中共을 孤立化시키고 共產陣營 內部에 堅固한 權威를 確立하려는 데 있으며 또한 非同盟諸國이나 亞阿各國家を 幅넓게 包攝하여 이를 背景으로 새로운 外交戰을 展開하고 이들에 對한 影響力을 增大시키면서 共產勢力 浸透, 交易擴大 등 國家의 利益을 圖謀하려는 데도 있었던 것이다.

民族解放鬪爭 支援에 積極的 態度를 보이고 있는 新政權은 65年 1月 22日 「몽고」 問題에 對하여 「몽고」에 對한 干涉者의 行動을 斷乎히 非難하고 反徒들을 熱烈히 支持한다는 聲明을 發表하면서 이들에게 秘密裡 武器를 援助하는 등 強力한 支援을 하였다. 또한 「베트남」 問題에 對해서도 對越支援에 活氣를 띠기 始作했다.

그러나 新政權이 民族解放鬪爭을 積極化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限度가 있다. 即 民族解放鬪爭의 支援은 本來 平和 共存과는 矛盾된 것으로 兩者의 矛盾은 「平和의 確保」라는 소련 外交政策의 基本目的에 依해 解決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民族解放鬪爭의 積極的 支援으로 世界大戰化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호루시 초프」가 「局地鬪爭은 容易

黑人 養子 삼켰다

★ 리즈, 阿洲에 魅惑

11일 생전 처음으로 『검은대륙』 아프리카 땅을 다닌 엘리자베드 베일리양은 환경과 사람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므로 토인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고 말하여 화제. 그러나 그녀의 남편 리처드 버튼은 달갑지 않은 표정.

남편情婦 發砲權

★ 텍사스 婦人들에

텍사스주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이 정부와 간통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정부에게 총질할 수 있는 권리를 곧 가지게 될 것 같다. 현재 텍사스주에서는 남편이 자기부인의 정부에게 총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게 全面戰爭으로 發展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를 防止하는데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強調하고 있으나 소련의 現政權은 現在 「베트남」 戰爭과 같이 全面戰爭으로 發展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局地戰爭의 存在를 認定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全面戰爭」으로 發展하지 않는 範圍」라는 問題의 限界性이 模糊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限界性의 設定은 主觀的 見解에서 導出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소련 新政權이 外交政策의 基調로 삼고 있는 3

個 原則의 矛盾點을 살펴보자. 첫째 平和共存政策은 소련의 眞正한 平和欲求라기보다도 多元化되어 가고 있는 現下 國際情勢에서 現狀維持를 摸索하면서 國內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取하고 있는 不得已한 路線이다. 둘째 民族解放 鬪爭의 支援問題는 소련의 平和共存路線과 兩立할 수 없는 政策이다. 世界各地에서 繼續해서 紛爭을 造成 및 煽動하면서 그것을 民族解放鬪爭 運動이라 稱하고 對自由 圈에 抗爭을 促進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면 自己犧牲을 내지 않고 世界赤化를 期한다는 國際共產主義 侵略의 具體的 戰術임을 말하는 것이다. 現實적으로 소련은 平和共存路線과 民族解放鬪爭 運動에 支援原則을 兩立시키면서 外交를 推進하고 있다. 이것이 곧 소련 外交의 「딜레마」를 意味한다. 세계 世界社會主義 體制의 強化는 소련이 「바르샤바」條約構構, 「코메콘」 등 「메카니즘」을 通하여 親善과 團結을 強化하고 있지만 近來 共產衛星國들의 그들이 追求하는 自由的 路線으로 커다란 難關에 부닥치고 있다. 이를 克服하기 위하여 西獨의 核武裝과 美國의 所謂 「侵略的 行爲」 등을 誇大評價하여 被侵略經驗 衛星國의 離脫을 沮止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言及한 諸原則이 소련 外交政策의 骨幹을 이루고 있는데 소련은 矛盾性을 克服해 가면서 有効適切히 世界赤化를 계속해서 推進하려 할 것이다.

中共篇

禹

載

潤

△國際問題研究所▽

「主戰場」地帶를 中心으로



目次

- 1、序言
- 2、國·共內戰 最後의 時期
- 3、世界革命의 戰略戰術
- 4、中共의 問題들

1、序言

비록 限定된 紙面이긴 하나 本稿의 目的은 現代史에서 中共政權이 차지하는 歷史的 地位의 評價에 基礎하여 이른바 그들의 革命理論이 어떠한 形態로 世界赤化戰略戰術에 適用되고 있는가에 對한 解答을 試圖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1949年 中共이 大陸으로부터 國府政權을 몰아내

는데 意外로 빨리 成功한 後、中國 全域에 獨裁的 支配權을 確立하고 잇달아 韓國에 對한 侵略戰爭(1950)을 敢行하였을 때까지 만 해도 至極히 消極的인 對中共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美國이 그 후 17年을 經過한 오늘날에는 絶對積極的의 主敵으로서 中共과 對峙하였다는 歷史的現實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局面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代의 性格은 가장 많은 危機의 飽和點들과 人類共生의 原則들이 到着되어 잇는 問題壁으로 連結되어 있다고 認識되고 있다. 이와 같은 極限狀況에서 우리 世代가 하여야 할 作業은 無限不可定의 範疇에 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自己座標의 確立과 周邊情勢의 正確한 把持가 急先務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歷史認識과 時代的 要請을 바탕으로 項目을 달리 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威脅的 存在인 中共의 侵略的 行蹟을 살

더보기로 한다.

2、國·共 內戰 最後의 時期

(1945~1949)

中國 共產黨은 第3次 國·共 內戰의 時期를 「第3次 國內 革命戰爭」이라고 부르고 있다. 胡喬木(註1)에 依하면 「抗 日戰爭中에 國民黨 反動派들은 抗日에는 消極的이었고, 反共에는 積極的으로 나와, 共產黨을 弱化시켰다. 따라서 自體(國民黨)力量은 保存蓄積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帝國主義 日本을 相對로 救國戰爭을 獨力으로 遂行한 것처럼 假裝하려는 巧妙한 捏造라 說할 수 없다.

國民黨 政府가 第2次 世界大戰中 聯合國의 有力한 멤버의 一員으로서 中國 4億人民을 効果的으로 動員하여 日 帝侵略者와 맞서 大陸 全體를 내걸고 피나는 鬪爭을 展開 하였다는 事實은 우리 모두가 歷史的 事實로서 熟知하고 있는 것들이다. 抗日戰爭이 開始되기 直前 延安에 물려 있던 共產黨의 實勢는 6次에 及한 國民政府討伐에 依하여 겨우 幾萬의 勞農紅軍밖에 없는 極히 微微한 存在이었다. 그들은 國民政府와 日本과의 平和的 接近을 攪亂하면서 國民의 反日感情을 煽動하여 이른바 抗日國·共合作을 實現시키므로써 共產黨의 完全消滅을 防止하는 同時 國民政

府로 하여금 日帝侵略에 對한 消耗兵團이 되게끔 強要하였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事實인 것이다. 이 事實을 立證해 주는데 充分한 證言을 우리들은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들어보기도 한다. 그는 「우리는 現在 右派를 必要로 한다. 右派는 軍隊를 指揮할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反帝 鬪爭에 有爲한 人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註2)

以上과 같은 相互不相容의 背景을 바탕으로 한 國府中 共兩勢力은 1945年 日本의 降복으로 「戰爭空間」이 생기자 各種 交涉과 調整(註3)이 表面上으로는 活潑하였으나 成果를 거둘리 萬無하였다. 곧 中原의 爭權時期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中共은 「第3次 國內革命戰爭」이란 그럴 듯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들은 이 戰爭에서 勝利할 수 있었던 것인가? 먼 저 그들의 文獻에서 當時의 軍事的 方針을 살펴본 후 國民政府의 敗因을 列擧해 보기도 하겠다.

첫째 毛澤東은 政治的으로 大衆獲得에 成功하였다. 따라서 全勞農軍에게 武裝시켜 「人民戰爭」에 効果的으로 動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軍事的으로도 着實한 兵法에 根據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얼마전의 越盟國防相 「보·구엔·잠」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確實한 勝算이 없는 鬪爭은 避하라, 그러나 勝算이 確實하거나 主力을 다 해서 처라」란 말의 根源도 實相은 毛澤東의 30年代 軍事

論文 여러 가지에 散在해 있는 말에 不過한 것이다. 그는 國府軍의 攻擊에 對備한 戰略으로서 都市의 守備隊를 孤立시키며 長期間 包圍하여 戰意를 喪失시키며 政府를 背信케 함으로써 全體的인 戰力에 打擊을 주는 것을 目標로 하면서 어떤 戰鬪를 當해서도 充分히 準備하며 確信을 가지고 「敵의 戰力」의 數倍에 達하는 絕對優勢의 兵力을 集中하여 敵을 包圍, 全滅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準備없고 不確實한 싸움은 避하여야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Hit-and-run」의 「Guerrilla」 原則을 實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웅산이 戰爭은 1948年 9月부터 11月까지가 絶頂期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期間에 힘의 均衡은 激變하여 260萬(中共 110萬)이던 政府軍의 數는 140萬으로 減少하고 있었다. 이와 反對로 中共軍은 160萬 以上으로 增加되었는데, 그 大部分은 政府軍의 投降者들이며 美製武器로 古스란히 武裝된 것이었다. 紙面關係上 具體的인 資料는 이 以上 列舉할 수 없으나 政府軍은 한 번의 正規 大規模 作戰도 當해본 일 없이 後退에 後退을 거듭한 끝에 中國大陸과 海南島를 完全히 中共에 넘겨주고 말았다(1950.5).

여기서 우리는 國民政府軍의 敗因 몇 가지를 잠깐 들어 보아야겠다.

(1) 政治的으로 大衆獲得에 失敗하였다. 勿論 커다란

戰爭의 傷處를 온몸에 받은 위에 共產集團의 不斷한 擴張에 넘겨진 時間的 餘裕가 없었던 것도 事實이었으나, 彼 따른 革新作業에 根本策없이 右往左顧하는 가운데 無能腐敗分子들에 의한 弄奸 때문에 大衆의 徹底한 不信을 샀다. 따라서 國府政權에 幻滅을 느낀 知識人 또는 進歩的 思想家 및 作家 그리고 순진한 一部 政治人마저 共產黨에 加擔하게끔 만들었다(그러나 이들은 生理的으로 共產主義者가 될 수 없는 人間들이었다. 現在 中共內에서 갖은 苦痛과 賤待를 받고 있는 問題의 知識層 및 「右派機會主義者」 및 「修正主義作家」란 烙印을 찍히우고 있는 者들은 모두 가 이러한 部類에 屬하는 것이다).

(2) 蔣介石을 爲始하여 國民黨內 有力人士들은 共產黨에 對한 認識不足과 自己能力에 對한 過信을 갖고 있었다(註 4).

(3) 國民政府軍을 援助하여야 할 美國의 態度가 不確實하고 曖昧한데다, 戰後 美國 裝備의 集約的 支持가 缺如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重要敗因이 있겠으나, 모두 以上에 가지 原因에 歸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中共은 1949年 7月 1日에 毛澤東에 依하여 「人民民主專政制」가 宣言되었고 9月 27日에는 中共政權의 組織法이 施行되었다. 學者에 따라서는 國·共內戰에서의 毛澤東의 勝利

는 그가 1940년에著作한「新民主主義論」(註5)에 힘입은바 크다고 한다.

3、世界革命的戰略(主로)「主戰

場」地帶를 中心으로)

中共이 그들의 눈을 세계에 던져 그들 獨特한 革命思想을 輸出하려고 決心한 것은 韓戰(1950)에 不法侵入하여 美國과의 軍事的 對決에서 어느 程度의 自身을 認은데다, 戰爭中の 反美救國이란 愛國精神의 高揚을 通하여 初期 國家經濟建設(第1次 5個年計劃: 1953)을 無難히 完成하여 國內外體制를 比較的 安定된 바탕에 두기 始作할 때부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스탈린의 死亡(1953. 3. 5)에서 온 國際共產主義運動에 對한 中共側의 發言權 增大였다. 이것은 中共에게 매우 多幸스런 機會였을 뿐 아니라, 中共外交의 進路를 順調롭게 하려는 도와준 千載一遇였다고 하겠다.

1956年 2月の 蘇聯共產黨第20次大會 秘密會議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批判演說을 敢行하자, 全世界에 커다란 波紋을 일으켜 特別히 東歐諸國에서는 反共暴動이 頻繁하게 되어 社會主義 圈內에 도사리고 있는 矛盾을 明白히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中共은 이러한 世界的 反共

自由化 氣味를 제발리 看破하고 國內에서 民主諸黨派와의 「長期共存·相互監督」, 「百花齊放·百家爭鳴」(註6)이란 열핏 보아 民主主義의 슬로건으로 별다른 混亂없이 世紀的 反共熱을 일으키는데 中共만은 成功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對內的 矛盾을 克服한 中共의 國際的 地位가 顯著하게 높아졌고 따라서 獨自的 外交路線이 本格的으로 展開되기 始作한 것은 54年 4月の 韓戰問題 및 印支半島 問題를 討議한 제네바會議에서 名實共히 5大國의 一員으로서의 存在를 誇示한 때부터라 생각된다. 같은 時期에 「平和 5原則」을 提唱하여 中立非同盟諸國 및 社會制度가 相異한 國家群의 歡心을 사기도 하였다. 翌55年の 반동會議에서의 周恩來의 活躍은 亞洲問題에 있어서 括目할 만 한 것이었다. 이會議에서 周恩來는 臺灣問題를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할 用意가 있다고 發言함으로써 이를 契機로 와르샤와 美·中大使級會議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韓國動亂에서 美國과의 軍事的 經驗도 있는데다 國際的 地位가 갑자기 上昇됨에 따라 中共은 漸次 소련에 依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主導權을 否定하기에 이르렀으며 世界問題 特別히 後進諸國의 民族主義運動에 關한 自己類의 理論을 完成하는데 커다란 自信을 가지면서부터 主로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地域을 舞臺로 間接侵略에

狂奔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본項의 骨子が 되는 中共의 亞阿地域 間接侵略을 일일이 列擧하는 것을 피하고 뒷받침하는 中共의 獨特한 戰略理論인 中間地帶論을 紹介 批判함으로써 本稿의 主要結論으로 삼으려 한다.

이보다 앞서 中共의 對外的 成長과 때를 같이 하여 中共關係가 理念的 對決에서 國家的 抗爭期로 轉化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雙方의 意見對立은 56年의 소·共第20回大會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中共側이 本格的인 反擊을 피기始作한 것은 57年 11月の 모스크바에 서 있었던 「社會主義 12個國 會談」 때부터였다.

對立의 論點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찾을 수 있겠으나 그 根底에는 現段階의 世界情勢를 如何히 認識하는가의 問題, 卽時局觀의 差異인 것이다. 中共側은 「美帝國主義는 戰爭과 侵略의 主力이며 全世界人民의 主敵」이라고 首尾一貫主張하고 있으며 「美帝」와의 鬪爭이야말로 第1의 課題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第1中間地帶가 「美帝打倒」를 爲한 主戰場이라는 것이며 社會主義 諸國은 모름지기 그 鬪爭을 支援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은 最近의 林彪論文(1965, 9, 3) 「人民戰爭勝利萬歲」(註7)에도 強調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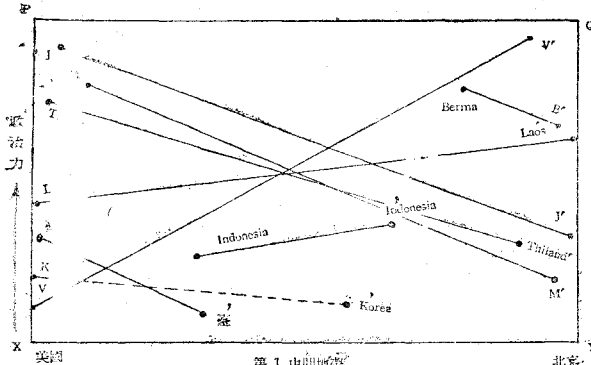
「中間地帶」란 國際的인 中間勢力을 意味하는 것으로 그

具體的인 內容에 關係서는 1964年 1月 21日 人民日報 社說, 「美帝國主義에 反對하는 모든 勢力은 團結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되어 있다.

「中間地帶에는 2個의 部分을 包含하고 있다. 하나는 亞阿 및 라틴·아메리카의 獨立 또는 獨立해 가고 있는 나라들이며 이것이 第1中間地帶이다. 또 다른 하나는 全體로서의 西歐, 大洋洲, 카나다 등의 資本主義 諸國을 말하는 데 이것이 第2中間地帶이다. 이 第2의 中間地帶에는 兩面性이 있다. 이들 國家들의 支配階級은 他人을 擄取壓迫하고 있으며 同時에 美國의 支配, 干涉을 받아 傀儡化되고 있다. 이들 國家들은 美國의 支配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 내려고 努力하고 있다. 이러한 面에서는 이들과 社會主義國 人民들과 共通點을 가지는 것이다. 美帝는 自己 스스로를 全世界의 敵對的 地位에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自己 스스로를 包圍의 한가운데에 던져 두게끔 만들고 있다.

한 마디로 要約하면 中共은 現代의 性格을 「帝國主義·新植民主主義」의 우두머리인 美國과 世界革命 人民들의 民族解放運動의 眞正한 支援者인 中共이 對峙하고 있다고 規定하면서 第1中間地帶(亞·阿·中南美 地域)를 反美統一戰線의 主戰場으로 設定한 後, 猛烈한 浸透工作을 벌여 「美帝」를 孤立消滅시킨다는 雄壯(?)한 戰略을 말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中間地帶戰略을 背景으로 中共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特히 아프리카에서 各種 新興勢力을 自己 周邊에 集結시키는데 飛躍的인 成果를 거두었음은 疑 리 알려진 事實이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革命組織과 過激한 既成價値觀의 否定等은 自覺하는 民族에게 魅力보다는 幻滅을 주게 되어 漸次한 고비를 넘어 萎縮되어 가고 있



第1 中間地帶

다. 그 具體的인 表現으로는 64, 65년에 걸쳐 일어났바 있는 아프리카의 가나, 다호메이 등이 中共과 斷交하였고 인도네시아의 9, 30事態는 急右旋回를 促進시켰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쿠바마저 中共의 革命陰謀에 影響을 느끼고 돌아섰고, 66年の 第2回 A會議의 無期延期等은 中間地帶戰略理論의 無用을 立證하였 다. 따라서 外交的인

로 말을 붙일 곳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는 中共의 將來는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매우 興味있는 課題가 아닐 수 없다. 筆者는 中共의 中間地帶論을 圖表化하고 「主戰場」에 屬해있는 各國의 政治的 立場을 圖解해 보려 한다. 이는 中共의 挑發行爲를 占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위의 圖表에서 J는 日本을 말하는데 日本政府는 政治力이 强하고 反美的인 아니나 自民黨內에서는 宇都宮德馬, 松村謙三等の 進歩派가 있으므로 親美一邊倒라고는 할 수 없다(J). V는 越南政府, 政治力은 弱하고 美國에 完全依存하고 있다. 反面 V'(베트남)는 强한 政治力과 反美的이며 親中共의 立場이 强하므로 圖表와 같은 線이 되는 데 이러한 現狀을 이루는 國家가 바로 中共이 노리는 絶好的 赤化鬪爭地域이 되면서 잘못하면 LA(라오스) 같은 苦痛스런 受難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K)를 잡아 넣으면 政治力은 臺灣보다는 若干 強力한 것이 못되나 美國과 友好的 關係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革新政黨을 許容하며 中立非同盟 諸國과의 外交關係等을 考慮하면 完全한 對美一邊倒라 하기엔 無理가 간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休戰線 以南에 局限한 情勢分析임을 밝혀 둔다.

4. 中共의 問題들

第1 中間地帶에서는 反美·民族獨立運動을 支持하고 第2 中間地帶에서는 資本主義가 가지는 一面을 警戒하며 反美 鬪爭의 同盟者로 끌어들이고 主張하고 있다. 同時에 中共은 이들 社會主義陣營과 美國 사이에 널려 있는 擴大한 두 個의 中間地帶의 向背가 世界革命의 成否를 決定짓는다고 내다보고 1965년에는 對外活動의 重點을 反美鬪爭의 激發、民族獨立鬪爭의 擁護를 通하여 中間地帶奪取에 온갖 努力을 傾注하였다. 勿論 그 手段方法은 多種多樣하며 硬軟兩態의 戰術을 巧妙하게 混用하여 相當한 成果를 거둔 것도 事實이나 國力에 比하여 너무 별려 능기 만한 各浸透戰線의 前衛機關의 活動을 保障할 만한 政治、經濟、軍事的 뒷받침이 없었다. 게다가 中華思想에 基盤을 둔 革命理念의 성급한 輸出은 旣成價値觀에 依한 敵對抗拒로 因하여 그들의 世界革命은 挫折할 수 밖에 없었다.

本項에서 그 具體的인 傍證을 網羅할 수 없음을 遺憾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으로 現在 中共이 直面한 至極히 困難한 問題 몇 가지를 列舉하기로 한다.

(1) 國際共產主義陣營에서의 孤立과 對美理念鬪爭에서 不安定 露出.

(2) 戰爭不可避의 強硬路線은 發展途上의 國家들의 自覺的 反撥의 根源이 되고 있다.

(3) 先進技術의 普遍的 導入이 어려운데다 資金蓄積이 貧弱한 處地에서 國民經濟의 妥當한 成長이 어렵다. 또 이와 비슷하게 國家要請의 投資事業 (核開發等)에 重點을 두자니까 均衡 있는 經濟發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4) 反獨裁政治의 自由化運動이 組織化되어가고 있는 現狀으로서 是 中共의 積極的인 世界革命觀은 發展할 수 없다.

註 解

註 1 : 胡喬木「中國共產黨의 30年」의 著者. 現在 中共中央書記處 書記인.

註 2 : 1927, 4, 4, 對中國政策의 重點을 闡명한 文獻 가운데 있는 句節—그後 38年代 各種 宣傳戰線에 關한 文章에서 자주 引用되었다.

註 3 : ①「双十共同宣言(1945, 10, 10)」—中共 中央은 45年 8月 25日, 「現下時局에 關한 宣言」을 發表, 이 內容에 따라 毛澤東이 8, 28, 重慶에 到着하여 蔣介石과 會談, 10月 10日 交涉結果를 發表한 것임. 그後 中共의 欺瞞的 挑發에 依하여 有名無實해졌다.

②「停戰命令」—46年 1月 10日, 蔣介石이 美國의 壓

力에 依하여 戰爭 中止를 命令한 것을 말함.

④ 마아살의 和平調整.

註 4 · W. W. Rostow; The Prospects for Communist China.

1966, New York.

註 5 · 新民主主義論—러닌의 「植民地 革命의 原理」(民族理論)

에서 出發하여 스탈린에 依하여 深化 擴充, 毛澤東에 依하여 完成된 것이 1940年 4月 黨의 提제로 採擇된 毛澤東의 論文 「新民主主義 政治와 新民主主義 文化」—通常 新民主主義論이라 불리운다—인 데 여기에 提示된 理論은 이미 中共 2次 全黨大會에서 鮮明하게 나타나 있다. 이 論文은 中共 20年의 苦闘를 通한 體験이 차여져 있으며, 左右의 偏向을 克服하고 比較的 明確한 理論構成을 가지고 있으며 中共 戰略理論의 根據로서 많이 活用되고 있다. 다음에 政治, 經濟 두 가지 面에서 그 概略을 紹介해 보던 다음과 같다.

中共이 가지는 究極의 革命目標은, 「無產階級을 組織化 하며, 勞動專制 政治를 建設하며, 私有的 財產制度를 消滅시키며 漸次 하나의 共產主義의 社會에 到達」하는 데 두 고 있다(中共 2次 全黨大會宣言). 그러나 毛澤東 論文에 依하면, 中國처럼 阿片戰爭에서 비롯되는 列國 資本主義의 侵略에 依하여 封建社會로부터 植民地·半植民地·半封建社會로 變貌한 國家에서의 革命은 그 社會的 特質로 보아 一舉에 革命의 最後目標(社會主義社會)에 到達한다는 것은 至難한 것으로서 반드시 性質을 달리하는 두 個

의 革命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바, 第1段階는 植民地·半植民地·半封建社會를 獨立된 民主社會로 變化시키는 民主主義 革命의 段階이고 第2段階는 이것을 더욱 發展시켜 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하는 社會主義의 革命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個의 段階를 效果的으로 適切하게 連結시키기 爲해서는 數個 革命階級 聯合專制政權 組織인 民主聯合政府(聯合政府論)가 必要하며 이것이 바로 新民主主義 革命實踐의 中心機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른바 新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經濟는 어떠한 特質을 가지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毛澤東은 新民主主義經濟의 本質은 1914年 國民黨—全黨大會 때 採擇된 革命의 民主主義中的 民主主義 即 「資本節制」, 「地權平等」이란 두 原則과 合致된다고 記述하고 있는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新民主主義 革命은 資本主義 企業의 發展을 妨害하지 않는다고 하며 오히려 그 正當한 發展을 援助받으며 外國帝國主義의 壓迫으로부터 保護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新民主主義 革命의 目的이 基本的으로는 資本主義 發展上의 障礙를 除去하여 未熟한 社會的 經濟的 諸條件을 育成시키는데 있는 以上, 當然한 것이며 民族 資產階級이 革命에 參加하는 根據도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新民主主義 革命은 從來의 資產階級專制的 資本主義社會를 實現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 依한 資本主義 生産의 自由로운 發展도, 他的 革命的 諸階級,

특히 指導의 勢力인 無產階級の 正當한 利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것을 條件으로 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2, 大規模의 獨占資本을 必要로 하는 主要産業은 國家가 經營管理하여 「私有財産制度의」그를 밑에서 國民의 生計를 操縱하는 일이 없도록」此際에 國營企業의 全經濟에 對한 指導性을 強化해 간다고 한다. 이 措置는 國營企業을 發展시킨으로써 社會主義 革命에의 基礎條件을 만들어 내는 同時에 이른바 「革命諸階級」의 利益을 追求하려는 企圖로서 「新民主主義 革命」의 基本的인 性格이 두드러져 있다.

3, 「地權平等」에 關하여 毛澤東은 孫文의 「耕者有其田」原則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社會主義 農業의 樹立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新民主主義의 農業綱領을 明白히 한 것이다. 卽, 이 段階에서는 農民의 私有財産은 認定받으며 富農經濟의 存在도 許容된다고 한다. 그러나 農村에 殘存하는 封建的 諸關係 및 그 根底에 도사리고 있는 封建의인 土地制度는 一掃되며 地主의 土地는 農民에 分配되고 農民經濟는 漸次 協同化를 指向해 간다는 것이다. 이 措置는 土地없는 農民의 利益을 圖謀함과 아울러 農業의 社會主義化를 促進하려는 것이라 한다. 以上에서 보듯이 毛澤東은 階級主義를 앞세우고 最少階級을 剝奪하여 最多階級の 歡心을 얻는데 巧妙하게 成功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措置는 어디까지나 赤色革命의 完成을 爲한 一時的인 戰術的 表現에 不過하며 段階의 效果가 判明되면 곧 다른 段階에의 遂行을 爲하여 또 다시 最少階級の 犧牲을 强要하게 되는 데 이러한 惡循環을 反復하는 것이 共產主義 哲學의 本質로 되고 있다.

註6: 1956년부터 反右派 戰線이 形成될 때까지 民主諸黨派와 右派陣營에 內示하였다는 臨時方便. 이로써 커다란 混亂없이 右派 自由化 亂動을 鎮壓될 수 있었다.

註7: 同論文中 「毛澤東 同志關於 人民 戰爭의 理論的 國際意義」毛澤東 同志의 人民戰爭에 關한 理論의 國際的 意義에서 林彪는 先進國과 後進國을 世界의 都市와 農村地帶로 比喩하였는데 이것은 穩然中에 소련을 先進 都市地帶에 밀어넣음으로써 「後進 農村地帶 革命人民」들의 公敵으로 삼아 놓고 있다. 따라서 이진 이미 理念的 對立의 段階를 벗어나 國家的 抗爭期라 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련을 公公然하게 「革命人民」들의 公敵 第1號로 몰아 세운 具體的인 實例는 1966年 5月 4日 發表된 周恩來의 勞動節 祝賀 메시지 속에도 번득이고 있다. 그는 「美帝를 打倒하려면 먼저 現代修正主義 소련을 打倒해야 한다」는가, 「美帝를 反對하느냐 않느냐가 修正主義인가 아닌가의 가름표」라고 떠벌린 바가 있다.

北傀篇

全

元

鉉

△國際問題研究所▽



1. 序論

目次

- 1. 序論
- 2. 北傀의 南侵準備
- 3. 北傀의 武力南侵
- 4. 北傀의 間接侵略戰術
- 가. 初期의 對南 戰略戰術
- 나. 4·19 事態以後의 對南戰術
- 다. 5·16 以後의 對南戰術

한 소련軍의 操縱下에 소련의 世界共產化 戰略의 一環으로서 北韓지역에서의 이른바 民主化 基地를 確立하며 나아가서 極東의 共產前哨基地로 利用함으로써 南韓은 勿論 東北亞에서의 共產主義勢力伸長을 劃策하였던 것이다.

北傀의 統一 路線은 南韓을 共產化하고 統一된 韓半島에 北傀의 單一的 權力을 確立할 것을 追求하려는 것이었으나 그 統一 方案은 主客觀의 情勢와 與件에 따라 多少間의 變化가 있었다.

北傀의 侵略史란 韓國의 共產化 統一 路線、即 對南戰略戰術의 變遷過程을 뜻하는바 그 政策으로서는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全國的 統一戰線을 強化함으로써 南韓을 美帝國主義侵略者의 獨占과 反動統治로부터 解放하고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完全한 統一을 達成한다」(勞動黨規約 前文)는 基本戰術로 集約되는 것이다.

이에 北傀는 8·15 解放과 더불어 38線 以北을 占領

던지 8·15 解放 直後 南韓에서의 美軍政時期와 大韓民國의 建國 初期에는 南韓內 共產分子(南勞黨員)를 使喚하여 政治的、社會的 混亂을 助長하고 統一戰線勢力을 糾合하여 武力侵略에 依한 電擊의인 共產化 統一을 劃策하였으나 이에 失敗하자 休戰後에도 南韓內 親共政權、即 그들이 말하는 人民政權을 樹立시킨 後 北傀가 이에 合作하여 統一政權을 樹立、北傀의 單一支配體制를 確立하여

는 策略을 取하고 있다.

그리하여 6·25 武力 共產化 統一計劃이 좌절됨에 北 傀는 平和的 祖國統一이라는 假面을 쓰고 對南間接侵略으로 戰術을 바꾸어 反美、反政府 煽動에 主力한은 勿論 많은 工作員을 南派하여 政治 軍事情報의 蒐集과 地下黨 再建으로서 再侵의 機會을 노리는 한편 外勢排擊과 朝鮮 人民 自身에 依한 自主的인 統一思潮의 浸透 傳播策動을 敢行하고 있으며 이를 4·19 事態 및 6·3 事態와 같은 反政府蜂起로 誘導하여 韓國의 民主政權의 崩壞로 因한 所謂「決定的 時機」의 到來를 期하고 있는바 最近에는 對南遊擊戰까지를 並用하여 惡辣한 侵略戰術을 適用시키려 하고 있다.

2、北傀의 南侵準備

45年 10月 소련軍에 便乘入 北한 金日成은 소련軍의 庇護下에 土着共產主義者들에 依하여 組織된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을 奪取하고 北韓地域 過渡行政機構인 5道行政機構의 實權을 掌握함으로써 46年 2月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造作하였다.

이에 民主革命 基地 鞏固化에 拍車を 加하였는바 46年 末까지 北韓지역에서 土地改革、産業國有化等 所謂 人民

民主主義體制 確立에 必要한 政治、經濟、社會的 諸改革을 斷行하고 47年 2月에는 共產式選舉를 通한 北朝鮮人民委員會를 設置하여 形式上의 政權體制을 樹立하였으며 여기에서 憲法制定과 最高人民會議을 構成하는等 48年 9月 9日에는 이른바「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란 產衛星國인 傀儡政權을 樹立 宣布하고 金日成이 그 首相에 就任하였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소련의 庇護로서 北韓지역의 實權者로 登場하였을 뿐만 아니라 解放直後부터 武力統一을 目標로 한 軍備를 強化하게 되었으니 46年 1月 鐵道保安隊 創設을 始初로 46年 8月에는 保安幹部 訓練大隊를 設置하고 敗亡한 日本軍의 裝備로 武裝한 8,000名의 陸軍과 46年 7月 東海上 保安隊 設置에 依한 1個 大隊 兵力의 海軍、46年 12月 朝鮮航空隊 發足으로 因한 空軍等을 育成하고 48年 2月 8日에는 3個師團의 兵力을 確保하여 朝鮮人民軍을 創設하였다.

그리고 北傀 創建後인 49年 1月「하일펜」에서 朝、中、소련의 軍事代表會談에 依해서 中共東北人民解放軍內、韓國人部隊 28,000名과 소련軍으로 對獨參戰者、5,000餘名을 49年 末까지 入北시키므로써 北傀軍의 基幹을 이루게 하였고 49年 3月 金日成이「모스크바」訪問時에 朝·秘密軍事協定을 締結하였으며 同 3月 18日「모

스크바」에서 北傀 中共間에도 秘密防衛協定을 締結함으로
써 北傀의 武力南侵準備가 急速히 進行되였다.

또한 소련 占領軍은 48年 12月 26日 完全撤收를 公表하
여 各種 軍事顧問團만을 殘留시켜 豆滿江沿岸으로 移動시
켰을 뿐이며 49年 1月 大領 12名, 中領 20名으로 構成된
軍事顧問團을 派遣하여 南侵準備에 狂奔하였는바 50年 6
月까지 步兵 10個師團을 비롯한 各軍의 編成과 軍事技術
指導를 끝내어 18萬餘의 兵力을 養成하였으며 各種砲
1, 643門, 戰車, 自走砲等 500臺, 戰爆擊機 21
1臺, 艦艇 30隻으로 武裝시킴으로써 南侵準備을 完了하
고 이들은 撤收되였다.

金日成은 이와같이 武力侵攻을 計劃함과 아울러 南韓內
南勞黨을 操縱하여 共產勢力이 主導하는 勞農政權 樹立을
劃策하였다. 即日帝時 日本의 彈壓에 依하여 地下에 잠
복하였던 共產分子들이 軍政期의 活動保障과 社會的 混亂
을 틈타 그 勢力을 擴張하고 46年 2月 1日에 「南朝鮮民
主主義民族戰線」을 結成하여 合法的인 政黨活動을 展開하
여 南韓에서 共產政權 樹立을 企圖하였으나 46年 4月과
47年 6月 兩次的 美·소 共同委員會의 決裂로서 單一政府
樹立協商이 失敗하게 되자 美軍政當局은 南韓內에서의
共產主義活動을 不法化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들은 地下
에 들어가 海州를 據點으로 南北共產黨間의 緊密한 提携

下에 暴力과 罷業手段으로 積極的인 破壞戰術로 鬪爭方法
을 轉換하였다.

이에 金日成은 46年 7月 22日 結成된 北朝鮮民族統一
戰線을 中心으로 南韓에서의 共產主義 活動과 連繫를 強
化하는 同時에 南勞黨의 罷業鬪爭을 正當한 手段方法으로
認定하고 麻藥人蔘等を 보내어 工作金으로 充當토록 積
極支援하였으며 47年 7月 27日 全國鐵道罷業을 비롯한
全國的인 範圍에서의 罷業을 煽動하고 全面的인 鬪爭은
1871年 「과리코문」과 1927年 秋收暴動에 依한 中
共 「廣東코문」을 模倣하여 47年 10月 秋收期 農民들의 收
奪拒否鬪爭과 結付시켜 人民政權樹立을 企圖하였으나 同
罷業活動이 共產黨 政策에 先行하여 結果를 수 없이 擴大
되자 美軍政에 依한 彈壓措置로 말미암아 秋收期鬪爭은
失敗하고 말았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機會를 捕捉하
려 하여 47年 12月 6日 貨幣改革을 斷行하고 舊貨인 朝
鮮銀行券을 全部 南勞黨活動 工作金으로 支援하여 韓國의
「인플레이」를 助長시키는 한편 社會的 經濟事情을 惡化시키
고 共產勢力의 素地를 確保케 하였고 南韓에서 UN 統韓
決議에 따른 單獨政府 樹立이 推進되자 金日成은 48年 4
月 南北協商이란 假裝手法으로 共產勢力 및 이에 同調
하는 政黨社會團體 聯合會議을 主宰하여 平和的 統一政

府樹立을 云謂하는 宣傳煽動을 強化하고 5·10 總選舉에 臨해서는 暴力手段으로 恐怖集團氣를 造成하는 등 極端的인 妨害工作을 展開하였다.

金日成은 또한 中共 八路軍 情報工作主任으로 活躍한바 있던 성시백으로 하여금 南韓工作責으로 派遣하여 慶尙道 軍事委員會를 組織케 하여 嶺南暴動을 煽動하였는바 그 結果 48年 10月 大邱暴動에 이어 濟州道暴動이 일어나고 同月 19日에 麗水 順天叛亂으로 擴大시키 韓國을 內亂狀態에 빠뜨리고 北傀는 이를 支援하여 더욱 激化시키기 위하여 太白山脈을 通路로 한 武器供給으로 在 山共匪活動을 保障하여 주었으며, 한편으로 韓國國會內에까지 그들의 魔手를 뻗쳐 外軍 即時 撤去 등의 進言書를 꾸며 韓國委員會團에 傳達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會에서 外軍 撤收, 美國 援助要請 反對, 憲法改正 等을 云云하여 國會破壞運動을 展開하기에 이르렀으며 49年 9月 15日을 期해서 武力南侵을 計劃하여 南勞黨에게 南韓接受計劃까지 樹立케 하였으나 自體의 軍備不足과 中共의 中國大陸 席卷 遲延 等으로 同計劃은 不得已 延期하지 않을 수 없었다.

3、北傀의 武力南侵

北傀는 소련, 中共의 軍事的 擔保로서 武力을 增強시키

과 同時에 南韓에서 遊擊活動을 擴大시키며 南勞黨을 通한 全人民的인 呼應 蜂起로서 電擊的인 武力統一을 爲하여 50年 6月까지 38度線上에서 874回에 亘한 小規模 侵犯으로 警備 狀況과 악을 끝내고 6月 10日 北傀軍 參謀總長 姜健이 主宰한 師團長會議에서 南侵計劃을 下達하여 6月 23日까지 步兵 6個師團、戰車部隊 2個師團의 配置를 完了하여 萬般態勢를 갖추었다.

한편으로 韓國側의 警戒態勢를 緩和하기 爲한 術策으로 50年 6月 7日과 6月 16日에는 平和統一方案을 提議하는 등 欺瞞的인 煙幕을 피우고 白凡先生 1周忌를 맞이한 社會的인 混亂을 利用하여 6月 25日 日曜日 未明을 期해서 不法南侵을 敢行함으로써 金日成의 赤化統一執念에 依해 3年餘에 걸친 民族的인 受難이 始作되었다.

그러면서도 金日成은 50年 6月 26日 演說을 通하여 「國軍의 北侵을 非難하고 人民軍의 正當防衛에 依한 反擊을 命한다고 하였는바 그의 術策이 얼마나 好惡한가를 可히 알 수 있으며 防備에 소홀했던 大韓民國은 不得已 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UN軍의 反擊으로서 北傀는 潰滅狀態에 이르렀을 때 中共侵略軍의 介入으로 겨우 北傀政權의 命脈만을 維持하였으며 53年 7月 27日 休戰에 이르기까지 侵略戰을 잔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結果의 으로 金日成은 廢墟化한 강토와 人命損失

만을 招來하였다. 而 韓國國民의 反共意識을 高揚시켰고 南勞殘黨의 地下組織體가 完全히 綻露 破壞당하여 自己의 基盤이 動搖를 防止하기 爲한 피비린내 나는 肅清을 斷行하여야 했으며 武力에 依한 早期 共產化 統一計劃은 完全히 水泡化하고 말았다.

4、北傀의 間接侵略戰術

金日成은 武力赤化統一이 失敗하자 平和的인 統一方案으로 그의 戰術을 轉換시키고 偽裝戰術을 取하였는바 그의 統一方案은 內外情勢의 趨移에 따라 變化가 있었는데 그를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韓國動亂 以前에는 韓國의 警備를 緩和시키기 爲한 方便으로서 49年 6月 28日에 外勢를 排除하고 南北總選舉를 준비하기 위하여 選舉指導委員會를 組織할 것을 提議하였으며 50年 6月 7日에는 50年 8月 5~15日에 南北總選舉實施를 前提로 한 同節次 協議에 全政黨 社會團體會議를 即時 召集할 것을 提議하였고 同年 6月 19日에는 다시 北傀最高人民會議와 韓國國會의 聯合을 提議하였다.

둘째 : 休戰後 54年 4月 27日 「제마바」 會議에서 北傀 外相 南日은 外國軍 撤收後 全朝鮮委員會를 組織하고 中立國監視委員會를 두어 南北總選 實施를 主張하였다.

또한 8·15 解放 10周年 記念式典에서 金日成은 南勞 兵力減縮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며 有關國家會議 開催를 提唱하고 56年 4月 28日 黨第3次大會에서는 反美共同鬪爭強化와 平和維持를 爲한 國際的인 協定締結을 提唱하고 57年 9月 最高人民會議 第2期 1次會議에서 이를 再確認시켰으나 59年 10月 最高人民會議 第2期 6次會議부터는 中立國監視까지도 排除하고 一切의 外勢干涉없이 「朝鮮 사람끼리」의 統一을 主張하게 되었는데 이는 中立國監視下 總選이 北傀의 對內外的인 與件이 共產化 統一 路線에 適合치 않다고 看做하였던 때문이다.

셋째 : 4·19以後인 8·15 解放 15周年 記念式典에서 金日成은 干涉外勢없는 南北韓自由選舉 實施와 過渡的인 措置로서 南北聯邦制를 提案하였는데 이는 李政權의 崩壞와 韓國內에서 統一熱望과 革新勢力의 大舉進出으로서 이를 誘惑키 爲한 것이었다.

그러나 5·16 軍事革命後인 61年 9月 黨第4次大會에서는 反美救國統一戰線 結成과 南北自由總選만을 主張하고 聯邦制를 撤回하였으며 62年 10月 最高人民會議 第3期 1次會議에서는 다시 反美救國統一戰線強化、南北聯邦制 및 最高民族委員會 組織等을 提案하는 등 內外情勢에 따라 方案을 달리 하면서 對南戰略戰術을 變更시켜 왔다.

가, 初期의 對南戰略戰術

北傀의 對南工作은 52年 8月 31日 「未解放地區에 있어 서 우리 黨의 事業과 組織에 對하여」란 黨中委政治委員會 決定 94號에 根源을 찾을 수 있는바 同決定에서 「未解放 地區의 黨團體들과 遊擊隊들의 組織 및 그들의 事業과 其他 一切 革命을 指導 把握하기 爲하여 黨中央에 連絡部를 設置하고 여기에서 人民軍最高司令部 遊擊指導處의 事業을 管理하여 進行토록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北傀가 武力統一의 失敗를 豫見한 長期的인 工作으로서 反美 反封建 民主主義革命 段階라는 規定下에 美國의 對韓政策과 親美保守의인 李政權을 打倒하는 한편 親美保守政權의 社會的 基盤으로 看做한 資本家, 地主들을 孤立시키기 爲해 서 所謂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動同盟을 形成 強化하고 反美 反政府의인 階層을 組織하여 北傀가 提案하는 平和 統一方案에 同調할 社會勢力을 糾合하는 戰略下에 長期 打 算, 力量蓄積, 精幹隱蔽, 長期埋伏의 原則을 適用하였는바 南韓에서 親共 或은 容共政權의 實現 乃至 共產化의 早期 實現이 不可能하게 되었으므로 漸次的으로 革命力量을 扶 植 蓄積하여 나가고 이에 따라 南韓內 共產地下組織과 그 의 核心分子를 오직 「決定的 時機」까지 露出시키지 않고 隱蔽시키려는 것이었다.

以上の 戰略에 따라 地下組織의 基幹이 될 多數의 間諜

들을 浸透시켜 地下黨의 再整備에 注力하였으며 한편으로 는 平和統一方案宣傳, 反美感情의 煽動, 經濟難의 誇張 宣傳等으로 反美 反政府 乃至 反保守勢力을 結束하는 所 謂 統一戰線 戰術을 展開하였다.

나, 4. 19 事態 以後의 對南戰術

北傀는 4. 19 當時 學生들의 反政府鬪爭을 그들의 精 幹에 依한 人民政權 樹立에도 引導치 못한 것을 감안하여 民主黨政權의 統治力 弱화에 따른 反共體制 弱화와 革新 勢力의 大舉進出 및 4. 19의 敎訓으로 南韓政治情勢에 對한 學生層의 影響力이 強大하다는 것을 認識하고 所謂 「合法的鬪爭」 方法을 劃策하였던 것이다. 即 平和統一의 早期實現 可能性을 展望하고 地下共產勢力의 急速한 擴張 과 勞動者 農民에 對한 階級意識 鼓吹를 爲한 工作을 強 化하고 統一戰線 戰術의 擴大強化 策動으로서 反保守勢力 의 糾合을 노리는 한편 革新勢力을 親共陣營으로 誘引하 는 工作을 展開하고 學生層에 對한 包攝工作을 強化하면 서 保守民主陣營 團結弱화와 民主黨 政權의 統治機能을 加一層 弱화시키기 爲하여 學生, 革新勢力 및 勞動者에 對한 煽動 宣傳을 強化하고 南北間의 意思疏通을 爲한 板 門店會談을 提議함으로써 南韓內의 統一熱望을 鼓舞하 였다.

다. 5. 16 以後의 對南戰術

同期間에는 이른바 革命上昇期 戰術로부터 革命退潮期 戰術로 還元하였는바 그 條件으로서는 軍事政權에 依한 反共體制의 強化와 革新政黨의 不法化等으로 南韓革命의 10年後退를 自認하면서 軍事政府를 孤立 打倒키 爲하여 保守政客을 包含한 廣範한 反軍政運動의 展開를 煽動하고 反共體制의 基礎確立을 意味하는 南韓經濟發展을 沮止키 爲하여 韓日會談 反對鬪爭의 煽動과 外資導入을 막기 爲하여 軍事政府의 國際的 孤立을 劃策한 對外工作과 宣傳을 惡辣하게 展開하였으며 共產勢力에 便乘할 수 있는 새로 운 「쿠데타」의 惹起를 慫慂하는 對國軍 煽動宣傳을 強化 하였다.

또한 共和黨 政府에 依해 韓日國交 正常화가 活潑히 推 進되고 3. 24 및 6. 3 事態 等 韓日國交妥結을 反對 하는 學生들의 騷起와 野黨政客들의 極限鬪爭이 展開되자 北傀는 韓日國交正常化의 眞意를 歪曲宣傳함으로써 4. 19 當時와 같이 現政府 顛覆으로 擴大시켜 人民政權 樹 立에 誘引하기에 그들의 發惡의 策動을 敢行하였다.

한편 北傀는 勞動黨 連絡部를 設置하고 多數의 間諜을 南派시켰는데 그들은 南派뒤 後 우신 自己의 身分을 合法 的方法으로 保障하는 것을 第1課題로 하고 合法이 爭取 된 後에 工作을 進行토록 하였으나 最近에는 間諜自身의

身分은 어디까지나 地下에 隱蔽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包攝된 現地人士를 表面에 내세워 活動케 하며 이를 效果 的으로 遂行키 爲하여 對象者를 帶同越北하여 北傀에서 直接教育, 再南派시켜 身邊의 安全을 圖謀하고 있는 反 面 越南에서 「베트남」들의 遊擊戰을 模倣한 對南遊擊戰을 計劃하고 있는바 이는 最近 對南事業總和 報告席上에서 金日成이 「對南事業이 現在까지 地下力量 蓄積에만 汲汲 하고 積極的인 形態를 띠지 못하였으니 從前의 陰性的인 方法과 並行하여 積極的 方法, 即 特殊戰을 活用하라」는 指示에 依하여 對南遊擊戰을 實施하여 南韓國民의 恐怖雰 圍氣를 造成하고 越南에서와 같은 韓國內의 內部的인 同 調와 暴力手段에 依한 赤化戰術을 計劃하고 있다.

또한 工作員의 韓國內 浸透方法에 있어서도 韓日國交 正常化에 따라 在日僑胞들의 自由往來가 實現되자 朝總聯 을 통한 迂回方法도 並行하고 있는바 朝總聯이 密封教育 을 畢한 後 母國訪問이라는 口實下에 浸透시키는 方法과 韓國人을 日本에 招請 包攝하여 工作員 任務를 賦與하여 浸透시키는 等 朝總聯을 橋頭堡로 한 對南工作을 活潑히 展開하고 있다.

x
x
x

管理向上策

一線監督官의 職責을 中心으로

許 祥 鎮

〈中尉·航醫院〉

第1、一線監督官의 概念

管理組織을 經營層(上部管理層)、管理層(中部管理層)、監督層(下部管理層)으로 區分한다면 軍隊組織은 團長、副團長 階層, 이를 補佐하는 參謀 및 中間指揮官 階層과 이로부터 直接 指示 監督을 받는 課長 中隊長級 係長 階層으로 大別할 수 있다.

여기서 便宜上 課長 中隊長級 係長 階層을 一線監督官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은 一線業務에 直接 當面할 뿐 아니라 이에 指示 命令 監督하며 部下 將兵에 對하여 動向을 把握하고 그 個人에 對한 言動은 直接 軍内外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大部分의 業務는 이 一線監督官에 依해서 第一次의 遂行되며 또한 이를 上級管理層에 反映하는 最少單位의 管理者이다. 또 數의 遂行을 絕對多數를 占하여 軍務遂行의 根幹 組織網이라 할 수 있다.

第2、管理向上의 指導理念

管理者는 어떻게 하면 組織內에 賦課된 業務를 가장 적은 費用으로 가장 짧은 時間內 가장 큰 效果를 거두게 할 수 있는가? 하는 手段 技術을 體系化한 理念을 追求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管理向上의 窮極의 目的은 管理의 諸要素 (1. Man, 2. Money, 3. Material, 4. Machine, 5. Method, 6. Time, 7. Space)를 省의 方法(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으로 管理의 機能(1. Planning, 2. Organizing, 3. Commanding or Directing, 4. Co-ordinating, 5. Controlling)을 效果的으로 遂行하면서 最少의 費用으로 目的하는 業務를 가장 能率의 遂行 最短時間內 正確히 責任完遂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 管理의 指導理念인 것이다.

이것을 크게 3 가지로 分類하면(註1)

1, 經濟性的의 原理(合理化的의 原理: 節約的의 原理)..... 最小의 人員과 資源으로 最大의 成果를 내는 것이 合理的인 管理라는 것이다. 이로써 機構의 擴大에 따라 管理業務上의 作業重複 經費의 濫用, 資源의 遊休를 防止한다.

2, 生産性的의 原理(能率의 原理)..... 管理業務를 하나의 技術로 把握하여 最小의 經費와 技術的 合理的 努力을 들며 最短期間內 正確히 最大 成果를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 能率의 極大化는 人間關係나 環境條件을 잘 考慮 調整함으로써 이 原理는 適用된다. 具體的으로 細分化하면

- (1) 轉換의 原理
- (2) 補足の 原理
- (3) 分擔의 原理
- (4) 連結의 原理
- (5) 單一の 原理
- (6) 發奮의 原理로 列擧할 수 있다(註2)

3, 奉仕의 原理..... 自由 平等의 基本理念下에 上敬下愛의 精神으로 共同目標 達成을 爲한 上下相互間의 奉仕의 原理를 適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 嚴格하고 一律의인 Pyramid式 軍隊 組織網을 通해서 民 主的 Leadership과 誠實한 Obedience로 勤務意慾을 높일 수 있고 勿論 勿論이다.

第3, 一線監督官의 主要職責(註3)

1, 業務 計劃..... 이로써 積極的인 行動을 通하여 보다 迅速 容易하며 또 經濟的으로도 보다 나은 結果를 얻을 수 있다. 從來까지 無體系의이며 重要部署를 除外하고 放慢視했다 할 수 있는 業務(計劃)는 業務의 複雜 擴大로 專門性과 技術性을 要하고 迅速 正確히 處理하는 데는 科學的인 計劃 樹立이 要望 된다. 干先 計劃의 節次로는

- (1) Feasibility Study(實踐可能한 計劃)
- (2) Pre-production(事前 計劃)
- (3) In-process planning(工程 計劃)의 3 段階를 거쳐야

效果的인 業務計劃을 할 수 있다(註4).

예를들면 Gantt chart(活用) CPM, PERT/TIME, PERT/COST等(註5)은 繼續 研究 檢討하여 各級管理層에 反映하고 信頼을 받으면서 大幅 權限의 委任을 받아 이로써 迅速 正確하고 發展的인 業務能率을 가져와야 한다.

2, 業務의 標準化 設定..... 現在 僻高地 將兵은 거의 大部分 在京部隊로 轉屬을 願한다. 그것은 家族이 서울에 있다는 理由만이 아니라 業務가 大部分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編制를 定함에 있어서 各部署의 職能 業務割當表를 合理的인 職務分析(註6)과 生産技術(TE)(註7) Work Simplification 5 原理와 手法(註8)을 通해 業務量을 科學的으로 測定(Work Sampling(註9)) 動作 研究, 時間研究(註10)等(註11)을 거쳐 正確한 觀念을 拂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專門

家(Specialist)의 專有物이 아니라 一線監督官이라면 常識化 되
어야 하며 人員의 策定과 一日業務量도 劃定해 두어야 한다.

예컨대 열사부실에는 Radio나 新聞으로 日課時間을 보내고
열사부실 맞은 편에는 外出, 休暇(年暇)마저 制限받고 거의 每
日 夜勤을 해야 하는 不均衡도 없지 않았다. 또 ○○部隊에서
充員上申을 할 때에도 漠然히 ○명을 階級別 特技別 熟練別로
要求한은 合理的인 職務分析을 通하여 空本 人事局에서 明確히
納得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一線監督官이라면 機構擴大, 業務의 複雜化 一路에 있는 現今
머저 않아 日常化될 P A C A M, I B M, 電子 計算器와 O R
原理(註12) 등의 專門의 知識을 習得해 두어야 한다. 또 I E
를 活用하여 業務의 簡素化 原理(註13)도 널리 知識을 갖되 活
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部下의 指揮 監督……말은마 自己平時 業務의 效率과
成果를 研究 檢討하고 組織原則上 缺陷(例 避해야 할 12가지條
件)(註14)을 避하고 指示의 要件과 階級, 調整과 協助로 基本方
向感覺을 一致시키고 있는가? 統制 標準의 設定과 評價는? 등
(註15)을 指揮 監督을 通하여 보다 나은 業務의 改善點을 찾아
나가야 한다.

4. 職務範圍 및 能力度와 業務 進行度把握……部下將兵의
一日業務量과 教育訓練을 通한 能力의 效果의 活用度, 進行業務
의 進捗度 등을 協和的인 指示와 報告로 이를 啓發해 나가고 部
下將兵의 業務實을 把握하도록 하며 一線 監督官은 業務의 進行
을 熟知하여 效果의 目標 到達方法을 研究할 것이다.

5. 成果評價 分析 및 業務遂行方法의 改善……平常 業務遂
行의 結果를 確認 監査하여 標準에서 離脫하였거나 缺陷이 있는
면 이를 是正해야 함은 勿論이다.

設令 成果있는 業務라 한지라도 科學的 管理의 一方的인 O R
를 活用하여 線型 計劃法(Linear Programming) 待機行列理論
(Queue theory) 게임 理論(Game theory) 등(註16)의 活用方
案은 없는가? 또 人間 工學(Human Engineering)으로 P I
(Progress Index) 發展指數(註14)를 適用할 수 없는가?

이들은 下士官 人事配置나 滑走路上 航空機 管理等 作戰, 裝
備 및 物資輸送에도 發展의 이며 創意的인 Ideas로 緊切히 活用한
이 一線 監督官의 研究 課題라 본다. 또 體系 工學(Systemic
Engineering)도 그 活用方法을 研究하여 業務遂行의 發展의 인
改善를 圖謀해야 한다(註18).

6. 能率化 經濟性的의 原則……一線 監督者는 合理的인 技術
活用으로 能率의 向上과 改善 및 經濟性的의 原則을 檢討해야 한
다. 이것은 管理의 理念의 基礎요, 指導理念이며 業務向上의 生
命體다.

價值工學(Value Engineering)(註19)의 原則에 따라 費用을
最小로 切感할 수 있는가? 環境條件의 變更으로 綜合 最少值
(Adverse Minimum)(註20)을 適用할 수 없는가? 人間인 部
下에게 機械的인 能率만을 要求한 것이 아니라 人間關係의 科學
的 管理論을 適用하여 2에서 言及한 動作研究(Motion Study),
時間研究, 配置研究(Layout Study)도 查을 리해서 는 안 된다.

SWS II (PWS + TWS) HF(註21)가 어떤가? 또 業務의 過程分

析을 통하여 業務割當表나 流程 過程表(Flow Process Chart) (註 22)를 隨時 檢討하여 遂行된 業務의 後退나 遲滯 現象이 없어야 한다.

7. 人間關係(Human Relations)..... 이는 部下將兵의 心理의 環境의 滿足을 얻으면서 協同하여 熱誠의인 勤勉을發揮하도록 勞働氣를 造成하고 全體가 一致團結하여 勤務意慾(士氣)을 高度로 昂揚시켜 能率의 向上을 期하는 內部的 自生的 諸關係라 할 수 있다(註 23).

여기에는 部下將兵을 人間的(Humanity)으로 對하고 對等性을 認定하여 名實共히 勤務效果를 높이고 明朗快活한 勞働氣 속에서 和氣靄靄하게 人心의 暢達을 期해야 한다. 이것은 管理의 指導理念인 奉仕의 原理에 合致시켜 民主的 Leadership과 其에 根源해야 한다. 組織의 力의 體系인 「階級」은 自體 權威를 갖는다(Rank has its authority)이고 「階級」은 自體 特權을 갖는다(Rank has its privilege)로 轉化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자기人이 人에 對한 人의 人的 引導乃至 善導라야 한다는 意味이다. 이로서 公式集團(Formal Group)과 非公式集團(Informal Group)의 關係調整도 相互 平衡한 均衡點을 찾아 解決함으로써 能率의 向上과 業務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核果라 할 수 있다. 一線 監督官이라면 人和團結 上敬下愛의 奉仕的 協助精神, 權限內 合理的이고 迅速한 意思決定, 意思傳達(Communication)으로 勤務意慾(士氣) 昂揚 및 明朗한 勞働氣造成에 全力해야 한다.

8. 協助心..... 部下將兵에게 團體意慾을 붙여 一體感

(Identification)을 갖고 提案制度(Suggestive Scheme) 등이 參與意識을 높이며 成果있는 業務을 認定(Recognition) 褒賞하도록 해야 한다. 人事는 公正해야 하며 戰功傷 直接功傷일 때 災害補償은 어떻게 되며 進級은 公正한가? 不當한 人事處理는 없는가? 도 파악없이 檢討하여 誠意있게 協助해 주어야 한다.

第3. 以上을 한 圖表에 表記化 해라한 圖를 見다.

| | | |
|---------------------------|--|------------------------------------|
| 管理의 理念 | 一線監督官의 職責 | 主要 Point |
| 1. 經濟性의 原理 | (1) 業務計劃 (2) 業務의 標準化 設定 | ① 計劃의 節次 ② CPM, PERT 活用 |
| (2) 部下의 指揮 監督 | ① 科學的 職務分析 IE ② 業務簡素化 原則 ③ PACAM, IBM, 電子計算 器, Automation, OR | ① 組織의 原理檢討 ② 業務 指示, 調整, 統制의 科學化 |
| (4) 職務範圍, 能 力 및 業務進 行度 把握 | ① 業務量과 質把握 ② 能力 最大 活用 ③ 效果的 目標達成方法 研究 | |

| | | |
|--------------|--------------------------------|---|
| 2. 節約의 原理 | (1) 成果 評價分析 및 業務 遂行 方法改善 | ① LP, QT, GT ② PI, MAPI, HE 및 SE ③ VE ④ Adverse Minimum 適用 ⑤ 業務 簡素化 |
| | (2) 能率化 經濟性 의 原則 | ① 上敬下愛, 人和團結 ② 士氣 昂揚 ③ 民主的 Leadership ④ 意思決定 意思傳達 ⑤ 階級은 그 自體 特權이 아니고 權威이다. ⑥ 公式組織과 非公式組織의 調整 |
| 3. 奉仕의 原理 | (1) 人間 關係 | ① 部下 將兵의 身上 把握과 助力 |
| | (2) 協助心 | |

※ 參考 圖書

B 1 : 一般管理..... 文敎部 (1963)
B 2 : 新稿 行政學..... 朴文玉著 (1965)

B 3 : 完壁 行政學..... 李相助著 (1965)
B 4 : 에어리부 第 26 號 (1966)
B 5 : 매니저먼트 리부..... 創刊號 (1966)
B 6 : 人事 行政論..... 朴東緒著 (1962)
B 7 : 教育 指針書 (資源 管理 初級 課程) 空大 (1966)

※ 註 釋

註 1 : B3, p 108, B1, p 98 參照
註 2 : B1, p 63 能率의 原理 參照
註 3 : B3, p 179(2) 參照
註 4 : B7, p 21 ~ 22 業務 計劃 參照
註 5 : 에어리부 (19號 : p 44 ~ 72) 計劃 樹立 및 評價 制度 參照
註 6 : 空軍 敎範 35-2 (1962년 空本發行) 參照
註 7 : I B의 實際 (日本 生產性 本部 發行) p 114 ~ 118 參照
B5, p 20 ~ 21 I B의 管理 改善 參照
註 8 : 空軍 將令 28-2 (1965년 空本發行) 參照
(1) 動作 分析
(2) 業務 制當 分析
(3) 業務 量 測定
(4) 過程 分析
(5) 配置 研究은 다음.
註 9 : B7, p 59 業務 測定 3 參照
實際 計算 및 利用은 Stop-watch 瞬間 觀測 值 (Snap Reading)..... 主로 亂數 表 (Random)을 利用한다

$$p = \frac{1}{T} \sum_{i=1}^n \frac{1}{f_i} \times 100 \%$$

$$e = \sum_{i=1}^n Z_i \sqrt{\frac{P(1-P)}{n}}$$

註 10 : 時間研究의 例를 들면

- (1) 要素 作業 時間 研究
- (2) 單位 " "
- (3) 簡易 " "
- (4) 微細 " "
- (5) 機械式 時間 研究
- (6) L S E
- (7) Work sampling의 依託 時間 研究
- (8) 電千式 時間 研究
- (9) 實績 資料에 依託 時間 研究

註 11 : 其外에 工 工程分析, 稼動分析, P S T法, Rating法의 註 10과 같은 細分化의 例가 있다.

- 註 12 : B4 科學的 意思決定論 參照
- 註 13 : 註 8 參照
- 註 14 : 指揮管理 I ~ 空大發行 p 66 ~ 88 參照
- 註 15 : 業務의 指示 調整 및 統制의 對하는 事 B7 p25 ~ 28 參照
- 註 16 : 註 12 參照

Linear Programming Method.....(1958,
Barlo Heady
Whitred Candler, Iowa State College Press)

註 17 : Pilot가 되는 데 × 2년 걸린다. 이 경우 Y = a · b 即 log Y =

log a + log b의 學習曲線이 定한다 (H.E.).
A國의 Pilot가 55%유치, 나머지 15%만유가 되는 데도 4년 걸린다. 그러나 실제 2중하기까지 6년 이상 걸린다. 이를 圖表化하면 指數曲線과 같이 工數最 降曲線을 이룬다 (A.I.).

註 18 : 1940 ~ 50 사이의 科學的 管理技術의 重要한 Position 을 갖게 되었는 데 크게 大別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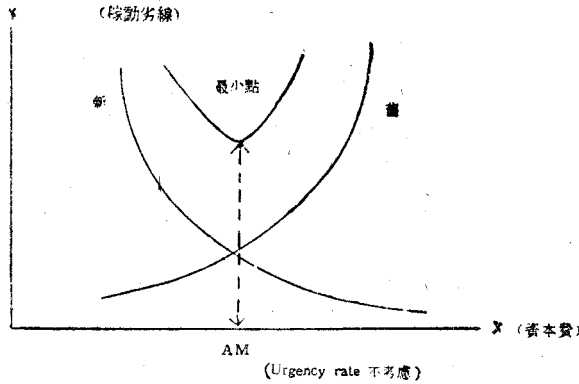
- (1) Industry Engineering (I.E. : 生産技術)
- (2) Quality Control (QC : 品質管理)
- (3) Operation Research (OR : 管理科學)
- (4) Systemic Engineering (SE : 體系工學)
- (5) Human Engineering (HE : 人間工學)
- (6) Value Engineering (VE : 價値工學)
- (7) 信賴性이로 나누고 있다 (說明略).

註 19 : 主로 費用 (Cost)의 問題를 다루다. 1946 General Electric 會社 職工인 Miles가 考案, 價値를 實用價値, 尊重價 價區別한。

- MacNamar長官 諮問機關에서
- (1) 避할 수 없는 消費費用
 - (2) " " ینگ機會損失費用
 - (3) " " 品質 " "

이와 같은 것의 減價 (Reduction Cost)
註 20 : 同一 地區 A와 B設備의 裝備에 對하는 價値의 差

그대로(舊曲線) 두는 것과 변동(新曲線)한 때의 것의
 最少 中央値의 값을 取하여 適用한다(例).



註21 • Mundelej Simo-motion Study에서 業務效果를 公式化

해서

$$SWS = (PWS + tWS) \frac{H}{H_0} \text{ 解説하면}$$

業務效果 = (理念과 態度 + 工具나 技術) 人間要素考慮로

業務 簡素化 效果가 가장 크다고 한다.

註22 • 공판 영-9 (1965年 空本發行)

p. 23 ~ 26 附 p. 31 ~ 33 参照

註23 • B5 p. 12 ~ 15 「人間關係論의 歷史의 背景(池昇龍中
 領)에서 Human Relations란 諸般의 人間關係가 아니고
 人間關係를 총계 하기爲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의
 한 方法을 追求하는 것이 本來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同一語 意味를 動的 發展의 으로 解釋한 것이며
 意味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 映畫用語 ◇

사스팬스 — 극적인 위기감을 말

한다. 즉 관객에게 불안한 기분을

안기면서 극을 진행시키는 주요한 기술이다. 클라이시스는
 극부적인 위기로써 어떠한 경우에 한 극면에서 식은 담
 을 배게 하지만 사스팬스는 어떤 연속된 진행과정중에 불
 안한 상태로 이끌어 넣는 것이다. 이 기교는 희극이나 시나
 리오가 정밀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잘 증
 명해 주는 것이다.

軍風紀確立의 效果的 方案

金 鎮 守

△大尉 · 監察監室▽

1、序 言

한 軍의 强하고 弱함을 測定하는데는 軍紀라는 無形의 尺度를 사용하는 것이 原則이다. 오즈음 우리는 우리가 屬하여 있는 空軍의 强度(有形的 物資의 條件을 제외한 精神的인 條件)를 測定해 볼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근간 祖國近代化가 政治 및 戰略家들의 力點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時점에서 장비의 현대화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現代化된 정신부장이 가일층 緊要하고 중요한 先決問題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여기에서 이것을 군기확립에 이르는 捷徑과 精道는 정신부장의 현대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空軍將兵들은 위로부터 말단 士兵에 이르기까지 절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精神武裝의 現代化에 대하여 필자의 소견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空군장병들의 정신부장 現代화에 적은 힘이 나타나 기여 해 보려는 데 있다.

2、軍 紀

軍紀라 면 軍의 紀綱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이것은 軍戰力의 源泉이며 軍을 가장 강하게 영구히 유지하는 生命力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군기확립대세는 國力에 直結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軍기를 무엇보다도 重視하고 軍기확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空군의 軍紀確立制度(업무)를 간단히 소개한다 면 空군본부에서 연간 軍紀確立 및 各種 事故防止策

(군기확립지침)이 수립 하달되고 각 예하부대는 본지책에 의거하여 부대실정에 알맞고 좀더 구체적인 그리고實効性있는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과 각종 특별군기확립 및 제철적인 군기확립 지시 등 연간 수없이 하달되는 指示文書에 의거 부대 군기확립 및 각종 사고 방지업무를 創軍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週期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의 군기확립태세는 뜻있는 장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不美스러운 현상으로 의부로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軍紀確立에 있어 지지에서 재지시로 하달되며 強調에서 再強調로 하달되는 문서의 형식이 되어 버렸다. 再指示! 再強調! 이것은 문장상 「再」라는 接頭語를 하나 붙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 「再」字가 표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무덤과 광활함을 스스로 반성하게 한다. 우리는 오늘까지 남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줄은 알았으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몰랐으며 후 알았다 하더라도 실천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군기확립태세를 냉철한 이성으로는 오히려 지적하고 評價檢討하여 본다면 어느 누구도 오늘날 空軍의 軍紀를 확립된 상태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장병은 현재 공군에 복무하고 있는 將兵中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을 생각할 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참으로 적은 問題는 결코 아니다. 오늘날 공군의 軍紀를 확립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나설 장병이 하나도 없듯이 이 중대하고 막중한 문제를 無關心하고 無責任하게 看過할 만한 어리석은 장병이 또한 하나도 없을 것을 확신하니 이것은 공군의 군기확립을 이룩하여 보려고 힘찬 새 출발의 일보를 내딛는 뜻있는 장병들의 값진 용기를 불러 일으켜 준다. 우리는 이 진실한 勇氣를 가지고 이제까지는 남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고질적인 우리의 體質을 아니 다스림조차도 순조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抵抗 또는 逆行하던 우리의 退廢하였던 체질을 이제야 바야흐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建設的이고 賢明한 체질을 겸비한 軍人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近間の 군기확립상태는 해가 가면 갈수록 逆反率이 증가되고 不軍紀가 原因과 動機가 되어 각종 사고가 增加일로에 있다. 몇년 동안의 군기위반 및 각종 사고發生現況을 개략적으로 들어본다면 1964년도의 군기위반 1,665건, 범죄사고 932건, 1965년도 군기위반 2,010건, 범죄사고 792건, 1966년도 군기위반 1896건, 범죄사고 791건이었으며 1967년도는 1/4분기로서 전년도 同期間에 비하여 軍紀違反 469건으로 40%, 犯罪事故 191건으로 8%의 증가를 각각 보이고 있으니 再指示, 再強調의 정반대되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以上の 각종 사고를 原因과 動機別로 살펴볼 때 사실상 부득이한 것이나 不可抗力的인 것은 찾아볼 수 없으니 無關心, 不注意, 怠慢, 放縱, 不誠實, 飲酒, 金錢에 대한 欲心, 鄉愁 등이 事故의 原因과 動機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군장병은 筆者뿐 아니고 전장병이 공히 自負하고 있고 社會의 識見있는 사람들이 共通的으로 평하기를 「空軍은 紳士다」 「空軍은 水準이 높다」라고 한다. 이토록 질적으로 우수한 構成員으로 조직된 우리 部隊가 어떠한 緣由에서 오늘날 이같이 軍紀問題가 論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어느 指揮官을 莫論하고 軍紀를 떠난 指揮統率은 하지 않은 것은 嚴然한 사실이며 여기서 추호라도 군기가 문란하다면 이는 곧 우리들 自身의 불찰이요 나아가서는 軍紀에 破壞하였다고 酷評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새출발이다. 歷史的인 새출발을 위하여 우리의 심신을 뜯어고치고 바로잡자는 것이다. 「體質改善」은 흔히 하고 듣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군기확립을 강조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先決問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發展하는 空軍에게 부과된 중대한 과제이다.

군기 위반자 연도별 비교

| 연도 | 62년도 | '63 | '64 | '65 | '66 | '67 |
|---------|-------|-----|-------|-------|-------|-----|
| 위반 | | | | | | |
| 결 배 | 322 | 145 | 123 | 197 | 97 | |
| 부 장 위 반 | 909 | 219 | 528 | 691 | 543 | |
| 차 량 위 반 | 189 | 229 | 209 | 170 | 97 | |
| 증명서 불소지 | 183 | 92 | 179 | 229 | 307 | |
| 무 입 승 차 | 134 | 45 | 135 | 185 | 107 | |
| 기 타 | 397 | 251 | 491 | 538 | 745 | |
| 계 | 2,134 | 981 | 1,665 | 2,010 | 1,896 | |

각종 범죄발생 현황

| 연도 \ 범죄별 | '62 | '63 | '64 | '65 | '66 |
|----------|-----|-----|-----|-----|-----|
| 군 무 이 탈 | 112 | 101 | 188 | 127 | 182 |
| 폭 행 상 해 | 174 | 173 | 189 | 127 | 146 |
| 재 산 범 | 153 | 123 | 224 | 171 | 110 |
| 차 량 사 고 | 128 | 118 | 103 | 116 | 110 |
| 일 반 범 죄 | 229 | 227 | 248 | 251 | 241 |
| 계 | 796 | 742 | 932 | 792 | 791 |

옆의 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5개년간의 군기 위반별 摘發統計와 각종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66년도에는 數値上으로 동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에 비하여 軍紀確立 強化와 각종 사고방지에 몇배의 강력한 지지를 하달하고 團束한 것에 비하면 退步를

군풍기 위반 통계 (¼분기)

| 연도 \ 위반별 | 결례 | 복장위반 | 차량위반 | 증명서 불소지 | 무임승차 | 기타 | 계 |
|------------|-----|------|------|------------|------|-----|-----|
| '66 (1~3월) | 64 | 206 | 33 | 72 | 15 | 147 | 537 |
| '67 (1~3월) | 27 | 145 | 26 | 73 | 13 | 185 | 469 |
| 증 감 | -37 | -61 | -7 | +1 | -2 | +38 | -68 |

뜻하는 동물의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66년도 ¼분기와 67년도 ¼분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종 범죄 발생 (¼분기)

| 연도 \ 범죄별 | 군무이탈 | 폭행 | 재산범 | 차량 | 자살 | 일반범죄 | 계 |
|------------|------|----|-----|----|----|------|-----|
| '66 (1~3월) | 37 | 31 | 31 | 26 | 10 | 42 | 177 |
| '67 (") | 46 | 32 | 16 | 33 | 12 | 52 | 191 |
| 증 감 | +9 | +1 | -15 | +7 | +2 | +10 | +14 |

앞의 표에서 표시하듯이 군기위반자 처벌건수는 작년도 1/4분기에 비하여 수척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各種事故의 증가로 미루어보아 지능적인 음폐 또는 회피의 소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종 사고發生件數중 군무이탈자는 작년도 1/4분기에 비하여 9건이 더 발생하였고 차량사고가 7건이 더 발생하였으니 전반적인 사고 발생통계를 보면 작년도 1/4분기에 비하여 24건이 더 발생하여 군기문란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적인 통계의 결론에서 얻어진 중요한 것은 精神武裝의 현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軍紀確立要件

군기확립은 軍에 임대하면서부터 흔히 들어온 軍隊用語이다. 군내에서는 매사건건이 軍紀라는 接尾語가 붙는 것이 通例이다. 集合軍紀, 食事軍紀, 內務生活軍紀……, 就寢軍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에 서들은 용어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옛말의 馬耳東風격으로 군기에의 관심은 희박해 있다. 이것은 배타적인 사고에서 오는 독선과 무관심이 더 이기적인 사고에서 오는 個人主義的 현상과 소극적인 사고에서 오는 安逸無事主義의 思想이 군기라는 용어마저 엄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無責任한 姿勢로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군기를 확립한다는 것은 容易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動物的인 자극에서 얻어질 可能을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연적인 過程을 거쳐서 되어진다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人間으로서의 출신과 自己統制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군장병은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知性人으로 자처할 수 있는 人格者라고 인정하고 싶다. 어느 누가 강요한다고 하여서 채택을 가한다고 해서 他意에 의한 비참한 추종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얼마 전 紙上을 통하여 월남전에 대하여 外國의 한 政治家가 한 비유를 인용해 보면 「한 마리의 말에 물을 먹이려고 그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그 말이 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은 그 말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越南平和를 위하여 그들을 돕고 있는 외국인들이 월남인에게 대한 원망스런 표현이라고 보고 싶다.

군기확립의 主體는 곧 「나」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아 한다는 自我意識을 갖고 主體性을 확립하는 것이 군기확립을 위한 올바른 마음 자세이다. 이렇듯 군기확립은 그 누구만의 일이 아니고 업무가 아니다. 軍紀確立에 관계가 되지 않는 장병은 하나도 없다. 다만 군기확립을 위한 자 중 일부(대책수립단속 등)를 取扱하는 實務者가 따로 있

을 뿐이다. 흔히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 실무자만이 군기확립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기확립에 관한 나라는 存在는 客體가 아니고 主體인 것을 筆者는 確信하고 強調하는 것이다. 그리고 將軍이 절감하고 反省하여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실무자들에게 붙일 몇 가지를 쓰려고 한다. 군기확립업무는 전 장병에게 直接關係되고 基本이 되는 것이므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군에 입대하는 教育訓練過程에서 철저한 軍人을 만드는 것이다. 建築에는 무엇보다도 基礎工事が 중요하듯이 군인을 만드는 데 新兵教育訓練過程은 건축공사의 기초작업에 속한다. 工事에는 알맞는 設計, 충분한 資材와 성실한 勞力과 시간이 지출되어야 하듯이 한 군인을 만드는 데도 바람직한 教育訓練計劃과 실사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교육훈련 담당관들의 충성되고 성실한 노고를 군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新兵들이 배속되었을 때 실무부대 先輩 및 上官의 솔선수범과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에는 기본교육훈련을 받고 실무부대에 배속된 신병들이 느끼는 첫 印象은 教育部隊와 너무도 판이한 생활환경에서 실무부대 전입 첫날부터 군대생활의 二重性, 즉 要領主義를 습득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군기가 紊亂된 동

기증의 하나가 되겠다. 군기확립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통제와 솔선수범이 모우먼트가 된다. 이것이 곧 선배, 대부 단장 및 상관에게 추궁될 군의 책임이 될 것이다.

4 結 論

여기에서 空軍 全將兵에게 전하고 싶고, 強調하고 싶고, 公군의 앞날을 위하여 呼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군기확립이 장비현대화에 앞서 선결하여야 할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嚴肅한 質問이다. 우리는 이같은 軍이 주는 질문에 답할 義務를 가지고 있다. 오직 「음다」 「그렇다」는 간단한 대답뿐이다. 그리고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行動은 肉體的인 움직임뿐이 아니고 精神과 肉體가 同時에 活動하는 움직임이다. 이것이 곧 自己統制와 率先垂範인 것이다. 이것은 공군의 일원으로서 의무적인 행동이다. 이것이 곧 장비현대화에 앞서야 하는 精神武裝의 現代化이며 오늘날부터 우리는 군기확립의 역사적 과업을 위한 새출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군은 정신부장의 현대화와 裝備의 現代化로서 명실상부한 현대화된 공군이 될 것을 확신한다. 나 하나의 적은 힘이 군기확립에 절대적인 요소이고 국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부하면서 우리 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F-86F 첫單獨飛行

최 재 구

△소위·1전비 17비대▽

자! 이제 뜨긴 땀은 꽤 어떻게 내린
답? 첫單獨의 感想은 이것으로써 集
約表現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에게 單獨이라는 것은 곧 飛行. 그것이
다. 飛行의 끝 단독이라면 무슨 소린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넓고 깊고
부잡하고 이려운 느낌을 그 어떤 사람도
환희의 심연 속으로 파졌던 그 이의를
알지 못하리라. 『飛行』라, 『발차』라,

Power를 줄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
어, 올라간다. 올라가, 떨어지는 단편
적인 단어들. 나열로 排列된 Final
approach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지

만 太古전부터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
지 계속되어온, 필연명이 아닐까? 누
가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
다」라고 말했다지만 우리들의 「단독의
역사」는 飛行의 역사다. 『발차』라, 『

나를 나무랄까? 지금까지는 教官님들
이 불려주시는 歷史를 받아 배겨놓기만
하는 처지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스
스가 創造하는 것이고 훌륭한 Flying
history를 써야 하겠다. 나는 이것하고

침착하리라 애썼다. 飛行機 속에서 빛
반이 깊呼吸을 해 보며 탁 트인 시야
안 오를 따라 무엇이 잡힐까? 열렸고
보였을 祖國의 산수에 슬픈 애정의 눈

걸을 고루 배부해 주면서, 때론 계기를 점점해 주면서, 공금해 하실 교관님의 비행기는 어디에 있을까, 가끔前後左右로 고개를 돌려 보아가며 더 분을 창공을 누웠을 게다. 드디어 평정하여 내려가는 시간이 되었다. 브레이크와 페달은 모든 주의사항과 평소 배우고 연구해 두었던 節次와 操作要領, 동료들로부터 얻어들은 사항들을 일순에 정리해 가면서 무등산 상공에 機首를 두고 체크를 해주었다. 시야에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이전 어떻게 Initial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Pitch out,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 滑走路를 보면서 날 하면 브레이크의 『Speed brake out, Power 70% rpm』과 카카핀에서 브레이크의 땅음을 확인이므로 조작하던중 『아하, 후방석의 교관님이 안 계시지』하면서 스스로 고소를 급히 몰한 정도의 여유가 있을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다.

Roll out이거 Gear down, Flap down 하고나니 활주로 끝이 보구나. 그 후부터

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허나 姿勢와 計器點檢,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내려야 지구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自信과 信念으로 奮鬪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교관님이 시키는대로 따라 했을 뿐이다. 현대 그것이 Landing이었다. 이까지껏 가지고 그렇게들 마음을 줄이고 대망을 했었던가 하고 경박한 생각이 고개를 든다. 나는 무자비하게 이런 생각들을 불러 죽여 버린 끈 끈 다음 操作에 정신을 바로 잡아야 했다. 대대에

・ 操縦士 共同手記

나의 F-86F 첫 單獨飛行

김 무 신

△소위・1전비 17비대▽

오랫동안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푸른 蒼空을 거침없이 주름잡으며 배로 龍의 자취 같은 飛行雲을 뒤로 남기며, 하늘을 날아는 제트機를 탄다는 것

은 너무나 오래前부터의 꿈이요, 또한 所望이기도 하다. 士官生徒의 푸른 만포 자락 속에 갇혀진 情熱의 인물은 음단의 부끄러움을

물아 오니 동료들의 격려와 축하의 박수,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微笑들이 반가이 맞아준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에게 감사드렸다. 특히 教官님과 上司님들의 덕택이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화려한 나의 비행생활과 훌륭한 戰鬪操縱士로서의 소양과 기술연마에 나의 정열을 다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것으로써 나의 일상생애의 대망인 전투조종사로서의 첫 출발의 신호가 울리게 되었다.

아직 잔치하고 있을 때 汝矣島 飛行場에 서 L-19 A 機에 몸을 싣고 最初로 飛行機를 조종한다기보다는 飛行機에依해 배움을 받으며, 한 눈에全市를市街와 南漢山城을 보고 호모해하던 기쁨 玄海灘의 물결이 아직 잔잔하지도 못한 때, 釜山과 南海岸의 上空에서 T-28 A 機에 의해 처음으로 혼자 飛行機를 타고 (Solo Flight) 하늘을 오르내리던 感激, T-33 A 機로 제트의 날선한 느낌을 酸素마스크의 힘터거리던 숨결 속에 體感하면서 湖南날을 날으던 感慨, 이 모든 것이 내가 飛行機를 타겠다고決心했던 그 때부터 동경해 오던 것이었으며 드디어는 實際로 體験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모든 飛行機로 하늘을 날은 것은 戰鬥機를 타기 爲한 하나의 過程이며 單座아닌 複座로 되어 있어 일과 동안을 前後方席에서 서로 連結된 조종桿을 因緣으로 飛行術을 배워 單獨 飛行의 기쁨을 맛보았었다. 이제 막 첫 飛行을 마친 F-18 F 는 그 任務도 租

國의 하늘을 지키는 戰鬥機일 뿐만 아니라, 單座이어서 처음부터 혼자 操縱桿의 壓力을 느끼면서 滑走路를 구르는 사이 나도 모르게 하늘로 솟았고 또 아슬아슬한 속에 着陸을 完了했던 것이다.

T-BIRD (T-33A)에서 前後方席에 連結된 인터폰을 通해서 學生과 教官이 서로 가만 숨소리를 意識해야 하고, 飛行機에 오르는 그 瞬間부터 飛行을 마치고 돌아와 엔진을 끄고 飛行機에서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每飛行 操作마다 열심히 科目 制元 Procedure 를 의우고 나면 酸素마스크 속의 입술은 침이 허영게 말라붙어 있어, 내 자신의 생각과 判斷이 教官님의 생각과 助力에 의해 많이 制約받던 練習機와는 다르게 우선은 操作節次와 制元에 依하지만 훨씬 많은 내 자신의 判斷과 거기에 따른 依頼心 없는 자신의 操作이 戰鬥機를 다는 戰鬥操縱士의 過程에 있는 나를 恰足히 해주었고 이것이 바로 戰鬥機로구나 하는 생각을 세삼 느끼게

해주었다.

첫 飛行을 하기 前까지는 公明히 自信만 있으면서도 처음부터 혼자 모든 飛行을 責任지고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緊張했다. 그러나 막상 조심조심 離陸을 마친 뒤는 땅에서 그토록 생각했던 「어떻게 내릴가?」하는 걱정은 전혀 없었다. 우선 配當된 나의 訓練空域인 居昌을 찾아가는 일, 지금까지 地上에서 수십 번 익혀 自信이 있었던 계기판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아 더듬거리며 하나씩 찾아 正常値를 指示하고 있는가를 確認했다. 戰鬥機이기엔 射擊을 爲해 操縱席 앞부분엔 불꽃 눈인 Sight system 때문에 不利한 前方警戒과 飛行姿勢를 把握하기, 空域에 닿은 뒤에는 高度를 지키면서 各種 旋回 CHANDI-LBS LAZY-S 假想着陸場周를 그리기에 餘念이라곤 전혀 없었다. 飛行場에 되돌아와 Initial을 하고 가장 힘든 고비인 場周에 臨하니 지금까지 없었던 緊張이 있었던 몇 物件을 다시 찾은 듯 1

時에 스티브가. Gear Happ 1

숨을 죽이고, T-BIRD에서 익혔던
高度感을 意識하면서 땅으로 接近하였
다. 땅내음이 새가 몸을 意識되는 瞬間 두
바퀴가 滑走路 위에 닿았고 (바퀴가 땅
에 지질게 부딪쳤는지 사뭇히 내리 앉
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약간의 충격
으로 땅에 닿은 것을 意識했을 뿐), 이
제 땅에 내렸구나 하고 생각이 미치는
瞬間 一時에 緊張이 가시어지고 代身
疲勞가 全身을 掩襲한다.

· 操縱士 共同手記

나의 F-86F 첫單獨飛行

김 중 식

△소위·1전비 17비대▽

이렇게 戰鬪機인 F-86F의 첫 飛行을
마치니, 앞으로의 課題인 戰鬪操縱士의
任務를 훌륭히 遂行하기 爲해 더 豊富
하고 훌륭한 飛行術을 익혀야 하겠고
不遠萬里가을 祖國 蒼空의 防壁인 여
센 보라매가 되는 날 좀 더 有能하게任
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오늘의 飛行訓
練에 誠과 力을 다해 扎实的 鍛鍊해야
하겠다고 다시 생각해 본다.

막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
기 이상한 기분이라던 솔직한 표현일런
지도 모르겠다.
옛말에 『장년 문고리 잠기』 『소발에
취잠기』라는 말이 있으니 그 말이 이런
아리송한 기분에 적합한 文句가 아닐까

생각된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되어
하늘에 올랐나 땅으로 내려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이 첫 단독의 기분
이라면, 나도 보통사람의 도를 미급하
지 않는다는 자위감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이 느끼는 독특한 감정이

라면 너무나 비행장이 무덤 자식에 다
시 실망을 느껴야 되겠다. 벌써 몇 주
일 전에서부터 F-86F Chase를 앞둔
혼자만의 긴장과 아직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캄캄한 방수을 들여다보
는 것 같은 이상한 호기심과 야릇한 공
포는 단독비행을 마친 지금도 별로 가
신것 같지 않다. 나도 F-86F 전투기
를 탔다는 분명한 자신이 나를 조금은
안심시켜 주고 자신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나의 큰 수확으로 여겨진다.

남아로서 대답하고 속이 넓지 못한
때문이었는데는 모르나 첫 단독비행 브
레이크를 마치고 「G-Shift」를 입을 때
까지는 비찬 긴장이 온몸을 굳게 잡고
있었던 기분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예써 안정된 마음을 가지면서 천천히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배운대로 의부절
점과 내부절점, 엔진 시동을 끝냈을 때
는 이상하리만치 흥분하고 약간 자신
마저 갖게 된 기분이었다.

특히 바로 활주로 위에 정파하고 Power
만 뺐으면 비행기는 뜬다는 쉬운 절차

를 밟아 이륙을 할 수 있었다.

일단 활주로를 벗어나니 안정된 비행기에 크게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다. 먼저 T-33A보다 점잖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점잖을 때는 시골집만 형 같은 기분을 느꼈다.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지정고도의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교관님의 Level off 지시로 알았다. 내가 뜨긴 했으나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야릇한 공포를 가진 채 모든 空中操作에 임했다. 이 야릇한 공포가 가졌다 주는不安을 느끼면서 가장 어려운 코오스인 착륙 자세에 들어갔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또 하면서, 역시 로이 비행기가 T-33A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뒤에 따른 교관님의 지시에 따랐다. 다행히도 착주에서 속도와 파워가 정상적이었다. 파워 줄이기에만 신경을 가지면서 교관님의 지시에 뒤떨어진 것은 나 자신의 판단을 가미하였다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다. 한참 정신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르륵' 하교 바퀴가 땅에 붙는 감을 느낄 수가 있

었다. 즉, 나를 태워준 큰 새가 사뿐히 땅에 앉는 것이다.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 操縦士 共同手記

나의 F-86F 첫 單獨飛行

이 태 규

△소위·1전비 17비대▽

과일통이라는 自負 속에 오늘도 초년병으로서 F-86F의 單獨비행의 감회 속에 하늘을 날았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부단히 새로운 사실과 환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여기에

달라지 않고 과감히 鬪爭하고 싸우면서 새로운 적응자를 만들어 自己化하는 연속의 과정 속에 성장해 가는 것이다. 비행생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訓練期間을 통해 L-19, T-28, T-33 과정을 거쳐 오면서 항상 새로운 操作의 부딪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열심히

가져면서도, 여러 번 날한 기분이 가셔서 지 않은 채 나의 첫번 단독은 끝났다.

배우고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다. 물론 많은 노력과 고충이 뒤따랐지만 이의저의의 투쟁, 기계문명의 도전에 의 와중에서 落伍者란 쓴맛을 보지 않은 것은 그때도 훈련과정에서의 승리라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教官님들과 여러 上級님들의 노력과 배려가 결실이 있었지만 이제 飛行生活는 자신의 인생행로에서 배움을 수 없는 일과요, 돌도 있는 활파자가 되었다.

태규

어릴 때 하늘의 神祕로부터 동경을
지나 얻었던 현실 속에 오늘날도 말없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어쩔 수 없
는 필연적인 것이지도 모른다.

1월 10일 후련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F-86F 單獨機를 몰고 난 위의 飛行

△ 6 피 ◇

★ 全天候 發光道路 발명
★ 캐나디안 특수塗料 뿌려

캐나다의 연구자들은 아무리 어
둡고 아무리 짙은 안개가 커서도
길이 환한 빛을 발산하여 자동차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차를 몰수 있
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도론도대학의 연구진에서는 석
유에서 아주 특수한 도료(塗料)를
빼내는 데 성공했는데 이 물질은
자의선에 민감하며 낮에 밝은 태
양광선을 비추해 두었다가 밤이면
자동적으로 이를 발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치 도로포장할
때 뿌려 놓기만 하면 지워지지 않
아는다고 한다.

【필트립을 AFP】

하얀 산들을 굽어보면서 푸른 창공을
날았다.

물론 나가기 전에는 심적으로 긴장은
되나 지금까지 선배 조종사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니 자신이
생겼다.

물론 한 번도 조종해 보지 않고 처음
으로 올라간다는 야릇한 恐怖感만은 어
절 수 없었다.

조작 하나하나 교관님의 지시에 따라
지만 지금 생각하니 자신이 비행기를
콘트롤한 것 같지 않은 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때도 T-33을 끌내고 操縱胸
章까지 달고 있는 한 사람의 조종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교관님에 대한 의뢰감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럽기조차 하다
잘못하면 교관님이 고쳐주겠지 하는 의
의식은 결국 자신의 비행조작에 대한
발전을 기할 수 없는 糖的 存在다. 단
두기인 F-86F는 누구 하나 몰봐 주
는 사람이 없다. 자신의 조작, 판단만
이 자신과 얘기를 구할 수 있다는 고등

비행후련이란 것을 깨닫기에는 많은 시
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좀 더 자신 있는 조작을 할 수 있었
을 텐데 하는 후회 속에 이제는 막연한
추종으로부터 脫皮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 계획적인 비행생활을 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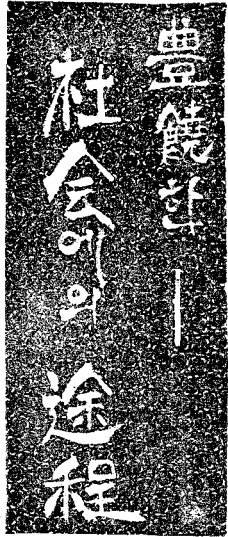
한 시간의 空中操作을 마치고 무사히
基地에 安着하고 나니 목직한 飛行機가
다음에 들었으며, 또 전투기로서 탈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과거 教官님들로부터 항상 듣는 이야
기지만 이왕 비행기를 타려면 스타아트
하게 타도록 하라는 말씀을 기을삼아
조작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생각하고 연
구해서 남에게 뒤져지 않는 벗있는 비
행후련을 해 볼 작오다.

너무나도 감정이 무더기에 첫 단추
나갔다 온 것에 대한 특별한 감상도 없
는 모양이다.
다만, 3차원의 공간예측을 수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들 뿐이라는 무한한
자부속에 내일의 알찬 보람을 다짐
한다.

○ 지난 6代 大統領選舉에서 現 朴正 ○
 ○ 熙大統領은 壓倒的으로 國民의 支持 ○
 ○ 를 받고 再選됨으로써 政局의 安定基 ○
 ○ 調를 繼續 確保함으로써 豊요한 祖國 ○
 ○ 建設에 더욱 專念할 수 있게 되었다. ○
 ○ 여기 朴大統領이 強力히 推進하고 ○
 ○ 있는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主要部分 ○
 ○ 을 파헤쳐 봄으로써 70年代에는 기어 ○
 ○ 고 成就될 亞細亞의 工業國家로서의 ○
 ○ 밝은 未來像을 어림해 본다. ○

特 輯



1970年代의 未來像

李 勝 雨

1. 基本目標

1967년부터 시작되어 1971년에

끝을 맺을 第2次5個年計劃이 참고 있는 基本目標는
 첫째로 바로 健全 經濟秩序 위에 모든 産業의 구조를
 「近代化」해 나가자는 것이요 둘째로 「自立經濟」를 달성
 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계속 促進해 나가자는 데 있는 것
 이라 하겠다.

- ◇ 1970年代의 未來像……………李 勝 雨
- ◇ 石油化學工業의 發展·咸 秉 昭
- ◇ 人力海外進出의 展望·李 熙 均
- ◇ 住宅建設計劃……………金 得 兆

2. 重點方向

위와 같은 두 가지의 基本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뒷받침으로서의 중요한 政策의 方向은

△첫째로 國民소득의 획기적 증가를 피하는 것으로 국민총생산은 1965年度の 수준에 비해서 1971년에는 두 배인 150%나 늘일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農村과 都市間에 벌어지고 있는 所得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營農을 여러 도로 개선하도록 하고 농업과 公營間에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農村所得을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로 自立經濟를 이루려는 忱출발로서 國民生活의 基本요건이 되는 食糧의 自給自足を 기어 이 이를 것이며

△셋째로 工業化計劃을 強力하게 추진할 것으로서 경제개발을 서두르는 우리의 근본목적이 工業化라고 할진대 1次 5個年計劃에서 이루어 놓았던 肥料, 「시멘트」, 精油, 電氣 等の 工業分野에서 2次 5個年計劃에 들어와서는 化學, 鐵鋼 기계工業 等に 重點을 두고 工業의 生産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네째로 71년에 가서는 7億弗의 輸出目標을 달성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쏟을 것이다. 이와 같은 輸出의 증대는 外貨를 벌어들이는 데 意義가 있을 뿐만 아니라 國內工業에 자금을 주어서 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서 所得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로 雇傭을 늘이고 人口의 팽창을 억제할 것이다. 人口가 늘어버리면 우리가 이룩해 놓은 經濟발전이나 成長은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므로 계속 高度의 成長을 위하여 2次 5個年計劃에서는 원칙적으로 人口가 늘어나는 過程에서 自然人口增加率을 2% 以內로 떨어뜨릴 계획이며 반면에 이미 늘어난 人口에 대해서 는 自自라리를 주어 失業者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 방침이다.

적어도 勞動人口 가운데 失業者의 率은 7,4%에서 5% 수준까지 내릴 계획으로 特히 農村에 숨어 있는 失業者를 都市로 끌어내어 일터를 줌으로써 國家經濟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로 科學技術을 振興해서, 人力을 開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勞動人口가 많아서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남아 도는 실정에 있음은 위에서 밝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對策도 말한 바 있지만 이와같은 勞動力量의 質으로 높이기 위해서 科學技術을 振興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모든 産業分野의 生産에 연결시켜 줄

으로써 生産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이룩해 놓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敎育部門에서 實業敎育에 重點을 둘 것은 물론 技術訓練 그리고 國際間에 기술協力도 촉진할 것이다. 特別 科學技術振興 5個年計劃을 추진시켜 約 25萬名의 기술자를 양성해낼 것이다.

3、國民總生産

1967년부터 우리 經濟는 每年 平均 7%씩 불어나고 1971년에 가면 그 규모가 지금보다 50%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같은 7%식의 成長을 1次 5個年計劃 期間中의 平均 成長率과 비교해 보면 그때 이루어 놓았던 8、5%보다 약간 낮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製鐵, 기체化學, 造船 등의 資本이 많이 들어가는 資本集約的인 部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일어난 「인플레이」를 생각해서 진실하게 세워진 계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경우에 國民總生産은(1965年 가격) 65年의 7,790億원에서 1兆169億원이 될 것이다.

4、1人當 國民總生産

경제규모가 每年 平均 7%늘어나는 데 힘입어서 50%

擴大됨에 따라서 人口 自然증가율은 2% 수준에까지 늘어 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71년도에 32百萬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면 1人當 국민총생산은 65년에 2萬7千원이었던 것이 3萬6千원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5、産業構造의 改善

第2次 5個年計劃이 삼고 있는 基本目標가 産業構造를 近代化하자는 데 있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지만 계획 기간중에 農林水産等은 年평균 5、0%씩 성장되어 나가고 非農林水産業은 8、1%씩 성장되어 가되 特別 그 가운데 鑛工業은 每年 10、7%씩 성장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高度化」하고 「近代化」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와같은 産業別 成長에 따라서 産業構造는 65년에 總附加價值面에서 鑛工業이 차지했던 비중이 22% 수준이었던 것이 27% 수준으로 그比重이 한결 무거워지게 될 것이다. 한편 生産水準도 農林水産部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량증산과 水産의 획기적인 진흥시책으로 45%가증가될 것이며 鑛工業部門은 65年度에 比해서 93%가늘어난 것이다.

6, 商品輸出構造의 改善

輸出入 규모는 65년도 수준보다 近 2 倍以上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우리의 自力輸出의 內容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商品輸出 가운데 工業品의 比重은 계속 늘어서 65년도 전체 수출품 가운데 工業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62, 3%이었던 것을 74%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工業品 비중이 이처럼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工業品을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產業體가 활발하게 가동될 것이고 이에 따라 雇傭이 늘어날 것이며, 생산이 늘어나서 우리의 產業構造를 近代化하는 것과 서로 연결지어져 발전되어 감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輸入面에서의 규모도 65년도의 4 8 2 百萬弗에서 9 6 2 百萬弗로 될 것으로 약 2 倍로 늘어날 것이지만 그 輸入 가운데 우리가 벌은 外貨로 들어온 比重이 65년의 경우 54%이었던 것이 71년에는 70%로 늘어나서 國際收支面에서 自立度가 점점 커져 갈 것이다.

7, 投資財源의 調達과 配分

제 5 次 5 個年 計劃을 밑고 나아가기 위한

總投資소요액은 9, 8 0 0 億원으로 끌어내는 財源別로 보면 재원이 61, 5%로 6, 0 2 9 億원이 동원될 것이고 外國의 財源이 38, 5%인 3, 7 7 1 億원(約 14 億弗)이 이에 동원될 것이다.

한편 이와같이 동원될 投資의 財源 가운데 國內財源은 民間자본의 동원을 통해서 3, 8 4 0 億원, 그리고 政府貯蓄이 2, 1 9 0 億원으로 예측되고 있고 海外財源의 동원은 長期로 끌어내고 條件이 좋고 부드러운 借款으로 8 3 5 百萬弗을 끌어낼 것이지만 거의 이것은 이미 그중의 대부분이 對韓國國際經濟協議體를 통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나라가 많은 실정이라서 전망이 밝을 뿐 아니라 계기간중에는 美國의 支援援助等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對日請求權資金이 1 億 5 千弗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14 億弗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와같이 해서 들어오고 마련된 財源의 投資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社會間接資本「서어비스」등에 53%를 投資해서 輸送、電氣、通信部門 등에 새로운發展을 가져올 것이고 肥料、石油化學、機械 등 鑛工業 등의 2 次產業에 30, 7%를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近代化하는데 全力을 다할 것이며 農林水産에는 1, 5 9 1 億원을 투자해서 年平均 5%씩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도록 밑고 나갈 것이다.

또한 1967년의 産業別 資金投資計劃을 보면 政府는 우선 事業別로 投資의 效率性이 높은 事業부터 優先順位를 定하여 놓고서 이 原則에 따라서 資金을 效率的인 事業부터 우선적으로 配分 投資할 것이다.

1967年度の 投資總計劃은 2,276億원으로서 이는 第2次5個年計劃 1次年度計劃인 1,796億원보다는 約 470億원을 追加投資하도록 計劃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次産業인 農林水産部門에 297億원을 투자하며 2次産業인 鑛工業에 587億원을 투자하고 3次産業인 社會間接資本 其他「서어비스」部門에 1,164億원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固定資本形成 2,049億원과 在庫增加 226億원으로 나타난다.

1966年度와 對比하여 보면 농림수산부분은 1967년도에 前年對比 115%, 광공업은 21,9%, 사회간접자본 기타「서어비스」部門은 13,6%로 각각 증가되고 있다. 이는 나후된 農林水産部門의 近代化와 工業造成을 위한 投資를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8. 一般財政收支

△財政收支▽

「近代化와 自立」을 내세워서 밀고 나가는 第2次5個年計劃期間중에 정부가 할 역할은 실로 중대한 것이지만 우선 정부의 재정부터 「自立」하고 절약 저축해서 「投資」를 늘이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政府의 財政부터 살펴보면 收入面에서는 建國以來 數年을 두고서 우리 재정예산에 한 모퉁이를 차지해서 復興→再建→自立으로 이끌어 오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美國의 支援援助가 차츰 줄어들어서 71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國民이 내는 세금과 政府가 活動해서 벌어들인 財源으로 우리 財政을 움직이게끔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우리는 「財政의 自立」이라 일컫고 이것은 바로 經濟自立의 한 편이 이루어지는 셈이 될 것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租稅가 늘어나서 이에 代身하게 될 것이므로 國民의 부담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다. 물론 租稅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租稅의 負擔率이 10,9%에서 14,2%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高額所得者에 대한 累進課稅와 아울러 새로운 課稅를 부과하는 範圍를 넓히고 음성세원을 포착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절대액을 늘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一定한 定額所得者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1971年 國民經濟의 모습

위에서 말해 온 第2次計劃의 基本目標들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目標年度인 1971년에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게 될 것이다.

(1) 經濟의 規模擴大와 構造改善

(가) 경제규모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에 50%擴大될 것이다.

(나) 1人當 國民總生産은 31% 증가한다.

(다)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공업구조도 高度化된다. 이 期間中에 農林, 水産業은 年平均 5%씩, 그밖의 산업은 8%씩 성장하여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며, 鑛工業의 국민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율은 22%에서 27%로 뚜렷한 進出을 보일 것이다.

(라) 雇傭은 1965년의 8,5百萬人에서 1971년에는 22%가 증가한 10,4百萬人에 달하며, 완전실업자는 1965년의 7,4%에서 5,0%로 줄어들 것이다. 雇傭構造에 있어서는 鑛工業部門의 고용이 9%에서 12% 이상으로 늘어나 농업부문에서 남아돌아가는 노동력을 흡수해 갈 것이다.

(2) 自立度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잉여양곡은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수출은 商品 550百萬弗, 貿易 169百萬弗로 모두 719百萬弗이 되며,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支援助助를 받지 않고도 總輸入 962百萬弗 가운데 自力에 의한 輸入이 75%로 크게 늘 것이다. 1965년에는 총수입 492百萬弗 가운데 自力에 의한 수입은 60%이었다.

(다) 總歲入에 대한 국내수입의 비율은 1965년의 73%에서 92%로 올라서 財政의 自立度는 더 한층 向上될 것이다.

(라) 投資財源도 自力으로 조달할 수 있는 比率이 1965년의 48%에서 1971년에는 72%로 높아질 것이다.

(3) 國民生活의 基本需要充足

(가) 식량은 10,2百萬M/T에 달하는 총수요를 모두 자급해서 한 사람 앞에 하루 소비량이 1965년의 3,6홉에서 3,8홉으로 늘어날 것이다.

(나) 한 사람이 1년동안에 소비하는 綿織物은 현재

와 같은 3mm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化學纖維의 소비량은 1965년의 0.7Kg에서 1.3Kg이래 배가 된다.

| 區分 種別 | 單位 | 1965 | 1971 | 倍率 |
|----------|-----------|--------|--------|------|
| 鐵鋼材 | 1,000 M/T | 266 | 686 | 2.6 |
| 石油類 | 1,000 Bbl | 10,205 | 35,094 | 3.4 |
| 알루미늄類 | 1,000 M/T | — | 15 | — |
| 化學肥料 | 窒素質千M/T | 75 | 375 | 5.0 |
| 소오다灰 | 1,000 M/T | — | 100 | — |
| 시멘트 | " | 1,614 | 4,520 | 2.8 |
| 電動機 | 1,000 馬力 | 289 | 719 | 2.5 |
| 自動車 | 1,000 臺 | 1.4 | 24 | 17.1 |
| 造船能力 | 1,000 M/T | 64 | 150 | 2.3 |

(다) 계획기간중에 83萬 3千戶의 집을 지어 늘어나는 人口에 맞추고 남은 집을 고친다.

(4) 基幹工業의 擴充

工業生産水準은 2倍가 되며 輕工業과 重工業의 비율은 1965년에 72對28이었던 것이 66對34로 重工業의 주요생산품은 위와 같다.

(5)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가) 電力生産은 1965년 769千Kw에서 1,650千Kw로 증대될 것이며 電化率은 25% 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나) 總貨物 수송량은 1965년의 5,365百萬噸/Km에서 9,553百萬噸/Km로 여객수송량은 11,932百萬人/Km에서 23,410百萬人/Km로 늘어날 것이다.

(다) 都市 및 農漁村의 國民學校 교실을 신축하고 18千교실을 개축 또는 보수해서 二部制以上을 없앤다.

(6) 山林綠化와 國土의 保全

(가) 全國 도로망과 교량이 정비강화된다.

(나) 水利施設을 확대하여 1965년의 水安全全番을 56%에서 70%로 늘린다.

(다) 山林綠化의 促進으로 未造林地 26%를 5%의

하루 줄게 하며 成林地는 95% 이상으로 擴大될 것이다.

1980年代 韓國의 모습

앞으로 15년 以後의 우리 韓國의 모습은 지금과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우리 경제는 마야흐로 완전한 自立體制를 갖추게 될 것이고 골고루 균형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게 되어 「近代化」의 굳건한 경제적 기초가 확립될 것이다.

(1) 所得水準

(가) 국민총생산 규모는 지금의 約 3倍가 될 것이다.

(나) 1人當 國民所得은 지금의 約 倍로 늘어나 58千 원이 될 것이다.

(다) 戶當(5人) 年間所得은 300千원이 될 것이다.

(2) 産業構造는 高度化될 것이다

(가) 農林、水産業에 치우친 産業構造의 比重은 점차로 工業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鑛工業의 構成比가 많이 늘어나서 거의 比等하게 될 것이다.

(나) 그리하여 農林水産業과 鑛工業 그리고 社會間接資本과의 比重은 26·32·42가 될 것이다.

(다) 農業經濟는 기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農村부터

近代化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消費類型은 高度化되어서 自動車와 家庭用 電氣器具의 生産은 本格化될 것이다.

(3) 電力 및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가) 電力은 지금의 5倍以上이 될 것이며 4百萬kw의 規模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 原子力 利用 등 「에너지」 供給源이 크게 전환될 것이다.

(다) 수송은 지금의 3倍以上으로 되어 우리의 生活必需品와 産業用資材는 원활하게 수송되어 나갈 것이다.

(4) 人口는 年平均 2% 未滿의 自然증가를 이루어 81년대에 가던 39百萬人이 될 것이다.

(5) 文化的 國民生活의 向上

모든 국민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어 民間消費支出은 1人當 基準으로 67%가 증가될 것이며 아울러 國民生活의 消費構造는 多樣化되어 文化生活을 누리게 위한 支出의 比重이 늘어나서 「엔셀係數」는 1965年度의 58%에서 43%가 될 것이다.

또한 住宅 문제도 점차로 完化되어 가면서 「1世帶 1住宅」의 目標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義務教育은 많이 完化되어서 二部制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石油化學工業의 발달

咸 秉 昭
〈商工部 石油化學課長〉

1. 石油化學工業이란?

石油化學工業이란 石油 또는 天然 가스를 原料로 하여 化學製품을 生産하는 化學工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石油를 母體로 하여 日常生活 또는 産業 機械에 必要한 近代的 物質인 合成樹脂(Plastics), 合成 纖維, 合成 고무, 合成洗劑, 溶劑, 其他 有機化學藥品等 을 製造하는 工業을 總稱하여 石油化學工業이라고도 한다.

最近 石油化學工業의 出現은 從來 化學工業界에 一大 變革을 가져왔다.

從來 有機化學의 큰 比重을 占有하고 있던 石炭의 炭 工業이나 카바이드 아세틸린工業 및 醱酵工業等의 製品들이 大部分 石油를 原料로 하는 石油化學製品으로

代替 生産되고 있는 것이다.

石油化學製품中에는 石油化學方法이 아니면 製造할 수 없는 포리에스틸纖維 같은 製品도 있으나 醱酵工業, 炭工業, 카바이드工業에서 生産되는 製品까지도 石油化學製품으로 通稱하는 것은 石油를 原料로 使用하여 製造하는 方法이 보다 低廉한 生産原價, 보다 高純度の 製품을 生産할 수 있기 때문이다.

石油가 化學工業의 合成原料로서 他原料에 比해 有利하다는 것은 첫째, 石炭에 比하여 炭素와 水素와의 比率이 크며(即 水素가 많아 反應性이 높다), 둘째, 灰分이 적고(石炭, 木材에 比하여), 셋째, 水分 含量이 적으며 넷째, 液體이므로 取扱이 容易하기 때문이다 特別 資源이 豊富하고 廉價이며 價格이 安定되어 있다는 點이다.

또한 石油化學工業 分野의 企業性에 있어서도 他産業

의 追從을 不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現代 產業構造에서 國民經濟의 成長을 推進하는 中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重化學工業의 生産이며 이는 外國의 例로 보아 國民經濟成長率의 2倍는 維持하고 있다. 이中 石油化學 學生産은 새로운 高度의 生産分野이기 때문에 重化學工業의 平均成長率의 2~3倍 即 國民經濟成長率의 4~6倍는 成長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政府에서는 第2次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樹立 推進中에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本期間中 國民經濟成長을 年平均 7%로 設定 目標達成을 積極推進하고 있음에 上記의 例와 같이 石油化學工業의 成長率이 높음을 勘案할 때 하루 速히 建設하여 成長率을 上昇시키는 役割을 하게 함이 政府의 施策이며 國民全體가 모름지기 바라는 것이 될 것이다.

2. 第2次經濟開發 5個年 計劃과 石油化學工業

가, 投資規模의 比較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府 第2次經濟開發 5個年 計劃 期間中 石油化學工業 投資率은 綜合製鐵工場과 거의 비슷한 約 10% 線을 維持하고 있다. 다시 말

여 보다 하루 速히 所得을 높이고

| | 投資額(億圓) | 石油化學部門 投資額의 比重 |
|-------------|---------|----------------|
| 總 投資 額 | 約 9,800 | 約 2.7 % |
| 鑛 工 業 部 門 | " 3,010 | " 9.1 % |
| 製 造 業 部 門 | " 2,548 | " 10.3 % |
| 石 油 化 學 部 門 | " 272 | — |

(資料：第2次經濟開發 5個年 計劃)

하면 基幹産業에 對點的인 投資로서 1次 5個年 計劃期間의 第2次 産業育成을 넘어선 基幹産業 擴充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나, 經濟成長率 維持에 對한 寄與度

政府에서는 本石油化學工業의 完工年度 即 目標年度를 第2次 5個年 計劃期間의 3次年度인 1969年을 目標로 하고 推進하고 있다. 이는 輸入代替로 外貨를 節約하고 加工輸出로 外貨獲得을 期하 成長에 寄與코자 함

예를 들면 美國의 石油化學工業은 成熟期에 達하고 繁榮의 頂上에 있음에도 앞으로 5 年間의 年平均 成長率 15%로 推進中에 있다. 이는 美國의 國民經濟成長率約 3%에 對하여 5 倍程度를 維持코자 함을 말한다. 또한 日本의 경우 1962 年度의 不況期에 있어 他工業은 不進하였으나 石油化學工業은 約 50%의 成長率을 보여 全體 國民所得 向上에 寄與하였으며 其後 年平均 成長率約 60%로 成長하여 日本의 急進的인 發展에 核心을 이루었으며 드디어는 世界 第2位의 石油化學工業國이 되었다.

이와같은 例로 보아 目標年度인 1969 年에 完工될 경우 第2次 經濟開發 5 年 計劃期間의 國民經濟成長率 7%에 寄與度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輸入代替 및 輸出增大

政府에서 計劃中인 石油化學工業分野의 (別表 參照) 生産額은 現國際時勢로서 年間約 1억 1천 2백萬弗에 相當한다. 더우기 이를 加工하여 輸出할 수 있는 것이 合成樹脂、合成纖維、合成 고무의 加工等으로서 1971 年度에는 約 4 億弗 程度로 豫想한다. 이와같이 國內 生産으로 外貨를 節約하고 이를 加工輸出함으로써 外貨 獲得을 期함에 一石二鳥의 產業이라 할 수 있다.

① 合成 석유의 消費 實績 (P는 推定值)

| | '61 | '62 | '63 | '64 | '65 | '66 |
|----|-------|-------|-------|-------|--------|------------|
| 生産 | 189 | 220 | 546 | 1,665 | 1,854 | 2,598 |
| 輸入 | 3,236 | 3,718 | 7,310 | 6,422 | 8,326 | 11,036 (P) |
| 計 | 3,425 | 3,938 | 7,856 | 8,087 | 10,180 | 13,634 (P) |

라、石油化學製品 消費實績으로 본 石油化學工業 開發의 必要性

表 ①②에서 보는 바와같이 石油化學製品 消費 實績은 年次的으로 增大되어 왔다. 이는 產業界의 무드를 造成시켰으며, 國民一般의 興望이 漸高되었고, 또한 石油化學工業 製品의 市場이 確立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合成纖維, 合成 고무, 合成洗劑, 合成 고무等 石油化學製品이 國民大衆의 親近한 製品으로 生活周邊에 各樣 各色으로 浸透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消費實績, 무드 造成, 生活周邊에 浸透되었다는 點은 本工業

② 合成樹脂의 消費實績

[單位 M/T]

|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
| P. V. C. | 1,350 | 1,380 | 1,550 | 2,210 | 3,500 | 5,551 | 6,240 |
| P. E. | 1,800 | 2,080 | 2,100 | 3,000 | 3,100 | 3,746 | 5,800 |
| P. S. | — | 610 | 1,732 | 540 | 704 | 616 | } 4,660 |
| 其他 | | | | | | 362 | |
| 計 | 3,150 | 4,070 | 5,332 | 5,750 | 7,304 | 10,275 | 16,700 |

3. 石油化學工業 開發計劃 概要

가. 規 模

| | | |
|----------------------|--------------|-----------------------|
| ① 납사分解工場 (벤젠抽出施設) | 에치렌 基準 벤젠 | 60,000噸/年 33,000 " |
| ② 포리에치렌工場 | | 28,000 " |
| ③ V. C. M. 工場(鹽素包含) | | 28,000 " |
| ④ 알킬벤젠 工場 | | 6,800 " |
| ⑤ 아크리모 니트릴 工場 | | 24,400 " |
| ⑥ 사이크로 헥산 工場 | | 16,000 " |
| ⑦ S. B. R. 工場 | | 15,000 " |
| ⑧ 스타이렌 모노타 工場 | | 20,000 " |
| ⑨ 에치렌 그리콜 工場 | | 11,400 " |

의 開發이 必要하다는 結論을 가져온 것이다.

| | |
|-------------|-----------|
| ⑩ P.V.C. 工場 | 36,000噸/年 |
| ⑪ 카프로락탐 工場 | 13,000 " |
| ⑫ 폴리스타이렌 工場 | 12,000 " |

| 項 目 | 外 資 | 內 資 | 計 |
|------------------|--------|--------|---------|
| ① 工場 建設費 | 59,928 | 14,928 | 74,910 |
| ② 創業 및 試運轉費 | 5,862 | — | 5,862 |
| ③ 建設期間 利子 | — | 3,361 | 3,361 |
| ④ KNOW-HOW 및 特許料 | 11,703 | — | 11,703 |
| ⑤ 豫費附屬品 | 1,780 | — | 1,780 |
| 可償却 總資產 | 79,274 | 18,343 | 97,617 |
| ⑥ 土地 | — | 475 | 475 |
| ⑦ 運轉資金 | — | 12,247 | 12,247 |
| 小 計 | — | 12,722 | 12,722 |
| 總 合 計 | 79,274 | 31,065 | 110,340 |

나, 所要資金
 上記規模中 ①~⑨番까지는 Con-
 binat 形態로 綜合 建設코자 하며 이
 의 所要資金은 다음과 같다.

다, 石油化學工業의 原料調達
 石油化學工業原料로 使用되는 「남자」는 計劃中인 남
 자分解工場(에치렌基準: 6,000噸/年)에 約 7,0
 00,000 B.P.S.D.가 必要하게 된다.

이는 現精油工場의 施設容
 量으로도 充足할 수 있으며
 더욱 蔚山精油工場의 倍加 및
 湖南精油工場 建設로서 餘力
 이 있어 原料調達問題는 既解
 決되어 있다.

라, 精油工場 現況 및 建
 設計劃

① 蔚山精油工場(大韓石油
 公社)
 本工場은 政府와 美國의
 Gulf Oil Corporation과의 合
 作投資된 것으로서 其施設容量
 은 25,000 B.P.S.D.이며
 67年 3月末까지 20,000
 B.P.S.D.의 增設계획이 있다.

石油 化學工業 系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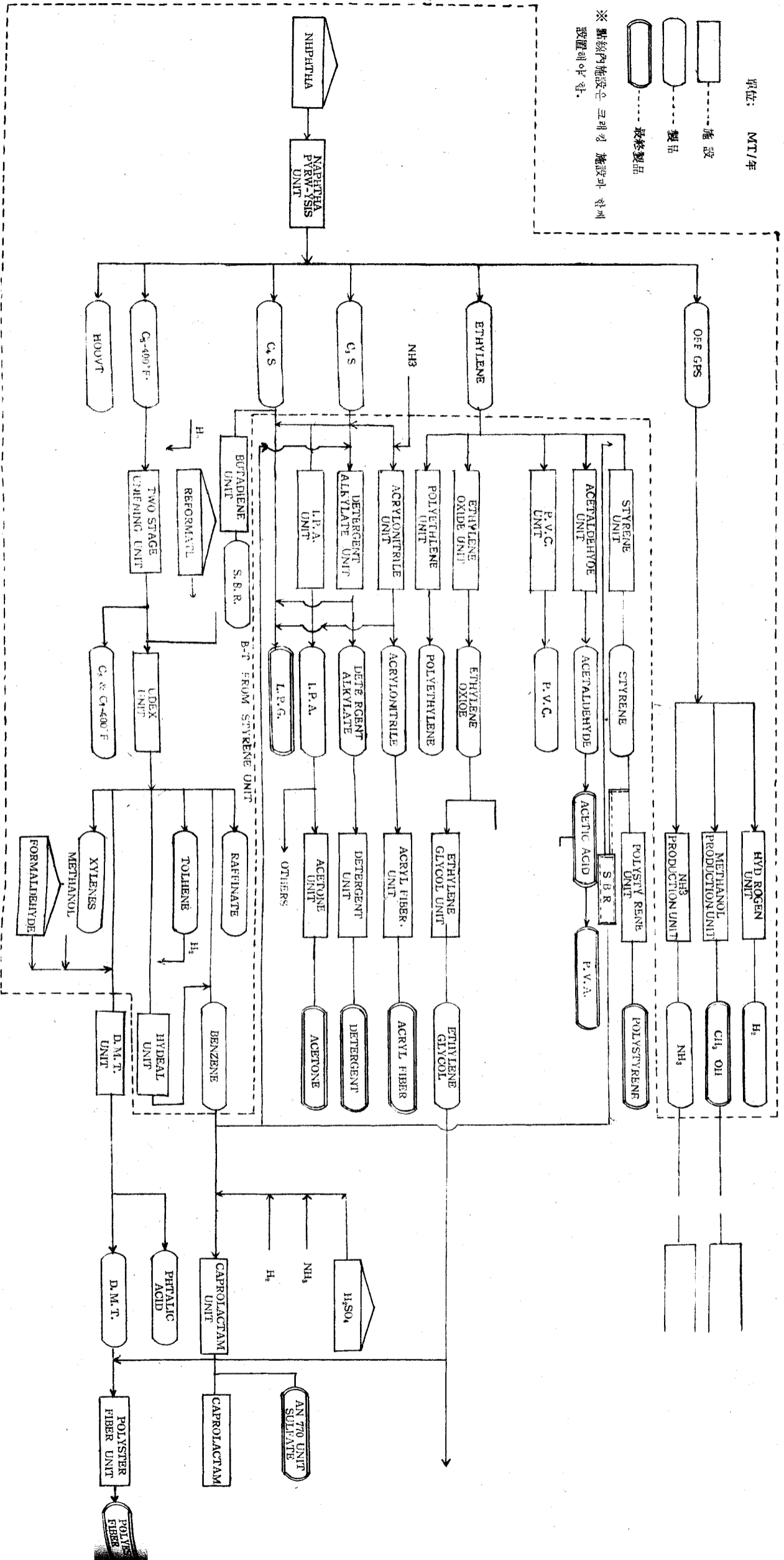
單位: MT/年

○ 施設

○ 製品

○ 最終製品

※ 點線內施設은 크레킹 施設과 關係 設置되어 있음.



000 B.P.S.D.의 施設을 保有한다.

또한 本工場 構內에 別途 60,000 B.P.S.D.의 施設을 67年末까지 完工豫定으로 推進中에 있다.

② 湖南精油工場

本工場은 全南 麗水에 建立될 工場으로서 其容量은 60,000 B.P.S.D.이다. 이 工場은 우리나라의 樂喜化學 Co.와 美國의 Caltex와의 合作投資로서 建立될 것이며 68年末에 完工豫定으로 推進中에 있다.

4. 結 論

石油化學工業은 裝置工業으로서 巨額의 施設資金이 所要되는데 資本蓄積이 貧弱한 國內資本으로서는 特別히 一社 單獨으로서 建設한다는 것은 困難한 實情이다.

이와같은 點으로 볼 때 外國으로부터 借款은 勿論 內資調達을 爲한 外國人(企業體)과의 合作投資도 考慮하고 있다.

더우 內資動員의 一策은 國民여러분의 貯蓄에 基因되는데 本石油化學工業의 成功的인 建立을 爲하여 各者 最大限의 貯蓄을 政府는 바라고 있다.

本工業이 成功裡에 成就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基幹産業이 이룩되며 國際競爭의 발판을 갖게 되는 것이다.

〈三표〉

25年만에 戴冠式 舉行

★이란王

아이를 못낳는다고 미모의 소라야 왕비를 내쫓고, 후처를 맞아들여 한때 화제를 일으켰던 이란의 팔라비왕은 25년 전에 즉위했을에도 『가난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부끄러워』 지금까지 내관식을 미루어 왔는데, 드디어 내관식을 갖기로 했다고.

△外誌에서▽

60年後에 蘇生할지?

★零下 195.C로 屍體冷凍

50년이나 60년 뒤에 그때에 발단될 의술로 수술을 받아 소생하겠다고 자진 냉동인간 제1호가 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제임스 베드포드박사의 시체가 최근 애리조나주 페닉스에 도착하여 섭씨영하 195도로 냉각되었다.

앞으로 75세를 일기로 사망한 베드포드박사의 시체는 그의 유언에 따라 냉동된채 50년 내지 60년간 저장되었다가 다시 녹혀서 그때의 발달된 의술과 암치료법으로 그를 소생시키는 수술을 받도록 되어 있다.

△페닉스 AFP▽

人力海外進出의展望



李 熙 均
△勞動廳 企劃管理官▽

1, 序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 우리 나라는 完全失業者가 60萬 내지 70萬名에 達했다. 물론 이 數値는 正確한 것이 아니고 또한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功에 의해서도 完全雇傭이 이루어지리라고는 豫測되지 못했다. 이러한 龐大한 遊休勞動力은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職業生活의 不安 내지 社會不安의 가장 큰 要素이었으며 後進國 共通의 慢性的 失業問題로서 누구도 二短期的 解決에 대한 妙案을 갖기는 어려운 문제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海外로 눈을 돌려 人力의 海外進出을 위해 새로운 行政方針을 채택하게 되었다. 1962年 保健社會部에 移民課를 新設하고 海外移民事業을 推進

하는 한편 勞動廳은 集團的인 大量의 海外就業의 길을 各方面으로 交涉하게 되었다. 西獨鎭夫派遣이 1962年부터 交涉되어 1963年末에 實現케 됨을 嚆矢로 1966년에는 海外就業의 「본」을 이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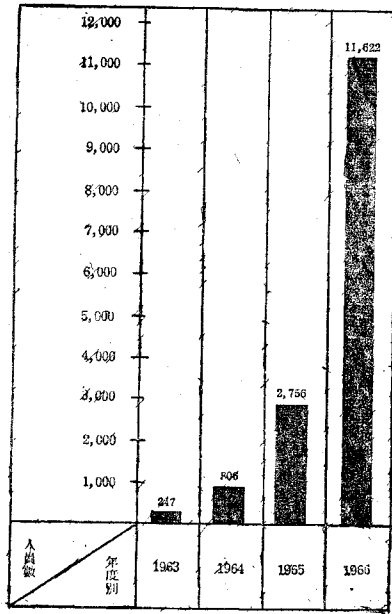
人力進出에 있어서 移民方法보다도 海外就業分野는 다음과 같은 點에 有利하다. 즉, 實現面에 있어 後者는 所要財政이 아주 적은 反面에 外貨의 獲得, 技術의 習得 등을 가지고 經濟開發計劃에 至大한 貢獻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過去の 海外就業의 實績을 土臺로 하여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の 海外就業의 展望을 살펴본다는 것은 的의 있는 일이다.

2, 海外就業現況과 效果

① 海外就業者 概況

<特輯：중요한 사회에의 途徑>

政府가 海外就業을 實現한 것은 1963年度이며 1966年末까지 總進出者數는 16,756人에 達하고 있다. 그 가운데 歸國者 1,097人을 除外하면 15,659人이 就業中에 있다. 年度別 進出者 狀況을 보면 表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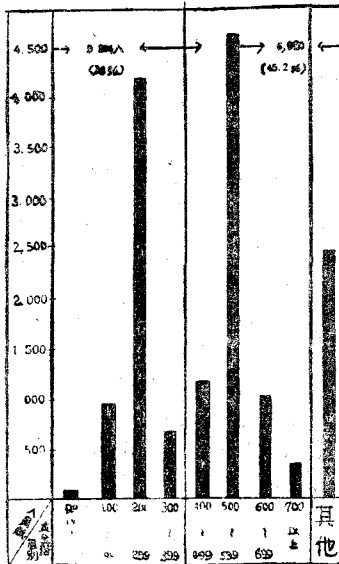


年度別 海外就業推進黨

進出國을 보면 越南·西獨·日本·泰國·香港·오끼나와·比律賓·보르네이·中國·사이판·英國·노르웨이·브라질·和蘭·美國·캐나다 등 諸國이다. 그 中에서도 越南地域이 가장 많고 職種에 있어서도 300餘職種의 多様な 分野에 걸쳐 있다. 다음이 西獨

이며 西獨은 주로 鑛夫와 看護員의 2個 職種이 中心으로 되어 있다. 其他 國家는 少數이고 職種에 있어서도 船員·醫師·병아리鑑別師 등 特殊職種인 境遇가 大部分이다. 海外就業者의 賃金水準은 職種과 技術度에 따라 相異하나 月 200弗에서 600弗까지 받고 있으며 國內 賃金水準에 비하여 越等하게 높다. 이러한 高賃金의 理由는 各 技術職의 就業者實과 各 就業國(雇傭國)의 賃金水準이 韓國보다 높은데 있다. 賃金의 階層別分布는 다음 表와 같다.

海外就業 賃金 階層別 分布



海外就業의 賃金水準은 就業國別 就業會社別로 多様な 水準을 보이고 있으며 職種別로 大別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行이 非公式으로 集計(西獨·越南部分)한 것만도 1千2百64萬弗이 되었다. 그러나 이 集計에서 빠진 部分과 早晚間 送金額 部分을 合算하면 약 2千2百萬弗이 되리라고 推算된다.

이 金額은 對外貿易利益率을 10%로 볼 境遇 2億2千萬弗의 貿易輸出高에 해당되는 貿易利益金과 비교되는 實績이라 할 것이다.

海外就業者는 國內 就業者에 비해 個人別 收入이 高額이므로 이러한 送金額은 國內 貯蓄에 多大한 影響을 주어 産業投資의 뒷받침이 되고 있으며 送金額의 약 22%에 해당되는 家族生計費를 控除하더라도 약 47億원의 貯蓄 내지 投資可能額을 推算할 수 있다.

이 額數는 1966年度 政府 總投融資額 295億원의 16%에 해당되는 額數가 된다. 이와같이 多大한 送金額을 國內에 있는 家族들이 어떠한 部門에 使用하느냐 하는 것은 國家經濟發展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다.

3、國內 雇傭計劃과 人力海外進出의 展望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期間中 國內 雇傭計劃과 海外就業의 展望은 다음과 같다.

① 國內 雇傭計劃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期間中(1967~197

1) 國內 雇傭展望은 1965年度의 852萬2千人에서 1971年度에는 1,371,000人이 되어 184萬9千人的 增加를 보이게 될 것이다. 同期間中 勞動力 人口의 增加에 의하여 失業者는 54萬6千人(失業者率 약 5%)이 남게 될 것이다.

前記 184萬9千人的 雇傭增加中 科學技術系 人力은 31萬5千人으로 計劃되었으며 同期間中 科學技術系 人力의 供給能力은 現在의 教育機關으로부터 40萬人的 輩出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8萬5千人的 失業이豫想된다.

그러나 科學技術系 人力供給을 다시 細分하여 보면 科學技術者 및 專門職·技術工·技能工으로 3分할 수 있으며 科學技術者 및 專門職의 雇傭은 9萬3千인이거나 14萬4千인이 輩出되어 5萬1千인이 失業하게 될 것이고, 技術工의 雇傭은 5萬7千인이거나 3萬3千人的 輩出되므로 2萬4千인이 不足하게 될 것이며, 技能工에 있어서도 16萬5千人的 雇傭에 22萬2千인이 輩出되어 5萬8千인이 失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技能工은 상당한 不足을 가져올 것이나 科學技術者 및 專門職과 技能工은 상당히 供給超過狀態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供給能力은 모두 現存教育機關의 輩出者를 토대로 하여 推計한 것임

에 비추어 이들輩出者가 바로科學技術者 및 專門職이나 技術工·技能工이 되기에는 다시 職業訓練이 必要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各分野에 있어 不足現狀을 나타낼 부분이 많을 것이다 豫想된다.

② 海外雇傭展望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期間中 全失業者는 54萬 6千人이며 그 中 技術系 失業者만도 8萬 9千人이 된다. 同期間中 勞動廳의 海外就業推進目標는 약 5萬人이다. 海外就業은 越南을 위시하여 西獨·東南亞·日本·美國·歐洲 및 其他國에 重點的으로 推進될 것이며 職種別로 策定된 바는 없으나 既進出者(前2參照)와 같은 職種이 大部分일 것이다.

특히 海外就業者는 單純勞動者가 거의 없으며 모두가 技能職 이상 高級職種이다. 海外就業에 있어 前記 目標에 대한 確實한 展望은 國家別로 相異하나 대체로 越南 建設에 따르는 所要技術者는 數年間 繼續될 것으로 보여지고 餘他國家는 國際情勢에 따라 流動的인 狀態라 하겠다.

西獨은 10餘個國으로부터 40餘萬人的 外國人 勤勞者를 就業시키고 있으며 韓國으로부터는 鑛夫 및 看護員을 주로 就業시키고 있다. 그러나 鑛夫는 西獨政府의 燃料政策轉換으로 인한 一部鑛山の 廢鑛으로, 看護員은

國內 不足現狀 때문에 앞으로 進出이 어려운 實情이며 기타 職種을 開拓하여야 할 것이나 韓國은 EEC 加盟國이 아니기 때문에 大量進出은 어려운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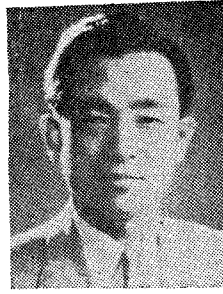
4. 結 言

海外就業은 第2次經濟開發計劃 期間中 國內 失業解消을 위하여 가장 좋은 方案이며 海外就業의 職種이 주로 技能職 내지 技術職이므로 이러한 職種이 海外로 進出함으로써 國內需要에 支障을 招來할 可能性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보아 온 바와 같이 技術工 이외의 技能工이나 科學技術者 및 專門職의 輩出이 많으므로 큰 支障을 招來할 程度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오히려 國內 就業의 길이 막혀 社會不安의 要素가 되고 있는 이들 勤勞者에게 雇傭의 길을 열어 주는 方便 獲得하는 外貨를 國民 經濟發展을 위해 投資할 수 있어 一舉兩得의 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海外就業에 있어 가장 큰 難關은 需要國家의 外國人 雇傭排除 方針과 就業者의 外國語 能力不足 및 未熟練의 非技能者들인 바 이러한 諸要素를 打開하여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勤勞者는 海外에 就業할 機會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住宅建設計劃



金 得 兆
△建設部企劃管理室長▽

1. 住宅現況

가, 現 況

우리나라의 住宅事情을 概觀하면 1965年末 現在에 人口 28,667,782名에 對하여 全國의 家口數는 4,895,906戶로서 總住宅數 3,623,754戶에 比하면 不足住宅數가 1,272,140戶에 達하여 無住宅者가 國民中約 25·9%를 占하는 實情에 있습니다.

나, 不足理由

이와같이 莫大한 不足住宅을 가져온 主要原因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6·25事變으로 인한 約 60萬戶의 住宅 消失

에 對한 復舊의 不振과 들쭉, 年間 2·88%의 人口 自然增加 및 老朽倒壞로 인한 約 16萬戶에 達하는 新 規需要의 累積과 세계, 戰後 國民經濟가 逼迫하여 住宅投資에 對한 比率이 너무도 零細하여 그 需要와 供給 不均衡을 招來한 故로 이와 같은 甚한 住宅難을 가져온 것입니다. 「參考로 1960年度 Census에 依한 우리나라의 世帶當 平均住宅의 面積은 都市가 4·3坪 農村이 5·9坪으로서 世帶當 平均 居住面積(부엌 便所 其他 除外) 2·7坪 世帶當 人口가 平均 5·9人(1965年末 現在)이나 됩니다.」

이를 다시 都市와 農村의 不足住宅率을 살펴 보면 農村이 22%(713, 246戶) 都市가 32%(558, 900戶)로서 都市는 農村보다 住宅難이 더욱 極甚한 現象

입니다.

上述한 바와같이 都市의 住宅難이 農村보다 더욱甚하며 特히 서울, 釜山, 大邱等 大都市의 人口增加率은 實로 驚異의인 것으로서 1960년부터 1964년까지의 5年間에 서울은 40%, 釜山은 20%, 大邱는 16%의 增加率을 示顯하고 있으며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으로 住宅需要를 가져온데 對하여 住宅供給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累年 不足率을 더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2. 政策

가. 目標(第2次 5年計劃)

第2次 5年計劃期間中 政府 30,000戶, 民間 800,000戶 都合 830,000戶의 住宅을 建設하여 基準年度의 住宅不足率 25.9%(1,272,000戶)를 目標年度에는 23.2%(1,283,000戶)로 引下할 方針입니다. 本 不足率을 引下하기 爲해서 다음과 같은 重要政策을 樹立 施行하고 있습니다.

나. 重要 政策

(1) 住宅金融 機構의 設置

住宅資金의 劃期的인 供給方案으로 住宅金庫를 設置하여(現在 法案이 국회財經委를 거쳐 法司委에 上程審

議中에 있음) 韓國產業銀行에 貸下된 모든 住宅資金을 資本化하고 이를 回轉 使用하는 同時 積金 및 債券發行과 融資保險業務를 制度化하여 民間資本 誘致를 期할 수 있는 住宅金融 體系를 確立코자 합니다.

住宅資金運用現況 (66. 6月末 現在)

| 資源別 | 貸出額 | 回收額 | 貸出現殘 | 備考 |
|----------|---------------|---------------|---------------|----|
| 歸財資金 | 953,032,292 | 619,364,874 | 332,667,418 | |
| 財政資金 | 590,164,700 | 26,152,958 | 26,011,742 | |
| AID 對充資 | 2,797,738,775 | 507,479,993 | 2,290,258,782 | |
| UNKRA 資金 | 43,782,933 | 40,782,933 | 3,000,000 | |
| 小計 | 4,383,718,700 | 1,193,944,060 | 3,190,079,158 | |
| 一般資金 | 678,076,908 | 493,371,195 | 184,371,195 | |
| 合計 | 5,061,795,608 | 1,687,345,255 | 3,374,450,353 | |

一 一般物價指數와 金利條件을 勘案한 住宅債券을 發行하여 利子補助를 함으로써 民間資金을 誘致하여 住宅事業助長資金으로 活用코자 합니다。

(2) 住宅債券의 發行

住宅資金貸出總括表 (66. 6月末 現在)

| 施行廳別 | 當初貸出 | 貸出現殘 | 償還額 | 備考 |
|--------|---------------|---------------|---------------|----|
| 地方自治團體 | 1,278,130,058 | 974,285,176 | 363,844,882 | |
| 大韓住宅公社 | 2,116,035,950 | 1,185,542,916 | 930,493,034 | |
| 韓國產業銀行 | 1,667,629,600 | 1,214,622,261 | 453,007,339 | |
| 計 | 5,061,795,608 | 3,374,450,353 | 1,687,345,255 | |

年度別 債券發行計劃 (單位 100萬圓)

| 年度別 區分 | 1967 | 1968 | 1969 | 1970 | 1971 | 計 | 備考 |
|-----------------------------|------|---------|---------|---------|----------|-----------|----|
| 住宅資金을 誘致키 爲한 財政投資 (利子補助) | 500 | 270 | 660 | 1,300 | 2,020 | 4,750 | |
| 民間資金動員計劃 (債券發行) | | 3,000 원 | 5,000 원 | 8,000 원 | 10,000 원 | 260,000 원 | |

(3) 住宅資材의 量産化

標準設計圖를 採擇하여 規格化된 建築資材의 量産을 圖謀하며 組立式 住宅을 研究 發展시켜 住宅價格의 引下를 期하며

(4) 地方資材 開發

地方에 散在한 建築資材源을 調査發掘하여 保護育成함으로써 地方實情에 알맞는 低廉한 建築資材를 供給토록 하여 自力建設을 助長코자 합니다.

(5) 低廉空地의 供給

가, 都市周邊의 遊休土地를 大團地로 開發 造成하여 低廉空地를 供給할 것입니다(서울, 釜山, 大田, 大邱, 光州 地區에 400萬坪의 大團地를 造成).

(例 禾谷洞 30萬坪 團地에서 時價 5,000원/坪을 3,000원/坪으로 分讓하고 있는)

나, 不動産 投機를 目的한 遊休土地와 資金難으로 放置된 遊休土地의 開發을 촉진하여 民間의 住宅建設을 촉진시킬 것입니다(都市再開發法의 制定).

※ 住宅地區로 決定된 지역에 對하여 ①, 限定된 期間內에 住宅을 建設하는 者에게는 行政 및 資金面에서 特

惠賦與 ②, 地價上昇에 依한 投機를 目的하는 者에게는 目的稅 賦課

다, 都市計劃이 決定 告示된 對象地中 國공유지는 都市計劃法에 依하여 宅地로 活用코자 하며

(6) 都市立體化와 不良地區의 再開發 都市의 住宅建設은 平面建築을 止揚하여 聯立乃至는 아파트를 建築하여 空地의 利用度를 높이고 不良住宅地區는 整備 再開發하고 아파트를 建設하여 當該地域에 居住하던 小市民을 優先 入住케 할 것입니다.

(7) 住宅行政 機構의 補強 및 技術向上

가, 住宅事業의 積極的인 推進을 期하기 爲하여 建設部의 住宅課는 이를 局으로 昇格시키고 各道에 住宅課를 市, 郡에 住宅係를 設置토록 할 것입니다.

나, 市, 郡 및 邑, 面 住宅擔當者 1,636名에 對하여 自助住宅 建設上의 技術教育을 實施하여 建設指導를 強化할 것입니다.

3. 建設計劃

가, 政府 部門

政府는 自力建設助長이 미치지 못하는 極히 低所得者 住宅을 建設하여(約 30,000戶) 그 資源은 政府 投資에 依存한다.

<特輯： 중요한 사회에의 途程>

| 對 比 | | 第 2 次 5 個年計劃 | 第 1 次 5 個年計劃 實績 |
|-----------|--|--------------|-----------------|
| 項 目 | | | |
| 建 設 量 | | 30,000 戶 | 20,000 戶 |
| 資 金 | | 政府投融資 75 億 | 財政資金 23.5 億 |
| 住 宅 型 | | 聯立住宅 및 아파트 | 單獨住宅 |
| 住 宅 規 模 | | 7 坪~10 坪 | 13 坪 |
| 入 住 金 | | 20 萬圓 平均 | 40 萬圓 平均 |
| 月 賦 金 | | 2,000 圓 內外 | 1,500 圓 內外 |
| 受 惠 對 象 者 | | 低所得者 | 中低所得者 |

나, 民間部門

民間建設 目

標準 80 萬戶로
 시 政府住宅資
 金融資 및 大團
 地造成分讓 資
 材의 量産化技
 術 및 行政支援
 等의 助長政策
 에 依하여 達成
 토록하며 그 資
 源은 自己資金,
 住宅債券, 住宅
 積金에 依存할
 것입니다.

(1) 民間自力

建設 助長策
 가, 建設助長
 計劃期間 中
 約 21 億圓의 資
 金을 動員하여

21 萬戶의 自力建設 및 積金에 依한 建設을 助長할 것입
 니다.

나, 資材生産 助長

都市 및 農村에 適合한 各種 資材生産工場 (固定 및
 移動式)을 設立하여 5 個年間 50 萬戶分의 資材生産을
 通한 價格引下를 期함으로써 民間自力 建設을 助長할
 것입니다.

다, 垡地造成 資金의 融資

4 0 0 萬坪의 垡地造成資金 40 億圓을 融資, 이를 造成
 하여 10 萬戶分의 垡地를 廉價로 分讓토록 할 것입니다.

라, 行政 助長

住宅의 標準化

都市 및 農村別 住宅의 構造와 住居樣式을 分析 檢討
 하여 地方實情에 適合한 標準設計圖를 作成 普及함으로
 써 規格화된 住宅部材의 低廉取得과 設計費 (工事費의
 約 30%)를 節約할 것입니다.

마, 技術指導

農村住宅 建設을 爲하여 自助住宅 建設要員(市, 郡,
 邑, 面 1 名計 1, 6 3 6 名)을 養成하여 農村住宅의
 自助建設 方式을 普及시킴으로써 建設과 改良事業을 助
 長할 것입니다.

바, 住宅 센터 設置

住宅 센터를 設置하여 住宅 建設의 技術指導, 資材의 研究開發, 標準設計圖의 作成普及, 住宅의 改良問題를 啓蒙케 할 것임(道廳 所在地에 設置).

자, 建築許可上의 便宜

建築許可時 住宅(아파트 聯立住宅 包含)에 對하여는 「自立貯蓄」을 解除하며(煉瓦造 300원/坪, 鐵筋 콘 크리트造 500원/坪), 標準設計圖를 使用하거나 政府 施策에 依한 住宅을 建設하는 者는 免稅稅 免除의 特惠를 賦與할 것입니다(都市計劃 適用 都市建築推定 平均 60,000戶/年 15坪以下의 免稅稅는 1,200원임)

아, 都市開發 촉진法을 制定하여

①, 都市計劃上 住宅지역으로 指定된 地區內의 指定된 土地는 地目上 空地로 하여 稅率은 높임으로써 遊休 地의 空地化로 實需要者에게 供給을 추구할 것입니다.
 ②, 土地所有者가 土地를 早期空地로 造成하여 분양하는 境遇에는 不動產讓渡稅를 免除토록 할 것입니다.
 ③, 資金難으로 空地造成이 困難한 土地主에게 造成費의 一部를 融資하고 融資에 依하여 造成된 空地의 分讓은 金庫가 提示하는 條件에 依하도록 할 것임.

④, 都市計劃上 不良地區에 對하여 行政廳은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再開發을 命하고 期間內에 再開發을 하

지 않을 때에는 行政廳이 再開發事業을 實施하고 土地所有者 및 建築物의 所有者가 再開發을 施行할 때에는 金庫는 融資하고 空地 및 建築物의 分讓은 金庫가 提示하는 條件에 依하도록 할 것임.

⑤, 不良地區의 住民共同 事業 및 住宅企業者가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때에는 政府는 特別한 保護資金, 技術(免稅)를 할 것입니다.

자, 大產業機關에게는 自體勤勞者 住宅 建設을 권장할 것임.

(2) 第2次 5個年計劃과 目標

目標 830,000戶 建設 政府 300,000戶

民間 800,000戶

가, 第2次 5個年計劃에 策定된 資金規模는,

財政資金 47,5億원

民間資金 700億원

計 747,5億원입니다.

나, 策定된 資金規模로서는 第1次 5個年計劃 期間 中에 達成한 建設量을 超過할 수 없으며 策定된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는 計劃推進中에 있는 住宅金庫가 하루 速히 設立되어 民間資金의 誘致를 制度化하여야만 비로소 計劃戶數 83萬戶의 目標을 達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特輯：중요한 사회에 의 途程>

3 住宅資金 計劃

가. 資金動員 計劃(政府資金)

(單位：100萬圓)

| 年度別 | | 67 | 68 | 69 | 70 | 71 | 計 | 第2次計 | 5個年劃 |
|----------|------|---------------------------|-------|-------|---------|---------|---------|--------|------|
| 政府 資金 | 政府投資 | 500 | (270) | (660) | (1,300) | (2,020) | (4,250) | 4,750 | |
| | 債券 | | 3,000 | 5,000 | 8,000 | 10,000 | 26,000 | | |
| | 積金 | 60 | 160 | 210 | 260 | 310 | 1,000 | | |
| | 出資 | 500 | 1,000 | 1,000 | 1,000 | 1,000 | 4,500 | | |
| | 回收 | 300 | 400 | 490 | 600 | 710 | 2,500 | | |
| | 計 | 1,360 | 4,560 | 6,700 | 9,860 | 12,020 | 34,500 | | |
| 民間資金 | | 自力建設 360,000戶分.....70,000 | | | | | | 70,000 | |

나. 資金使用 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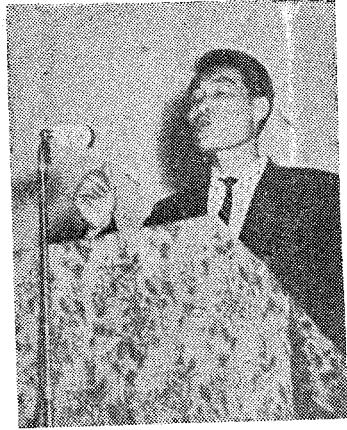
| 資金 | 事業量 | 事業內譯 | 備考 |
|-------|-----------|--|--------------------------|
| 5億圓 | | | |
| 68 " | 3萬戶 建設 | 低所得層을 爲한 建設供給 | 政府의 直接 建設 |
| 210 " | 21萬戶 建設助長 | 民間自力建設 融資助長 | |
| 40 " | 10萬戶分 " | 400萬坪 大團地造成供給 | 서울, 釜山, 大邱, 大田, 光州의 5個地區 |
| 10 " | 50萬戶分 " | 資材生産工場 建設 既存業體의 育成으로 資材의 量産化 및 5萬戶分의 不良住宅 改良 | |
| 10 " | 3千戶 建設 | 住宅積金에 依한 實需要者 建設 | |
| 2 " | 準備 및 豫備金 | | |
| 345 " | | | |

住宅金庫 資金 融資條件

| 內 譯 事業別 | 貸出利子(年) | 貸出 期間 | 備 考 |
|--------------|---------|-------|-----|
| 一般住宅 建設 資金 | 4 % | 20年 | |
| 産業 " " | 8 " | 10 " | |
| 아파트 " " | 4 " | 20 " | |
| 垆地購入 및 造成資金 | 12 " | 5年以內 | |
| 資材生産業體 施設資金 | 8 " | 10 " | |
| 資材生産業體 운영資金 | 12 " | 2 " | |

◇ 笑 談

옛날 어떤 곳에 영감 할머니가 있었다. 하루는 이웃집에 서 제사밥을 가지고 왔다. 밥은 같이 먹었으나 떡이라고는 오직 송편 한개밖에 없었으므로 그것을 영감 노친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필경은 『누구든지 먼저 말을 하는 자는 이 떡을 먹지 못하기로 하자.』고 약속하였다. 영감 할머니는 떡을 앞에 두고 서로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가 마침 밤중이라 도적놈이 들어와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감 할머니는 서로 떡을 빼앗기지 않았노라고 아무 소리없이 앉아 있었다. 도적은 두사람의 꼴을 보고 그들이 눈뜬 장님이요 귀머거리 병어리인줄 알고 불전을 모조리 도적한 뒤에 그것을 묶어서 짊어지고 일어났다. 그것을 보고도 영감은 모르는척 하였다. 할머니는 급하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망할놈의 영감이 꼴을 보기도 가만히 있던 말이오.』하고 소리를 쳤다. 영감이 얼른 송편쪽을 입에 넣으면서 할범이 떡은 내것이요』 하였다.



船首를 南쪽으로

歸順漁夫가 얘기하는 北傀實情의 暴露

李 燦 虎

△서울市警·情報課勤務▽

李燦虎(29)氏は 66年 9月 17日 北傀 漁船「평선정」으로 北韓을 脫出하여 日本 京都市 祖國 大韓民國의 傭으로 歸順한 前北傀共產黨員이다. 氏は 55년부터 63년까지 北傀軍 中士로 복무했으며, 61年 1월에 人民軍 7師團에서 平黨員으로 共產黨에 入黨했고 66年 11월 1日 脱出하여 中退하고 66年 5월부터 脱出시까지 北傀의 주 수산사업소 職員으로서 있었다.

나는 北傀 人民軍에 있을 當時인 61年 度에 共產黨에 入黨하였고 7年間 軍隊生活를 하였다. 北韓의 軍隊服務年限은 名目上으로는 3年 6個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7·8年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후자와의 差도 全然 없었다. 北韓의 軍隊 生活인 것이다. 文字 그대로 奴隷生活인 것이다. 잡음된 上 대학의 軍隊에서 듣는 것은 오직 北傀社會는 豊족한 生活을 누리고 있다는 허위선전 뿐이다.

내가 除隊하고 실제로 社會에 나와 보니

그 비참한 실정에 놀랐을 뿐이다. 나는 의아스러 흠뻑 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고향에 갔을 적에 사랑하는 어머니께 쌀밥한 끼 대접할 수 없었다.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7年만에 고향에 간 나에게 쌀밥한 끼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을 가슴 아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北韓에서 는 金日成과 그 徒黨들만 배부르게 먹을 뿐 일반 인민들은 항상 굶주림에 허덕거리며 重勞動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農民들은 協同農場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共產主義者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

다. 그들은 모든 土地·家屋·家畜을 共同所有物로 만들어 놓고 그 수확은 모두 1인당 400g에 불과하고 아이들은 300g씩이다. 共産主義者들의 主張은 南韓에서 公積해울 것이니 食糧을 備蓄해야 되고 南韓國民들은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도 배부른 셈이라는 것이다. 나는 歸順後 金浦비행장에 내려 金浦街道를 지나오며 들만에 가득찬 벼를 바라보았을 때 쌀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고 共産主義者들의 心전이 얼마나 허위에 찬 아득한 것이었나를 뼈 깊이는 질 수 있었다. 北韓의 農民들은 만약에 共産黨의 收奪政策에 항거한다면 저 하던 즉시로 사상검토를 통해 감옥에 집어 넣는 것이다.

勞動者들 역시 마찬가지로 혹독한 重勞動에 속사당하며 1日 食糧配給은 700g 아이들은 300g씩이다. 이들의 賃金은 한 달에 36원인데 배지고그 1근이 12원이니 배급식량인 옥수수 가루 以外에 草木

야채로 보태야지만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共産黨은 58년부터 千里馬運動을 始作하고 64년부터는 살밭에 고기국기와집에서 살 수 있다고 인민들을 기만하며 속사당던 것이다. 그러나 人民들은 이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굶주림을 면할 수는 있을가 했다.

64年度가 지나고 65년이 되니 共産黨은 全國的으로 食糧配給을 50%씩 삭감시켰는데 그 理由로는 역시 南韓의 公積에 대비해서 食糧을 비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고향집에 있을 때 모친께서 重患을 앓은 때가 있었다. 나는 약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실을하지는 모친이 너무나 가엾어서 사과라도 잡워보시게 하려고 診斷書를 첨부하여 商店에 사과를 신청했다. 상점의 店員은 사과, 통조림 등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팔 사과는 없다는 절원의 대답이었다. 나는 진열되어 있는 사과라도 팔 수 없느냐고 애원해 보았는데 절원의 대답이 어찌나 없는 것이었다. 外國人의 오게 되면 부엌을 팔란 말이나는 것이다.

66年 1月 1일부터 金日成은 「浪費節約館」을 전국에 설치하려고 저지하였다. 또한 黨中央委員會를 各 도시에 파견하여 70日間の 思想檢討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들은 農民들을 「남비절약관」에 끌고 들어가 모든 굶주림은 다 너희 農民들 탓이라고 단정하고 너희들의 남비 때문에 食糧을 50%씩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大學教授들은 내가 못살고 못

먹은 남은 「브르조아」사상 때문이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1일에 달배 콩조 몇개, 휴지 몇십장씩을 줄겠다고 맹세했던 것이다. 70日間의 이러한 사상검토를 거치는 동안 人民들은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게 되니 무조건 金日成이 잘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때 越南할 것을 결심했다. 北韓의 生活이란 日帝下의 만주, 간도에 유랑해서 살던 생활보다도 못한 것이다. 金日成은 어느 순간도 人民들이 밥만 먹어 제치니 어떻게 食糧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南韓에서와 같이 과자, 고기, 빵 등 간식을 못하고, 重勞動에서

먹는 것이 없다. 이 얼마나 눈물겨운 상인가!

나는 종종 北送교포가 자지고 온 라디오로 南韓放送을 몰래 청취했다. 그 방송이란 정말로 감정과 자유가 살아 있는 인간의 社會이며 마스한 人情이 살아 있는 社會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탈출을 더욱 확고히 결심했고 이왕 살아 있는 人間으로 父母나 家族을 부양하지 못할 때에는 南韓에서 反共鬭爭하자고 생각하였다. 나는 大學時節부터 이미 3名の 뜻이 맞은 친구를 얻었기에 이들과 같이 배로 탈출할 것을 결의하고 大學을 中退하고 신의주수산사업소로 들어갔다. 수산사업소 측에서는 黨員이 배를 다녔다고 하니 환영하는 기색이어서 셋이어나 열마지나 눈치 빠른 그들은 결국 우리 셋을 각각 배에 타게 했다. 나는 평선정 34호로 옮겨져 감시인부를 맡게 되었다. 후에 같이 탈출한 민경태·장태형 등이 이제 감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66年 9月 14日, 이날은 나에게 들도 없는데 귀중한 기회였다.

내가 탄 배는 북위 34度線까지 出漁를 나가 다음 날 새벽 4時에는 산둥반도 近海 30마일 저점까지 나가 있었다. 나는 바로 이때가 南下할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고 민경태에게 南下의사를 표시하였다. 민경태는 처음 몹시 놀라 몸을 떨면서 말을 잊지 못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내가 사상을 떠보는 줄 알았다 는 것이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 호소의 애원으로 그에게 내진의를 남들시키자 그제서야 그도 진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벌써부터 탈출을 마음 먹었던 그의 소개로 장태형과도 쉽게 뜻이 통할 수 있었다. 안개가 진한 밤중 나와 민경태 장태형은 무기로 숨어들어 기관총과 수류탄을 꺼내 들고 조타실로 들어가 악질공산당원인 선장이하 선원 7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선원 9명을 감금한 채 17日午後 4時 지모노세끼에 닿을 내렸다. 나는 日本의 朝總聯 共產分者들에게 以北에 한번 와서 봐라. 너희들은 以北동포들의 신음을 성을 들어 보았는가고 의치고 싶었다. 우리는 日本 땅에서 우리 政府 領사관, 겨우민단의 따뜻한 대접과 은갖 노력으로

도디어 갈망하던 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의치고 싶다. 北韓同胞을 救하는 길은 오직 勝共밖에 없으며 우리 3千萬國民이 살길도 오직 勝共하는 길 밖에 없다고.....

알기쉬운 經濟用語

加重價

일반적으로 平均價를 算出할 때 各個別價에 부여되는 重要度를 말한다. 物價指數에서는 품목별 거래數量 또는 거래금액에 의해서, 生計費指數에서는 소비數量 혹은 소비구대금액에 의하여, 生産指數에서는 생산가격, 생산총가격 또는 附加價値總額에 의해서 「웨이트」(加重價)를 결정한다.

이 加重의 필요성은 物價指數에서 白米의 가격과 김의 가격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평균을 내게 되면 쌀값의 오르내림이 김의 그것보다 국민 경제나 家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나 불합리하다는 예로서 명백해진다.

또한 時期의 基準時 「웨이트」와 比較時 「웨이트」를 결정할 때도 중요시 된다.

軍 에 있 어 서 의

- 이 「小論文」은 美空軍 “The Air.....○
-University Review Awards Commit.....○
-tee”에서 1966年(7~8)月號 “Air Uni.....○
-versity Review” 게재作品中 最優秀作.....○
-으로 選定된 것이다. 著者인 William.....○
-E. Simons 少領은 Columbia Univers.....○
-ity에서 教育學을 專攻한바 있으며 現.....○
-在 美空軍省에서 企劃 및 計劃將校로서.....○
-活躍中이다. 著書中에는 “Liberal Ed.....○
-ucation and the service Academies(19.....○
-65)”가 있으며 其他 專門雜誌에도 많이.....○
-投稿한바 있다. <筆者註>

自由主義的思考方式의 挑戰

池 昇 龍 (譯)

△中領·企劃局▽

어느 點으로 본다면 軍職業이란 現代와 같은 世界의 政治的 및 技術的인 環境內에 있어서의 激動과 對抗하기에는 무척 不利하게 보인다. 軍職業의 特色인 官僚主義의 이고 階層的인 組織構造로 因하여 이따금 狹小한 見解에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制度化된 日常業務를 現今까지 招來하여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國家라는 背景을 갖고 維持되어 왔던 軍職業의 特殊性格으로 因하여 軍職業 自體內에서의 勇斷性과 時期에 適切한 改革을 갖지 못하였음도 또한 事實이기도 하다. 最高의 安全에 對한 保障問題 確保라는 概念은 爲先 「國防概念」에 있어서의 「改革」(Innovation)에 對하여 커다란 抵抗이 되었거니와 이와 아울러 戰略開發이라는 問題에 있어서의 非軍事的 Initiative의 對하거

도 同等한 抵抗을 받은 것이다.

以上과 같은變化에 對한 不應의 現象은 다음과 같은 基本的인 問題點을 提示하게 하는 것이다.

即 『일찍기 現今과 같이 美國社會에서 影響力을 주지 못하였던 軍職業이 과연 美國社會의 基本인 自由의 價値觀』에 適應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그러면서도 그 獨特한 軍職業의 特異性的의 保存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設或 軍이 傳統的으로 잘 訓練이 되어 있는 日常業務와 規程嚴守를 크게 強調하고 있기는 하지만, 現社會에 있어서 是는 流動的인 면서도 活動的인 辨證法을 軍社會에 있어서도 經驗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軍階層內에 있어서도 現今까지 確立되어 왔던 軍在來의 「道標」에만 依據하였던 態度에 對한 挑戰的인 要素인 自由主義的인 思考方式이 時代의 흐름과 더불어 出現하게 되었거나와 國防問題에 對하여도 傳統的이고 在來의 研究方法에 代替가 가능한 他方途를 追求하게 되었던 것이다. 軍의 代辯人들은 軍에 從事하고 있는 個個人에게 知能과 創造的인 思考 態度를 最大限 發揮하여 國防에 있어서의 技術的인 軍事面과 政治 및 軍事面의 改善策을 爲하여 도움이 되는 課題의 研究를 격려하고 있다. 結果로서는 各軍의 將校集團은 國防責任을 爲하여 2個의 明白하고도 相互競爭的인 態度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目的達成에 對하여 惹起되는 딜렘마는 各

種의 形態로 表現되었다. 좋은 例의 하나로 1965年 봄에 있었던 「美空軍士官學校」에서 發生되었던 不美스러운 不正事件(筆記試驗時)에 對한 調查役割을 맡았던 White Committee의 發表文의 마지막 句節에 表現이 된 것이다. 이 委員會의 談話文 속에 一方的으로는 知性을 刺戟시키는 自由問答의 精神과 士官生徒들의 教授陣營에 對한 기탄없는 批判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他方으로는 軍隊組織內의 傳統的인 性格과 指揮力發展에 對한 貢獻도 說明되고 있는 것이다. 1960年 版인 Morris Janowitz 博士의 著書인 The Professional Soldier(職業軍人)이란 冊子에도 이와 類似한 두 갈래의 態度가 엮여져 있다.

即 두 種類의 思想이 흐르고 있는데 一面은 傳統的이고 英雄的인 尙武精神의 美德、軍事力이란 侵略者에 對한 應徵의 役割 그리고 嚴格히 規定化된 職業軍人生活의 形態 그리고 用兵을 爲한 철두철미하고 完璧에 가깝다고 믿어져 있는 軍事敎理를 強調하고 있는가 하면, 他面으로는 管理能力과 그 基準、거기다 軍事用兵에 있어서의 가장 適合하고 狀況에 適合한 政策中心의 役割、거기다가 아울러 戰爭遂行을 爲해서의 가장 「實質的인 接近法」 그리고 集團의 이 아닌 各個個人的 職業等을 考慮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相互間的 相對的인 要素는 비단 軍뿐이 아니라 어떠한 一般社會의 法人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1994年版인 Thomas W. Wolfe 著인 "Soviet Strategy at the Crossroads"에서도 發表되어 있다. 시蘇聯邦禦機構를 둘러싸고 理論上의 問題와 實際戰略的인 問題間에 相當한 距離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論爭은 이른바 「傳統派」와 「修正派」間에 相當히 繼續되었으며 兩集團間의 見解의 差는 主로 軍事爲主나 政治爲主나 하는 데서부터 惹起되어 있는 것이다. 이 點은 美合衆國도 例外가 아니지만 多數의 政治的 社會에 있어서서는 이른바 Michael Howard가 말하듯 「自由와 安全間의 辨證法」이라고 불리우는 形態로 長期間 論爭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辨證法의 一邊은 燥急한 行爲를 커다란 罪惡으로 看做하고 있으며 또한 個人의 自由를 侵犯하는 行爲라든가 하는 것도 同一視하고 있으며 더구나 힘(軍事力)이란 可能한 한 아껴서 使用되어야 하며 多數人의 意見이라는 것이 가장 進步의이고 同時에 實現性과 長久性이 있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他邊에서는 「外勢」란 가장 큰 威脅으로 看做하여 이에 對抗하기爲하여는 全般的인 集團力이 不可避하게 必要하거나와 모든 種類의 行爲動機를 單一化하는

질만이 오직 「安全保障」 狀態를 維持할 수 있는 方途라고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美合衆國의 境遇에는 長期間 동안 代代로 軍隊라는 組織은 이 論爭에 있어서 恒常 一邊倒의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近代까지도 美合衆國軍隊內의 指導層에서는 以上과 같은 立場을 더욱 堅固히 하는 方向으로 言行을 하여 왔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좋은 例의 하나로는 軍隊集團에 對한 民間人의 掌握統制라는데 對한 格別한 美國民의 關心안으로도 역력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歷史的 事件에 對한 客觀的인 見解에 依한다 하더라도 軍에 依한 民間人의 掌握 및 統制란 問題는(이는 歐羅巴 諸國의 國民이나 英國의 植民主義者에게는 커다란 關心事이기도 하다) 美國민에게는 말쟁이 될 만한 關心事도 못되었던 것이다. 1787年 The Society of Cincinnati가 George Washington에게 王位權을 受諾하게 試圖하고 同時에 武裝된 貴族集團에 依한 後援을 提言하였던 事實은 美合衆國軍將校團에 依한 美國政治機構에 對한 一大威脅으로 登場한 單하나의 事例로써 以後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우기 國家의 最高權威의 位置에 登場하였었던 退役職業軍人들이 秋毫라도 專制的 或은 獨裁的인 秉제가 나는 權力의 使用을 되도록 避하려는 氣品이 엿보인 것은 常例로 되어 있다.

따라서 軍에 依하여 惹起되는 民間人에 對한 威脅에 對한 뚜렷한 사실도 없이 民間의 軍에 對한 優位性이란 主로 軍에 對한 不信과 더구나 軍事的인 思考方式이란 觀點에서 惹起되는 것으로 結論짓게 되는 듯하다.

軍의 判斷은 國家安全保障이라는 問題에 依하여 크게 左右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또한 適切하게 行하여져야 하는 것이다. 萬一 以上說明되듯이 行하여지지 않는다면 變遷無雙한 現代社會속에서 軍隊의 獨特한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나 는 커다란 疑問이다.

이와 같은 問題와 부수되어서 論議되어 온 것으로 가령 「軍隊精神」이란 과연 存在하는나 는 것이다. 여기에 對한 適切한 解答으로서는 Charles Burton Marshall의 意見속에 잘 表現되어 있다. 即 軍事的(見解)란 軍에 있어서 는 不可缺의 것이란데 있는 것이다. 即 그의 見解에 依한 다면 軍職業이란 뚜렷한 態度로서 現實을 觀望하는 「特權과 義務」라는 兩面을 所持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態度的 要點으로서 는 Janowitz의 見解인, 即「改革에 對한 理性的인 接近의 發達이 軍人精神의 精髓인 다시 말하자면 危險을 무릅쓰고 對決하려는 그의 같은 軍人精神을 補充하여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內容속에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軍服務에 있어서의 行動形態는 實際 戰鬪에 있어서의 가장 信賴性이 있는 期待되는 行動

을 維持 가능한 習性和 態度를 반드시 은연 中에 徐徐히

形成하게 마련이다. 가장 좋은 例로서는 특히 가장 危險性이 많고 複雜한 技術的인 運用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例를 들자면 潛水艦의 危急時 急潛水의 境遇에는 信號나 或은 口頭命令等 發令되었을 境遇 이 命令에 對하여 理解或은 解釋이 必要없이 即刻 機械的으로 反應하여야 하는 必要性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는 空軍의 戰鬪機操縱士에게도 同一하게 適用이 된다. 一刻의 餘裕도 許容이 안되는 境遇 특히 空中勤務者가 手信號或은 口頭命令에 對하여 일일이 다시금 무엇을 뜻하는지를, 即 解釋을 하려고는 다면 이는 實際 空中戰에 있어서 는 恒常 敗北을 뜻하는 것은 明若觀火之事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軍組織에 있어서 는 構成要員이 各個個人이 外部刺戟이나 或은 自身의 直觀에 依하여 行爲하려는 欲求는 우선 全構成員에게 가장 有利한 行動方針에 따라 調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戰鬪面的 觀點으로 본다면 將校에게는 軍에 對한 忠誠心과 適切한 命令에 對한 絕對服從의 態度가 最高的인 軍人의 美德으로 看做하도록 訓練을 받게 된다.

이 要求와 關聯되어 必要한 事項으로는 軍組織이 끊임 없이 要求하게 되는 一聯의 訓練과 테스트가 存在하게 마

련이다. 따라서 相當히 強調되는 點은 完變한 戰鬪訓練 및 地形에 對해 必要한 (그러나 知能係數가 높은 親舊들에게는 勿論 고달프기 限이 없는) 設備이 되고 또 設備이 되는 單調로운 訓練의 必要로 하게 마련이다. 軍人의 戰鬪

에 臨하여 危機에 處하게 되면 戰鬪訓練中 經驗을 通하여 얻게 된 一定한 訓練結果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좋은 例로 陸軍에 있어서는 恒常 基礎訓練인 銃劍術을 하게 되고 實戰과 같은 野戰訓練을 實施하여 獨特한 經驗을 쌓게 마련이다. 그와 같은 理由로 空軍에서도 戰略空軍에서는 訓練航法 및 爆彈投下訓練을 實施함으로써 같은 種類의 效果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訓練의 目的은 再言할 것 없이 戰鬪狀態가 벌어졌을 境遇 가장 敏速하게 또한 最大限으로 混亂을 除去하게 하는 行動節次를 發展시키는데 있다. 危急事態에 對한 反應 그리고 잘 訓練된 行動節次가 目的이며 命令에 對한 一絲不亂의 反應行爲가 가장 要求되는 것이다.

敎理一邊倒의 思考方式은 確固하고 不變의 軍人態度 및 思考方式을 不得已 形成하게 마련이다. 軍隊의 各 特技分野는 같은 다른 職業的인 集團과 比較하여 본다면 유달리 特異성을 나타내 왔으며, 더욱이 이는 軍運營 및 指針을 爲한 理性의 集團으로서 나아가서는 指標가 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集團에서 發生되어 온 指標인 敎理

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採擇되기 爲한 評價基準 또는 基本的인 精神의 概念이 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이 敎理는 現狀維持 및 適應성이 없는 障害要素의 役割도 하게 마련이다.

以上과 같은 役割은 軍職業과 關聯되어 論議가 되는 問題에 對하여 適切한 解答을 줄 수 있을 境遇에는 더욱이 나 그 効力이 增大되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現象은 다음에 보여주는 몇 가지 例로서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即 適切한 解答을 줄 수 있는 境遇에는 現實을 충분히 無視하고도 남음이 있거나 또는 事件이나 事實에 無關하고 무척 距離가 먼 화려한(?) 獨斷的인 障害要求가 되고 남음이 있다는 事實이다.

(1) 1886年 初期에 있어서 Alfred T. Mahan 은 海軍力의 適切한 使用方案은 오직 敵艦隊를 수색하여 擊沈시키는데 있다는 艦隊의 使用法에 對하여 처음으로 歷史的인 海軍戰略戰術 概念을 誘導해 왔다. 이와 같은 敎理에 對한 지나친 執着으로 인하여 1916 ~ 1917年에 있어서의 海軍省에서 저지른 失策 하나로는 當時 聯合軍에게 커다란 海上威脅이 되었던 獨逸潜水艦 攻擊에 對한 에스코트 任務로서 艦隊의 役割은 考慮하지 않았던 結果를 招來하였던 것이다.

(2) 또 하나의 좋은 예로서는 第1次大戰當時 佛蘭西의 最高司令部에서는 Franco-prussian 大戰以後 War college에서 教授하였고 또한 研究發展시켰던 Offense & offence 戰鬪原則에 固執하는 나머지 獨逸軍의 機關銃과 野砲攻擊 앞에 거의 百萬이나 되는 佛蘭西軍의 死傷者를 내게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거나 이와 이로 因하여 佛蘭西軍은 戰場에서 暴動을 招來하고 말았다.

(3) 美國에 있어서도 좋은 예는 있다. 1930年代에 있어서 美陸軍所屬의 航空隊가 認定을 받기 爲하여 鬪爭을 벌이고 있던 當時 他空軍部隊의 出擊에 支障을 招來하면서까지 戰略空軍爆發概念이 强調되는 나머지 晝間에도 戰鬪機의 保護없이도 爆發機가 作戰可能하다는 確信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43年 10월에 임은 大損害가 이 原則(戰鬪機의 에스코트 없이 爆發機單獨으로 任務遂行이 可能하다는 信念)을 獨逸國內의 工業施設을 爆發하는데 適用함으로써 惹起되었다는 事實이 있다.

이 事件으로 因하여 다시 爆發機出擊時는 에스코트할 戰鬪機를 隨伴하게 되었거니와 이때 임은 損失로 因하여 다음해 2월까지 戰略的 爆發을 保留하게 한 것은 勿論이다.

軍史를 들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事例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態는 이미 周圍事情의 變化로 因하여 全然 適用이 안되는 原理原則을 獨斷적으로 敢行함으로써 惹起되는 것이다.

以上 例示의듯이 軍에 있어서의 敎理나 敎義가 그 自體內에서 스스로 育成되는 傾向이 있으며, 더구나 軍事專門 敎育機關에서의 Curriculum의 內容은 이와 같은 自體生長의 傾向을 加一層 促進시키는 힘의 作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協同武器와 聯合軍事作戰에 依하여 在來式 戰爭이 敢行될 境遇나 或은 可恐할 만한 核武器의 攻擊으로 因하여 數時間內에 地球上의 全國家가 全滅의 危險에 直面하였을 境遇에 있어서나 그 危險度는 同一視된다. 그러나 海軍의 武器는 오직 海軍作戰에만 또한 陸軍은 오직 地上作戰에만 使用되어야 된다는 狹小한 在來式의 思考方式은 계속 흔들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結果적으로는 戰爭을 現實적으로 實行하려고 思考하는 將校들에게는 더욱 窮地에 들어가고 자승자락의 終末을 招來하게 마련이다. 今日에 있어서 軍職業이란 지나치게 規定化되고 또한 敎理에 依據하므로 오는 影響을 考慮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따라서 武器體系의 複雜한 技術的인 發達 및 戰略戰術에 있어서의 多樣性은 生産的인 批判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對한 受諾的인 態度가 要求되는 것이다. 美國歷史上 어느 時代보다도 今日과 같이 軍에 服務

하는將校가自由主義的價値觀에立脚하여偏見이 없는「다음의門을開放」하여야함이要求되어온때는없다고해도過言이아니다.

以上과같은見解는最初로習得된方法、mind 그리고基準等이設或이것이長期間에있어서의自己職業에從事中에習得되었다하더라도만드시絶對的이아니라는것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理由로서응통성있고自由스러운雰圍氣에서生長이되어온將校는決心에있어서참신한判斷을내릴수있도록心的態度가되어있어야한다. 評價를爲하여各各事態에適合한이判斷에는만드시客觀的評價를爲하여各各個個事態에適合

- (1) 他事態와의關聯性與否(Context)
 - (2) 展望(Perspective)
 - (3) 獨特性(Uniqueness)
 - (4) 評價基準의安定性(The stability of different criteria)
- 等에對하여充分히認識을하고있어야한다.
다음은以上列舉한4個項에對하여各各說明을加해볼까한다.

(1) 他事態와의關聯性與否(Context)
關聯事項에對한思慮는偏見이없는將校에게우선도

는事態에있어서周圍與件을考慮에두고問題意識을갖게하며同時에이周圍與件에줄影響을考慮하게된다. 따라서結果의으로그가確信을갖고行하되는行動에앞서爲先일어날수있는모든結果를事前에豫期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자면輸送系統에關한Engineering decision(技術的인決心)을樹立할境遇、이系統을利用하여야할利用者에게주어질諸般衝擊이나또한所要費用을除外하고생각할수는없는것이다.

(2) 展望(Perspective)

앞을내다볼수있는展望의能力은自由人(Liberal man)「筆者가以下使用한自由人이란뜻은本文의Liberal man의번역인바,이뜻은思考方式에있어서傳統 및 慣習에구속받지않고偏見없이適應性이廣고참신한方向으로思考 및 모색하는사람이란뜻으로使用코자한다.」으로하여금모든問題를段階別로區別할수있는能力을갖게한다.自由人은原因과同時에現存하는問題의正體를正確히把握할수가있다. 그리고可能하면問題의外面에나타난事實을다른기에時間을보내기보다는根本的이고同時에可能性이있는解決案을研究發展시켜보려고하는것이다. 예를들자면어떠한組織內에있어서의不和가일어났을境遇에組織內에形成되어있는對立된集團의根本的인「힘」에對하여研究없이는到底히解決은不可能한

것이다.

(3) 問題點의 獨特性 (Uniqueness)

惹起된 問題內容의 獨特性 與否에 對하여는 偏狹한 思考方式에 依하지 않는 自由人은 即刻 事態의 判斷을 하게 마련이다. 萬一 이것이 흔히 일어나는 지시한 問題인 境遇에는 지나치게 長時間 不必要한 考慮를 할 必要가 없이 過去에 使用하였던 「解決策」으로 끝장을 낸다. 이와 反對로 흔히 일어나지 않는 獨特한 問題인 境遇로 判斷이 되었을 때도 적어도 이 問題解決에 있어서의 重點을 들 點과 적어도 어떠한 類種의 分析이 適合하는나에 對한 見解만이라도 갖고 있는 法이다.

(4) 多種의 Eriteria (The stability of different criteria)

各種 多樣의 基準을 問題解決에 適用할 줄 아는 自由人은 自力으로써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危機에 逢着하였을 境遇에 理論의이나 空想的인 判斷에만 依賴하지 않게 마련이다. 問題에 對한 多角的인 解決接近方法的의 應用能力은 爲先 가장 問題에 適合한 分析方法的의 選擇 및 個個 事件 및 問題點에 가장 適切한 對策을 講究할 수가 있을 것이다.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은 4種의 精神的 및 心理的 特性은 相當數의 美軍將校의 特色으로서 具備되어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 말로 現수에 있어서의 辨證法 (Current dialectic)의 自由主義的 面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自由主義的 분위기에 담륙 짚은 이 集團은 傳統的인 담보와 職業 自體의 고유성에서 由來되는 自體의 抵抗性 慣性 속에서 相當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國防省 組織과 管理節次의 改良에 依하여 더욱 發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으로 본다면 이 두 (變化) 發展은 相互補充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

一方的으로는 軍組織內에서의 自由主義的 要素는 最高 管理者(指揮官)가 參考로 하여 決定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데 큰 役割을 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結果로서 나타나는 改良을 應用할 수 있는 主要한 才能의 源泉의 役割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他面으로서는 더욱 一層 自由主義的 傾向所持將校에 있어서의 軍資源을 善用하는데 있어서 가장 最小限의 偏見的인 思考方式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角度的의 管理方法과 政策採擇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不幸하게 도 이에 對하여는 커다란 認識을 주지 못하였던 것도 事實이다.

事實上 相當數의 將校가 現國防政策面이나 其他 이에 關聯된 專門分野에 있어서 충분히 解決할 能力과 態度가 具

備되어 있거니와 軍外의 機關에서 程度를 量度 程度로 그와 같이(이는 가끔 軍外에 依한 批判에서 나타나듯이) 허수룩하지는 않다.

1959年 Denis Brogan의 말의 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英國海軍省이나 戰爭局에 從事하고 있는 官吏들이 國防問題에 있어서의 從事하고 있는 科學者의 役割을 펜타곤의 軍事專門家보다 훨씬 잘 다루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 附加的說明으로는 『유스포오드나 캠프리지 大學에서 훨씬 아나톨리스나 웨스트포인트보다 優秀한 教育을 實施하였다』고 한 點이다.

그 以後 美國에 있어서는 軍內教育에 있어서의 不足한 點을 많이 補修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個個人에 따라서는 關心度에 따라 學習面에 있어서 相當히 깊이가 지 研究의 機會를 附與되고 있어서 教授陣도 相當히 強化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軍機關 및 民間大學에서의 將校集團의 訓練은 그 數에 있어 每年 數千名을 超過하고 있는 形便이고 同時에 D.O.D. AID 및 國防省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訓練도 여기서 이와 같은 方法과 機關 및 施設을 利用하여 實施되어 온 것이다.

軍將校는 이와 같은 機會를 通하여 自身을 爲한 專門的인 技術을 體得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附加되어 高位層의 자리잡고 있는 國防省 公務員이 이미 獲得한 것과 같은

學問的인 背景 및 나아가서는 그 公務員들과의 實際的인 接觸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軍教育機關이나 參謀大學(Staff college)에서 教官의 位置에 있는 多大數의 사람들이 實際的인 軍의 經驗과 때로는 不合理한 結論을 惹起시키는 純理論的인 면과의 힘은 結合을 試圖할 수도 있는 機會도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傳統的인 軍職業에서 由來되는 束박 或은 拘束에 對하여 가장 批判的인 態度를 表示하는 理智的인 影響力에 덧붙여서 以上까지 論述한 듯한 軍事的 才能의 貯藏地야말로 民間對軍關係에 對한 在來式인 研究接近方法에 對한 조심스러운 再評價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는 一般市民이건 關係當局의 官吏를 莫論하고 國家政策決定에 있어서 軍職業을 「自由主義」를 威脅하는 超保守集團으로 認定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軍」을 한 個의 民間人 統制下의 同質的인 要素의 集團으로 看做한다는 事實은 爲先 集團自體內에서도 構成員間에 相當한 相違點이 있다는 것과 同時에 國家問題에 對하여 加一層 建設的이며 廣範圍한 集團自體의 潜在力의 所在을 無視하게 되는 結果를 招來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다.

結果적으로 이와 같은 態度는 爲先 軍自體內에서의 가장 實務經驗을 通하여 期待되는 效果的인 指揮官의 出現

을 저지하게 되며 이는 現代의 思潮와는 逆行이 되는, 即 專門의 技術分野에만 執着하게 하는 狹小한 見解 속의 生活을 強要하게 되며 美國과 같은 眞實한 自由와 生長을 해나가는 社會에 對하여 障害가 되며, 安全에 對한 不安 狀態만을 助長하게 될 뿐이다.

軍(職業)은 스스로가 自重自愛하여야 하는 것은 事實이다. 未來戰에 對備하여야 할 問題는 그리 簡單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諸問題解決을 爲하여는 爲先 創造의인 思考方式이 必要하며, 또한 基本的인 問題把握이 先行되어야 하며 지난 過去의 어느 때 보다도 廣範圍하게 客觀的인 判斷의 態度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軍 自體가 自體內에서의 「自由的인 思考方式」이라는 點에 對하여 特別한 關心을 表示하고 獎勵하지 않는 限 이와 같은 精神活動이 必要로 하는 分野는 더욱더욱 民間人의 손에 넘어가게 마련인 것이다. 좋은 例로서는 美國防政策研究에 있어서도 近來에 와서 相當한 部分을 軍外의 民間人 손에 依하여 이루어졌다는 事實이다. 萬一 軍이 軍自體內에 存在하는 「自由主義的 要素」에 依託하여 軍事研究나 또한 政策研究를 장려함이 없기 지금까지와 같이 民間人 顧問의 손에 依하여 解決된다면 軍自體는 勿論 國家政策樹立過程에 있어서 要求되는 重要한 均衡問題는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될 것은 明白한 일이다.

〈軍人常識〉

軍紀

軍紀는 軍隊의 規律과 秩序이며 生命과 같다. 指揮系統을 確立하고 上官을 尊敬하며 部下를 信愛하여 上下 스스로 合心同體가 되어 一定한 方針에 따라 一律的인 活動을 하게 되는 것은 實로 軍紀에 依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軍隊는 恒常嚴正한 軍紀를 세워야 한다. 軍紀를 세우는 으뜸은 命令에 對한 自發的인 服從이다. 따라서 軍人은 精誠을 다하여 上官에게 服從하고 命令은 絕對로 志氣를 習性化하여야 한다.

〈珍談奇話〉

거듭실수

담임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던 학생을 불렀다.
『어제 부탁한 편지 두장 다 잘 부쳤니?』
『네, 부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편지 우표 딱지를 서로 바꾸어 붙이셨더군요. 외국으로 가는 편지 봉투에는 80원짜리 우표가 붙고, 국내로 배달될 편지에는 9원짜리가 붙었어요』
『앗차! 실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렇지만 임려마세요. 우표 딱지를 떼려구 하니까 찢어 지기에 봉투의 주소만을 바꾸어 써서 부쳤습니다.』
『잘 했다.』

綜合取材 Ⅱ 과연 「氣合」은 必要惡인가?

指揮統率과 氣合

將校의 立場에서

李 相 憲
〈中尉 · 11戰飛〉



1、指揮統率과 軍紀

우리는 軍隊의 指揮官이 自己의 部隊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部隊를 指揮한다 또는 統率한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指揮官으로서 任命이 되면은 軍隊內에 있어서 所定の 部隊를 指揮해야 할 責任과 權限이 부여된다.

自己의 部隊員이 任務完遂를 爲해 指揮官의 一擧手 一投足에 따라 움직이고 實

任을 수락하고, 誠意와 服從心을 發揮할 때는 指揮에 있어 별다른 問題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指揮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다루기 힘든 問題點이提起되는데 이것이 바로 統率(力)의 問題이다.

指揮의 目的이 任務完遂에 있으나 그 目的을 爲하여 여하히 部隊員 個人을 指揮하고 發展시키느냐 하는 그 手段方法이 統率의 要訣인 것이다. 部隊의 任務完遂를 爲한 過程에 있어서 士氣를 昂揚시키고 軍紀를 確立하고, 團結心을 鼓舞하고, 能率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는 根本役割이 바로 統率力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任務完遂를 爲한 過程에서도 統率과 가장 密接한 關係에 놓여 있는 것이

軍의 命脈이라고 일컫는 軍紀의 確立이다. 이러한 軍紀確立을 爲한 方策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 항시 달성이 되고 있는 것이 「軍隊內에 있어서 氣合」이라고 할 수 있다.

2、軍紀確立을 爲한 方便으로서의 氣合

軍隊生活를 體驗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氣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나 듣게 된다. 또 實際로 氣合을 주거나 받아 본 적이 대개 있다. 우리는 氣合이라는 말의 뜻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려 必要가 있다. 「氣合」이란 말

을 우리말 事典에 찾아보면 ① 호흡이 맞음 ② 적에게 넘비는 氣勢나 그 소리라고 쓰여져 있다. 이러한 固有한 意味의 氣合이 軍隊內에 있어서는 單純히 注意 說諭 訓戒에 그칠지거나 간단한 合理的인 處罰의 意味를 넘어 全人格의인 屈從을 強要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즉 歐打(私的制裁)뿐만 아니라 野卑한 罵倒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階級의 優位를 利用하면서 도 實은 1對1로써 相對方의 人格을 單純히 粉碎하여 全人格의인 支配||服從關係를 樹立하려는 暴力的인 下向式氣合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暴力的인 氣合은 日本帝國主義時代의 遺物이다. 虐待의 標本인 舊日本軍隊는 兵士를 鍛鍊시키는 方法으로 「사랑의 制裁전」이라는 美名下에 즐겨 이 歐打하였. 더 身分格式의 差別로서 이를 傳習化했던 것이다. 近者에와서 上部로부터 氣合이 根絶되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暴力的氣合을 意味하는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의 氣合은 根絶되어야 함은 贅言을 要치 않는다. 다만 前述한 바와

같이 氣合이 단순히 注意 說諭 訓戒에 그칠지거나 간단한 合理的인 處罰에 그치는 境遇라면 軍紀確立과 業務能率向上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보아 氣合은 全的으로 排除되어야 한다는 말은 穩當한 表現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民主軍隊에 있어서 氣合의 方向과 指揮官의 精神的 姿勢

우리는 위에서 軍隊組織上 軍律을 維持하기 爲해서는 때에 따라서 어느 程度까지의 氣合이나 制裁도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이것도 民主國家軍隊內에서 인 밀히 하나의 限界點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바로 軍의 民主化에 關한 指揮官의 精神的 姿勢確立이 要求된다. 軍의 民主化에 關聯하여 우리는 2次大戰中의 著名한 美國의 「렛」將軍의 士兵歐打 事件을 잊을 수 없다. 事情인즉 聯合軍의 歐羅巴 上陸作戰이 本格的으로 始作할 무렵 伊太利作戰에 連日 彼我間 熾熱한 戰鬪가 계속되어

그에 다른 美軍의 犧牲도 漸高하여 野戰病院은 患者收容에 大混雜을 이루고 있었다. 이 地區의 司令官인 「렛」將軍이 어느 野戰病院을 慰問하러 갔다가 偶然히 피병患者를 發見하자 鐵帽위로 한대 갈겨 鐵帽가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外部로 번져나가 말성이 되어 결국 「렛」將軍은 當者와 自己部隊 全將兵 앞에서 正式으로 自己의 잘못을 사과하고 當時總司令官인 「아이젠하워」將軍에게는 始末書를 쓰게 되어 美國野에 큰 論議거리가 된 事件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事件을 通하여 從來 日本軍隊에서 보아 온 것과는 判異한 한 個의 새로운 理念을 發見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民主主義理念이 아니겠는가. 軍의 民主化라는 問題는 크게 나누어서 두 個의 方向을 생각할 수 있는데 其一은 對外의 關係요, 其二는 對內의 關係이다. 對外的으로는 그 自身의 存在理由가 國民의 權利와 人格을 保全하고 그 權益을 옹호하여 그 福祉를 達成하는데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對內的 關係이다. 階級과 職責의 上

下가 各人이 國家에 奉仕하는 意味와 價値에까지 差等を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點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위로는 元首 大將으로부터 밑으로는 2等兵에 이르기까지 同一한 貴重한 人格의 所有者이며 國家의 危難에 處하여 오직 서로 그 義務

를 다하기 爲해 모였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면 自己職務에 對한 忠誠 如何에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對內的 關係의 立場에서 볼 때에 이른바 「士兵의 私兵化」라는 軍隊內의 人間關係에 있어 前近代의 殘滓는 許容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指揮官(上司 上級者)은 이런 것을 명쾌하게 認識하여야 한다.

또한 信賞必罰의 明確한 節次와 制度의 確立이 要求된다. 그리고 他面으로는 軍規를 軍人の 心理內에 內面化시키므로써 軍紀를 維持하는데 注力해야 할 上級者의 恐喝과 暴力의 氣合과 勇猛이 만으로 軍紀를 維持하려는 것은 部下의 外部의 機械的 服從만을 確保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이것은 一時的인 것에 그치고 만다. 軍人이 自己의 任務를 完遂하

는데 있어 重要한 것은 自己의 自發的인 意思로 스스로 軍紀를 지키고 命令을 遂行함이 더욱 効果의인 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自律的으로 軍紀가 確立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不得已 制裁라는 手段이 必要하게 된다. 部下에게 目的의 說明없이 必要한 說明과 指示만 내리고 그 命令 및 指示事項을 保障키 爲해 威脅과 否定的 制裁(歐打等) 이른바 暴力의 氣合을 通하여 全人格의 隸屬을 强要하는 封建的, 專制的 人間關係는 民主軍隊內에서는 排除되어야 할 것이며, 오직 肯定的 制裁(說得 說諭 注意 訓戒 간단한 合理的 處罰)만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理由없고 盲從과 追從만을 强要하는 것보다 命令과 指示를 내리게 된 動機와 理由를 納득시키며 過去式 身體的 制裁의 威脅보다는 肯定的인 制裁을 주는 方向으로 氣合이 善導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部下統率에 있어 우리가 警戒해야 할 것은 極度로 開放의이며 無干涉主義의 放任形式으로 全然 氣合이나 制裁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마치 仁慈스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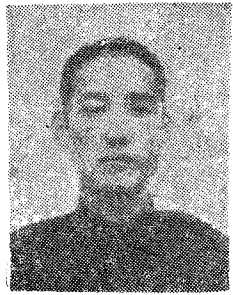
고 寬容의인 指揮官으로 看做되기 쉬운 것이나 危險千萬한 일이다. 軍隊에 있어서 寬容을 잘못 보이는 것은 指揮官으로서의 無能을 誤認받기 쉬운 것이고 部下로 하여금 放從에 빠지게 하는 結果가 되고 만다는 事實이다.

4. 結語

위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指揮官을로 할하는 모든 上級者(上司)는 自己部隊의 任務完遂를 爲한 指揮統率에 있어서 部下의 自發的인 服從을 求하도록 說得시켜야 할 것이고, 軍規律을 心理的으로 內面化시키므로써 氣合이라는 手段을 빌리지 않더라도 圓滿한 軍紀確立이 이루어 지도록 最大의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며, 解弛된 軍紀를 자기 위한 不得已한 경우에만 例外的으로 氣合이 그것도 前述한 肯定的 制裁만을 認定해야 할 것이며, 全人格의 隸屬을 强要하는 暴力의 氣合과 같은 否定的 制裁는 全的으로 民主軍隊內에 있어서는 斷然코 排除되어야 할 것이다.

氣合을 받는 心情

士兵의 立場에서



여기때보다 일찍 內務班으로 내려갔다. 오늘날의 日課는 氣分 좋게 끝난 것 같았다. 하루 日課의 半은 근무장에서 半은 內務班에서 生活하는 것이 士兵의 日課고 보면 근무장의 生活은 집에서 출근하여 職場生活을 하는 것이고 內務生活은 家庭에서 生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內務班에 내려가니 싸늘한 공기가 드는 것 같아 느껴졌다. 內務班員의 表情은 다른 날과 달리 긴장되어 보였다. 옷을 作業服으로 갈

아입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班員과 책상에 걸터앉아 주거나 받거나 말을 건네면서 물었다. 「왜 오늘 이렇게 싸늘한 공기가 감돌지?」 하니까 그는 「소가 있다는가 봐!」 하는 것이다. 「쇼」라는 것이 一種의 「特別訓練」이라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5分內에 內務班앞에 集合하라는 것이다. 주심주심 후련화를 신고 舍前에 集合했다. 勿論 「特別訓練」이란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는 士兵은 하나도 없다. 조금 있으면古參님께서 좋은 表情도 아닌 얼굴로 나타났다. 내 마음은 마치 잠자는 호수에

파도를 일으킨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아니 겁이 앞섰다. 조금 후에 內務班別로 報告를 마치고 무슨 말이 떨어질까 하고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말을 들었다. 內務生活을 해나가면서의 短點만을 들며 말을 繼續하고 있었다. 그와 同時에 長點도 있을 듯한데 長點은 없고 거다 아니 全部가 短點만을 繼續했다. 「너이들은 도대체 軍隊生活을 하는 것인지 社會生活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이들은 누가古參이고 누가 新參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데 너이들은 나일론 軍隊生活을 하는

李 奇 完
<上兵・政訓監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軍隊生活이나 內務生活의 營장이 될 것 같단 말이다.

이런 순간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도 적이 앞서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精神이 아찔했다. 「앞으로 너이들의 그 精神의 根質을 빼놓겠다.」

말이 끝난 뒤 「特別訓練」이 始作되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特別訓練」을 받았다. 워낙 긴장이 되었던 탓인지 失神이 될 것만 같았다. 「特別訓練」을 하는 동안 몇 분 동안은 그런대로 응했다. 몇 분이 지나고 나니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 그때 心情으로는 못하겠다고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古參님께서 배트를 한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면 좋지 않을 것같이 느껴졌다. 아니 틀림없다. 全身에 피가 돌러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그만했으면」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얼떨결에 옆에 있는 戰友를 보았다. 같은 戰友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에 「그만하라」는 호령이 떨어졌다. 일어나니 앞이 캄캄하여 보이질 않았다. 조금 후 精神이 들

어 다지 정열을 하고 나니 「特別訓練」을 받는 姿勢가 營장이라는 古參님의 말이 또 떨어졌다. 戰友들은 먼저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너희들은 精神이 덜 들었으니까 精神이 들 때까지 「特別訓練」을 실시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때 戰友들은 제 자기 不平도 말았다. 나는 「아이구 또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게 비탄의 말이 나왔다.

「特別訓練」을 받는 동안에 古參님께서 『아직까지 너희들은 精神이 덜 들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났단 말이야 기함을 주는 데도 장난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요령을 피려고 하는 놀이 없는가! 너희들은 精神이 들 때까지 「特別訓練」을 실시할 테니까 오늘로 안 되면 내일도 하고 할 테니까』하고 「特別訓練」을 수공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나를 더 괴롭혔다. 이제는 정말 몸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다. 계속 똑같은 소리가 여윌처럼 번져 마음을 괴롭혔다. 「이제는 그만했으면」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얼마 후 「그만」이라는 말이 내 귓전을 울렸다. 「特別

訓練」이 끝났구나 하고 일어났다. 벌써 열이 오른 얼굴들이 제법 빠른 동작으로 정열을 했다. 古參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特別訓練」이라는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말을 끝내고 해산하였다. 세면장에 몸을 씻고 내부반으로 들어와 침상에 앉아 생각을 하였다. 왜 「特別訓練」을 받아야 하나, 내가 古參이 되면 「特別訓練」이라는 것을 없게끔 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氣合을 받다가 보면 도무저 가슴이 답답할 만큼 理解가 가지 않는 것뿐이다. 하지만 끝나면 어딘가 후련하고 軍隊라는 特殊한 團體 속에서의 個人의 生活을 곧 社會에서의 그것과 곧잘 혼동하곤 하였던 自身을 뒤늦게나마 反省하여 되세게 해 줄 수 있는 重要な 機會가 된다는 것은 否定할 수가 없다.

때로는 人間인 以上 感情에 호르기 쉽다는 것은 시키는 편에도 받는 편과 마찬가지로 인 것이다. 그러므로 多少間의 不用이 있더라도 必要性을 認定하고 보면 適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긴다.

相互間의 理解를 通해 끊임없이 努力하는 것만이 最善의 方法일 것이다.

「氣合」論

劉庚煥

1. 氣合이란 必要充分條件인가?

내가 軍에 있었을 때 겪은 體驗으로서의 氣合은, 마치 한 여름 무더위속 소나기가 오기 직전의 건디기 어려운 지겨움의 고등인듯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氣合이란 個人이라는 人格存在를, 戰鬥單位體라는 非人格存在로 格下시키려는 目的을 爲해서 愛用되는 하나의 手段이다.

도시, 우리나라 軍隊에서는 이러한 目的이 設定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日帝治下에서 帝國日本皇軍의 영향을 받아 民主主義의 旗幅을 들고 民主軍隊의 組織을 자랑하는 우리 國軍에 帝國日本皇軍의 遺

産으로 氣合이 存在하는 所以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군다나 이 氣合은, 無力한 上級者일수록 正比例의 比率로 無能力의 補完手段으로 活用함으로써, 民主軍隊의 組織과 訓練으로 育成된 國軍통솔에 異質적으로 그 威力을 發揮하였던 것이 아닌가 본다.

이상의 세 가지 條件을 본다면, 氣合이 우리나라 軍隊에서 必要不可缺의 手段化하였다는, 이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의 根據는 外的 條件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內的 條件이라 할 수 있는 國軍의 연약한 建軍基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國軍의 組織이 西歐의 兵兵組織으로부터 發展된 것이 못되는, 建軍의

歷史에 基因하는 것이다.

하필 美合衆國軍을 例로 든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一八〇〇年代 建國理念부터 民主主義였고 그 思想 속에서 獨立戰爭을 위해 兵兵으로서 스스로 일어난 以來의 二〇〇年間, 近代軍의 基盤을 가진 美合衆國軍은, 그래도 우리 國軍과 近來에 와서 가장 相關關係를 많이 가지고 있는 면으로 가장 적절한 比견의 對象이 아닌가 한다.

個人的의 人權을 可能한 限 尊重하는 美國民精神이 軍隊組織運營의 基本精神인 美合衆國軍隊에서는 氣合이 「必要」하지도 않을 뿐더러, 充分한 効果를 그것으로써 거둘 수도 없는 것이다.

人格格下의 手段이 手段으로 活用된다

는 것은 組織單位에 그 手段을 容納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서는 이 氣合이 數學公式의 必要充分條件으로서의 使命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氣合의 目的遂行上の 使命

民兵組織으로부터 차라는 軍隊傳統이 못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建國理念인 自由民主思想과 실제적인 指揮哲學이 상호호응관계에 있는 國軍의 통솔에 있어서는 巨視的으로 서로 背反되는關係가 있는데 이 背反關係를 依止로 解決해 나가는 것이 바로 氣合이라는 手段이다. 따라서 여저 촉매작용에는 副作用이 더 크다.

언즉히 우리나라의 建國理念은 最大의 自由權을 보장하는 民主主義요 國軍組織의 통솔방법도 可能한 限 最大의 人權尊重을 前提로 하는 民主軍隊로의 指向이지만, 指揮哲學의 貧困이 이 당의성을 否認하고 있는 實情이다. 빈약한 上級者의 思想으로부터 軍隊이니까 할 수 없다, 軍隊社會는 特殊社會이므로, 軍隊의 통수계통을 세우기爲해서는 不可避하므

로 V 등등의 변명 아닌 變명을 거리질 없 이 小前提로 세우고 國軍存在理由의 大前提를 무시하면서까지 스스로의 無能力을 補充하고 있다.

軍人이라는 戰鬥單位體가 國民의 義務를爲해서 機械化로 一定期間동안 完全히 變質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를 強要當 하는 것도 語不成說이다. 차라리 戰鬥單位體가 모두 機械人間이라 할 몰라도 法定 服務年限만 經過하면 자연히 民主社會의 諸市民權이 保障되는 人格體이지만, 法定期間 동안만은 깨끗이 非人格化하라는 要求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人格生活도 한 生理作用으로 본다면 必要에 依해서 生理作用을 中斷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日本軍이나 나치獨逸軍이나 또는 全體主義의 붉은 軍隊라면 몰라도 大韓民國憲法下에서는 強要할 根據가 없는 가장 尊嚴한 上級者의 獨斷이다. 그렇다고 해서 氣合이 곧 違憲의 이란 말은 아니다. 단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나의 軍隊服務經驗으로 보아서(우리나라 軍隊의 氣合의 使命이 違憲의 인 것을 말하고자 한다. 即 氣合의 使命이 人權의 유

린 작용을 아랑곳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軍에서의 服務뿐만 아니라, 美軍에의 派遣勤務를 통해서 본바로서는 그들에게도 확실한 「氣合」은 存在한다.

그러나 결코 워런적인 使命을 가지고基本人權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客觀的 判斷이 내릴 정도까지 자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적어도 같은 美軍間에는 반드시 上級者의 自制性과 限界性이 市民精神으로 나타나고 있다.

막약, 한국의 民主主義의 具顯을 위해서 共產主義와 對決하고 있는 國軍의 組織이 非民主的인 手段에 依해서 통솔되고 있다는 事實이 수많은 除隊將兵에 依해서 普遍的으로 認定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肯定과 否定의 價値判斷 基準을 전도시키고 말 것이 아닌가?

한 단반사로(非戰時에 있어서) 日課時間 外的 集團使役(취침도중애), 구보연명장 몇바퀴, 토끼뎀 또는 元山폭격(물구나무 서기), 워카전(워카군화로 정쟁이 빠져 기), 지휘봉으로 머리 때리기 등등을 자행하는 各級指揮官이나 下士官을 심지어는 兵士들 가운데의 先任者들은 진정 그들이

슬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 해 볼 일이다.

3. 氣合의 効用價値

氣合에는 그 種類나 자인성 또는 多樣性을 莫論하고 우선 團體的으로 氣合을 주는 手段과 精神的으로 氣合을 주는 手段으로 區別될 수가 있겠는데 그 限界 効用性은 後者에 있어서 더욱 크지만, 우리의 현실에선 前者가 더 많이 愛用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肉體的인 氣合을 주는 氣合은 그 육체적 氣合이 身體로부터 제거되는 순간이면, 휘었던 氣合이 原狀으로 되돌아 오듯이 깨끗이 그 氣合을 잊게 된다. 따라서 氣合의 効力은 극히 短時間의 이다. 그러나 그 肉體的인 氣合의 度數가 넘으면 휘었던 氣合이 原狀 이상 的 反動的인 眞동을 일으키는 것이 心理的인 反발상을 유도시킬 확률이 크다. 흔히 우리가 신문에서 읽고 가슴 아파하던 悲劇 下劑上이란 것은 여기에 基因하는 無節制 心理의 反발형태로서 報復心理의 發顯인 것이다.

그러나 精神的인 氣合을 주는 氣合은

그 氣合을 주는 過程이 일단 中止된다 해도 그 効用性은 지속된다. 그리고 대부분 精神健康에 이상이 없는 反省作用이 뒤따르게 된다. 이 反省이란 것이 氣合의 主効價値이지만 主効를 망각하고 上級者 화물이라는 副効價値를 위해서 氣合이라는 手段이 쓰이고 있다. 나는 美太平洋地區 心理戰部隊에 陸本에서 派遣勤務 18個月을 한 적이 있는데 勤務時間이 끝나도 部下를 集合시켜 놓고 訓話를 하는 우리의 慣習(?)과는 달리 兵士들의 自由時間의 不可侵主義를 침해할 때 部隊長이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 非戰時에 있어서 勤務時間 8時間外는 市民精神이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또 실사 잘못을 저질른 兵士에게는 반드시 指揮官만이 처벌을 하든가 氣合을 넣는가의 裁量權을 가지고 직접 또는 副官을 시킨다. 그 밖의 적책자 報告의 技能밖엔 認定되지 않는다. 애기로서는 韓國軍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內務班長에게 「팔공치로 기여」를 받고 中隊庶務(兵)에게 「미식기(米食器)물고서」를 받

고 또 다른 날 아침에 中隊本隊에 報告하여 中隊週番下士에게 「만다(?)」를 맞고 점호를 마친 다음 中隊人事係(兵)에게 혼시(?)를 듣는 中隊長도 모르는 벌을 받는 上昇의 刑책 제동은 좋지 못한 氣合體系일 것이다. 美軍에 있어서의 階級體系는 그야말로 봉급기준이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對等한 一對一이다. 「너 이새끼 이전 내게 맞춤 파라!」라는 式의 傳達傳統은 氣合의 자인성과 多樣性만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우리 나라 시어머니로부터의 며느리에게의 感情傳達式과 다를 바가 없다.

目的遂行을 위해서 적지 아니한 使用價値를 가진 氣合이라고 하지만 目的意識에 배치되는 手段을 強要할 수는 없으며 善意的 使用만을 기대하고 惡用的 被害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問題는 氣合을 넣을 수(?) 있는 裁量權을 指揮官에게만으로 制限시키고 指揮官은 將校로서의 公正과 人格敎養 및 資質이 保證하는 裁量으로 精神的 方法的인 氣合으로 說得시켜야 하는 責任感에 있다

「氣合」에의 追憶

「元山爆擊」

△병장 · 1 전비본부대▽
 탁 영 보



내가 받은 기합 가운데에서 가장 印象的인 것이라면 아마도 技術兵의 첫 點呼인가 싶어진다.

空軍의 一員이

된 말을 반드시 飛行機를 타보아야 한 다는 一場訓示가 끝나자 울라 타게 된 것은 침대 붓을 잡고 사물함에 다리를 뻗친 L-19였으니 까 말이다.

그리고는 滑空飛行에다 「元山爆擊」을 敢行하였으니 까 이것은 空軍에의 功을 세운 歴戰의 勇士가 된 날이라고 나 하 면 어떨는지?

그러나 상처뿐인 榮光의 주인공인 지 는 몰라도 빛나는 勳章은 커녕 머리의 등그렇게 자리잡고 있는 기념물(?) 뿐 이었으니 까 지금까지 記憶에 남아있게 된 것이라 싶다.

좋은 紙面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 3 年의 歲月을 보내고 떠나는 兵長으로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空軍의 個個人은 國際紳士의 긍지를 가졌다면 허구 많 은 氣合(?) 가운데서라도 「元山爆擊」 을 爲해 地上을 출격하는 行使는 없어야 겠다고 생각된다.

勿論 氣合이란 特別訓練이라 했지만 준거해야 할 버디를 흠과 벗해야 하는 行動은 考慮할 餘地가 있지 않을까?

.....

마지막으로 빨간 마후라의 패기와 궁 지 속에 空軍의 發展있기를 祈願하면 다.

웃음으로 맛을 내일줄

가다 리면서.....

「氣合」에의 追憶

月世界의 「로끼뿔」

김 민 희

△상병 · 군수사인사처▽



이렇다 할 軍

에 대한 豫備知識 없이 入隊를 하게 되고 兵營生活 한 달 정도밖에 되지 못한 突내기 新兵들에게 特別訓練

이 실시되었다. 先任 區隊長님의 命令 에 따라 모두 긴장된 가슴을 안고 戰鬥 訓練場에 접합했다.

우중중한 하늘에서는 연방 찬비가 내 려 몸을 적셔 멀리게 했고 여기저기 물 이 되어 수렁이 질퍽거렸다.

區隊長님의 軍隊儀式에 대한 海이에 대해 必수한 주의 말씀이 끝나자 전날

「元山爆撃」으로부터 시작하여 月世界の 「토끼굴」, 「제일, 제이포북」이 시작되었다. 戰慄과 고통이 연속되는 괴로운 순간 속에서 열광과 몸은 땀과 진흙, 찬물의 범벅이 되었고 몸의 이상한 요동 속에서 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가만히 讚頌歌를 불렀다. 忘却되어가는 苦痛 속에서 나는 속으로 증얼거렸다. — 恐怖도 고됨도 모두가 일순간, 強한意志와 정신력 밑에서는 무의미한 유희밖에 되지 못한다고! —

追憶 鼠生員들의

作亂으로

「氣合」에의

△少領・軍需司 政訓官室長
金能燦

第一戰團飛行團 근무자에 있었던 일

이다. 하루는 과장 서랍에 原因不明의 갑질질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누가 한 것이냐?』

필자도 전 全員 團體氣合이 있었다. 『몸통 앞으로 펼쳐』가 三〇분이 지나도록 계속되었다.

이 때 정하사(현 兵長에 相當)가 제가 했노라고 나섰다. 따귀가 몇 대 시원하게 울라가고 기합은 끝났다.

다음 날도 역시 몇몇 서랍 속에 갑질질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밤 사이에 夜勤者들이 먹다 버린 갑질질을 쥐들이 날랐던 것이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나섰던 鄭下士의 「동키호테」같은 勇氣 그리고 영내자들의 淸掃不足이라 할까? 이로 인한 단채기합, 이것이 아직도 하나에 피스우드로써 기억에 남는다.

追憶 半裸의 美貌

「氣合」에의

陳道源
△상사·비행학교



우리 空軍이 아
저도 江陵基地에
서 連日 猛出擊을
하던 一九五二年
一二月末 當時 나
는 空軍本部가 大
邱 達城公園 기

숙 西部國民學校에 駐屯하던 人事局 最末 端兵이었다. 온 世上은 白雪로 뒤덮이고 살을 에이는 듯 차가운 한 밤중이었다. 그 날 밤 나는 第2番立 不寢番을 막 끝내고 寢具 속으로 들어간 지 不過 數分後에 倅란간 內務班門이 열리며 「全員起床」하는 高喊소리가 들려왔다. 두번째는 「빨」지만 口고 先着順으로 集合」하는 소리는 分明히 先任下士官 韓上士의 목소리였다. 모두들 놀라 미친 듯이 이불을 걸어차고 뛰어나왔다. 이렇게 半裸體로서 不動姿勢로 오를 오를 떨기始作하는 것이다(勿論 아직 理由는 모르지요). 얼마 동안 時間이 흐른 뒤 열에 있던 張一兵이 울며이며 주저앉았고 이제는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全身을 비비 꼬는 것이다. 卽
一時間 후에 비로소 先任下士官 일은 열
렸다.

듣고보니 理由는 그날 事務室 當番이
窓門고리를 한군데 걸지 않았다는 것
이었다.

이렇게 簡單한 理由로서 차레차레로
氣合을 받고 다니던 後 教會의 鍾소
리를 듣고 하룻밤을 떨고 지낸 것이 於
焉 一四個星期, 여기서 얻은 教訓인지는
몰라도 只今은 退勤時 잊지 않고 暖爐,
窓門, 스워치 등을 確認하는 버릇이 있
는 것이다.

「氣合」에의 追憶

國庫金 3원이

장 신 북

△소위·5공수관리처▽



大韓民國 空軍
중에서 너희들 보
다 더 낮은 장교
는 없다는 것을 알
라! 는 구대장님
들의 공갈의 여
론이 귀에 쟁쟁한

채로 행령이라니 소위의 첫 부임지가 5
空輸였겠다. 부활은 궁지와 약간은 어
리 멍멍한 洞中에서 인제받은 補職이 웬
걸? 팔자에 없는 금고정이 出納公務員.
가슴 속에故 스쿠리지선생의 유자를
깊이 간직한 채 하루, 이를, 그러다 보
니 2 주름 되었으니 원리원칙만을 하느
니 같이 믿는 軍생활 初年兵으로서 내어
있혀질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올 줄 같
히 예상이나 했으랴. 디·데이! 사전
의 발단은 직부상의 일, 가로대 국고금
출납 월말정산을 위해서 작성했던 出納
計算書가 만성, 이자리를 빌어 내 그
피죄죄한 淸廉潔白性을 PR 하자는 것
은 아니지만 이전 동전 세 보이 빛어낸
격렬한 논쟁(9) 그 것이 발전해서 9월

기합이 될 줄이야 푸념을 알았으리요?
좌우간에 파장님과 그 잘난 原則的
理論上的 논쟁을 벌이다가 당연히 받은
기합—— 그것은 후보생시절 곤한 잠을
깨우는 거들되는 한밤중의 起床이라든
지, 취침시 지능적으로 논다고 양말을
그대로 신은 채 자리에 들렀다가 걸터
서 선물받은 땀다 이상의 아픔이 있었
다. 事由인즉 支出簿상으로 정당히 지
출되어야 할 地方稅拂込額 중 단수 각
각 1원씩 3건에 대한 3원을 세무소
에서는 불입 안 해도 좋다가에 지나친
충성심 탓으로 그 有罪의 國庫金 3원
(그 세 보이 바로 위대한 국고금이었
는게 비극이었다)에 대해서 그 차액만
큼을 세금 불입하고 현금출납부를 정리
하고 보니 지출부상으로는 정당히 처리
된 3원이 출납부상으로는 금고에 남아
있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出納計算書상
에 3원의 차이가 난 것이다. 즉, 미분
세금 3원이 현금출납부에는 잔액으로
더 남은 것이네, 이것을 사실대로 지출
부 잔액과 출납부 잔액의 차이 사유를

출납계산서상에 표시하여 결재를 올렸
했다. 그리고 사실과 원칙을 설명했다.
처음이나로서는 3원의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했지만 웬걸?
과장님의 불벼락.

내가 작성한 그 계산서는 잘못이라는
것. 사실과 原則을 설명하다가 호된 기
합이었다. 내 要領부득의 소치였지만
어찌 그런 결과물 예상했으리요. 그럴
바에야 현금출납부에도 3월만큼은 사
실상 미지출된 것이지만 지출부와 같
이 지출된 것으로 하고 그 거액(?)의
3월은 세무소에 갈 때에 신나게 택시
비에 보태 줘야 하는 것인데. 그 후
세금불입시엔 미리 단수를 조정하여 未
拂込額을 1원 이상 만들지 않았고 후
미불액이 생긴 경우에는 여지없이 리베
에 제 부치는 편지값에 충당하였으니 나
의 연애사에 기여한 바가 크을 고백해
두지만, 글썽? 그 우표값이 물경 거액
10원쯤 될까? 금년부터는 지방세제도
가 폐지되었기에 그런 고충이 없었지
다행이었지만, 생각해보면 뜻내기로

하나만 알고 들은 생각 못했던 한 해
전의, 나 空軍少尉는 區隊長들의 공갈
(?)을 음미하고 싶지가 않았던 모양인
가?

「氣合」에의 追憶
잊혀지지 않는
「自己忠告」
허 중
△일병·1전비본부대△



氣合은 없었
다.

氣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
리는 必然的으로
치루어야 할 이 行
爲를 美化하여 「쇼
(Show)」라고 부르게끔 되었다.
語感도 좋을 뿐더러 그 일을 치룰 때

절박하지 않고 약간의 웃을 수 있는 여
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좋다.

쇼는 定期 쇼와 수시 쇼가 있는데 前
者는 奉命 外上 카아드쇼, 當번 조장
교체인사, 有名주변제통의 근무교대 등
이고, 내무반 분위기가 저기암이거나
당번이나 근무중 약간의 실수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後者이다.

프로그렘이야 周知하고 있는 바이지
만 氣合의 共通點은 모든 사람이 싫어
하는 行爲나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쏟약이 몸에 좋다는 전지 이 싫은 자
극이 눈에 띄게 일의 성취나 환경미화
를 촉진하는 것은 신기할 정도이다. 그
래서 卒兵인 나도 어느 편인가 하면 때
때로의 쇼가 군대에서는 꼭 必要하다고
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듯 그 方法의 精
錬성 여부가 문제이다.
軍隊生活 1年 3個月째 들어서서 내
23평생 맛은 매의 99% 이상을 맛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아픔도 記憶에
부딪하지 않는다. 단 한번 술한 쇼 중에

서 잊혀지지 않는 소가 있다.

예하부대생활 2개월째였던 것 같다. 이 동병의 할아버지적인 고참병장에게 큰 잘못을 범했다. 그 경위는 새삼 말하기 힘들고 지금껏 내 1級秘密로 남아 있다. 그는 나를 호출해서서는 최상 위에 누우라고 명령했다. 불경한 듯도 하고 수치심도 있어 완강히 불응했더니 「×라 면 ×라」면서 강제로 반듯이 눕히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는 나를 응시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눈이 감긴 불안, 누어 있는 자세의 어색함 때문에 그 10분 남짓한 시간이 못 잊도록 고역이었다.

그 R병장의 氣合方法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異色的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나에게서 굉장한 효과를 거두었다. 억울한 때도 더러는 있다.

K하사가 일동병 전원에게 뱀다회식을 시킨 일이 있다. 그理由は 그저「형편 없다」는 것이고 약간 취한 듯했다. 그때 그는 자기의 가능한 어떤 권력을 吟味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면 약

간 고참의 대우와 존경을 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그 개인의 어떤 변태적인 패잔 때문에 全員이 회생당한 다고 생각되어 전될 수 없이 불렀다.

권력을 吟味했다면 그 권력이 너무 초라하고, 대우를 원했다면 눈 앞에서 만 굴절거리기는 기만만을 초래했고, 어떤 변태적인 성격 탓이었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오만을 샀을 것이었다.

흔히 있는 것으로, 더 上級者로부터 氣合을 받고 그것을 또 밑으로 보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 궁극적인 책임은 출병에게 있고 또 누누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로서 팔맞고 한강서 눈 흘긴다」는 속담 덕분에 애매하게 상관의 기분이야 때문에 눈치를 살피고 불안해 야 하는 것은 知性 있는 上官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자기의 불쾌를 노골화하므로 전체 분위기가 흐려지고 상호 불신을 조장하며 궁극한 反撥心만 일으킬 염려도 있지 않을가?

× × ×

소를 당하고 나서 피땀린 다리를 쓸 어 보는 동보들의 表情은 심각할 만치 침통해서 우습기까지 하지만 역시 같은 인상을 짓고 있는 自身을 발견하곤 한다. 해산명령이 내리면 約束이나 한 듯이 타바코(Tobacco) 그것이 없을 때에는 타바코(공초의 애칭)을 한 대씩 들고 울분을 煙氣로 승화시킨다.

고향 父母 생자이나 자기를 地上最大의 男性으로 알고 있는 자기만의 女性을 애써 그려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때마다 어떤 戰友愛 같은 被害者간의 愛情도 솟아나는 것이었다.

S주변 사관은 엄숙한 集合에서 氣合으로 아주 인상깊은 한 마디를 던졌다. 어휘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에 充實하라」는 內容이었다.

누구나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박력과 품위는 개인의 技術이겠지만 좌우간 모든 이행상태가 보통의 소보다 몇 배 효력을 나타냈다.

結論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한 기합이

관 의술이 아물거나 병자국이 슬어지자 약효를 상실하고 말지만 현실도피반응이나 限定된 세월을 막연히 自主性없이 허송하는 우리의 弱點을 들추어내어 하 무하루 이 自己完成을 忠告하는 뜨거운 한 마디 경고는 좀체로 뇌리에서 사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래도록 마음을 괴롭히는 뼈아픈 만 (惡感)이 있든 없든)이 닦다보다 더 잔 인할지 모른다.

하지만 좀더 멋진 기합, 아니 쇼를 해 보고 싶다.

空空軍에서 밑에서 들쭉 계급의 내가 氣合을 改善할 企圖는 할 수 없지만 더 값진 쇼를 研究하고 또 研究해 줄 上級者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차피 육 체적 고봉으로 메워야 할 氣合이라면 新兵隊보다는 훨씬 度數에 만 족할 따름이다.

아! 쇼처럼 즐거운 人生은 없다?

「氣合」에의 追憶

0.5秒內의

集合

장 병 우

△하사·30防空管制團▽



일대! 군인!

어휘마저 서먹하 던 말들과 더불어 6년-6년을 내 가 받아들인 소위, 특별훈련들 중에 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일의 하나! 1961년 12월 17 일, 항공병학교수로 2주일쯤 전 일석 점호시, 동료 중의 일명 행방불명. 전 원 출동 전면수사(?). 결국, 범인 체 포는 시간 낭비. 「전원 판즈바람에 테 타이를 착용하고 0.5초 내에 先着順 으로 舍前に 集合」하는 구대장님의

불호명, 잠시 후, 그 녀름(진?) 용

사들 積重量 5센티 정도의 연명장에 집합 완료. 범인은 제수 五里霧中. 은 목은 서서히 振動始作. 이우고, 「…… 에,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의 特別訓練 을 實施한다. 전원 주먹 쥐고 일드러 펜 처!」해서 공로와 추위 그리고 부된 신음을 속에 무려 37분 경과. 자신의 체구 원상유지자 나를 포함해서 포함 8명뿐. 「구대근부후보생」이란 명에만 생가지 못했던들, 나머지 「쓰러진 무 리」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리라! 하하.

海外토포

팔뚝에 할수 있는

極小 TV를 製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텔레비」수상 기를 日本기술자가 만들어 냈는데 크 기는 성냥갑에 들어갈 정도. 팔뚝시 계 같이 부에 손찰수 있고 화상도 아 주 선명하며 확대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 곧 대량 생산해서 시판할 단계 에 있다고 한다.

△合同▽

海瑞罷官과 中共 文化革命 分析

李永柱

1, 序 論

中共이 再昨年 11월에 吳晗의 作品「海瑞罷官」을 攻擊함으로써 導火線이 된 所謂 文化大革命에 關하여 中共 自身이 發表한 여러 資料를 綜合하여 보면, 그 發展의 過程이 文藝批判으로부터 始作하여 政治的 肅清으로 發展하고, 그 範圍가 北京市로부터 中共全城으로 擴大되고, 2級幹部 사이의 鬭爭으로부터 1級幹部 사이의 鬭爭으로 上昇하는 등 그 內容의 複雜性과 危機의 重大性은 『만일 이렇게 革命을 하지 않으면 代表的 有産階級人物들이 고개를 다시 들게 할 것이요, 資本主義陰謀를 일으켜 「왕가리」式 反革命政變이 發生할 것이며 그렇게 되고 보면, 蔣介石은 권도

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大地的 地主 그루우프가 出現하여 蔣介石에 積極 同調하게 될 것이니 그때는 우리의 黨과 나라는 망하고 말게 된다」(註 1)라는 中共 自身の 表現처럼 極限에 이르렀다. 이러한 形勢는 지난날의 百花齊放, 反右, 高饒, 胡風, 彭, 黃 등의 肅清波動보다 훨씬 더 規模가 크고 熾烈하다. 中共은 「이것은 黨과 나라의 運命과 前途에 關係되는 大장 큰 일이다.」라고 그 深刻性을 再三 強調하고 있는데 이로써 今次 中共의 文化 革命의 切迫度를 짐작할 수 있다.

中共은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團結하여 美國과 蘇聯을 바다위에 의롭게 떠있는 孤島와 같이 孤立시키려고 의치고 특히, 越盟의 對美鬭爭을 끝까지 全力 支持한다고 蠻勇을 부

리고 있다. 이러한 對外強硬策에 便乘하여 이번엔 갑자기 그렇게 文化大革命鬭爭을 벌이고 中共政權의 生死存亡을 걸고 勝敗를 판가름 하겠다는 客氣를 부리고 있다.

中共의 今次 「文化大革命」에 中共 自身の 運命을 걸고 있고, 中共 自體內에 未曾有의 混亂을 빚어내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國際情勢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할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보다 徹底한 分析和 研究을 加하고 正確한 判斷을 이끌어 내어야 하겠다.

2, 中共의 「社會主義 文化大革命」에 對한 概述

中共의 「社會主義 文化大革命」은 1964 年의 周谷城, 소진驥, 陽翰笙, 柔石,

歐陽山、王任叔、康灌、黃秋耘、李凌、趙樹理、楊獻珍等에 對한 繼續의인 鬭爭, 1965年의 周信芳、孟超、田한 系列에 대한 批判이 發展된 것이다. 今次 「文化大革命」의 直接的인 發端은 再昨年 11月 上海에서 發刊되는 文인報에 姚文元이 『新編歷史劇「海瑞罷官」을 評한』題下에 吳한의 作品을 批判하고 中共軍 機關紙인 解放軍報가 即刻 이를 再報道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뒤 1966年 4月에 中國共產黨 青年團이 第9期 中央委員會 第3次 大會를 開催하고 『全國 青年의 毛澤東著書 研究運動』의 展開에 대한 決議案을 通過시키면서 『社會主義 文化大革命의 徹底한 執行』을 다짐하였다. 4月 12日 中共 「解放軍報」는 『모두들 와서 文藝批評하시오』라는 文藝批評에 대한 特別欄을 마련하고 『文藝批評은 社會主義文化大革命에 서 政治보다 앞선 重大事이다』고 強調하는 編輯者의 註를 달았다.

66年 4月 14日 中共文化部 副部長 石西民은 人民代表常任委員會 第30次 擴大大會席上에서 『毛澤東思想의 偉大한 紅旗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文化革命을 끝까지 그

리고 徹底히 實施한다』라는 題下에 悲壯한 報告를 行하였으며, 御用學者 郭沫若은 意氣消沈한 態度로 劇의인 自我批判을 行하였다. 同年 4月 18日 字의 中共 解放軍報는 社說에서 『毛澤東思想의 偉大한 紅旗를 높이 내걸고 積極 社會主義文化大革命의 隊列에 參加하라!』란 題下에 煽動的인 詭辯을 늘어놓았다.

이때까지의 所謂 「社會主義文化大革命」은 文藝批判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5月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樣相은 變貌되었다. 反黨分子, 反社會主義分子에 대한 打倒의 소리가 높아지고 『黨內에 깊숙히 파고 들어온 「부르조아」勢力의 保護者, 修正主義勢力의 代理人』들에 대한 攻擊이 심상치 않게 되면서부터 「社會主義大革命」은 政治路線鬭爭과 高位層의 權力鬭爭으로 바뀌어졌다. 中共의 今次文化革命은 中共軍의 機關紙인 「解放軍報」로부터 始作하여 그 뒤 『紅旗』와 光明日報, 解放日報, 문진보 등이 參加하였고 吳北京市黨委의 主管下에 있는 前線誌, 北京日報 北京晚報의 執筆陣이었던 田拓吳함 요 沫沙等을 主要한 攻擊對象으로 삼고

辛辣하게 批判을 加하였다. 當時 田拓은 北京市黨委員會 書記이였으며, 沫沙는 北京市黨委統戰部長, 前線誌, 北京日報, 北京晚報의 主幹을 兼任하였다. 이처럼 北京市黨委의 要職에 있었던 人士들에 대한 攻擊은 北京市黨委全體에 對한 宣戰布告를 意味하고 北京市黨委 第一書記인 彭眞에 대한 威脅을 內包하고 있었다. 北京市黨委에 대한 攻擊은 漸次 幅이 넓어져 北京市委의 傘下에 있었던 北京大學黨委員會 書記兼 校長이었던 陸平과 副書記 彭佩雲에까지 避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 한 北京市黨委에 대한 攻擊은 主로 解放軍報에 依하여 行하여졌다.

6月 3日 中共은 北京市黨委員會의 再編成을 宣布하고 彭眞을 罷免하였다. 北京市黨委의 改編은 北京大學 幹部陣의 改選, 北京日報, 北京晚報의 編輯陣의 改選 前線誌의 停刊等 連鎖反應을 同伴하였다. 北京市黨委員會에 대한 大規模의 肅清이 있는 뒤에는 中共은 「黨內에 깊숙히 파고 들어온 反黨分子를 打倒하자! 反黨分子 너희들의 陰謀巢窟을 부셔야 한다!」라고 의친 것으로 보아 彭眞 以外에도 보라

높은職位에 있는人物의 肅清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鬭爭의 結果가 文藝批評에서 派閥鬭爭내지 高位層의 權力鬭爭으로 變貌하였음이 分明하다.

그뒤에 中共의 所謂 文化大革命은 그 範圍가 北京一圓으로부터 中共 全域으로 擴大되어 許多한 幹部들이 肅清되었다. 이때 肅清된 面면을 훑어 보면 中共의 邊方地帶에 位置한 新疆, 青海等地的 黨幹部들까지 불공이 떨어졌고 그 範圍의 廣大性은 未曾有的 大事件임을 말하여 주었다.

中共은 또 驚愕할만한 措置를 取하였다. 즉 中共國務院은 6月17日, 1966年 度 高等學校 新入生 募集을 半年間 延期한다. 다시 말해서 今年 大學放學에 大陸 各高等學校의 新入生 募集을 中止한 措置이다. 中共 全域의 今年 中等學校 卒業生들이 그 自身の 學校에서 實施하는 社會主義文化大革命을 미처 完了하지 못하였으면 따당히 그들이 所屬한 學校의 指示에 依하여 繼續 革命을 完遂하여야, 하며 이미 完了했을 때에는 그 卒業生들을

農村이나 工場 등으로 派遣하여 生産勞動 隊列에 參加시킨다는 것이 新入生 募集期間을 延長한 理由이다. 中共軍 總政治部는 6月29日 北京에서 『全軍創設實務者

會議』를 開催하고 林彪와 總政治部, 黨委 員會의 直接指揮下에 이번 無產階級 文化大革命에 重要한 工作은 文武兩面에 反社會主義의인 反對派의 背後路線을 徹底히 없애 버리는 것이다』라 하였으며, 그리 고 會議席上에서 總政治部 文化部 副部長 陳其通을 打倒하였다. 그의 罪名은 反共, 反毛分子인 前任 部長 陳沂의 職位를 繼承하였으며 直接的으로 이번 文化革命을 惡毒하게 非難攻擊하였다는 것이다. 이 會議에 中共軍 總參謀長 羅瑞卿과 總政治部 主任 李華弟 參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軍部內에도 이미 肅清이 徹底하게 展開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學期를 延長시킨 첫번째의 措置는 所謂 反社會主義的 反革命勢力이 各大學內에 蔓延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드리기만 하던 티질 危機가 싸뜨고 있었기 때문에 取하여진 것이다. 그 다음의 措置는 所謂 反社會主義的 勢力이 中共軍 內部에 浸透하

였을 뿐 아니라 兵士들의 精神이 反社會主義化하여 견장을 수 없는 段階에 이르렀기 때문에 取해진 것이다.

中共은 青年學生들과 人民解放軍을 그들의 政權保護를 爲한 든든한 柱石으로 삼아왔는데 지금에 이르러 反社會主義的 反黨勢力이 學生層과 「解放軍」 속에 醗酵하게 되고 들어가 있으니 「항가리식 反革命政變이 생긴다」(註4)라고 強調한 點도 根據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中共이 今次 文化大革命이라는 名分下에 展開하고 있는 政治的 肅清沙汰가 앞으로 어느 程度 擴大되고 어느 時期에 終末을 告할지는 어느 누구도豫想할 수 없다. 「남스탈루 차크라타 V T S N I K 新聞은 『스탈린式的 肅清旋風이 中共全域을 뒤덮었다. 그런데 어떠한 肅清은 必然코 하나의 마을에서부터 發展하여 漸漸 擴大된다. 소聯의 스탈린의 肅清은 第2次 世界大戰 때문에 中斷되었으나 中共의 肅清은 그 速度가 洪水 같으니 그 누구가 中斷시킬 수 있을런지?』라고 指摘하였다. 이는 中共의 今次 肅清이 全面的이고 또 長期에 걸쳐 展開된 것을 豫見한 것이다.

3、中共 「社會主義文化大革命」이 全世界人民에게 주는 影響

原來 鐵의 帳幕밖에 있는 사람들은 共產黨의 內部鬭爭에 對하여 술한 疑問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共產國家가 무엇 때문에 對內鬭爭의 程度가 對外鬭爭보다 熾烈하게 強行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殘忍한 對內鬭爭을 거쳐야만 그들의 政權을 維持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殘忍한 對內鬭爭을 끊임없이 展開시켜야만 하는가? 비록 그들은 唯物辯證法을 그 理由로 들고 있으나 그것이 實質的인 理由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諸疑問點은 共產黨의 內部鬭爭을 分析하는데 難題를 이루고 있다.

今次 中共의 文化革命鬭爭은 上記한 疑問點以外에 다음과 같은 疑問이 있다.

첫째, 今般 中共의 內部鬭爭의 發生過程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吳晗, 田漢, 猛超의 歷史劇에 대한 批判과 그에 대한 討

論이 熾烈하게 展開되었기 때문에 文藝批判의 領域內에 限定된 듯한 印象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등拓의 燕山夜話와 三家村札記에 對한 辛辣한 批判에 이르러서는 反社會主義的 反黨分子를 對象으로 하는 政治鬭爭으로 變貌하였다. 彭眞은 등拓에 대한 批判에 連累되었는데 그는 劉少奇와 相當히 깊은 關係에 있다. 따라서 彭眞에 대한 批判에 이르러서는 中共 高位 權力 層內의 權力鬭爭의 性格을 다분히 띠고 있었으며 이 鬭爭이 全面的, 그리고 大衆的으로 擴大되고 나아가서는 意識形態領域(思想)의 鬭爭으로 變貌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內容의 複雜性은 自由世界의 觀測通을 어리둥절케하는 所以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共產黨內의 權力鬭爭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政策路線의 鬭爭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思想對立鬭爭으로 認定하고 있는 등 갖가지 見解를 誘發시킨 所以이다.

둘째, 中共은 反美, 反소의 雙方作戰을 벌이는 立場에서 越盟支援, 反美策動 自體가 스스로 받을 裨益 없는 勳賞물 속에 빠져 있으면서 나날이 不利해 가는

越南戰에 極甚한 困境에 處하여 있다.

셋째, 中共은 1930年代 知識人들의 힘을 얻어 政權을 爭取하는데 成功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支持에 依하여 政權을 튼튼히 다져왔다. 中國共產黨內의 30年代 知識人들은 中共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들 30年代 知識人들이 今次 文化革命에서 批判의 主對象이 되고 있다. 30年代 知識人들을 잃는다면 크나큰 中共의 損失일텐데 中共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肅清하려고 하는가?

넷째, 中共의 社會現實은 中共의 10餘年에 걸친 統治를 받은 뒤에 所謂 有產階級은 消滅된 지 이미 오래고 有產階級의 思想도 中共의 累次에 걸친 批判과 壓迫에 자취를 감춘지도 오래인데, 今次 文化革命에서 자주『이는 無產階級과 有產階級間의 意識形態領域의 鬭爭이다』또는『資本主義의 復活을 앞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와 같은 口號가 散見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섯째, 中共은 黨만이 軍을 領導하고 軍은 如何한 일이 있어도 黨에 優先할 수 없다는 原則下에 지난날에는 中共軍의 機關

紙「解放軍報」가 中國共產黨의 機關紙, 人民日報의 論說을 引用報道한 일은 있었으나 人民日報가 「解放軍報」의 論說을 再報道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今般의 中共黨內鬭爭은 前例없이 「解放軍報」의 論說內容을 人民日報가 再報道하였으니 實質적으로 今次文化革命을 軍部가 領導하였는데 그 理由는 무엇 때문인가?

以上과 같은 疑問點들은 바로 中共의 이번 文化大革命에 대한 分析 評價에 困難을 주는 要素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疑問點들에 대한 解答을 導出해 내 뒤 에라야 中共의 今次文化革命의 眞正한 內容을 理解할 수 있다.

4. 國際共產黨의 內部鬭爭의 本質

上記한 諸疑問點에 대한 解答을 찾아서 먼저 考慮해야 할 點이 있다. 그것은 如斯한 疑問點들이 中共의 對內鬭爭에서 表面으로 나타난 現象이지 결코 그 內部鬭爭의 本質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問題의 解答을 찾아보면 미리 그런 現象

의 本質問題를 밝혀야 한다. 그 本質問題는 바로 「마르크스」主義의 根本的 矛盾이 共產國家에 주어 진 하나의 永遠한 不可解得의 難題이다. 「마르크스」主義에 理解가 깊은 사람들은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은 分配論에 置重했지 生産論과 消費論에는 置重치 않고 그 動機와 方法도 그렇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르크스」理論에 依하면 無產階級革命은 必히 資本主義의 社會發展의 極致에서 發生하는 것인데 「레닌」, 「스탈린」은 工業化되지 않은 小聯의 「마르크스」主義를 採擇하였고 「스탈린」은 暴力과 鬭爭의 方策으로 政權을 奪取하였다. 그러나 鬭爭의 方策과 暴力으로는 所謂 共產主義社會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政權保護, 또는 共產主義社會의 物質的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時急하다고 共產黨의 首腦들은 判斷을 내린 뒤에 생각해진 것이 飛躍의 工業化이다. 工業化에 依한 「理想의 社會主義國家」의 實現에 대하여 小聯에서는 穩健路線과 積極路線의 두가지 路線으로 對立되었다. 穩健路線派는 먼저 農業發展으로 부터 工業發展을 圖謀하여야 한다고 主張

하는데 이는 農業에서 工業에 이르는 曲線路線을 意味하며 積極路線派는 農業投資를 削減하여 工業發展에 利用하라 함을 主張하는데 이는 總力을 集中하여 工業化를 促하는 直線路線을 意味한다. 前者를 所謂 右派라 하는데 그 代表者는 「푸하린」이며 後者는 所謂 左派라 하는데 그 代表者는 「스탈린」, 「트로츠키」, 「지메노프」等이다 (스탈린은 푸하린과 一次 合作하여 트로츠키, 지메노프等 左派를 反對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左派가 敗한 뒤에는 스탈린이 左派의 어느 누구 보다도 더욱 甚한 左派政策을 施行하였다). 事實이 두 路線은 다 絶望의 막다른 골목길이다. 小聯의 近40년에 걸친 歷史의 史實을 誰辯으로 共產主義者들의 急速한 工業化를 爲한 夢想이 얼마나 허황한가를 말하여주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 根據한 政權이 이 左派路線에 따라서 政治를 한 結果 農民들의 生活을 威脅하게 되었다. 生活의 威脅을 받은 農民들은 消極의 으로 혹은 積極의 으로 反抗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派生된 農業生産의 不振은 小聯自體內의 經濟危機를 招來 하였다. 이것

이 곧 소련의 1920년에서 1922, 1930년에서 1932년, 1950년에서 1953년 등 세 차례에 걸친 經濟危機이며 1959년에서 1962년에 發生한危機亦是 左派路線에 따라 大躍進을 꾀한 人民公社制度實施가 빚어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政權은 始終 左派에서 右派, 다시 右派에서 左派로 繼續 순환하며 막다른 길에서 永遠히 갈피를 못잡게 되고 나아가서는 被壓迫階級과 統治階級과의 鬭爭이 容易하게 形成된다. 소련, 中共은 勿論 東南亞 共產國家의 大部分이 例外일 수 없다. 이는 「마르크스主義」의 根本 矛盾이 共產國家에 주어진 하나의 永遠한 不可解得의 難題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政權內의 權力鬭爭에서 普遍化된 하나의 본보기이다.

5. 中共 社會主義文化大革命 命에 대한 研究

다음에서 上述한 普遍的인 본보기를 基準 삼아 하나의 前記한 問題點들에 「메스」

를 加해 보고자 한다.

① 中共의 社會主義文化大革命은 도대체 어떠한 性質의 鬭爭인가?

中共 自身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信奉해 왔기 때문에 內部鬭爭面에 左·右派路線의 순환적 鬭爭의 소용돌이를 헤아릴 수 없다. 일찍이 陳獨秀(右派에 降服 主義 罪名) 李立三, 王明, 張國功(右派 社會主義 罪名) 등에 대한 鬭爭은 完全히 左·右派 鬭爭이고 近來의 高崗, 饒子石, 胡風, 卞漢年, 彭德懷, 黃克誠 등에 대한 鬭爭은 亦是 左·右派 鬭爭이다.

左·右派 勢力的 興亡盛衰를 살펴보면 中共 政權樹立以前에는 左·右兩派의 盛衰가 비숫하였지만 中共 政權樹立 以後에는 毛澤東이 黨內의 指導體계의 鞏固化와 「스탈린主義」確立에 全心を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實施한 左翼冒險이 優勢를 獨占했음이 分明하며 그리고 이 點 때문에 毛澤東은 做慢輕妄하게 되었고 또 그 左翼路線에 對한 깊은 反省과 彈力性있는 調節을 缺하게 되었다. 그는 農業政策의 失敗에 意氣消沈함이 없이 오히려 農業政

策의 失敗에 一層 더 強硬한 態度를 取하였다. 그래서 그는 農業高級社制度가 失敗하자 大躍進政策을 樹立하였고 大躍進政策의 失敗로부터 人民公社制度 實施에 着手하였다.

第一 처음에 毛澤東의 右派冒險路線에 反抗한 사람들은 農民들이었다. 이 農民의 苦痛이 知識人들에게까지 反映되면 知識分子들의 反撥을 誘發시킬 것이요, 農民의 反抗과 知識人들의 反撥의 形局이 惹起되면 이 兩者 사이에 相互密接한 關係가 맺어져 毛澤東의 右派冒險路線에 逆行하는 두 主力陣營이 擡頭하게 된다. 예를 들면 1956년의 農民에 依한 政府 糾彈運動과 1957년의 知識分子에 依한 「群衆 不平等建議運動」, 같은 해 農村에서 일어난 「農業高級社 脫退運動」 등에서 뚜렷이 立證된다.

如斯한 大陸의 知識分子와 農民의 反抗은 本質적으로 左右派鬭爭이 發展되어 七億의 住民을 壓迫해 온 中共에 抗拒하기에 이른 것이다. 今般 中共의 社會主義文化大革命은 分明히 中共에 抗拒하는 勢力을 打倒하려는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

서 中共의 今次「社會主義文化大革命」을 中國共產黨의 歷史的 背景으로 살피보면 領導權을 圍繞한 鬭爭이고 思想面에서 살피보면 바로 意識形態領域에서 發生된 鬭爭이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볼 때 被壓迫階級인 7億의 大陸住民이 壓迫階級인 毛澤東一派에 反抗한 鬭爭임은 疑心할 바 없다.

② 中共은 무엇 때문에 對內外情勢가 不利한 狀況下에서 그들의 生死存亡을 存亡 內部鬭爭을 發動하고 있는가?

中共은 『思想文化戰線의 階級鬭爭을 보라! 무척 놀라고 무서운 일이다』라고 외쳤다. 中共이 1952년에 『社會主義過渡時期總路線』의 施行을 公布한 後로부터 繼續 中共의 知識分子와 農民에 依한 反抗에 부담졌다. 第一 처음으로 大規模의 反抗事件이 勃發한 것은 1956年에서 57年사이인데 農村에서는 人民公社脫出 事態와 政府糾彈運動이 있었고 都市에서는 「群衆 不平等建議運動」이 있었다. 비록 中共에 依한 示威이나 反右派鬭爭으로 말미암아 잠시 鎮壓은 되었지만 1955年에서 63年間에 이르러서 또다시 學族의 人反

抗運動이 爆發하였다.

農民의 反抗은 中共에서 消極的인 勞動怠慢과 穩密한 破壞行動으로 나타나 끝내는 3年餘에 걸친 收穫不振을 招來하였다. 그래서 中共全地域에 酷甚한 飢饉沙汰를 造成했고 그로 因해서 人民公社의 崩壞를 促進하기에 이르렀다. 知識分子에 依한 反抗은 哲學界에서 楊獻珍의 『意識과 存在는 同一性을 갖는다』에 대한 反對論 『二分爲二』에 대한 反對 그리고 『合二爲一論』의 主張等이 있었고 歷史界에서는 固谷城의 『各階各層이 모여 이른 時代精神의 原理』 翦伯贊과 吳晗에 依한 中共의 冒險政策 諷諫等이 出現하였고 文藝界에서는 『眞實을 쓰자』 『現實主義演變論』 『中間人物論』等이 있었다. 그래서 中共의 諸般政策에 대한 辛辣한 反駁과 攻擊이 있었다(註6).

이러한 知識分子들의 反抗은 中國共產黨에 參加치 않은 「인테리」들의 反毛反黨의 힘을 擴大시켰을 뿐만 아니라 中國共產黨內에 걸친 과고 들어갔다. 이번의 中共의 「文化大革命」에서 集中 攻擊받은 所謂 三大毒草인 吳晗의 「海瑞龍官」、田漢의

「謝玉環」、孟超의 「李海娘」이다. 그 뒤에 繼續하여 中共은 鄧拓의 燕山夜話 및 三家村札記를 酷毒하게 攻擊하였다. 中共의 10餘年에 걸친 統治에 있어서 1957年에 일어났던 「群衆不平等建議運動」以前에는 中國共產黨을 바라에 있었던 「인테리」들이 中共의 施策에 反對하고 나섰지만 中共의 大躍進運動이 失敗한 뒤에는 中國共產黨을 안에 있는 重要幹部들까지도 中共의 施策에 反旗를 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中共은 『中共의 基本的 政治組織을 地主、富豪層 또는 反黨分子들이 紊亂케 하고 甚至於 黨內 高位層에까지 修正主義的 不穩思想이 波及되었』며 政治的 面에서 敵을 분간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反階級的 勢力의 代理人 혹은 保護人이 黨內에 뿌리박게 되었다. (註7)라고 自認하기에 이르렀다. 中共이 人民公社制度를 實施한 뒤에 여기에 不滿을 품게된 住民들은 急激하게 反中共勢力으로 加擔하여 中共全地域을 「不穩風潮」가 휩쓸게 되었고 中共內에 까지 人民公社의 過激性을 攻擊하는 風潮가 蔓延되었다. 그래서 中共은 「經濟事情이 惡化된 몇몇 동안에 有產反動階級이 依

간繼續의인黨과社會主義에 對한 攻擊이 尙 있을 수 없을 程度의 極限狀況에까지 到達하였다(註8)라고 實吐하기에 이르렀다.

1959년에 일어난 彭德懷, 黃克誠事件은 如斯한 中共의 反共風潮의 代表的인 例이다. 當時 中共 國防相이었던 彭德懷와 中共軍總參謀長이었던 黃克誠은 江西省 廬山에서 舉行되었던 中共 第8期 中央委員會 第8次 會議席上에서 中共의 三面紅旗政策(大躍進, 總路線, 人民公社)을 反對하고 批判하였기 때문에 肅清當하고 單었다. 이 事件은 中共 黨內 核心分子에 까지도 黨外에서 널리 퍼지고 있고 反共風浪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事實을 立體的으로 說明하여 주었다. 이와 아울러 中共 自身이 말한 것처럼 『建國後 10年 동안에 文藝界는 毛澤東思想에 對立되는 反社會主義, 反黨勢力의 温床이었다』(註9)와 같은 深刻한 事態에 이르렀던 것이다.

中共은 이러한 不穩風潮를 두가지의 方法으로 바로 잡으려 하였다. 그 하나는 農村에서의 社會主義 教育運動實施이고 다른 하나는 毛澤東思想 注入運動實施이

다. 그러나 그 두가지의 措置마저도 失敗하고 말았던 模樣이다. 中共은 『北京市黨委員會조차도 農村社會主義 教育運動에 從事하는 中央黨과 毛澤東의 方針을 反對할 뿐 아니라 毛澤東思想이란 말만 들어도 反對하고 욕설하며 화를 낸다』(註10)라고 하여 農村社會主義 教育運動 實施의 失敗를 述懷하였다. 中共의 首都라는 北京市黨委員會가 그러한 形便이었으니 다른 地方이야 不問可知인 것이다.

中共의 두가지 挽回策이 失敗하게 되자 그 後患은 더욱 甚하여졌다. 이 後患은 反共反毛勢力이 中共의 下層組織內에 安住하지 않고 北京市黨委員會와 中共 全教育機關, 各文化機關을 휩쓸게 되었고 中共이 말한 것처럼 地下網組織을 形成하게 되었고 또 組織的 計劃的으로 毛澤東을 우두머리로 한 中共中央黨과 社會主義에 一大 攻擊을 敢行하게 되었다. 그리고 從來와는 달리 計劃과 對策이 緻密하게 되어 所謂 宮內政變 또는 武裝政變 形式을 取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兩者併用式으로 政權을 奪取하려 하기에 이르렀다.

中共이 이번에 「文化大革命」을 通하여

그 趨勢을 逆轉시키려 말하나 苦心勞力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註①: 1966年 6月 6日 解放軍報社說『偉大한 毛澤東思想의 紅旗를 높이 들고 無產階級 文化大革命을 끝까지 進行하라! 文化大革命의 宣傳教育에 關한 要點』

註②: 註①과 같음

註③: 紅旗 1966年 第8期 社說

『無產階級文化大革命 萬歲』

註④: 註①과 같음

註⑤: 1966年 6月 5日 「유고」의

VJESNTK新聞에 실린 『肅清의 검은 그림자』

註⑥: 註③과 같음

註⑦: 1963年 『中共 農村社會主義에 關한 教育運動中에 몇가지 具體的決定』

註⑧: 註③과 같음

註⑨: 註①과 같음

註⑩: 1966年 紅旗 第9期 『前任 北京市委主要責任者들의 修正主義路線을 徹底히 批判』

「그리스도」論

카알·바르트思想을 中心으로

崔 元 振

△軍牧·軍宗監室▽

序 論

『당신의 基督論이 어떠한 것인지 내게 말하라. 그리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다』라는 카알·바르트(Karl-Barth)의 말과 같이 基督論을 論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信仰을 관가름하는 證대한 일임에 틀림없다. 歷史적으로 그리스도가 誕生한 以來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對하여 曰可曰否했던 것이다.

그 中에 어떤 것은 이미 歷史에서 忘却되어진 世界로 가버렸지만 基督敎의 地軸을 흔들거나 基督敎의 基盤을 더욱 堅固히

했던 基督論들은 敎會史의 페이지를 오늘까지 이어 왔던 것이다. 敎會史에 나타난 眞實한 基督論의 敵對行爲는 그리스도 假現說(Docetism)과 靈知主義(Gnosticism)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人間性이 否定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見解들은 그리스도의 成肉身을 完全히 理解하지 못하는데서 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見解는 차츰 排除되고 그리스도 人性은 罪만을 除外하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人間과 똑같으시다는 것을 一般적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面에서는 그리스도의 神性的의 完全性을 될 수 록 減少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즉 그리스도 양자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세례와 부활로 인해서 神格으로 들어가게 된 善한 人間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概念은 異敎的 神話思想에서 온 것이었으며, 그와같은 異敎的 基督論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異敎的 基督論을 열거했다. 아리아스는 그리스도가 世上以前에 태어난 하나님과 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被造物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見解도 역시 異敎的인 多神論을 벗어난 것이었기에 敎會는 니케아 회의를 열어 그리스도는 단(誕生) 것이요

만들어진 것(被造物)이 아니며, 아버지(天父)와 본質의 同一하지다는 信條를 證明하여 아리안파의 주장을 反對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神性과 人性的의 完全性에 對한 問題가 解決되자 다음에는 이 兩性品이 한 人格 속에 結合된 모양에 對한 論爭이 벌어졌던 것이다. 즉 네스토리아스는 이 兩性品이 그리스도 안에 道德的으로 結合되어 있는 것이지 유기적으로 結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유리카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兩性品이 統一되기 前에는 두 性品이었으나 統一後에는 한 性品으로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兩性品을 혼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케돈 종교회의(서기 45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神格에 있어서나 人間性에 있어서나 똑같이 完全하사 神이신 同時에 참 人間이시며, 이와 같은 兩性品은 分明히 變함 없이 分割되지 않고 또 分離됨이 없이 認定해야 된다는 基督論으로 教會는 올바른 旗幟를 들게 된 것이다. 그後 教會는 여러 동란을 겪으면서 19세기에 접어들게 되자 역사적인 구에 있어 먼저 처음으로 충돌이 된 것은 그

때까지의 교리적 그리스도론 論한 데서부터 구단으로 이탈하여 역사적 예수운동을 시작한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인도주의적인 人物로만 묘사한 루낭은 19세기 경향으로 不信을 당해 왔으며,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저서에서 슈바이처는 종말론의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자유생활론(Liberal Live)에 중저부를 찍긴 했으나 그가 그려낸 예수는 現代 우리에게 完全히 낯설은 분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활발히 일어났던 양식비판은 예수의 말씀의 保存이나 그 變경을 說明해 주는 初代基督敎公同體의 구체적 生活 形편을 해석함으로써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分析한 方法이었는데 얼마 후 이 學派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역사적 비판론에 기울게 되었고, 이 學派의 代表者들은 그들이 發見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共同體가 신앙했던 그리스도뿐이었다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나타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카알·바르트는 기독교가 본질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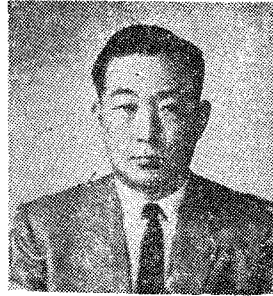
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歷史의 예수가 아니라 信仰의 그리스도뿐임을 確認했던 것이다. 특히 카알·바르트가 神에 對한 모든 지식은 絕對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決定되며, 또한 그것에 依存한다고 하는 것을 더욱 더 強調하고 있다는 점과 단지 우리의 認識論的 문제일뿐 아니라 選擇과 創造와 和解의 모든 敎理에 있어 支配적이고 總括적인 中心要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啓示의 本質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으로 보아서 더욱 明白하다고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 眞實되고 明確한 하나님의 啓示를 만날 수 있다. 그리하여 바르트는 基督論的 敎理를 否定하는 모든 論理에 對하여 論陣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그리스도 中心의이며, 基督論의인 바르트의 思想을 더듬어서 小論을 펴보고자 한다.

第 1 章 成肉身하신 그리스도

敎父時代의 이레니우스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그 자체 안에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의 性格은 그 자

나의 空軍時節

豫編人士 칼람



每年 10月初 漢江白沙場에서 에어쇼
가 있을 때마다 나는 除萬事하고 參觀
해 왔다. 1년에 한번 자라는 空軍의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機
會일 뿐만 아니라 그 中에서도 滿場의
拍手喝采를 받는 編隊 特殊飛行과
나는 特別한 緣故가 있어 늘 感銘이 깊기 때
문이다.

우리 空軍에서 大極旗 標識를 단 제
트機를 내가 第一 먼저 타고 또 編隊空
中 特殊飛行을 내가 第一 먼저 했다고

李 泰 鉉

△豫備役·大領▽

하던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操縱士도 아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가 있느냐? 하고 疑心할 것이다. 그 것
은 儼然한 事實이며 내가 잔직하고 있
는 자랑거리이며, 또 거기에 많은 證
인이 있는 것이다.

休戰이 되고 얼마 후에 우리 F-51 飛
行團은 江陵으로부터 水原으로 移動하
고, 美第5空軍司令部는 서울에서 烏山
으로 移動했다. 長時日 論議되었던 韓
國空軍의 제트機로의 現代化가 結實되
어 우리 操縱士에게 操縱訓練이 始作되
었다. 多數의 操縱士가 選拔되어 그 一
部는 美國으로 派遣되었고 또 一部는
烏山基地에서 美空軍으로 부터 各各 T-

살이 그의 被造物에게 나타내지 되 成肉身
의 경지에까지 나타내지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의 性格은 로고스(말씀)의 自然的
인 活動이며, 또한 로고스(말씀)는 하나님
의 本質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思想을 카알·바르트는 풀이하
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人間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러나 이것을 자연스러운 사실 중에서도
가장 自然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까 마땅
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人
間이 된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라
고 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思想을 古代教會의
信條 속에서 發見할 수 있다. 즉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信條(서기 381년)를 보
면 永遠前에 하나님은 양심자요, 의아
들이요, 빛중에 빛이요, 참 神에서 난
참 神, 出生하였지 創造되지 않았고 아바
지(天父)와 同質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萬
物이 創造되었고 우리와 人間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화서 바
르트의 敗肉身體의 神은 양심자요, 의아

53의 操縱을 直接 訓練받기 시작하였다.

當時 나는 少領으로 美5空軍에 派遣勤務中 이 操縱訓練이 始作되면서 그 行政關係 일도 一部 關與하게 되었다.

訓練의 直接 擔當部隊는 美空軍의 T-33 部隊로서 美5空軍本部の 行政飛行 및 本部人員의 키핑·프라이를 支援하는 飛行大隊였다. 이 大隊에 美極東空軍中 唯一한 編隊特殊飛行班 卽, 에크로바티 팀이 있었고 그 班의 指揮官 A 少領以下 全班員이 우리 操縱士의 教官이었다.

訓練은 順調롭게 進行되었고 F-86의 導入도 年内로 決定되고, 우리 空軍은 數日後의 國軍의 날을 爲하여 漢江白沙場에서 처음으로 에어쇼를 하기로 決定되었다. 이러한 環境下에서 A 少領은 그 行事에 모든 功名心과 名譽心を 發揮하여 T-33 4臺編隊의 特殊飛行을 하기로 하고 觀衆을 爲해 그 4臺에는 太極標識을 하고 또 當時 우리 空軍本部가 있던 大邱에 2日 前에 飛行하여 行事前에 參謀總長 以下 首腦部를 試乘시키기로 하였다.

모든 準備가 다 되고 大邱와 連絡이 다 되어 마침내 太極標識 4臺가 大邱를 向하여 烏山을 出發하는 時間에 A 少領은 飛行服과 落下傘을 가지고 와서 날 보고 4番機 後席에 다라고 要請하였다.

大邱에 到着하면 總長께 우리 操縱士의 優秀性을 說明드릴 테니 通譯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心中은 自己가 韓國操縱士를 訓練하고 있는 直接責任者이고 또 太極標識을 할 程度로 至誠이라는 것을 傳해달라고 하는 눈치였다. 이러 하여 나의 歷史的인 飛行은 始作되었다.

輕飛行機나 C-47의 搭乘經驗밖에 없는 나로서는 若干 不安하였으나 다시 期待할 수 없는 絶好의 機會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勇氣가 났다. 烏山을 離陸한 編隊一行은 浦項上空에 이르러 豫行演習을 하고 다시 東村上空에서 實演을 하고 着陸하여 當時 參謀總長 崔用德將軍 以下の 迎接을 받았다.

나는 이때 벌써 完全히 氣盡脈盡하였다. 酸素 마스크를 써본 것도 처음이고 제트機도 처음이고 飛行機가 空中에서

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파르트는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誕生하였다는 異蹟을 단순한 神祕的 事件으로만 看過하지 않고 여기에서 成肉身의 秘義를 찾아 獨特하게 說明하고 있다. 즉 그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聖靈으로 孕胎되고 童貞女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理解하려면, 우리는 특히 이 두 明確한 語句가 하나같이 그의 自意의 인은총에서 現實的인 人間이 되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이다. 永遠한 하나님의 말씀이 肉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實存의 異蹟이며, 하나님께서 垂直的으로 下降하신 것이 곧 성령과 童貞女 마리아인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秘義며 受肉의 秘義다 라고 말함으로써 孕胎와 出生이란 一般事가 問題인 것이 아니라 特定한 因태와 特定한 出生이 問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이 制限된 時間 속에 成肉身하신 그事實이 眞情한 問題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령 안에서 孕胎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聖書의 表現에서 무슨 特殊한 것이 表示되어 있음을

回轉하면 단 사람에게는 視覺的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도 처음이고 G가 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의 編隊長이 4番機에 타는지도 알았고 4臺가 同一한 飛行을 하는데 呼吸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다. 참 한번에 다알기에는 너무나 넉넉하다.

總長以下 4名을 後席에 모시고 그들은 다시 離陸하여 試乘飛行에 들어갔고 나는 地上에서 休憩하면서 내가 지금 막 끝낸 飛行을 내 눈으로 他將兵과 더불어 보고 있었다. 試乘飛行은 다 끝났다. 4番機 後席에 다시 타고 나는 烏山으로의 歸路에 올랐다. 美操縱士 4名은 4名의 高級將星을 모시고 曲藝飛行을 無事히 끝낸 感激을 감추지 못

注意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異常한 孕胎와 異常한 誕生이 表現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이 事實을 예수 그리스도의 出生이라 부르지만 이 孕胎와 誕生의 異蹟이 나타나지는 意味는 참하나님의 요삼자란이라는 秘義라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예

하고 있었다. 途中 編隊는 길이나서 釜山 上空에서 再演하고 泗川 上空에서 다시 再演하여 우리 各基地를 完全히 에어쇼 무드로 만들고는 이제 烏山에 안착하여 自己들은 大満足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의 疲勞한 꼴이 만 말이 아니었다. 그대로 宿所에 가서 들어가 잔 것을 記憶한다. 지금 다시 해보래도 不可能한 이야기이며 똑같은 이야기이다.

每年 에어쇼에서 T-33아닌 F-86, F-15 등을 가지고 搭乘이 아니라 直接 操縱하여 高等編隊飛行을 하는 것을 보던 인제나 當時가 생각나며 또 자라난 우리 空軍이 無限히 대전하고 믿을 적하다.

△○▽

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人間에 수는 아버지를 갖지 않았다는 否定的 表現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 自體가 되신다는 肯定的 表現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아버지없이 誕生한 異蹟은 宗教史中에 흔히 나타나는人間이 神들로 말미암아 受胎되었다는 것

과 같은 神話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같은 出生이 問題되어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자신이 創造者로 登場하여 이 동성녀의 相對者로 對立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初代藝術이 여기서 性的 過程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再表現하려고 하였다. 또한 동성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는 말씀 속에는 人間적으로 볼 때 男性이 除外당하고 있는데 男性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自意로 造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한 神的 審判의 行爲가 問題되며 人間の 努力이 아무 効力 없음을 意味한다.

여기에는 虛弱한 동성녀가 있을 뿐이며 『나는 주의 제정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말한 결박의 마리아가 있을 뿐이며, 하나님은 그같은 女人을 택하여 말씀이 肉身이 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實現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탄생 異蹟에서 神과 人間の 人格的 統一의 秘義를 表現하는 事實의 形式이 나타났던 것이다. 處女誕生의 異蹟에는 무엇보다 成肉身의 秘義가 中心事實이며 異蹟은 실상 成肉身이 된 形態에 지나지 않

는 것이다. 하여튼 바르트는 處女誕生의 異蹟에서 成肉身의 秘義를 찾으며 이 秘義에서 神性과 人性의 絶對的 統一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第 2 章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考察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勝利라기보다 차라리 謙卑이며 成功이라기보다 失敗라고 할 수 있으며 喜樂이라기보다는 受難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人類의 罪에 對한 하나님 的 憤怒를 질버지셨다는 意味가 되는 것이다. 예수의 全生涯는 受難하였다는 말 아래 들어 있다. 잠으로 그의 誕生부터 온갖 生涯는 受難의 役事인 것이다. 그 誕生이 마굿간에서 되었고 그의 家庭과 民族과 國家와 敎團과 文化의 領域에서는 外人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며, 12 명밖에 안 되는 弟子의 團體中에서도 가롯·유다 같은 背逆者를 얻게 되었고, 首弟子 베드로까지도 세 번이나 自己를 否認하는 경우를 만났으므로 고독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受難의 事實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受

難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民衆이 소리를 합하여 그를 없이 하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침으로써 빌라도 법정에서 有罪判決을 받고 十字架에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受難의 頂點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바라볼 때 世上에 對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啓示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두운 면, 곧 하나님의 진노의 啓示도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受難을 보고 罪을 깨닫게 되며 苦難이나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어두움이 그 實在性과 眞實性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嘆願하는 소리가 있고 懲罰이 行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人間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分明하게 보인다. 그리스도가 苦難을 받으셨다는 말은 被造世界의 不安全性 아래서나 무슨 自然的 條件 아래서 苦難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며, 人間으로 말미암아 또 人間들의 하나님께 對한 태도로 말미암아 苦難을 받았다는 事實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苦難은 곧 하나님 자신에게 加한 것이며,

여기서 人間이 하나님께 向한 反亂이 일어나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人間이 하나님과 對峙되었으므로 和解의 새 役事가 必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진노의 杖을 우리에게 지워주셨다가 후에 그것을 벗겨주는 方法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들을 苦難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짐을 자기 스스로 지시고 그의 怒에 우리가 부딪치거나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受難에서 無限한 罪過와 이 罪過에 必然的으로 따라온 贖罪外의 관계가 明白히 들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포기하면 人間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 明確하며, 하나님이 人間이 된 곳에 人間的 生의 가장 깊은 眞理가 밝히 들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受難은 全體의 罪에 相應한 全體의 受難이라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人間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서는 예수가 하나님 的 怒를 짊어진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 十字架의 最後는 우리에게 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最終의 것이 아니다. 人間의 反逆도 하나님의 怒도 最終의 것이 아니다. 最後의 것은 하

나님의 가장 깊은 秘義, 곧 하나님께서
 人間 예수에게서 罪人の 자리에 오시
 어 人間의 本質인 反逆者가 되어서 이를
 이 받는 苦難을 스스로 받았다는 事實이
 다. 그는 스스로 全體的 罪過가 되시고
 全體的인 贖罪가 되셨다. 즉 그리스도는
 被造物을 皮相의 皮相으로 도우시지 않으시고
 被造物의 悲慘을 自身の 것으로 삼으면서
 도와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被造物
 이 贖罪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被造物
 의 부패는 심히 크므로 하나님의 自己 獻
 身外에는 도저히 다른 方法이 없었던 것
 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無限히 偉大하
 므로 自身을 버리려고 意圖하지 않았다. 이
 것이 和解이며 곧 하나님께서 人間을 代理하
 시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和解論은 우
 리를 위하여 라는 말을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和解의 役事를
 完成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노와 심판을 거쳐서 和解의 은총을 내
 리셨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심판없는 종
 은 은총이 아니며, 어떠한 하나님의 분노
 일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

총이 불타고 있는 것이다. 즉 분노는 實
 在하면서도 오직 神的 사랑의 한 形態로
 存在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분노는 은
 총의 領域內에 存在한다. 이렇게 하여 세
 상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의 受難은 하나님의
 분노를 表現하기는 하나 그것은 罪人임에
 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和解의 은총 속으
 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自進하여 우리를 代理贖하여 오심으로써 解
 放을 받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위대한 은
 총의 勝利가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第 3 章 復活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論의 重要
 한 一部로서 成肉身의 事實을 確認하며
 贖罪論을 더욱 明白히 들어내는 事件이
 다. 그러기에 復活事件은 그리스도의 成
 肉身이나 贖罪와 더불어 啓示와 救援의
 客觀的 現實을 形成하는 基本的인 內容이
 되는 것이다. 마르트는 特別히 그리스도
 의 復活을 重視하여 말하기를 律法과 豫言
 者를 中心한 舊約時代에는 오실 메시야(그
 리스도)를 待望했던 時代에 比하여 使徒

들의 證言을 中心하는 新約時代에는 그리
 스도에 對한 事實, 特別히 復活의 事件을 想
 起하는 時代라고 불렀던 것이다.
 使徒行傳에 보면 使徒들은 復活의 證人
 으로 나섰던 것이며, 저들은 단순한 期待
 나 空想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아니었다.
 엄숙한 復活의 事件에 信仰을 두고 용감
 히 證교를 감행했던 것이다.

復活이라는 한 마디 말 속에 그리스도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으며, 여기에 믿음
 은 歷史 위에서 있으며서 동시에 歷史
 以上の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征服者로서 죽음에
 서 일어나셨다. 그러나 이 事件은 보통
 역사가의 접촉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부활의 事件은 永遠히 時間의
 끝을 깨웠었다. 부활은 世代的의 轉換點의
 다. 時間이 無限의 挑戰을 받아 停止상
 태에서 있는 神的인 순간이다. 다시금 이
 復活을 가리켜서 심판에서 은혜로 들어간
 순간이며, "No"를 "Yes"로 물리는 하나님
 의 거룩한 표적이라는 것이다. 즉 人間의
 可能性이 깨어지고 不可能한 神的 可能의
 事實化한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첫 부활

정의 事件보다는 훨씬 더 광대한 眞理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고 배척받은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和解의 目的이 되었으며 人間을 영광의 나라로 끌어올리시는 目的이 되었던 것이다. 事實 現狀대로 본다면 人間存在는 如前히 罪中에 빠져 있지만 復活事件은 그것을 뒤로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歷史의 轉換은 단 한번이 루어졌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단 한번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唯一回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 한번의 역사는 重大한 世界의 轉換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부활한 날에 人間의 새 歷史가 始作한다. 예수의 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前期는 그의 탄생에서 죽을까지의 33년이며, 後期는 부활에서 승천 사이의 40일이라는 기간이다. 이 期間이 짧은 것은 하나님 決定的 期間이다.

예수께서 부활한 날로부터 새로운 생이 始作되며 그의 죽음을 넘은 世界가 완전히 부서지고 자취없이 處分된 후 부활

에서 새 世界의 새 形態가 始作된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被造物의 生속에 보통 일어나는 更新이나 蘇生같은 것으로 본다면 別로 큰 意味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復活의 新生은 단 한번 이루어지는 역사이기에 소망의 大基金이요 미언어진 勝利의 指標인 것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罪와 저주와 죽음이 敗北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復活에서 성신의 새 世界가 肉身의 남은 世界에 초월적으로 부딪친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한다는 사도바울의 思想을 깊이 理解한 結果라고 생각한다.

結 論

그리스도는 成肉身하신 분이요, 贖罪하신 분이요, 復活하신 분이지만 同時에 昇天하셔서 再臨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啓示의 事實에 對한 第二의 時期는 復活에서 始作하여 昇天에서 끝났다고 하면서 昇天에 對한 二大意를 提示한다. 즉 첫째는 昇天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啓示의 頂上이라는 것이

다. 復活하신 後 40日間 弟子들에게 나타나셨던 啓示의 때가 頂上으로 된 것이 바로 昇天이라는 것이다. 또 둘째는 昇天이 啓示의 때를 마지막으로 장식했다는 것이다. 즉 頂上은 終局이며 啓示의 때는 昇天에서 끝났고 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信仰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오늘날 그를 信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昇天은 現在的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契機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現在的인 그리스도는 將來의 그리스도도 되신다. 그의 時間은 終結이 없고 이제부터 오늘에 또 내일에 계속해 가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永遠하신 存在에 相應하여 이제 그의 存在의 生成이 있으며, 過去에 있던 것이 將次 오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편으로 걸어 오시고 있을 뿐 아니라 將次 우리 편에 오시리라. 그리고 將來를 招來하는 것은 다시금 歷史의 轉換이 아니고 現實로 存在한 것의 啓示이다. 啓示가 곧 將來이다. 이렇게 그의 昇天과 再臨 思想을 들노라 하면 그리스도論의 中心을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

末世의 條件

(누가 18장 1~8)

현 경 렬

△근로·군중감실▽

人類世界の 歴史가 始作된 以來 部分의 인 末世는 늘 계속되어 왔읍니다. 한 나라의 滅亡이나 한 社會의 破滅, 한 民族의 滄滅의 事件들은 無數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基督教가 말하는 末世라 는 말은 部分의 人 終末이 아니라 世界的 人 終末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8절 끝에 우리 信者들의 關心을 모으는 말씀이 있습니다. 『人子가 올 때에 世上에서 믿음을 보겠느냐』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末世를 嘆息한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이 本文에서 末世의 條件 두 가지를 指摘하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불쌍한



과부와 不義한 法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不義한 官吏는 불쌍한 과부의 訴請같은 것은 발아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읍니다. 이는 재판관 스스로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였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무시하는 世代는 곧 末世가 되는 것입니다. 紀元前 1900 年경 소돔과 고모라城에 地震이 일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完全히 滅亡하고 그 자리가 死海가 되었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滅亡當한 罪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生命)을 무시하는 罪惡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망할도 같은 罪惡이요, 2次大戰에 獨逸과 日本의 敗亡도 이 罪惡이 貫盈한 때문이었던 事實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다음은 人生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本文에 보면 왜 하나님께 求하지 않는가는 主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습니다. 現代人은 모든 人間の

問題를 金力에 또는 權力에 또는 科學에 一部에서는 共產黨에 다 求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읍니다. 이것은 人間들이 甚히驕慢해져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自身이 앉아서 하나님의 榮光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生命)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人間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傲慢은 分明히 末世의 條件이며 末世를 재촉하는 人間들의 無知이기도 한 것입니다.

能力的 留保

이 영 렬

△근로·군중감실▽

하나님은 天地를 創造하셨고 主님은 是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그의 能力이 自然과 生命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能力은 하나님께서 世上을 사랑하고 「支保」하여주시는 限神奇하리만큼 展開해 왔다. 곧 惡을 저지하여 義를 세우시는 일이라는 絶望을 變하여 所望된 善을 人間에게 提供하심 등은 事實 그의

能力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信仰은 告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음은 그런 能力이 숨어버렸다. 「安息日規則」는 그냥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書架에 꽂아 있을 뿐 아니라, 獻身의 「예배」와 경건한 「찬양」이 있긴 있어도 그가 행했던 神奇한 能力은 保留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罪人이 新生하는 能力,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하등의 「힘」이 그 자취를 잡았으니 마치 『맛있는 소금』, 『말아래 눈물』이 되어 버린 현실이다.

그럼 주께서 그 機能을 保留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主가 自己故郷에서 當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觀」을 잘못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家系, 前職血統으로만 그를 評價하고 진정한 하나님 아들됨을 「거부」한데서 오는 主任의 默秘行使가 아닐까? 그를 歷史研究的의 對象으로 取扱하는 限도 그이를 論理로서 辨證하려는 限도 그의 能力은 한없이 保留하지 않을 것인지, 그를 어떤 組織의 頂點에 象徴化해서만 取扱되는 限우리는 거기서

오는 能力의 顯現은 가래할 수 없을 것이다.

절박한 危機意識에서 그를 實在的으로 主로 모실 때에만 비로소 그 保留된 能力은 풀리지 않겠는가.

宗教의 對象

(다가 6 : 1 ~ 6)

김 두 식

△근목, 풍사교 V

宗教의 對象, 즉 宗教의 客體는 宗教의 宗派를 따라 各各 다른 物質의 人인 것도 있고 精神의 人인 것도 있다. 原始時代에는 大部分 物質의 人인 對象이 많았고 文化時代에 들어올수록 精神의 人인 對象이 많다.

① 하늘, 해, 달, 별, 암석, 산천, 풍요, 뇌전, 조목, 새, 짐승 등 自然物을 숭배하는 宗教, ② 神像, 佛像, 護身符, 聖物, 遺骨 등등의 加工品을 숭배하는 宗教

③ 이미 別世한 聖賢이나 英雄이나 祖上을 숭배하는 宗教 ④ 살아 있는 人間을 尊重하는 人間教나 티베트의 라마교 같은 것도 있고 ⑤ 사람의 마음을 神으로 보는 宗教도 있으니 人間內心에 主觀的으로 內在

한 불타에게 귀의하는 것이나 人乃天의 敎理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⑥ 그러나 그리스도教는 人間을 초월한 靈의 存在을 信奉하여 無形無像의 神을 對象으로 한다.

宗教라는 말은 漢文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祖宗되는 敎育」이란 뜻이다.

東洋에서는 옛부터 敎育을 귀중히 여겨 사람으로서 생겨났을지라도 敎育을 받지 못하면 금수와 같다고 하였다.

哲學者 칸트는 『敎育이란 나무 그늘에 있는 人間으로 하여금 참 인간이 되게 하는 열의가 갈수록 커져 있다』고 말파하였다. 敎育이 人間에게 이렇게 必要하지만 敎育中には 宗教가 가장 根本의 이요 위대하고 崇高한 敎育이란 의미에서 宗教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歷史적으로 볼 때 宗教를 反對하는 思想을 가진 이름 있는 人物들도 많았다.

政治家中에서는 秦始皇帝를 비롯하여 唐나라의 武宗 그리고 로마 帝國의 「네로」가 있었고 科學者中에서는 「테코코리티스」와 「헤켈」, 社會思想家中에서는 「오귀스트 콩트」,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

「엔겔스」 그리고 「레닌」이 있었고 哲學者 가운데는 有名한 「니체」(Nietzsche)가 있었다. 그는 1844年 독일에서 出生하여 1900年에 죽을 때까지 『神은 주었다.』고 소리높이 외치면서 無神論을主張하였다. 그러나 그의 최후가 비참하였다. 최후의 10년간 정신병원에서 울부짖다가 비참하게 그는 죽었다.

人間들은 흔히 自己들이 幸福하다고는

△로 피△

비틀즈 4重唱團 解體

*매君, 수염기르고 脫退

비틀즈가 해체되었다고 뜻수염을 새 로기른 폴 매카트니(24)가 최근 신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제 자기는 비틀즈에서 떠났다면서는 앞으로 서로 그리워지게 되면서도 모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퀴미살아 노래부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 〈편〉

질 때 地位가 높을 때 돈이 좀 있을 때 神을 否認하고 神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人間은 神을 믿지 않고 살 때에는 神 대신 物質이나 主義를 믿고 살게 마련인 것이다. 프랑스의 無神論者 오 唯物論者였던 「발레이」가 大西洋을 건너가다가 그리인란드 海岸에서 破船 거뭇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을 당했을 때 『神이여 당신이 만일 제시

老益壯 150歲 蘇老人

* 秘訣은 매일 肉體勞動

가사모프라는 150세의 소련농부는 아직도 집단농장에서 원기왕성하게 일하고 있다고 모스크바 방송이 보도. 150 평생에 단 두 번 그 것도 대수롭지 않은 잠가로 많은 외에는 별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저변이 노인은 육체 노동을 하루도 걸리지 않은 것을 장수의 비결로 여기고 있다.

〈피스프바〉

만 보아도 인간들이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宗教를 反對하였던 帝王인 唐武宗만 있는 것이 아니다. 神의 도우심을 빌어 온 國民을 指導한 「조지 워싱턴」이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다.

宗教를 反對한 「메모크리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 「에디슨」이 있었다. 「파르크스」

와 「프랜시스」가 있었고, 「니이체」와 같이 정신병원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버트 슈바이처」와 같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하여 神을 가르치고 상처를 싸매준 사람도 있는 것이다. 과연 「프루트」의 말과 같이 『政府와 都市와 法律을 가져적 못한다면 民族은 있어도 神과 神堂이 없는 百姓이나 民族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르 케인」의 말처럼 『人間은 宗教的動物이기 때문이다.』



空中勤務者에게

要求되는 人格

이 광 용
△대령·항공의료원▽

— 精神醫學的 見地에서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행기가 戰爭遂行의 至大한 範圍를 견지하게 됨에 따라 空中勤務者에게 아무런 身體的인 障礙가 없더라도 心理的인 原因에 의한 事故가 발생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고 또 비행에 수반되는 心理的인 諸般 原因으로 空中勤務者에게서 「노이로제」(Psychoneuroses), 精神病(Psychoses), 心性反應(Psychosomatic disorders)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飛行과 直接 關聯이 되는 飛行恐怖, 作戰疲勞 등이 발생됨을 注目하게 되었다.

飛行時 특히 그것도 戰鬥을 목적으로 하는 飛行時에 空中勤務者에게서는 一般人에서 발견할 수 없는 獨特한 「스트레스」(緊張)가 있고 그 「스트레스」의 程度는 操縱의 熟練度, 任務時間, 士氣, 機種, 日氣, 또는 任務의 種類, 飛行地帶, 他 乘務員과의 同乘與否, 同僚의 死傷, 事故率 등에 따라 좌우되며 이런 「스트레스」가 空中勤務者에서 形成된 人格(Personality)의 成熟의 程度와 結合되어 飛行事故를 誘發하기도 하고 空中勤務

者를 精神科의 疾患狀態에 몰아 넣어 空中勤務를 포기하게끔 하는 要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중 美軍의 空中勤務者中에 情緒的 障礙의 發生程度에 따라 飛行機의 損失率이 크게 영향받음을 알게 되었고 反對로 被擊率이 增加함에 따라 飛行士들의 不安이 현저하게 增大됨을 發見할 수 있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같은 程度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個人에서의 反應은 人格의 成熟度에 따라 差異가 있어서 人格의 發達이 未熟한 경우에는 神經症의 症狀를 誘發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入學試驗에 똑 같이 失敗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情緒的인 適應이 可能하여 心理的으로 正常狀態를 유지하지만 人格 發達이 未熟한 사람에서는 같은 程度의 心理的인 衝擊에 대해 그것을 自我(Ego)가 收拾하고 適應하지 못하여 쉽게 挫折感을 느끼고 精神的인 疾患을 발생시키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飛行安全을 기함에 있어서 人的 要素(Human factor)인 空中勤務者의 選拔時에 그들의 人格의 成熟度를 상세히 把握하고 飛行을 志願한 動機

의 健全性 與否를 調査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課題이다.

飛行動機가 健全하면 할수록 또 現實的이면 그 율수록 成功的으로 飛行任務를 수행할 수 있다. 2차 대전의 空中勤務者들은 자신의 飛行動機를 現實的인 健全한 理由를 即 하를을 한다는 매력, 經濟的, 社會的인 問題 또는 人生의 成功을 위한 手段 등으로 알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無意識的인 深層에內在해 있는 動機가 있다. 2차 대전 당시 美陸軍飛行隊의 空中勤務者들에서 發生된 精神的인 障礙들을 分析, 評價한 著名한 精神醫 「로이 클링커」博士는 그의 代表的인 著書인 「Men under stress」에서 이러한 無意識的 動機인 情感的 要素를 다루고 있다.

인간은 周圍의 物理的인 環境을 支配하고 調節하려고 한다. 幼兒期에는 배가고플 때 울기만 하면 것이 공급되고, 불편해서 보채면 주위에서 모두 편안케 해주는 全能의 狀態이지만 少年期에 이르러 장난감을 주무르고 童話를 듣고 空想을 하면서 滿足을 구하면 時期로부터 더 成長함에

따라 자신이 調節, 支配할 수 있는 限界는 차차 줄어들게 되고 現實을 直視하게 되어 全能의 支配보다도 協助를 하게 되고 愛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서로 交流하는 狀態로 成熟한다. 現實을 直視하게 됨에 따라 갖게 된 調節과 支配의 限界를 벗어나려는 欲望과 全知全能에 대한 鄉愁 등은 成人이 되어 비행기를 操縱하게 됨으로써 다시 옹트게 된다. 飛行은 인간을 時間과 空間의 制約에서 解放시켜준다. 비행사는 마치 神과 같이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時間의 制約을 넘어서 자유스럽게 날은다. 이렇게 時間과 空間의 制約에서 인간을 解放시켜주는 비행기 같이 強力하고 魔術的인 物體도 사람의 의한 심세한 操作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종된다. 게다가 조종사는 자신의 힘을 비행기에 同一視하여 자신의 自負心을 높이고 비행기를 자기 身體의 延長으로 느낄 수도 있다. 즉 조종사의 飛行動機중에는 幼兒時의 全能狀態로의 復歸, 인간에게 주어진 制約을 超越하여 自然을 支配하고 調節하려는 欲望 등 無意識的인 欲求가 있으며 이러한 要素는 無意識的인 기는 하나

健全한 動機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無意識의 이면서도 不健全하고 未熟한 動機들도 있다. 즉 지나치게 劣等 感覺 가진 사람에서 飛行이란 그것을 補償하려는 必死的인 企圖일 수가 있다. 地上에서 欲求不滿이나 葛藤에 싸이고 適應에 쉽게 失敗하는 사람에게는 飛行이란 자신의 人格上 缺陷을 補償하는 좋은 方法이 되며 또 社會의 容認된 脫出口이다. 無意識의 依存的인 意志가 약하고 決斷性이 없는 사람에서는 勇敢하고 男性的인 職業인 飛行을 동경함으로써 이러한 性格上的 缺陷을 否定하려고 한다. 이러한 無意識의 動機들은 心理的으로 不健全한 動機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根底에는 神經症의 欲求가 숨어 있는 것이고 이런 不健全한 動機에 의해 종종 큰 무자가 되었을 때 飛行事故가 增加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反社會的 性格(Sociopathy)의 사람은 指揮官에게 不服從하거나 功功無功의 非難하기도 하고 남이 자기를 認定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한다. 그들은 흔히 規則

이나 規定을 준수하지 않고 上級者에 對해 挑戰的인 態度를 보여 아버지인 「다이달로스」(Daedalus)의 忠告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太陽 가까이로 날아가 드디어 뜨거운 太陽열에 날개가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는 悲劇的인 終末, 即 飛行事故를 일으키기 쉬우나 때로는 戰鬥時에 그들의 무차별한 攻擊性을 심분 발휘하여 過度한 冒險이나 危險을 감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 戰鬥에서의 英雄으로 추앙되지만 결국 正常生活에서 適應에 失敗해 버리기도 한다.

強迫的 性格(Compulsive character)인 사람은 그들의 지나치게 꼼꼼하고 細心한 行動으로 좋은 조종사가 될 수 있으나 대신 새로운 環境이나 應急措置가 요하는 非常事態에서 빨리 適應하고 克服하는데 失敗하기 쉽다.

憂鬱的 性格(Melancholic character)의 사람은 동료의 死傷에 대해 쉽게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동료들의 災難에 대해 지나친 罪意識을 느껴 조종사로서의 能力을

喪失하기도 한다.

「히스테리」의 性格(Hysterical character)은 사소한 「스트레스」(緊張)에서도 그것을 벗어나려는 無意識의인 努力으로 轉換反應 같은 「노이로제」 또는 嘔吐, 食慾喪失, 腹痛, 泄瀉, 便秘 등으로 胃腸管에 오심 心因性反應(Psychosomatic disorders)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결국 精神醫學의 見地에서 볼 때 健全한 飛行動機나 健全한 人格을 具備하는 것이 飛行安全을 기하고 戰鬥能力을 高度로 維持하는데 必須 不可缺한 要素이며 그렇기 때문에 空中 勤務者의 選拔時에 飛行에 대한 學習 및 適應能力을 檢査하는 心理學的 選拔方法(Psychological selection) 이외에 空中 勤務者가 각종 「스트레스」에 대해 適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能力 즉 意識 또는 無意識의인 飛行動機의 健全性 與否와 各個人의 人格의 成熟度를 파악하기 위한 精神醫學的 選拔方法(Psychiatric selection)이 重要視되는 것

이며 飛行軍醫官이 精神醫學的인 知見에 대해 理解와 關心을 가져야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初任飛行教官이라면……………(上)

조 승 래

△대위·비행학교 15대대△

第1節 操縱教育의 特異성과 興味의 誘發

學生들이 飛行教官은 너무 거칠다고
不 卞을 하다가 그들의 수료증에 잉크도 마
르기 전에 자신들도 똑 같은 거칠은 教官
으로 되는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학생들이 비행중에 받는 대우를 不滿으로
생각하며 教育받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러
나 바로 그 학생들이 2~3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2~3개 조종期數를 교육시킨
후에는 그들도 역시 힘악하고 거칠은 말
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教官을 이렇게 만드는 要素는 분명히
교육에 있을 것이다. 어느 과목이나 확고
한 기반 아래서 배운 학생이 더 좋은 결

과를 나타내듯이 조종교육도 이와 같아서
훌륭한 教育方法으로 배운 학생은 결과도
좋은 것이며 그가 다시 教官으로 된다고
해도 염려할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教育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것
과 좋은 教育理論을 실천한다는 것은 완
전히 별개의 것이다. 飛行은 비행기를 타
고 하늘을 날오는 것만이 아니다. 즉 飛
行業務를 조종간을 다루는 技術에서부터
학생과 정신적인 問題의 충분한 理解만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 된다.

실상 人間이란 단순히 동일하게만은 생
가지 않으며 항상 不贊成者는 있는 법이
므로 그와 같은 생각은 모든 교관에게 首
肯되지 어렵겠지만 확실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조종사들의 代表的인 예를 들어보면

그는

『飛行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라
고 말한다. 그는 性格이 거칠고 수척시간
의 飛行記錄을 가져고 있는 배테런이며
많은 학생도 가르쳤다. 비행을 가르칠
수는 없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란 座席
에 앉아서 학생이 배우게 하는 것뿐이다.
만약 그들이 要領을 據得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치가 選手權을 가진 팀을 만드는 데 상
당히 많은 報酬를 받는 오늘날 無識한 사
람이 아닌 바에야 학생이 專門的인 監督
을 받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혼자서 할 때
에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종教
官들은 거친 教育方法에 의지하고 있다.
확실히 飛行에는 거칠은 면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렇게 거칠게만 教育받은 학생은 불쌍한
飛行士임에 틀림이 없다.

또 이와 정반대 되는 見解도 있다. 이
러한 교관들은 모든 것을 길게 설명하고
동승한 飛行時間을 묻자 그때도 추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다 보았다. 이렇게 해서 학생은 비행을 배우고 檢閱飛行에 합격한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方法으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더 우수한 학생이 되었을 것이며 더 좋은 조종사가 되었을 것이다. 너무 말이 많아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간혹 어리둥절해지며 너무 많은 말로 인해서 학생은 無感覺해지게 된다.

저의 대개의 조종사는 그들에게 학생이 맡겨지기만 한다면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感情은 自然的이며 자기들만이 子女를 養育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父母들의 感情과 비슷하다. 이처럼 가르치겠다는 강한 欲望이 교관이나 부모를 刺戟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공부를 한다는 지공을 찬다든지 아니면 飛行을 가르친다는 데 강한 刺戟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일을 강제 당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더 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興味の 誘發인 것이다. 진정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깐

물러나서 남을 타이를 수 있는 정신적인 態度, 示範할 수 있는 훌륭한 技術, 가르쳐야 할 安全規則,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자신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한 眞實되고 純粹한 師弟間의 關係, 즉 교관과 학생간의 關係에 대해서 스스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第2節 教官과 學生間의 關係

자기가 받은 교육에 관해서 面談을 받은 學生이 약간 생각있게 회상하기를 『확실하다는 飛行을 배웠으나 教官과는 무관하며 교관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였다. 면이는 전세계의 모든 교관 혹은 학생이 다 함께 생각해 볼 問題이다. 라이프트 兄弟와 같이 교육을 받지도 않고 飛行을 배운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다 회생되었다. 라이프트 형제는 한 번에 수십 피이트 정도를 날았을 뿐이며, 飛行할 때마다 이를 研究하기 위하여 수개월씩을 허비하였다. 또 반면에 가장 빨리 習得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수한 萬能조종사가 된다는지 훌륭한 戰鬥조종사가 된다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教官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法은 무엇일까? 거칠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급속한 비행의 發展과 더불어 安全規則 制定者들도 훌륭한 교육은 어떠한 안전규칙보다도 더 價値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거칠은 조종教官들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 배우게 내버려 둔다는지 教관이 條理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내 발는지 하면 그 학생은 도저히 安全하고 有能한 조종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행위가 분명히 向上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理論이 一方的이며 飛行教育에 반대되는 理論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개의 비행교관들이 파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認定되어야 한다.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藝術家나 運動選手들은 속없는 批判을 마구 해낼지도 모르나 매일 같이 地上에서 3시간과 空中에서 비행기에 앉아서 3시간씩 學生들이 주는 정신적인 苦痛을 참아내기란 아주 큰 忍

耐력이 필요한 것이다. 양이한 예술가는 조중사가 그의學生이 그를 비행기에 태운 채 한 시간 동안에 열 번 이상이나 무이 뒤를리게 하고 揚岡에서 거의 간신히 衝突을 피하고 그 전날에도 똑 같은 注意를 계속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離陸後에 動力調整을 못하고 方面을 못잡을 때의 挫折感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한 방편자에게는 한참 동안을 한쪽 날개를 아래로 하고 傾斜를 준 채로 飛行하는 것이라든지, 方向이 자꾸 틀린다든지 Slip 혹은 Stid 해서(左右로 미끄러지는 것) 몸이 비고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 敎官의 모든 신경은 피나는 아우성을 연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飛行敎官의 任務란 신경을 몹시 진드리는 職業인 것이다. 따라서 敎官들을 자기 하고 있는 일에 好感을 가질 수가 없으며 그리고 뜻 있는 批評家들이 조중교육의 方法 改善에 어떤 研究를 해 볼지도 모르나 아직까지는 被敎育者인 학생의 전지에서만 생각해 볼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敎官生活이 어찌고 저찌고

…… 하던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유창한 충고들을 오랫동안 지껄인다. 사령관이 영하의 氣溫에서 비행할 때 발가락이凍傷에 걸리겠다고 불평하는 그의 苦情이 敎官들을 集合시키는 것을 본 記憶이 난다. 그는 示範으로 정확하게 40분간을 날고 凍傷에 걸린 얼음판로 飛行待機線으로 돌아왔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조중사들을 대할 때는 예전과는 달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비행자들의 이야기에도 약간의 眞實은 있으며 조중교육은 改善될 수도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理由 때문에라도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교육은 일종의 신경을 소모시키는 직업이다. 그 理由는? 왜 학생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자기가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두 가지 疑問과 그 이외의 학생의 행위에 관해의 疑問을 갖는 敎官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敎官인 것이다. 이 같은 敎官은 자기의 학생을 分析하며 특별한 問題點을 解明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일종의 學習의 기초이며 知識을 획득하게 하고 改善

할 수 있는 敎官인 것이다. 이 같은 敎官은 자기의 학생을 分析하며 특별한 問題點을 解明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일종의 學習의 기초이며 知識을 획득하게 하고 改善

할 수 있게 하며 적어도 학생과의 관계만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敎官과 學生간의 관계는 선수와 코치와의 關係와 비교할 수 있다. 축구 코치는 최근의 유명한 코치들과 같이 추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체육을 가르치는 것이다. 코치와 선수간에 또는 선수 상호간에 親密한 人間の인 感情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사나이나운 精力을 선수가 쏟을 수 있도록 실제로 說得하는 것이 되며 날카로운 정신적인 協同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조중사를 배출하기 위하여는 비행敎官은 학생과의 人間の인 유대를 형성 유지해야 한다.

이 關係는 敎官이 아무리 原因과 理由를 알지라도 원만히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완전한 도매 비행(Top)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이 敎官이 많은 학생과 人間の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안 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매일 같이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쳐 본 사람이 아니면 忍耐心에도 限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

이 關係는 敎官이 아무리 原因과 理由를 알지라도 원만히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완전한 도매 비행(Top)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이 敎官이 많은 학생과 人間の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안 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매일 같이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쳐 본 사람이 아니면 忍耐心에도 限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

다. 한 순간의挫折로 인한感情의爆發은 그날의 잘된 일까지도 모두 잠치고 만다.

학생을 처음으로 만날 때부터 시작이 잘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학생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를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네가 이課程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힘닿는 데까지 힘써 해주마』하는 方法이다. 옛날의 態度, 즉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 마보 같은 質問을 많이 하지 말라. 교관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최상급의 경어를 써라 하는 등의 態度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飛行準備와 安全

人類는 地上에 나타나면서 오늘에 이르러까지 늘 어떤 問題에 부딪쳐 왔고 그

게 하는지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고 공손하게 대하라. 피아노를 치는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에게는 좋은 피아노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 理由는 너무 親密해 지면 거의 명수나 다름없는 자기 교관의 기술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신비감 같은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비행訓練을 훌륭한 成績으로 이수하도록 잘 이끈 교관은 그의 학생들로부터 진심으로 崇拜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교관과 학생간의 올바른 關係이며 이를 알아내고 發展시켜 나가는 사람만이 올바른 方法을 찾아낸 비행교관이겠다. 이리하여 그는 자기의 학생의 代價로서 무엇인가 참된 스승으로서의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유 현 응

△중외·11전비 101대대▽

問題를 解決하려는 끊임없는 準備를 해 왔다. 그들은 試行錯誤에 대한 反省이 나

經驗과 肉感에 依하거나 또 慎重한 思考에 依하여 여러가지 方法으로 부단히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많은 成果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問題解決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數없이 되풀이되는 거의 불가피한 準備過程이다. 原始인들도 洞窟에서 기어나와 마갈 自然을 舞臺로 삼아가는 동안 그들이 던져졌거나 또는 그들 自身의 思考에 依하여 가지게 된 問題를 解決하게 된 것은 알고 보면 그렇게 옛날 일은 아니나.

Aristotle이 思考에 關한 哲學인 即三段論法(Syllogism)에서 볼 수 있는 演繹法에서 後世 사람들로 하여금 論理的인 思考를 適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Galileo와 같은 實驗者가 問題에 關하여 觀察하고 資料를 蒐集한 후 歸納的인 推理를 함으로써 妥當한 結論에 이르는 方法을 우리 앞에 提示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問題解決을 위해선 準備過程은 더욱 더 많은 意義를 갖고 成功的인 解決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努力과 知識이 必要한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푸른 하늘을 주름잡고

있는 조종사의 一員으로서 軍人の 한 사람으로서 國家財産과 人命을 保護함에 關係되는 『飛行準備와 安全』이란 題目으로 몇 자 적어 보려 한다.

먼저 조종사의 心的 및 肉體의 인 準備 狀態에 대하여 그 問題點들을 檢討해 보겠다. 비행기가 완전한 整備의 支援에 依하여 缺陷이 없더라도 조종사의 健康狀態 즉 睡眠時間의 老慮, 私生活 속의 精神의 인 姿勢 혹은 人爲의 인 不可避해서 肉體의 過度한 疲勞, 다시 말해서 過 飲 지나친 運動 등을 생각할 수 있다.人間에게 失수가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失수를 最小限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課題에 대한 準備期間이 必要로 했고 그 重要性이 이런 속에서 接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監督者나 자기 자신은 飛行軍醫 官室을 通한 醫務認可書 運營飛行大隊나 PIS의 週期的인 計器等級, 有効日字를 檢討 高空特性과 適性을 시험하는 항공의 료원을 통한 航空生理, 有効日字를 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自信보다는 權威 및

고 社會의 인 人士가 評價해 주는 것, 즉 自己의 判斷과 客觀의 인 立場에서 自己를 評하는 것이 正常인 때 비로소 그것은 眞實이고 正常的인 狀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飛行計劃室管理에 關한件으로 PIS 및 기타 定期 非定期 刊行物 整理와 아울러 地圖, 現況表 같은 補助資料 現況과 비행하려는 飛行航法 Route의 事前 研究가 問題가 되리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飛行計劃에 關係되는 것이 完備되었다면 編隊群長, 編隊長, 分隊長을 中心으로 한 飛行計劃 樹立 및 브리이핑을 절저 하려야 한다.

브리이핑 할 때에는 비행의 主科目, 豫備科目은 물론 基地狀態 現況板 維持 NOTAM 및 氣象狀態, 예기되는 氣象變化와 變應性 또한 科目에 따른 豫상되는 事故 및 지난날의 主要事故를 재검토함으로써 計劃에 萬全을 기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한다.

푸른 하늘을 날아보려는 人類의 意慾과 꿈이 라이트 兄弟에서부터 오늘 날엔 드디어 宇宙征服의 문턱에 서기까지 急進的

이고 눈부신 發展을 가져왔다. 이런 항공기가 단순히 輸送手段이던 것이 制空權을 優位로 하는 國防力의 一翼으로서 눈부신 바 자못 큰 것이다.

이에 따라 航空發達은 必然的으로 飛行安全의 問題를 擡頭시키게 되었고 人類는 다시 財産과 生命의 保護를 위한 措置에 腐心하게 된 것이다.

△토피▽

百年만에 女兒出産

윌리엄家門에 慶事

켈리로나주의 윌리엄 로버트형제 가문에는 1백년 이상 딸이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윌리엄(25)의 처 수잔(21)이 딸을 낳자 3분후 로버트의 처 파울(25)도 딸을 낳아 경사가 겹쳤는데 모두가 건강.

△엘서리토 Ⅱ A P V

地上勤務者の選拔과

配置問題

心理的要求를 中心으로

한 著 者 李 承 浩
△중외·항의원 V

I. 緒 論

飛行에 있어서 人的 要因은 飛行 軍醫 官이 戰鬪操縱士를 選拔하고 管理하게 되 었던 1次 世界大戰中에 처음으로 認識되 었다. 航空醫學의 發達함에 따라 飛行士 와 그들 環境의 身體的 Stresses에 對하여 烙別한 注意를 하게끔 된 것은 當然한 理 致라 하겠다. 航空作業 規模가 擴張됨에 따라 地上勤務者의 安全 및 作業能率의 問題는 空中勤務者의 境遇와 對等하게 重 要性을 가지게 되었으며 地上勤務者의 健 康 및 勞動條件 뿐만 아니라 그들의 選拔 과 訓練이라는 問題에 더 한층 注意를 해 야 한다는 것이 確實해졌다.

航空作業에 있어서 이러한 問題에 좀더

注意를 해야 한다는 데는 몇 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 全體의 으로 보아 航路作業은 大多數의 産業編成 單位에서 當面하는 것 보다 더 많은 職種과 危險性이 있다는 것 이 事實이다. 普通 航路作業에는 數 많은 事務員과 空航勤務者뿐만 아니라 整備士, 板金工, 熔接工, 라디오 및 計器技術者, 電氣技師, 페인트칠하는 사람, 木工 등을 包含하는 整備勤務者가 있게 마련이다. 裝備 및 勞動條件의 目錄을 들면 많은 勤 務人員과 動力機具, 페인트, 溶劑, 洗滌 劑 其他 特殊危險 可能性이 있는 여러 項 目이라고 할 수 있다. 事實上 모든 航路 作業의 地上編成 單位에는 大端히 變化가 많은 技術을 要하는 相違한 活動이 적어

도 70餘個나 된다. 둘째, 勞動者 移動과 訓練費用을 줄이려는 데 있다. 航空機 整備와 漸增하는 專門化의 訓練을 위해서 莫大한 費用이 든다는 事實로 미루어 보아 心理의 特性 및 身體의 性能을 取扱하기 위한 信賴를 그 客觀的인 選拔方法이 必要 하다는 것을 強調치 않을 수 없다. 現代 的方法의 人事行政을 행던 航路會社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던 會社에 비 해 相當히 勞動者 移動率을 低下시켰다. 客觀的인 選拔, 配置檢査를 使用하지 않 았던 大航路會社의 地上勤務者의 移動率 은 매우 높았다. 例컨대 처음 1,600 名의 整備士 중에서 5年 뒤에 가서는 整 備業務에 從事하는 사람이 約 350名 에 不過하였다.

勞動生産高를 增大시키고 事故를 防止 하기 위해서 一定한 身體的 制限 또는 情 緒의 特徵을 가진 勞動者를 注意있게 配 置했다는 것이 實證되었다. 第2次 世界 大戰이 始作했을 때 航路는 婦女子, 訓練 받지 않은 사람 또는 身體的 障得가 있는 사람까지도 補充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一定한 限界가 있는 「발생되

는』勤務者에 對한 概念의 配置 及 訓練 方法을 對備케 하는 하나의 契機를 마련 했다. 사람은 누구나 身體的인 心理的인 것이 어떤 特殊職務에는 不適當하다는 것 과 가장 有利한 方法은 身體的, 心理的 能力에 따라서 勤務者를 配置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只今 알고 있다. 所謂『事故 頻發 傾向性』이 있는 個人은 身體的으로 障礙가 있는 사람과 반드시 같은 意味가 있는 것은 아니다. 事實上 後者의 境遇 그 記錄을 보면 適當한 職務에 適合하게 配置만 된다면 매우 滿足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된다. 一般的으로 各 勤務者의 個人能力은 職務 要求가 그 個人의 性能 을 超過하지 않는 限度內의 職務에 個人 을 配置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適切한 檢査프로그램을 通하여 各勤務者의 個人能力을 決定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方法이 堅實하게 뒤따른다면 安全과 能率의 向上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目的은 個人의 心理的 性能에 立脚해서 地上勤務者의 選拔及 配置問題 를 檢討하려는 데 있다. 全體的인 選拔의 配置프로그램을 概括하면 (1), 個人의

心理的 性能에 關係되는 職務의 心理的 要求와 (2), 勤務者의 身體的 性能에 關 係되는 職務의 要求라는 兩局面을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다만 직무上의 心理的 要求問題를 簡單히 檢討코자 한다.

2. 選拔의 配置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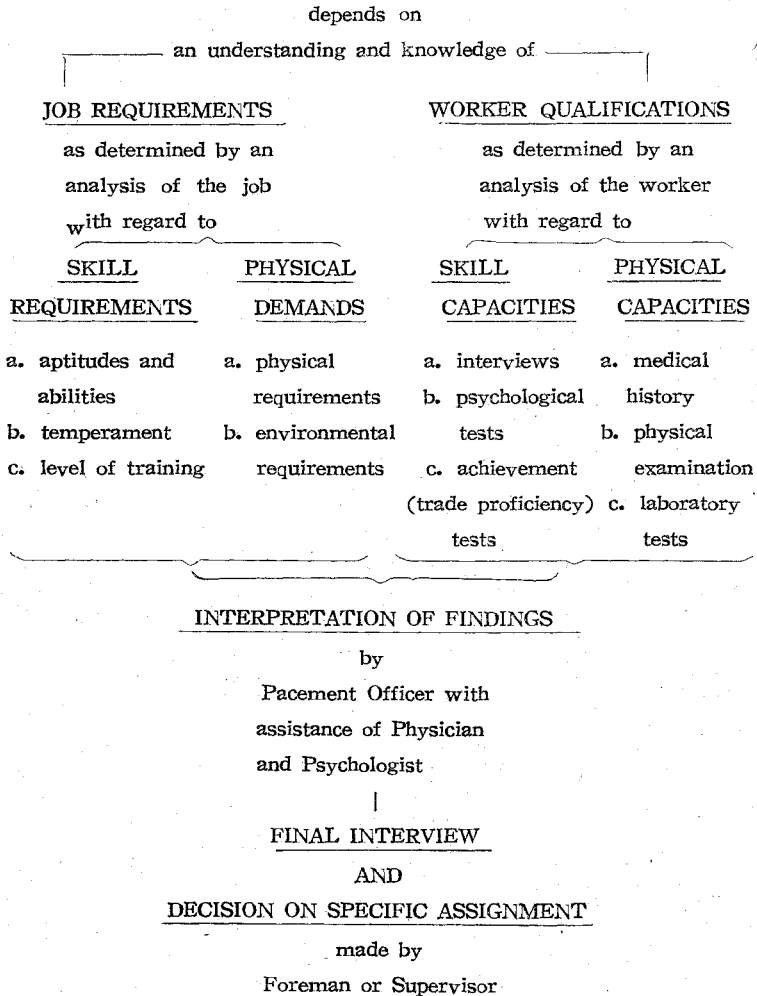
勤務者와 職務를 配合시키는 것을 選拔 的 配置라고 한다. 選拔의 配置는 『(1), 自己의 技術과 適性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고 (2), 同時에 身體的 性能을 發揮 하고 그의 健康 및 安全을 保護할 수 있 는 職務에 따라서 勤務者를 選擇, 割當하 는 過程』이라고 定義된다.

어떤 產業에 있어서 勤務者와 職務의 成功의인 統合은 그의 成功 可能性을 豫 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 다. 滿足한 配置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勤 勞者의 能力과 興味の 形態(Pattern)를 發 見해야 하겠고 그 個人에게 가장 適合하 다고 생각되는 職務에 合理的으로 잘 配 合시켜야 한다. 많은 領域에서의 能力을 評價함에 있어서 人間의 判斷이 不正確하 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事實으로 人事將

校가 客觀的 檢査의 도움없이 勤務者를 選拔, 轉屬, 進級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한 일이다. 더욱기 産業組織이 점점 複雜해지고 단 한 사람의 人事將校가 그 行政下에 있는 모든 職務의 性質과 要 求를 自己 혼자서 잘 알 수 없다는 理由 에서 各職務의 性質, 即 職務分析(job analysis)을 決定하기 위한 分析的이고 客 觀的인 方法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選拔의 配置프로그램의 要素를 表示하 는 圖式을 Fig 1에서 볼 수 있다. 이것 은 心理的 및 身體的 要因과 各 部分에 必要한 檢査方法에 關係되는 平行構成分 子의 分析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러가지 發見資料가 意味있는 全體로 解釋되고 統 整된 다음에 職務要求와 그 個人能力에 立脚하여 志願者가 어떤 職務에 適合한 것인가를 알아내게 된다. 選拔의 配置프 로그램이 이러한 目的을 充足시키려던 職 務分析者, 心理學者, 內科醫師, 人事將校 들의 知識과 經驗이 調整되어야 할 것 이다.

THE SELECTIVE PLACEMENT OF WORKERS



OBJECTIVE

ANALYSIS

PLACEMENT SYNTHESIS

Fig. 1. Basic elements in the selective placement of workers. The figure shows schematically the basic organization, functions, and purpose of the various elements contributing to an effective industrial placement program. (Source : From McFARLAND)

3. 職務의 心理的 要求

比較可能하고 適切한 情報가 各職業에 나 職務에 關하여 利用될 수 없다면 職業 適性, 能力 또는 技術要求의 評價는 何等 價値가 없을 것이다. 흔히 臨床心理學者 나 職業相談者는 一般의인 檢査分野에 상 당히 熟達되어 있으나 그들이 關與해야 할 特殊한 職務에 對한 知識이 不足한 것 같다. 그러므로 選拔의 配置프로그램의 初段階中 하나는 各職務의 要求를 評價 하는 것이다. 航路作業의 境遇 人事將校 와 軍醫官이 綿密한 協力を 함으로써 이 러한 研究가 整備基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近年에 相當한 職業情報量이 蒐集되었 으나 標準화된 記述를 할 수 있을만큼完 全히 信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確斷 하기 어렵다. 한 背景에서 다른 背景까지 에는 많은 差異가 있으므로 分析者는 研究中에 있는 課業 혹은 職務의 遂行에 實際로 參與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分析者는 要求되는 技術과 適性이 무엇인가 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情緒的

問題, 緊張 그리고 이와 類似한 要因들이 全事態에 關係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方法이 매우 時間을 消耗시킨다는 것과 分析者가 研究中の 職務에 對해서 高度로 熟達되어야 한다는 것이 困難한 일이라 하겠다. 어쨌든 航路作業에 있어서 여러 가지 課業의 要求를 分析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部面의 職務에 이미 熟達된 適切한 專門家를 參與시키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職務 혹은 職務分析의 要求를 檢討하기 前에 흔히 誤解하기 쉬운 몇 가지 述語, 즉 職 (Position), 職務 (Job), 職業 (Occupation)의 定義를 살펴보고자 한다. 職은 一個人에 依해서 遂行되는 一群의 課業의 다. 工場이건 事務室이건 勤勞者가 있는 만큼 程度의 職이 尙상 있기 마련이다. 職務는 工場, 業務編制, 教育制度 其他 組織에 있어서 類似한 一群의 職이다. 同一한 職務에 對해서 一人 以上이 勤勞할 수 있다. 職業은 數個의 編制에서 찾아볼 수 있는 一群의 類似한 職務들이다.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航路作業基地에는 相當한 職務가 많이 있다. 單一產業에

서로 다른 職務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全體的인 產業에 30,000,000, 35,000個 以上の 職業이 있다는 理由를 쉽게 理解할 것이다.

一般의 職業分析이란 職務의 要求 및 限界를 限定하는 過程을 말한다. 職業分析은 어떤 職務를 包含하는 課業 및 成功의인 遂行을 위해 要求되는 勤勞者의 性能을 觀察과 研究를 通하여 決定한다. 이와같이 職務分析은 다른 모든 職務로부

터 하나의 特殊한 職務를 辨別하는 特徵이 있는 것이다. 原則의 由어떤 職務의 分析은 (1) 職務의 完全, 正確한 確認 (2) 課業의 完全, 正確한 記述 (3) 勤勞者가 成功의인 遂行을 할 수 있는 職務의 要求를 指摘하는 것이다.

產業에서 廣範하게 使用되었던 職務分析의 一形式은 時間과 運動에 關係된 것이 다. 이것은 職務研究에 있어서 가장 簡單한 型(Form) 가운데 하나로 短期間의 反復的인 課業에 가장 適合하다. 또한 이 職務分析形式은 主觀的 方法보다 더 큰 利點이 있을 뿐만 아니라 勞動節次의 能率改善, 勞動方法의 標準化 및 賃金算算

決定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職務가 長時間을 要한다거나 性質이 다른 非反復的인 課業일 때 時間-運動 研究方法를 適用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航路整備基地에 있어서의 많은 職務는 後者に 屬하며 不規則的인 間隔의 非反復的인 任務를 많이 包含하고 있다. 따라서 一聯의 分離된 活動보다는 오히려 個人과 全課業의 相互作用을 分析하는 것이 더 要된다고 하겠다.

4. 勤勞者의 心理的 性能

選拔의 配置프로그램의 發達에 있어서 職務의 心理的 要求가 決定된 다음에는 各候補者의 心理的 性能을 考慮해야 한다. 心理學的 檢査가 數年 동안 産業에서 成功的으로 使用되어 왔으나 航空部面에 있어서 地上勤務者의 選拔 및 配置問題에 이러한 心理檢査를 適用하는 것은 어느 정도 制限되었다.

어떻게 檢査를 實施하기 전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問題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1) 檢査프로그램을 얻고자 하는 時期는?
(2) 檢査프로그램의 制限은?
(3) 그 프

로그램에서 期待할 수 있는 實際的 利點은 무엇인가? (4) 測定 可能한 心理的 特性은 무엇인가? (5) 航路作業에 있어서의 檢査프로그램을 어떻게 組織할 것인가?

(1) 心理的 檢査法

管理面에 있어서 心理的 檢査프로그램이 必要하느냐의 與否를 決定하는데 利用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準據(Criterion) 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勤勞者 移動 및 再配置를 위한 높은 訓練費用이 들게 된다. 즉, 相當數의 從業員들이 그들의 職務를 그만두고 떠나게 된다. 많은 從業員들이 그들 勞動에 對한 無能 때문에 解雇되는가 하면 從業員들의 能力, 氣質, 興味는 考慮되지 않고 새로운 職務에 옮겨져 일하게 되는 수가 있다. (2) 지나친 事故率은 特殊한 事故의 型을 가진 從業員中에 一定한 Percentage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同一한 勞動을 하고 있는 從業員의 單位生産費가 지나친 變動을 보이는가 또는 勞動技術的 質的 低下로 인하여 浪費되는 일이 있다. (4) 職場責任者나 監督官이 수많은 從業員의 遂行能力 및 適應을 잘못 評定한 憂慮가 있

으며 勞動力 가운데서 새로운 職務에 昇進시키는데 必要한 資格을 갖춘 從業員을 發見하기 어렵다. (5) 從業員中에 相當數가 그들의 勞動에 適應하지 못하거나 興味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指摘하는 여러 가지 人性問題 乃至 氣質問題가 勞動力에서 惹起되고 있다. 이것은 人事管理에 있어서 흔히 適當치 못하게 評價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一面 이러한 問題點의 一部를 心理的 檢査프로그램에 依해서 解決하기 前에 一定한 警戒나 限界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1) 不充分的 選拔이나 配置로 인하여 또는 其他 理由로 인한 缺陷存在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重要하다. 例컨대 높은 事故率은 『事故頻發 傾向性』이 있는 個人에 依해서 惹起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危險에 對한 不適當한 保護나 勤勞者에 對한 不充分的 教育으로 인해서 起因될 수 있다. 더우기 지나치게 많은 辭職은 從業員들이 받고 있는 俸給水準이 勞動에서 要求되는 勞動技術의 標準線을 벗어나고 있음을 指摘해 주는 것이다. (2) 한 두 명 의 勤勞者가 各職務에 利用될 수 있다거

나豫言 혹은 配置計劃을 短時間에 遂行해야 할 때에는 檢査의 有用性은 그렇게 큰問題가 되지 않는다. (3) 檢査가 面接이나 其他 情報의 根據에 依해서 補充되어야 할 境遇 中間範圍에 있는 檢査點數는 選拔에 있어서 어느 정도 信賴할 수 있다. (4) 個人이 높은 檢査點數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이 優秀한 能力이 있고 勞動要求에 副應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 個人이 滿足스러울 것이냐의 與否를 檢査가 指摘해 주지 못한다. 말하자면 志願者의 興味나 動機誘發이 不充分하다면 그의 任務遂行의 모든 可能性도 그만큼 貧弱할 것이다.

檢査結果를 解釋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一般의인 考慮點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檢査의 効用性和 制限點에 對해서 訓練받은 사람이 檢査를 實施하고 解釋해야 한다. A 會社의 特殊한 要求에 適合하도록 考案된 檢査가 비록 事態가 表面上 同一한 것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B 會社에 반드시 適合하게 適用시킬 수 없다는 것은 經驗을 通하여 알 수 있다.

이미 雇傭된 사람들의 마음에서 誤解하

지 않도록 먼저 프로그램의 目的을 說明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勤勞者의 協力を 얻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들 自身의 收入과 生産力을 어떻게 向上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데 有利하다. 결코 어떤 檢査點數에 依해서만이 決定을 내려서는 안 된다. 提言하면 檢査結果는 面接 其他 雇傭이나 配置方法을 補充하는데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檢査法의 技術은 集團內의 各個人의 特殊한 成就를 豫言하는 것보다는 集團의 從業員 選拔에 더 有利하다. 檢査가 賢明하게 使用된다면 從業員의 平均能力水準은 非公式的 選拔方法에 依한 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 檢査가 能力上的의 極端을 찾아 내는데 가장 有用한 것은 아니지만 優秀한 志願者를 모두 雇傭하고 劣等한 志願者를 모두 排除한다는 것은 確證을 不許한다. 一般의으로 檢査計劃은 個人의 『成功 혹은 失敗』에 依해서 評價될 것이 아니라 生産力, 勞動者 移動, 安全, 轉職, 새로운 職務의 學習 其他 滿足할 수 있는 勞動력을 指摘하는 要因의 全體的 改善을 위한 統計上의 比較에 依해

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2) 職業面談

勤勞者의 心理的 特徵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가장 널리 使用되는 方法中 하나가 職業面談이다. 이 方法은 만일 面談者가 어떤 方案없이 處理한다면 모든 志願者에게 똑같은 틀에 박힌 質問을 한다거나 또는 面談者 自身이 充分히 訓練되어 있지 않다면 困難하다. 志願者가 그들의 背景이나 經驗에 對해서 自由롭고 率直하게 말할 수 있도록 誘導할 수 있는 老練한 技術을 活用함으로써 상당히 滿足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質問은 適切하고 賢明하게 해야 하는데 특히 더더가지 心理檢査點數와 結合시킬 때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된다.

職業面談의 基本假定中 하나는 어떤 個人이 未來에 해야 할 일은 그가 過去에 했던 일에 依해서 判斷될 수 있다는 것이다. 職務에 對한 個人의 以前의 經驗, 勞動條件 및 情緒的 適應에 關한 情報을 蒐集해야 한다. 또한 個人의 以前의 訓練, 專門의인 興味 및 社會的 適應을 取扱하는 項目을 包含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그

리고行動方式과容貌、社交性、成熟、統率力과 같은 個人歷에 關한 여러項目을 評價하는 것이 重要하다.

(3) 心理的 特性的 測定

心理的 檢査프로그램을 正式으로 始作할 때 흔히 檢査連結기라고 말하는 適當한 몇 個의 檢査를 選擇해야 한다. 現在

産業에서는 一般 精神能力 檢査、機械理解力 檢査、手敏捷性 檢査、空間知覺關係、視知覺과 같은 特殊適性檢査가 使用되고 있다. 또한 紙筆檢査와 個人的 동작遂行을 測定하는 機械的 檢査가 利用되고 있다. 檢査는 測定하고자 하는 特殊領域 혹은 能力에 따라서 分類된다. 즉, (1)、精神能力 또는 知能 (2)、機械的 理解力 (3)、器用能力 (4)、成就 (5)、書記的 適性 (6)、人性 (7)、興味 檢査 등으로 分類된다. 紙面制限關係로 여기에 對한 仔細한 記述은 避하기로 한다.

5. 要約 및 結論

地上勤務者의 選拔과 配置를 어떻게 하면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지의 問題

를 檢討하였다.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職務의 要求와 勤勞者의 資格을 理解하는 것이 必要하다. 全體의 選拔配置 計劃은 크게 나누어 心理的 要求와 身體的 要求로 構成되나 여기서는 勤勞者의 技術及 適性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心理的 檢査의 役割을 檢討하였다.

(1)、보통 地上勤務에는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相違한 職務活動이 數十種이 된다. 勤勞者를 注意깊게 選拔하여 適合한 職務에 配置한다면 勤勞者 移動과 訓練費用을 減少시킬 수 있다. 人間의 特性이나 能力을 評價하는 人間의 判斷은 매우 不正確하다. 또한 몇몇 人事將校가 수많은 여러 가지 職務上의 要求에 對해서 모든 것을 잘 알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客觀的인 檢査를 使用하여 勤勞者의 選拔、轉屬、進級시키는 方法을 改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選拔的 配置의 첫 段階에서는 職務分析을 하여야 한다. 地上整備任務는 大體로 非反復的인 職務가 많다. 職務分

析者는 研究中의 課業에 實際 參與함으로써 많은 職業情報을 얻을 수 있다.

(3)、勤勞者와 職務를 成功的으로 配合시키기 위해 勤勞者의 心理的 性能을 決定해야 한다. 이러한 職務의 要求와 勤勞者의 性能이 平行을 이루지 못할 때 높은 事故率、勞動技術의 質에 있어서의 저나 變動과 浪費、從業員의 빈번한 轉職 및 勞動力에 있어서의 많은 人性 乃至 氣質의 問題를 招來하게 된다. 心理學的 檢査가 이러한 困難을 모두 解決해 줄 수는 없으나 全體의 平均水準과 勞動力의 遂行性能을 改善시켜 줄 것이다. 注意깊게 標準化되고 妥當度가 檢證된 檢査連結(Battery of tests)를 使用함으로써 大體로 最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專門의 訓練받은 심리학자의 指導下에 檢査프로그램을 對備함으로써 심리적 要因에 起因한 高度의 勤勞者 移動率과 地上事故率을 減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北極에서 살아오다

양
출
고
△중위·5공수▽

몸이 다시 뱅뱅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팔과 다리를 꼭 내밀고 있었더니 다행히도 뱅뱅 돌아가는 것이 멈추어지고 자유落下하기 시작했다. 落下傘은自動的으로 퍼지도록 했으며 落下傘이 퍼질 순간 衝擊이 일어나 심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落下傘이 퍼진 뒤 精神이 들어 위를 올려다 보니 아름다게 음도 落下傘 캐노피가 활짝 퍼져 있었고 헬메트는 턱끈을 꼭 줄라 뱃음에도 불구하고 빗겨져 날아갔고 눈은 다행히도 바이저(Vision)가 내려져 있어 다친데 없이 保護할 수가 있었다.

落下傘을點檢한 뒤 매우 빨리 날아가며 떨어지기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을 알고 方向調整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른쪽에 빨갈게 標示를 해 놓은 落下傘을 두 개는 칼로써 끊을 수가 있었으나 왼쪽 줄 두 개는 落下산이 퍼질 순간 衝擊에 의해서 어깨가 부러졌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일찌기 生還教育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經驗을 되살려 땅에 가까이

여기 맥도날드 대위가 눈보라치는 중앙 알래스카의 황무지에서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받기 전 51시간 동안 겪어야만 했던 訓練을 일부 소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읽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앞으로 生還教育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資料가 될 것 같아 우리말로 옮겨본 것이다.

본 기사는 1966년 7월호 미공군 비행안전 잡지에 실려 있다.

3월 10일 나는 T-BIRD와 충돌하여 그 T-BIRD는 바른쪽 날개에 약 4 피트의 의 손상을 입고 무사히 着陸을 할 수가 있었으나 나는 회복하려고 몸치 애를 써보았지만 비행기를 調節할 수 없어 드디어는 非常脫出을 기도하여 成功했던 것이다.

非常脫出을 할 때의 자세는 機首가 地上을 향해서 30度~40度の 背面姿勢였고 速度는 0.95 mach였으며 高度는 25,000~30,000 피트였다.

바른쪽 Hand grip을 찾아 잡는다는 容易했으나 왼쪽을 찾아 잡는다는 容易치 않아 두 세 번 試圖할 때 몸은 自然적으로 座席의 반대편에 붙어 있었다.

나는 언제 어떻게 캐노피가 날아갔고 座席이 射出되었으며 몸과 좌석이 분리되었는지 記憶에 없었고 다만 몸이 좌석으로부터 分離된 후 感覺을 수 없이 빠른 速度로 뱅뱅 돌며 떨어지던 것뿐이다. 나는 몸이 非正常的인 자세로써 뱅뱅 돌며 떨어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꼭 뻗었으나 이번에는 反對方向으로

지기에 落下傘 分離 커버(Cover)를 벗기고 着陸姿勢를 취한 다음 接地하는 순간 落下傘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몸이 바람에 의해서 끌려가 苦痛을 받는 일은 없었다. 落下하는 동안 추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약 3 피ートの 눈이 쌓인 산비탈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등의 衝擊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떨어질 수가 있었다.

着陸 直後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精神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여름 장갑을 겨울 장갑으로 바꿔 끈 다음 飛行服에 후우드(Hood)를 닫아넣고 캠프(Camp) 칠 곳을 찾기가 시작했다. 나는 저 밑쪽 빌라 75 야아드쯤 떨어진 산기슭에 많은 우생소나무와 죽은 나무가지들이 있기에 캠프를 치기 위해 生環裝具를 끌고 내려가보니 역시 캠프 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라 생각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캠프 칠 것을 결정하고 救助 航空機들이 올 경우 信號를 하기 위해서 스토크탄 두 개를 잡아 포켓트에 넣은 다음 落下傘을 끌고 다시 산동성이에 올라가 쪽 피놓았다.

바로 그때 救助하러 온 F-1106 두

대가 너리위를 스쳐가기에 Mark-13 스토크탄을 서둘러 터뜨렸으나 안타깝게도 비행기는 나무 밧살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信號用으로 오렌지색과 흰색 각각 두 폭씩 네 폭을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落下傘 폭은 캠프 칠 때나 또 다른 것에도 혹시 必要할른지 몰라 찢어가지고 캠프 칠 곳으로 내려왔다.

△安魚處를 만나다. V

산동성이에는 3~4 인치의 눈이 있었으나 캠프 칠 곳에는 눈이 어찌나 많이 쌓여 있는지 무릎 위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고 겨드랑이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다. 우선 캠프 칠 곳 밑바닥을 공평 다진 다음 落下傘을 이용해서 A자형 天幕을 치고 裝具 수에서 툴을 꺼내어 바닥에 있는 눈을 다듬어 평평하게 고른 다음 보우트를 매트레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얹어놓았다. 물론 보우트 속에는 空氣를 넣은 베이 웨스트를 받침대로 깔아 놓았고 그 위에는 座席과 등 뒤에 대고 있었던 쿠션을 빼내어 올려 놓아 잠자리를 마련했다.

이 때 멀리서 구조하러 온 비행기들과 소리가 들리기에 Sarah 라디오와 URF-1 라디오를 서둘러 作動시켜 놓았다.

그러나 Sarah 라디오는 배터리가 약해 4~5분밖에 作動하지 못함을 알고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켜다 하며 반복해 보았다. 그리고 URF-21 라디오는 안테나가故障났었고 사출하게 되면 自動的으로 라디오를 作動시켜 주는 플레스티크마개가 뽀러지지 않았음을 알고 기내에 찬채 플레스티크 마개를 뽑아보았으나 라디오가 100% 잘 작동했는지 어찌한지는 모르겠다. 그 후 나는 라디오를 飛行服 속에 넣어 두기도 하고 발에는 슬리퍼핀백에 넣어 두기도 했으며 불결에 두기도 하여 따뜻하게 保温했다. 이렇게 나는 날이 저물기 전에 주로 天幕을 치고 편감을 위해서 색은 나무를 주어 모아 놓고도 불피울 곳을 찾으면서 時間을 보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를 모두 주어 모으고 나니 벨감을 구하는 것도 이제는 용이치 않았다. 그래서 눈 속을 헤쳐가며 보다 멀리 가지니 그 苦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눈

이 많이 쌓인 地域에서 불을 피우자면 불
밑 바탕으로서 푸른 나무토막이 필요하
는 것은 이미 경험했던 바이나 나무를 속
히 구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生還裝具 위 커머부분을 이
용해서 불을 피우기로 했는데 하루 저녁
은 충분히 버틸 수가 있었다.

△ 모든 것을 組織적으로 V

그날 첫날밤에 나는 스톱코탄, 라디오,
거울 및 電池를 한곳에 모아 두었고 플레
스틱백에 들어 있는 飲食物 및 衣服은 자
자 나누어 다른 곳에 두었으며 나머지 자
질구레한 물품들은 그대로 生還裝具 속에
보관하여 必要할 때는 最短時間 내에 사
용할 수 있도록 一目瞭然하게 整理해 놓
았다. 처음 食事로서 나는 장롱 속에 들
어 있는 고기 두볼을 마셨는데 추위들이
기고 지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으나
구조은 항풍기들이 떨어져 探索을 할 뿐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약간
失望을 느끼기도 했다. 잠은 슬라이핑백
에서 잤는데 그것은 대단히 편안했으며
밤에 약간 춥기는 했으나 그래도 몇 시간

잘 수는 있었다. 물론 내에게는 T-BIRD
에 탔던 戰友들은 어찌 되었으며 故郷에
있는 家族들은 어떻게 지날까 하고 비상
한 關心이 쏠리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등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불을 피워가지고 차와 과자를 따뜻하게
데워 먹고 나서 20 ~ 30야드쯤 떨어진 산

등성이에 올라가 信號를 하기 위해서 모
닥불을 피워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 색깔
이 흰빛 같아 눈과 調和를 이루기 때문
에 발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체현
했던 바다. 이날 역시 많은 救助航空機를
이 왔었는데 어떤 헬리콥터는 1/4 ~ 1/2마
일까지 接近했었고 또 어떤 C-103
및 C-54기는 아주 가까이까지 왔었으나
매번 그들은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다. 물
론 나는 Sarah 라디오 및 URT-21 라디
오 그리고 스톱코탄을 사용했으며 信號用
거울도 사용했다. 하나 못해 나는 더 높은
산등성이에 기어 올라가 住宅이나 建物を
찾아 보려고 발돋음을 해 보았으나 보
는 것은 오직 흰눈으로 뒤덮인 황무지에
뽕뽕얼어 붙어 구비 구비 떨어진 몇 개

닥 장물기뿐이었다.

이날 Sarah 라디오의 바테리는 완전히
消耗되었고 URT-21 라디오는 안테나가
고장난 狀態에서 스위치를 작동시켰기 때
문에 잘 작동했다는 지어면지는 確證할 수
가 없다.

△ 殘骸가 발견되다 V

이날 오후 경비행기 한 대가 아주 가깝
게 지나가기에 信號를 쏘 올렸으나 불
행히도 發見되지 못했다. 그러나 경비행
기는 다행히도 내가 위치한 곳에서 약 7
마일을 떨어진 곳에 散在해 있는 비행기
잔해를 發見했던 것이다. 또한 헬리콥터
한 대가 가솔 가로질러 북쪽으로 날아가
며 스톱코탄 한 개를 떨어뜨리기에 후시
나의 位置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고 期
待를 걸어 보았으나 救助된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C-130이로 하여금 자기네가 쓸
燃料를 떨어뜨려 주도록 標示를 하기 위
해서였다는 것이었다. 이 때는 동안 나는
라디오, 거울, 스톱코탄 그리고 십자어는
信號用 모닥불까지 피워가며 약간 힘을
써 보았으나 모든 것은 虛事였고 다시 날

은 어둠기 시작했다. 모닥불에 눈물 눈이 차와 커피를 만든 다음 고기국물을 따듯하게 데워 함께 마셨기 때문에 배는 고프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산등성이에 있는 落下傘을 걸어 가지고 내려와 잠자리 를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날은 전보다 따뜻한게 잘 수가 있었다.

그러나 救助하려는 항공기들의 몸부림치는 소리에 깊은 잠은 잘 수가 없었고 피로다 못해 드디어는 구조은 비행기들이 내일 아침까지 멀리 사라져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래기도 했다.

△九死一生으로▽

라디오를 불안한 간직한 채 날은 다시 밝아 삼 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날 역시 아침부터 救助은 항공기들이 야단법석이다. 나는 다시 落下傘을 치기 위해 산등성이에 올라갔으나 그때는 어찌나 疲勞했는지 몇 번씩 쉬어야만 했다. 落下傘을 피우고 내려와 모닥불을 피워 飲食物을 데워 먹고 비행기들이 저날 때마다 信號를 하자니 벌써 한나절은 지났고 몸은 疲勞할 대로 피로해졌다.

드디어 그날 오후 C-125의 멀리서 나타 내가 있는 곳으로 機首를 향하고 오기에 URT-21 라디오를 作動시키고 저울을 反射시켰던바 비행기가 發見이나 한듯 다가 오는 것이었다. 기쁨에 넘쳐 信號彈을 쏘아 올렸으나 비행기는 그대로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이다.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아 180度 旋回하여 다시 오기에 信號彈을 또 다시 쏘아 올렸으나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지나쳐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사라져 가는구나 하고 병하니 쳐다보고만 있자니 하나님은 나의 편, 다시 旋回하여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기뻐는지 부르짖어에게

못견디도록 아픈 몸을 이끌고 나머지 스모크탄을 모두 다 써가며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러자 조금 후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타난 헬리콥터에 의해서 나는 九死一生으로 살아오는 데 成功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기술 이외도 사건을 調査한 결과 여러가지 흥미로운 資料들이 알려졌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다.

백도날드 대위는 12시 45분에 非常脫出을 했으며 IFF 장비는 자동적으로 作動하여 GCI 管制士로 하여금 落下地點을 地圖上에 표시해 줄 수가 있었다. 잔해가 발견되기까지는 28시간이 걸렸고 救助를 받기까지는 50시간이 걸렸다.

처음 이를 동안 Sarah 라디오는 이따금씩 作動했으나 실제상 救助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URT-21 라디오는 마지막 3일째 되던 날에야 작동되었던 것이다.

1962년 3월 제작으로 계획되었는 Sarah 라디오 바메리는 원래 약해져 있었고 안테나에 달려 있는 편은 끊어져 있었으나 URT-21과 Sarah 두 라디오는 동시에 送信했기에 Sarah 라디오受信인 URT-21 송신에 의해서 干涉을 받기는 했으나 URT-21의 方向探知機能은 正常적으로 作動되었었다.

URT-21과 落下傘 사이를 連結하는 코오드는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출과 동시에 라디오를 自動적으로 작동시켜 주지 못했다. 백도날드 대위는 信號用으로 3개의晝夜間 스모크탄, 1개의

信號號과 탄알 7발, 信號 거울, 電池, 그리고 曳光彈을 가지고 있었던는 때 信號號 한 발을 제외한 모든 裝備는 다 잘 작동했다. 어렸을 적에 아이 다오주에서 캠핑하고 사냥에서 얻은 經驗을 되살려 生還하는 데 성공한 맥도날드 대위는 極地方에서의 生還教育에 대해서 브리이핑을 받은 일은 있었으나 正式訓練을 받은 일은 없었다.

모든 生還裝具는 대체로 다 좋았으며 특히 슬라이핑백은 아주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食事로서 보자 많은 고기통조림과 물을 피우는 데 필요한 밀반침 쇠조각이 필요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비록 溫度는 45度 F였으나 그는 內衣, 飛行服 그리고 겨울잠바를 입었으며 양말을 여러 켤레 신었고 또 토끼 털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그리 추지는 않았다고 한다. 양털 후우드는 비록 일파 코 언저리에 고드름이 다닥 다닥 매달렸을 망정 추위를 막아주는 데는 아주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生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는 맥도날드 대위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비록

살을 깎아 내는 눈보라 속에서도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황하지 않았으며 부려진 어깨를 자르고도 모든 아픔을 참고 沈

落
書
와
安
全

훈
잡
수

△소위·1 전비 16 대대▽

착하게 行動했기 때문에 生還에 성공했던 것이다.

落書라는 것을 꼼꼼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한 가한 時間이면 아무데나 落書を 많이 하는 버릇이 있다. 무심코 잔뜩 써 놓고는 꾸깃꾸깃 주머니에 넣었다가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얌전하게 펼쳐 들여다 본다. 그리고는 그때의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 본다. 친구집에 갔을 때, 책상을 번쩍 살피고는 휴지쪽 위에 질서 없이 깔린 落書を 읽어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 재미있는 일이 되었다. 술이 들었을 때 좋은 것, 무슨 괴상한 책이든, 무슨 『長』자가 붙은 감투 이름 또는 映畫프로 나 배우 이름 또는 무슨 구니 하며 女性의 이름, 異性에 관한 用語들 등이 쓰여 있는 것을 본다. 그 다음에는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친구를 주의 깊게 들여보는 척한다. 그 다음엔 그 落書內容을 계산에 넣으면서 그날의 觀相을 봐주면 어떻게 자기 心境을 잘 아느냐고 경탄을 발하게 되거나 큰 기침을 두어번 내뱉히고 오늘도 成功했구나 웃어넘긴다. 그런데 어느 날 同期生의 책상 서랍에서 아주 조그마한 낙서용지를 발견하였다.

『飛安 80% X X X 99% 99% 99%』

이런 落書였다. 저의 보기힘은 飛行安수에 관한 落書を 본 것도 반가웠거니와 그 글도 참 재미있는 것이었다. 安全會議

에 참석했다가 생자난대로 셋던 것인데 무슨事故를 전해 듣고 만은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것 같다. 이 친구의主張으로는 열빠진 사람은 危險하다는 얘기 같다. 사실 열이 제대로 들어 박힌 사람들에겐事故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 한문시간에 大學에서 뽑은 글,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나라하는 구절을 배우던 記憶이 나았다. 一言하여 『열빠진 몸은 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落書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古書大學의 一句를 現代의 意味에서 飛行安全의 理論으로 發展 乃至는 解釋하게 하였다. 어디에서나 精神을 차리면 자기 지름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때에 事故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放止할 수 있을 것이다. 열을 간직하는 度에 따라 安全은 99%에서 0%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落書의 主張인 것 같다. 극히 平凡한 理論 『열빠진 몸은 죽은 몸이다』가 우리에게는 다소 必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은 安全에 대한 啓蒙宣傳이 꽤 活潑해진 것 같다. 어디를 가나 安全標識

板이 눈에 띈다. 어디를 가나 安全이라는 客體는 나를 監視하고 있다. 古書에 『十目所視며 十手所指하니 其嚴乎인저』 하였고, 『君子 必慎其獨也』라 하였거니와 安全에 관해서도 自身的 安全에 대한 關心度와 個人的 慢心을 警戒하는 監視度가 곧 安全率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여러 번의 機會를 통하여 몇몇 사람은 얼마나 철저한 安全生活를 하고 있나를 보았으며 얼마나 危險한 일을 冒險하는가를 본 적이 있다. 한 가지 警告로서 알아야 할 일은 내게 實感이 가지 않는 모든 事故의 形態에 너무 無關心하고 實感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다. 자기가 直接 間接의 危險機를 모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事故라는 것은 한낱 死限의 구름으로만 생각하게 되기가 일쑤다.

지난 여름 T-28A 教育을 받을 때다. 한 同期生이 밤새 앓더니 그 이튿날 아침 飛行 스케줄에 의해 飛行을 해야 되었다. 나는 전날밤 그 同僚가 몹시 苦痛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飛行을 중지하라고 권유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동료의 모습은 正常的이었으

며 조금도 불편한 것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좀 不便해도 타야 저 이까짓 몸살로 안 타면 상사님들이 무어라 하시겠나」 하면서 굳이 飛行에 나갔다. 쓸데없는 誤解나 正信상태의 弱點으로 보일까봐 미리 점을 짚어 먹었던 것이다. 물론 飛行安全에 관한 豫備知識이나 教育은 받았지만 그 동료는 자기의 無理가 事故의 原因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思考方式은 바로 事故의 可能性을 충분히 지닌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기어이 飛行을 했으며 비행을 마치고 왔을 때는 거의 暗과 眩氣症으로 맥을 못추었다. 만약 單獨飛行이었다면 어쩔 수가 생가하니 소름이 끼쳤으며 그 동료는 한 번의 無理로 여러 날을 약화된 狀態에서 飛行을 못하였다. 이제는 하찮은 일, 「그까짓 것」 하는 말을 배척해야 될 것이고 자기 개인에게 미칠 正信상태라든지 사소한 格정으로 飛行條件이 못되는데도 무리해서 비행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특히 教育中에 있는 學生操縱士에게 留意할 일인 것 같다.

나는 가끔 機材取扱節次는 달달 외워

나가지만 실제 손은 한 두 가지 실수해서 가슴이 찢어져서 죽어 버렸을 때 기억한다. 이런 실수는 나쁜 아니라,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器械를 만질 때는 성급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평범한 얘기를 했다. 안전이라 하면 範圍가 많이 없다.

우리에게는 특히 飛行安全이 關鍵이 되겠는데 아직 비행에도 정교요, 經歷은 더더구나 門外漢인 내가 安全哲學을 내세우는 것은 可笑로운 일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도 때로는 들어야 한다.』 하였기에 출판을 늘어 놓았다. 生活이 곧 안전이요, 일빠지지 않은 生活教育을 習慣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習慣이라는 것은 꼭 중요한 것이다. 비행기를 點檢할 때 두세 번 再確認하지 않고는 다음이 놓이지 않는다는가, 자기가 만지는 器械를 확실히 알지 않고는 다음 節次로 넘어가지 않는 등의 生活狀態를 習慣화하면 특별히 安全에 대한 強調가 필요 없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어느 친구가 무슨 英語單語를 잊었는데 지시사를 하다가 書齋로만 가서 辭典을 찾아 보고는 고개를 끄덕거

리며 快哉를 부르던 것을 보았다. 공부에 미친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의 飛行生活에 그 친구의 흉내는 못내지만 飛行前點檢表를 들고 20分 동안 일일이 체크하며 點檢하던 어느 조종사의 흉내는 내어야 하지 않겠나?

이 전 決 코 장 난 감 이 아 니 야

박

장

환

그래서 결국 나의 安全哲學은 落書帳에서 생각하면 극히 평범한 理論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고 『일빠진 몸은 죽은 몸이다』라는 持論으로 生活化, 習慣化하며 『十目視所며 十手所指』가 監督의 原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두고 글을 맺는다.

△상사·33 구조대원▽

어느 화장한 토요일의 오후였다. 美空

軍의 P 기지에서 나는 飛行安全將校와 航空軍醫官은 아를담게 배를 지어 물 줄기

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은어 배를 에게

는 조음의 關心을 두어 볼 겨를도 없이 담

게 흐르는 강물을 통해 그곳에 흩어져 조

각이 나 있는 금수블이에 전 視力의 焦點

을 모고 열심히 두었인가 살피고 있다.

저기에는 分明치는 없이나 U. S. AIR

飛行前點檢에 열과쳤다.

FORCE 라고 쓰여져 있는 物體가 보인다.

그럼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의 어느 경쾌한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가

차레로 오늘에 이르기가까지의 經緯를 이야

기해 보기로 하자.

B층위는 格納庫에서 指揮所 앞에 놓여

있는 그의 엘리베이터로 그날 따라 일찍

나와 정식보다 조금 더 細密한 항공기의

飛行前點檢에 열과쳤다.

그날의 예정된 任務는 平時任務와 조금 달리 基地 外廓에 있는 사이트(Site) 視察任務로 나가는 C 대령(단장)을 모시게 예정되어 있었다.

그가 막 點檢을 끝마쳤을 때 한 사람의 參謀를 대동한 C 대령의 승용차가 도착하였다. 그래서 節次에 따라 飛行前 非常節次에 관한 몇 가지 注意點을 브리이핑하고는 C 대령에게 후방 승객 좌석보다 전방 좌측의 副操縱士席이 어떻겠느냐고 意思를 물어보았다. 전에 헬리콥터를 타본 경험이 없는 C 대령은 즉석에서 前方座席에 동승할 것을 同意하고 전방석에 탔다. B 중위는 操縱席의 벨트 매는 것을 도와주고 試動을 걸면서 飛行節次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離陸前 點檢을 마치고 駐機場 끝으로 滑走하여 『Pine tree tower』 Choppat 48 하고 基地指揮塔에 飛行認可를 받으면 節次대로 서서히 離陸하여 곧 正常高度를 취하며 方向을 잡았다. 그러는 동안 C 대령은 보통 형태의 날개 항공기보다 다른 묘한 興味를 헬리콥터에서 느꼈다. 그래서 그가 대동한 참모는 뒷좌석에서 지루(지리)하게 느껴졌던

은 15분간의 비행이었지만 C 대령에게는 아주 강한 印象으로 남았다. 그리고는 사이트의 헬리콥터 페드에 내리면서 3시간 후에 다시 와줄 것을 B 중위에게 당부하고 떠났다. 그리고 3 시간 후에 C 대령이 駐機場에 왔을 때에는 비행기는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권할 필요도 없이 전방 부조종사 좌석에 앉았다. 離陸節次가 완전히 끝나고 高度를 취했을 때 B 중위는 C 대령에게 操縱桿를 한번 잡아보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런 機會를 거다리고 있던 C 대령은 선뜻 조종간을 인수하여 좋은 승세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B 중위는 着陸까지 C 대령에게 위임할 작정을 하고 指揮塔을 불러 着陸許可를 얻은 후 C 대령에게 速度를 유지하고 계속 飛行하면서 약 2 마일 전방에서 減速을 하고 海軍式 滑走着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補助役割을 하였다. 비행기를 무사히 滑走路 끝에 安着시키고는 C 대령은 마치 진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基地指揮所 안에서 내린 C 대령은 B 중위에게 감사하며 일제 다시 한번 헬리콥터를 타고 싶다

고 하면서 헤어졌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말대로 종종 飛行을 하고 나중에는 제법 익숙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제자리 飛行이 좌측까지 하게끔 되었다. 이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마침내 詛呪의 날이 왔다.

토요일, C 대령은 09:00 까지 헬리콥터의 離陸準備 完了를 지시했다. 任務는 基地에서 60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生還訓練이며 후련지에서 4 시간의 여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었다. B 중위 그는 대위로 진급하고 따라서 教官操縱 資格도 획득하였다. 그는 이 임부가 보통 視察任務가 아닌 踏查任務이며 C 대령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 얼마나 물고기가 잘 잡힐 것인가 하는 담사임부였다. 두 사람의 參謀踏查를 대동하고 前方座席에 앉으면서 이번 자기가 세로 발견한 장난감을 얼마나 잘 操縱할 수 있는지를 그의 參謀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좌석 부조종사석에서 성공적으로 離陸을 하고 1,000 피트의 상공에서 姿勢를 바로 잡고 방향을 잡았다. 약 30 분간 飛行을 한 후 訓練現場으로 호르르고 있

는 각을기를 잡아 고기베들이 아주 잘 볼 수 있게 高度를 약 300 피트로 降下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엔진이 꺼지고 10초도 못되어 고기베들과 合流를 하는 運命에 놓였던 것이다.

약 7시간 후 다른 헬리콥터에 의하여 큰 은빛 고기 모양을 한 사고난 항공기가 약 5 피트의 물에 떨어뜨려진 것을 발견하였다. 搭乘者를 그대로 실은 채…… 事故調査에서 본 사고의 確實한 報告(DDR)는 주로 드의 故障이었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으며 오토로테이션(Autorotation)에 기인한 것 같았으며, 엔진 故障時 間に 着陸하게 된 것은 너무나 低高度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쉽게 判定할 수 있었다.

車故調査에서 한 가지 분명히 糾明할 수 없었던 것은 오토로테이션 降下를 하는 동안 操縱 困難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엔진 故障과 그 衝擊으로 인하여 그 순간에 C 대령으로부터 操縱인수를 못하게 하였나 하는 점이다.

다행히도 이 점은 事實이 아니며 다만

推測일 뿐이다. 戰記에 이야기를 敎訓으로 덧붙이지 물이켜 볼 것은 비록 適用되는 檢閱飛行(Check out)의 規定이 있다 해도 오늘날 많은 보통 비행기 조종사들이 너무 短時間의 헬리콥터 檢閱飛行을 받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階級이 소위 든 소장이든 막론하고 헬리콥터를 조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問題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操作이 보통 비행기 조종사들이 생각하기를 헬리콥터라는 것이 아주 簡單하고 작은 기계이며 도끼사냥이나 고기잡이 남사에 便利하게 사용될 수 있게나 設計된 것으로 잘못 認識하고 있다. 좌우간 航空力學上으로 문제를 다룰 때는 超音速

安全은

나自信을 위한 것!

제트기나 헬리콥터나 그 複雜性에 있어 다름 것이 없다. 다만 다른 점은 느리고 행동방향이 특이한 점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安全과 直結된 속련된 技術習得이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檢閱飛行 받은 時間의 대부분이 Take-off의 관습시간으로 끝났다면 조종사는 항공기를 적당히 操縱할 수 있는 技術을 배우는 동시에 적당히 危險해 질 수 있는 만큼 빠른 것으로 될 것이다.

좌우간 어떤 사람이 항공기에 의한 비행자가 된다고 가정하며 그것은 F-4C를 타나 VH-19를 타다 희생되거나 그 죽음에는 하늘의 등급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 기 봉

△병장 · 10전비부정대 V

푸우와 같이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직

지에 돌입하여 勇敢하게 싸우다가 생환함

국가에 바친다거나 名譽로운 負傷을 당한 戰友들과 작은 不注意로 生命을 잃거나 國家財産을 損傷케 하는 人의 惡은 軍인들과 과비교할 때 어느쪽이 人간으로서 할 일 이며 국가를 위한 軍人으로서 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安全 이라 함은 귀중한 항공기 또는 지상장비 지원무기 등을 부조화 사고와 진물의 파 손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으로서 부서는 사고로부터 人命이나 財産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사고를 사전에 주의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경비와 戰鬪力의 상실로서 우리 전투준비에 萬全을 기하여 軍인들을 손조롭고 効果의으로 수행하려면 정비사 뿐 아니라, 전장병이 一致團結하여 안전책을 이해 습득하고 實踐에 옮겨서 最大의 安全을 목표로 안전 본래의 목적을 이 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事故를 나 랐은 내지 않겠다는 굳은 작오가 필요하 고나 자신으로 사고가 없다고 모두가 생 각하게 되면 全體의으로 사고가 없을 것 이니나 자신이 事故를 방지하려는 생각

을 열두에 두고 하나 하나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 리들 整備士들은 작은 잘못 하나를 죄는 데도 規程대로 確實性 있는 整備가 필요하 게 되고 순서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安全 을 위한 일이라 하겠다. 일에 放任하고 확실성 없는 정비에 국방력이 얼마나 잠 소되고 국가재산이 豫期치 못하는 사고로 삼시간에 적지 않은 損失을 가져오며 귀중한 인명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누구 나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니 우리들 자 신은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대하여 放心 하지 않고는 精力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 다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들이 흔히 들는 옛이야기의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 느 나라 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 들어오다가 앞의 敵을 무찌르기 위하여 敵陣을 향하여 정진없이 달리고 있을 때 장수가 타고 있는 말발굽의 못이 하나 빠 져 달그락대며 달리던 중 그만 말발굽이 땅땅 빠져 마침내는 말이 쓰러지고 말았 다. 그토록 날쌔게 前進하던 말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장수는 말에서 떨어져 負傷을 입고 적의 捕虜가 되니 장수를 잃

은 군졸들은 모두들 魂飛魄散 도주하고 수 많은 군사들이 목이 잘리고 말았으니 막대한 전쟁의 被害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다.』 이토록 작은 못 하나가 타 율하게 세련된 말과 장수를 잃고 치욕의 敗戰이란 쓴맛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토록 그 나라가 망한 것은 보 잘 것 없는 말발굽의 못 하나로 인하여 패 전국이라는 悲運의 苦盞을 치루었음 것이 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말의 마부가 좀더 확실하고 완전무결하 게 그 말에 대한 點檢을 하였던들 그토록 패전이란 쓴맛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첫 째로 우리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항공기 整備作業에 대한 세심한 注意와 확실하고 완전무결한 整備의 중요성을 再認識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는 책임감과 있고 성의 있는 정비를 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고 責任感이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반 드시 수행자가 가져야 할 必要不可缺의 原則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비사에게 부여된 責任은 누구보다도 그 도가 높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정비하여 안전번 飛行으 로서 직접적으로 오는 損失과 人命의 被

害에 미치는 영향은 구태여 이 자리를 빌어서 再強調할 필요성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아들은 責任感이란 저지 않은 주위사람들에게 喜怒哀樂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언젠가 공군지에서 飛行安全에 대한 어느 조종사 부인의 手記를 읽은 적이 있다.

여기서 그 부인은 남편을 부대에 보내고 하루의 飛行을 마치고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까지 不安과 恐怖와 초조 속에서 온 가족이 하루를 보낸다는 말을 읽었다. 이것은 극단적인 表現이겠지만 아들은 초

조와 不安 속에서 하루 하루를 生活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평화와 즐거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할 眞난만한 어린 자녀들과 부인이 그토록

초조하게 생활해야 하였는가? 이러한 現實을 볼 때 우리들이

라도 해소하여 주려면 사고 없는 나날의 연속만이 유일한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사고 없는 비행은 적극적인 우리 整備士 일개인이 責任完遂를 명심하고 좀더 誠意와 熱意로서 整備에 임해야 될 줄 믿는다. 이렇게 참으로 친진난만한 어린이들과 못

여성들에게 즐거움과 平和를 가져다준다는 信念을 갖고서 우리들 나 자신이 하루 하루의 세찬 바람과 暴陽에 그을린 얼굴로 믿음직하고 건강한 몸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때 우리 任務가 국가 재산의 保存이요 이 나라의 平和를 이룩

하는 原動力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 자신의 責任感 있는 안전으로서 얼마

나 인류사회의 행복이 되고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하는 일이 훌륭하고 대견하다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軍人常識〉

◇國軍理念

大韓民國國軍은 民主主義를 守護하며 平和를 維持하고 國家를 防衛하기 爲하여 國民의 子弟로서 이루어진 國民의 軍隊이다.

◇國軍使命

國軍은 大韓民國의 憲法을 守護하고 自由와 獨立을 保全

하며 國家를 防衛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며 나아가 國際平和를 維持에 貢獻함을 使命으로 한다.

◇服務 및 實行

① 部下는 上官의 命令에 絕對로 服從하여야 하며 그原因이나 理由를 물을 수 없다.

그러나 命令의 內容에 分明치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물어 이를 밝힘으로써 實行에 틀림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命令은 가장 빠르고 正確하게 實行하여야 한다.

北 傀 間 諜 船

을 擊沈하라!

安 商 田

△大尉・10戰飛團▽

○ 다음의 얘기는 지난 4月 17日 西海海上에서 ○
 ○ 있었던 北傀間諜船 擊沈任務를 띠고 出動한 ○
 ○ 第5編隊長의 作戰手記이다(編輯者註). ○

아침 8時, 내가 出動을 하였을 때는
 이미 第1, 2, 3編隊가 出動한 後였다.

모든 조종사들은 흔히 있는 일이라서
 그런저 별로 서두르는 기색도 보이지 않
 고 日課는 平常時와 다를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休戰後 10餘年이 흘러 가면서 전투훈련
 만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日課는 습성
 화되었는데 비행훈련에 있어서도 安全의

더욱 강조되어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새로운 戰技를 연마하는 데에 게을
 리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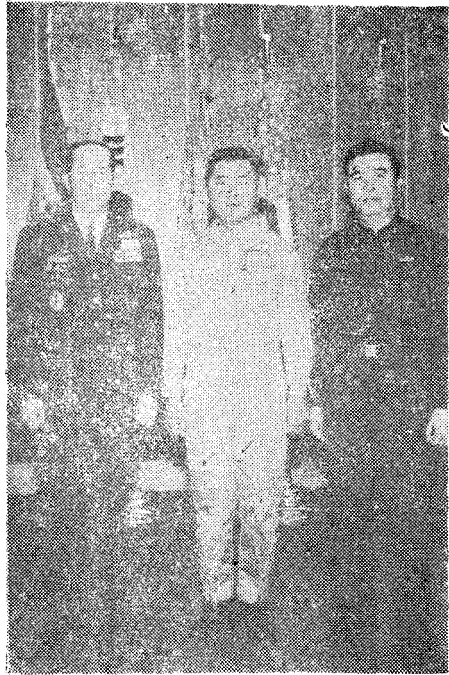
극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習慣
 性安定感이라고 할까 하는 一種의 평온한
 마음가짐 때문에 一旦有事時에 對應할

자오야 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 周邊
 이 너무나 無事하였으므로, 그러기 때문
 에 모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에 도그렇

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느
 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나 自身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서 崔熙永중위와 함께 「알라트·롤」으로
 향했다.

우리가 준비한 F-5A 愛機에는 LA
 4-8 「라운치」에 「로켓트」彈이 장비
 되어 있어 무엇인가 平常時보다는 변화되
 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間諜船을 聖沈시킨 安大尉(中)가 張총장(左)으로 부터 총무부공문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 右는 田作 駝司令官▽

「알라트·폴」에서는 현재 間諜船의 출현과 그 동안의 狀況 全般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다. 항공기의 内外部 點檢을 끝내고 항공기重量과 저항에 따르는 離陸速度를 계산하여 보았다.

이 때 동료 조종사가 「안대위, 유이 중

OC에서 作戰部長(白대령님)으로부터 指示項이 下達되는 것이었다. 「發砲命令이 있을 것 같으니, 發砲하게 될 때에는 조심해서 잘해라!」. 이미 豫期치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다시 떠올랐다. 2番

으면 特進할 機會야!」하는 농담을 들으면서 僚機인 崔중위에게 비행 전 「브리핑」을 시작하였을 참나, 비상 「벨」이 울렸다.

급히 뛰어나가서, 「ROPER GOLD」의 「콜·사인」으로 09時11分, K-13기지를 기록해 올라갔다. 이륙 후 點檢을 2番機인 崔中尉에게 指示하고 있었더니, 基地 W

機 崔中尉에게 「카메라·스위치」와 「사인」을 「ON」으로 하기를 指示하고서는, 內部點檢에 빠진 것이 없나를 再確認하라고 애기해 주었다.

MDC에 「인바운드·체크」를 하니, 「체널·11」로 「버헤드」와 연락하라는 無電指示가 내려왔다.

機首를 西海로 向했다.

하늘은 1,400피트 정도에 구름이 덮이고, 視程은 비교적 좋았다. 이 때 作戰部長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라, 우리는 차츰 긴장되어 감을 느꼈다.

—간첩선을 우선 찾아야지—

周波數를 바꾸어, 「버헤드」와 「컨택트」를 하였을 때, 第4편대의 崔대위와 禹대위의 交信소리가 「레서버」에 들어온다.

몰져 반가웠다. 이어 해군함정으로부터 간첩선을 더 前進하지 못하게 要請하는 소리, 發砲해도 좋은냐는 崔대위의 흥분된 목소리가 交叉되어서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 때였다. 「버헤드」에서는 위협사적으로 간첩선의 船首를 南쪽으로 돌리게 하라는 指示다.

第4編隊에서 위협사격을 실시하는 「I N」 「OFF」 소리.

禹대위가 편대장인 崔대위에게 한 번만 더 사격해 보자는 말이 뒤범벅이 되어 들려온다. 이어서 다시 간첩선이 300度 方向으로 도주한다고 보고하는 「崔대위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現場의 狀況을 미리 들으면서, 가노라니까, 狀況을 대강 알 수가 있었다. 이즈음, 우리 편대는 북피 간첩선과 약 50 마일 떨어진 我海軍 합정을 발견하였다.

간전한 海上에 흰 물꼬리를 일으키면서 北上하고 있는 友軍 합정을 내려다 볼 때에 밝가운 마음이 일어났다.

崔대위가 지휘하는 第4編隊는 연료재고량을 말하고 기지에 귀환할 것을 「버헤드」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때, 우리는 前方에 하얀 물꼬리를 달고서 연한 연기가 올라오는 검은 한 점의 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배의 方向은 東北方向. 물꼬리가 이는 것으로 보아, 수도가 상당히 빠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崔대위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바로 저것이 간첩선임. 계속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람!」

주장 「버헤드」에 간첩선 확인을 보고하고서는 8 천피이트까지 강하, 左旋回를 하면서 목표에 접근해 갔다.

지금 도주하는 저 배에 탄 간첩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만할, 나의 마음은 조금도 여유가 없었다. 그만큼 나는 순간적으로 올흔에 떨면서 두 손을 꼭 부여잡았다. 배의 크기는 길이가 20미터, 폭이 5미터 정도로 보였다.

操舵室이 앞부분에 있고, 그 뒤의 甲板엔 검은 四角形의 물체가 너댓 개 보인다. 인적은 찾아 볼래야 볼 수도 없었다.

이때, 「버헤드」로부터의 指示가 왔다. 「ROPER · GOLD!」, 간첩선을 격침시키라!」

「레시버」에 도렷도렷하게 울려 온다. 내 생애에서 실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처음이고 보니, 復唱을 하는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떨리는 것이 분명한 듯 싶었다.

2番機 崔중위에게 武裝系統點檢과 「사

이트」계통 점검을 다시 지시하고선, 萬一의 경우를 위해 「로켓트」彈은 左右 2회로 나누어 발사하기로 했다.

「로켓트」레인저(RANGE) 수에 愛機를 進入시켰다.

목표를 포준한다. 「로켓트 · 버튼」을 눌렀다. 배는 물기둥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보이지 않는다. 다시, 2발 발사. 목표물 直上空을 선회해 올라가니, 崔중위로부터 고탄이 들려 온다.

「安대위님, 맞았습니다. 명중된 것 같읍니다.」

이번엔 崔中尉의 차폐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관포 사격을 퍼부었다.

간첩선 증산중되는 곳에서 폭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船體의 破片들이 海上에 흩어져 떠 있는 것도 보인다. 주위에는 기름이 번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船尾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간첩선 주위를 경계하면서 바닷물에 말려 들어가는 간첩선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었다.

「버헤드」에다가는 계속해서 狀況의 推

移를 보고했다.

이윽고 海軍 함정이 10 마일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버헤드」로부터 연락되었다.

우리는 海軍 함정을 간첩선에 유도해 주었다.

「지금 침몰중에 있음, 계속 접근 바람.」
이 때 崔중위가 간첩선에서 사람 두어 명이 바다로 뛰어내린다는 것을 海軍 함정에 알려 주었다.

연료를 「체크」해 보니, 이전 기저에 귀환해야 할 것밖에 안 남았다.

〈時事百科〉

Blue Belt (푸른띠). 소련의 최근 완성했다는 비밀방위 체제. 소련 국방상 「말리노프스키」는 공산당전당 대회 비공개회의에서 소련이 「블루·벨트」방위 체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루·벨트」가 단순한 군사방위인 것, 「미사일」방위인지는 분명치 않다. 지방 측은 「블루·벨트」가 어떤 한개의 무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나이키」X

블루·벨트

「여기는 ROOPER·GOLD!」, 입두 완수! 지금 간첩선은 침몰중에 있음 海軍 함정에 인계유도 완료, 오-바.」

「오케이, 여기는 「버헤드」, 기저로 귀환하라! 라-차!」

마지막으로 우리는 我軍 함정이 간첩선까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선, 機首를 南西쪽으로 틀었다.

10年 후에는 崔중위가 내뱉는 心情이었다. 후련한 감정이었다.

기저로 귀환하는 「코오스」가 부척 흔쾌하기만 했다.

「시스틴」과 같은 총합적인 방어체제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나이키」X 「시스틴」은 지평선, 「나이키·주스·미사일」, 「스트린트·미사일」 등이 결합된 對「미사일」방공체제. 미국 30개 도시에 설치

하는데는 비용은 3백억 「달러」라고 한다.

X X X

나는 崔中尉를 불러 보았다.

「崔중위! 아무 이상 없지!」

「네, 이상없습니다.」

「센진. 파워를 늘려서, 기저로 향하기 20여분, 언제 보아도 발가운 母基地의 환주로가 시야로 들어온다.

오늘 따라 「타워」의 「컨트롤·보이스」까지 신이 난 모양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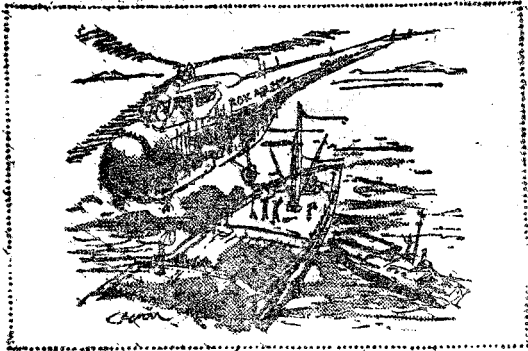
「ROOPER·GOLD, 착륙 바람.」
환주로를 미끄러져서, 「택싱」을 해 틀어가노라니, 「라인」의 낮은 戰友들이 스리의 「V」字를 손짓을 하고 있었다.

駐機場엔 團長님 이하 大隊長님, 그리고 戰友들이 우리를 본에 넘치게 환영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 편대의 무장과 정비를 해준 「라인」의 정비사들이 무척 기뻐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와석에서 나와서, 악수를 나누면서, 후와석터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오늘날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다는 안도감의 서수으로 「후유」하고 함숨을 내쉬어 보았다.

하늘은 마냥 푸르지만 하다. 바로 저 하늘이 우리의 일터였지.



『非常出動!』

油槽船「第7유모號」의 遭難者를 救出해 내기까지

이 판 영

<中尉·제 33구조비행대대>

다음의 手記는 지난 4月 3日 西海海上에서 「이일·영」의 船발전의 船발된 負傷者의 船員 金正만과 吳우규 氏를 「엘리펀트」로 救出한 副操縱士의 얘기이다.

1967年 4月 3日.

○基地의 아침이 거의 밝아올 무렵이었다. 非常待機室에서 나는 「소파」에 기대 「라디오」의 아침음악을 들으며 「나이트」를 맞추었다. 이제부터 같이 밤을 새운 正操縱士 김재수 大尉와 機上整備士 한준수 下士, 救助士 문홍수 下士는 새벽출발이 오는지 가려운 눈을 부치고

있는 듯 싶었다.

시계를 쳐다 보니 作戰用 壁時計는 정
각 07시 13분이다.

이 때였다. 出動을 알리는 「버저」가 非
常待機室을 울린다. 소스라쳐 놀란 나와
김大尉는 급히 「인터폰」 「앞」으로 귀를 기
울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 섰다.

「非常出動이다. 西海海上에서 선박이
폭발되었음, 위치는 東經 126度 6分,
北緯 36度 52分, 선박침몰중.에 있음이 보
고되었음! 以上.」

大隊作戰本部로부터의 出動指示는 지극
히 간단하다. 「인터폰이선」은 단지 이것
뿐이었다.

배의 규모와 조난자의 人員數도 未詳인
것은 勿論이다. 우리는 아직 事前이라
다쳐 올 「미션」(任務)에 대해서 불안감이
다소 감돌았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속으로부터의
허기를 누르고 「플라이트·라인」으로
一行은 구보를 해 나갔다.

다른機種보다도 體力의 消耗가 많은
H-19型「헬리콥터」이니 당연한 걱정이
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愛機앞으로 뛰어

가면서 다했을 事態를 如何히 성공적으
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 때문에 김
장이 全身을 엄습해 와, 배고프다는 雜念
이 이내 사라져 버렸다.

우선 正操縱士 김大尉와 함께 氣象圖를
떠 놓고 日氣를 「체크」해 보았다. 西海
海上은 雲高(실링)·CEILING이

무척 낮고 視程은 불과 3 마일밖에 안 되
는 惡條件이다. 며칠전부터 꽃샘을 화기
시작한 불비가 連日 계속되었기 때문에
별로 놀래진 않았으나, 茫茫大海上에서

사람을 救出해 내는 일이고 보니 마음은
저절로 긴장해질 수 밖에. 山下土와 山下
土의 얼얼한 表情이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우리 一行은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헬
진」의 始動을 결었다.

07時 30分, ○○基地를 離陸했다. 막상
機上에 올으니 당에서 예측한 것보다도
視程이 더욱 나쁘지 않은가.

이윽고 高度計는 1千피트를 指針해
준다. 그냥 구름속 뿐이다. 김大尉는 다
시 高度 8百을 指示한다. 視程이 좀 낮
긴 하나 地點을 잃을 걱정이 생겨서 우선
「투우트」가 익숙한 「망일산」 코오스를 잡

아 보았다(이 때 나는 속으로 「TACAN」만
장비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아쉬움에 속을 태웠었다).

이 때, 눈아래로 庇仁邑의 거리가 구름
사이로 아련하게 보였다(왜 이리 H-19
「헬리콥터」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저 모르겠다).

……이 순간에도 무수한 인원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구원의 손길을 빌고 있을 때 저
海水溫度가 아직 차가웁고, 生存時間은
기껏해야 3 시간정도 뿐이니, 虛事가 되
고 마는 것이 아닌가……

조바심을 때우면서 大川地域의 海岸을
벗어났다.

愛機는 死力을 다해서 360度方向으
로 北上하고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 廣川邑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前方의 目標
物을 통분간할 수가 없고 오직 視界에
들어 오는 地點만을 확인해 가며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평소의 우리의 길잡이를 해주던
오소산(2,595 피트)도 文字 그대로
五里霧中 속에 파묻혀 버렸다. 오소산을

거고 東쪽으로 빠지면 廣川灣이 있을 것
이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北上을 계속하
였다.

西海岸의 絶景인 海美地方을 넘어 갔
다. 그 위로 어련곳이 干拓地가 모양 좋게
보이기 시작함을 보고 우리는 흥겨운 연
었다.

「됐다! 됐어!」
조금만 더 北上하면 瑞山地方이 보이겠
지 하는 안도감이 생기는지 열좌석의 김
大尉의 얼굴엔 喜色이 떠오르는 것 같았
다.

瑞山「望日山」부근에만 잔다면, 「레이다
·사이트」의 助言과 협조를 얻을 수 있고
다른 探索機와의 연락이 可能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라디오」스위치를 「제널」로
맞추어 놓았다.

高度를 1千5百피이트로 높였다.
다시 「라디오」컨트롤「를 試圖해 본다.
『베이스·히트·컨트롤! 베이스·히트·컨
트롤!』 「렐리콥터」282號, 오! 바!
送信을 보내면서, 즉시 응답을 기다려
보았으나, 「레이더」에 들리는 것은 雜音
에 섞여 나오는 것뿐, 통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再次 「컨트롤」를 試圖해 본즉, 이번엔
명확한 응답이 나오는 것이었다.

『렐리콥터 282, 여기는 베이스·히
트·컨트롤! 고우·헨!』

「望日山」사이트와의 通信이 可能해져자
우리는 「라디오」의 音量和 感度を 알아볼
생각이 났기에, 再次 送信을 보냈다. 『여
기는 「렐리콥터」282, 本機의 「라디오」
感度は 如何!』

「라」자, 貴機의 「라디오」感度 이상 없
음!』이라는 응답과 함께,

「貴機의 現在位置는?」
하고 우리에게 送信을 보내 왔었다.

이 때, 우리는 瑞山 西南方 1마일 上
空을 날고 있었다.

즉각 우리는
「라」자, 「렐리콥터」282, 지금 瑞山
上空에 있음!』을 報告하였다.

瑞山上空을 지나니 多少 視程이 좋아졌
다. 드디어 「望日山」의 「레이더」이 修道
院 건물처럼 山頂上에 희미하게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우리는 곧 「望日山」임시착륙장에 내려

서 機上整備士 4名과 6人用救護架를
내려 놓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상자를
태우려는 마음에서였다.

○○○警報大隊作戰室에서 확인된 바에
의해, 우리는 事故地點이 「望日山」으로부
터 260度北上이고, 약 20마일 海上입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下士와 장비를 내려 놓고, 이내 우리
는 機首를 260度로 맞추고 一路 西向
을 했다.

이 때의 시각, 08시 45분.
○○○基地에서 「望日山」까지 올 때에는
視程障得로 80노트 以上 速度를 못냈으나
이제부터는 背風이라 훨씬 速度가 좋아
진다.

氣象條件도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雲高 3千피이트, 視程은 3마일이 足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雲기가 북돋아 올
랐다.

泰安半島를 굽어 보면서 약 5分쯤 비
행을 계속하고 나니, 우리 前方上空에 C
-46輸送機가 東南에서 西北으로 지나가
는 모습이 보인다. 高度는 2千피이트쯤 될
가, 그리곤 곧 그 쪽으로부터 「라디오」

관택트」를 해 온다.

『여기는 「몬슨-알라트」, 非常待機任務遂行中! 「헬리콥터」 282號의 現位置를 알려 주기 바람!』

우리도 곧,

『앞으로 5分內에 事故現場에 도착예정임! 라-자!』

하고 응답해 주었다.

C-46輸送機는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조난된 선박의 探索과 「라디오」中繼連絡을 위해 역시 급거 出動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C-46의 발견과 連絡으로 더욱勇氣百倍되어 한결 마음이 든든해짐을 참을 수 없는 心情이었다.

드디어 海上을 點檢해 보니, 座標上의 海上에 커다란 선박이 視野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몰되었다고 通報를 받았던 탓으로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더 가까이 확인하기 위해 艦大尉는 降下를 하기 시작하였다.

愛機는 4百피트 高度로 내려 갔다. 이때, C-46機로부터의 질문이 들린다.

『헬리콥터 282, 現位置는—』

「라-자, 4百피트임!」

하고 응답하자, 의아한 모양인지 再次 묻는다.

「貴機의 高度는!」

「라-자, 4百피트임!」

하자, 그제서야 「헬리콥터」로서는 가능한 高度임을 알고, C-46機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임을 깨달은 것 같았다.

발 밑으로 선박이 다가 왔다. 左舷에 정찰경비정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고, 바다엔 기름이 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 폭발, 침몰되었다고 했는데, 船體는 말짱하니, 별 사고가 아닌 것인가……

선박의 後尾쪽으로 선회하여 보니, 「第7유모號」, 「PUSAN」이라는 船名과 船籍地가 보였다.

이상하게도 선박內外가 조용하다. 우리는 左旋回를 하면서 자세히 船體를 관찰해 보았다.

「앗, 저것 봐라!」

救助士 文下士의 외침이 들려 온다. 船首쪽의 「브리지」右側 밑이 폭발하여

「브리지」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 갔고, 右

舷이 불룩하게 튀어 나가, 난간이 날라가 버린 것이다.

사실은 명백하게 나타났다. 民間油槽船이 폭발을 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海上事故로 알고 아침上空을 추어라 하고 달려 온 노력에 비해 상상의외로 조용하기만 하니 실망조차 느낄 정도였다.

몇 번이고 제7유모號의 주위를 선회하면서, 「몬슨-알라트」에게 事故現場에 도착했음을 交信했다.

시간은 09시 00분.

계속 20여 분 동안을 선회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밑에선 들것에 부상자를 싣고 甲板으로 나오는 모양이 보였다.

마리에 부대를 감은 것이 보이기에, 一見 重傷者로 판단할 수 있었고, 그 뒤로 두 사람이 부축해서 도한 명의 부상자가

甲板으로 내려 오는 제단에서 애를 쓰고 있는 光景이 보였다. 나머지 선원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머릿 위의 우리만을 쳐다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후, 선원중의 한 사람이 우리 처다 보면서, 甲板에 着陸해 줄 것을 信號하니,

「다스트」와 「인들」, 「인페니」가 일기 시작

서 있고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着陸地點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回轉翼이 장애물에 걸리면 墜落의 위험이 있으니 도저히 不可能하다는 것이 判斷되어 時間만 낭비하게 되었다.

「제 7 유모號」의 左·右舷 쪽으로 바깥비행하면서, 救助士 한 下士가 선박에 대고 큰 소리와 손짓으로 경찰경비정에 환자들을 옮겨 실을 것을 指示하고선, 경찰경비정 後尾 쪽으로 제자리 飛行을 試圖해 보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호이스트(HOIST)를 내어」스링(SLING)「에 몸을 끼고 매달려 올라와야 할 때, 부상자가 걸어나서 올라 오려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선원의 도움을 받아 「스링」에 몸을 끼어 주니, 下士는 「호이스트」를 잡아 올려 한사람의 부상자를 긴급구조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望日山」자이트를 떠나 올 때부터 後方엔 로망크의 積載量 危險信號가 들어 오더니, 이번엔 前方의 燈크마저 「LOW FUEL WARNING LIGHT」가

들어 오는 것이 아닌가.

제자리비행(MOVING)을 오랫동안 동안 했기 때문에 연료소모량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들것에 실린 환자가 문제였다. H-19 「헬리콥터」에 있는 「바스켓(BASKET)에 실어 올렸으면 좋겠으나 骨折인 경우엔 현재 상태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敎諭處置敎育을 받을 때의 생각이 분분히 들었다(後에 알았지만 이 重傷者는 머리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부상을 입어 「바스켓」을 가지고선 몸을 오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主翼에서 생긴 삼한 「다운·워시(DOWN WASH)에 쓰일 경우 「소크」를 일으킬 염려조차 있었다. 천상 그를 「헬리콥터」에 실어 떠날 경찰경비정에 着陸을 해야 했는데 全長 40 피트밖에 안 되는 경비정에는 無理이겠으나 船尾에 着陸을 한다 해도 「26 피트」길이의 「브래이드(BRADE)가 「바스

트」나 「안테나」에 걸릴 것이 분명하자 「호이스트」로 잡아 올리려 했으나, 甲板에 있는 다른 船員들도 安全을 고려해서

인자 들것을 밧줄로 묶어서 양끝에 다시 줄을 매어 달아 올리도록 함 해 놓았었다.

그러나 「호이스트」의 고리가 크기 때문에 들어 올릴 경우, 中心이 맞지 않으면 비리가 거꾸로 매어 달릴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이것은 더욱 事態를 惡化시킬 염려가 많아졌다.

또 다시, 前方엔 로망크의 「LOW FUEL WARNING LIGHT」가 들어 왔다.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 「스틱」을 쥐고 있는 김대尉와 나는 등에 온통 탐투성이가 될까, 일갈을 마주쳐다 보았다.

김장의 순간이 흘렀다. 김대尉는 결심을 했음인지, 손것으로 甲板에 대고 부상자를 유자로 나올 것을 指示했다(海岸에서 경비정으로부터 부상자를 실을 意圖이었다).

船員들도 우리의 의도를 짐작하고선 알뜰한 채 한다. 즉시 우리는 機首를 90도로 돌려, 再會를 약속하며 海岸 쪽으로 向했다. 地形을 살피 보니, 가까운 海岸은 岩石

이 험하여 적합차가 못해, 좀더 동쪽으로 가니, 모래밭이 펼쳐져서 着陸地點으로는 안성맞춤 格이 되어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地點의 座標는 東經 126度 13分, 北緯 36度 51分.

이때, C-46 非常待機機에선 重傷者 2名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이고, 이미 K-55기저에 「앨블린스」救急車까지 대기시켜 놓았노라고 連絡이 들어온다.

—정비정이 여기까지 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리는 그 동안에 연료보급을 위해 「望日山」사이트로 갔다 올 것을 결심했다—

우리는 곧장 「望日山」사이트를 부르르고 着陸할 뜻을 傳達했다.

「망일산」, 여기는 「렐리콧터」282號임. 즉시 군의관을 대기시켜주기 바람! 「망일산」 「렐리콧터」엔 군의관 尹소령과 위생병들이 들것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즉시 연료보급을 요청하고서는, 부상자에 대한 진찰을 의뢰했다. 그리고 연료보급시간의 간격을 이용하여서 김大尉는 作戰

室에 가서 事故內容을 보고했다.

—조난 선박은 釜山油槽船株式會社所屬의 第7유모號, 美軍 MSTS(MILITARY · SEA · TRANSPORTATION · SERVICE)에 備船되어, 어제, 즉 4月 1日 3萬「바렌」의 휘발유를 운산서 仁川까지 날려 주고 4月 2日 20時에 仁川港을 出發, 울산으로 귀항중, 瑞山 앞 海上에서 22時頃 「개솔린」탱크가 폭발하여 37名의 선원중에서 通信長 金명근(36세)氏와 장관원 우낙호(29세)氏가 부상을 입은 것임—

우씨는 外見上 輕傷인 것같이 보였으나 全身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실이 원비면 가지병원이 아니므로 束手無策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였다. 우리 너더 위로 美軍 「렐리콧터」가 2千피이트 上空으로 事故地點에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불현듯 우리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는 심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연료보급을 「체크」해보니, 80갈론程度쯤 들어 갔다고 하기에, 급히 연료보급을 中斷시키고 막바로 始動을 걸었다.

機首는 다시 260度 方向이다.

먼저 지나온 地點들을 통과하면서 座標를 확인해 보았다.

東經—26度 13分, 北緯 36度 51分. 즉시 左旋回를 하면서 海岸을 관찰해 보았다.

앗! 망일산(사이트에서 본 美軍 「렐리콧터」가 모래밭에 着陸해 있고, 女子看護員인 듯 싶은 4명의 救助隊員이 黃色 防水服차림으로 小型漁船에서 들것에 누운 患者를 매고 무릎이상 차는 바다로 부더 海岸으로 건너 나오는 광경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헌신적인 救助活動에 감명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의 경쟁의식은 사라져 버린다.

—차마, 우리가 인수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릴 수는 없지—하고, 김大尉는 내 얼굴을 보면서 쓸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우리는 「망일산」으로 向했다.

내려 놓았던 부상자 우氏를 싣고, K-55기저병원으로 北上을 시작, 美空軍射擊場이 있는 「운리」上空을 통과하려고

했다.

기상관제로 사격장이 「크로즈」 되었으려
나 했더니, 헬리콥터 F-105 천공기들이
低空射擊訓練을 하고 있었다.

곧, 「베이스·히트」에 연료상대가 非常
임을 알리고 射擊場上空으로 通過를 요청
했다.
시간은 11時 50分.

K-55기지를 이륙하면서, 「베이스·히
트」에 「컨택트」를 하고 美軍 「헬리콥터」
의 行方이 궁금하다고 한즉, 母基地로 귀
대하는 길에 一次 「망일산」사이트에 가볼
것을 권고해 주는 것이었다.

일부가 끝났다는 허탈감과 美軍 「헬리
콥터」行方에 대한 궁금증으로 交叉된 心
情을 안고 다시 「망일산」사이트를 向해서
南下하기 20餘分.

「망일산」사이트上空에서 「라디오·컨택
트」를 했다.

『여기는 「헬리콥터」282號, 부상자
1名을 K-55기지에 後着하고 귀대중에
있음. 美軍 「헬리콥터」의 行方은?』

『라-자 「망일산」 사이트를 들러서 이
미 K-55기지로 北上했음!』

그제서야 김대尉와 나는 안도의 심호흡
을 취면서, 機首方向을 母基地쪽으로 맞
추었다.

물아 오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 오른
다.

—本船에 매달려 있는 救命艇을 사용하여
부상자를 海岸으로 끌어 내었더라면 얼마
나 신속히 救助作業이 이루어졌을까, 또,
일반인들이 多少 「헬리콥터」에 對한 機能
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헬리콥터」는 萬
能이나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머릿속으로 오늘 出動任務의 지난時
間들을 곰곰히 따져 보았다.

이제서야 배속으로부터 시장한 기운이
엷습해 온다.

열과색의 김대尉의 얼굴을 훑쳐 보았
다. 그도 역시 이제는 할 일을 다쳤다는
안도감에서인지.

「배 고프지, 이中尉, 빨리 갑사다.」
빙긋웃음을 띄우며, 「스틱」틀 「풀」.

파워」로 넣는다.

날씨는 여전히 흐리다.

침착하고 탁월한 기술로 救助作業과 조
종을 해낸 김대尉, 나는 옆에서 그를 거

들이 준 勳章을 사에 지나지 않으나, 자기
보다도 부하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다.
13시 40분.

어릴듯이 보인다.
○○基地의 「타워」가 길은 안개 속으로
버란간힘이 솟아 오르는 것 같았다.

역시 제집이 제일인 모양이었다.
「플라이트·라인」, 우리를 떠나 보내
고 공금에 싸인 大隊長 李대령이 마중나
오셨다.

『수고 많이 했어, 애 먹었지, 애기는
다들었다. 報告는 나중에 받고 우선 식
당으로 가지, 김대尉, 이中尉, 아내 「지
이프」車에 타시오!』

헬리콥터 배공은 시장기가 다 가신것
같았다.

긴장감에서의 해방, 공허와 궁적가 있
갈리는 不滿이 있었던 것이다.

—美軍 「헬리콥터」에 대한 경쟁의식, 우
리가 구조해 냈어야 했을 것이었는
데……

순찰을 취면서, 내 팔목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정각 1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
었다.

나의 空軍時節

〈豫編人士칼럼〉



李昌淳

△豫備役 大領△

웃을 벗고 社會人이 된 나에게 모
처럼의 機會를 빼놓아 준 政訓當局의
好意와 내가 恒常아끼고 사랑하였으
며 또 나의 青春時節을 다 바친 空軍
이기에 흘러간 過去를 더듬어 오랫동
안 잊혀지지 않은 나의 空軍時節의
一部를 그려 볼까 한다.

☆ 責 任

이는 1951년 1월 2일 두번째

로 서울을 撤收할 當時였다. 이머서
을 市內에는 政府各機關을 비롯하여
各軍本部도 거의 移動해 버렸고 大多
數의 市民들도 南下中이었으므로 거
리는 文字 그대로 殺風景 그것이였다.
나는 (當時 空軍本部兵站監室 補給
課長·大尉) 上部 指示대로 모든 軍
需品을 大邱以南 各部隊 駐屯地로 輸
送해 놓고 몇 名의 部下들과 함께 從
業員 없는 被服工場을 돌아다니며 未
完成 作業服과 衣囊袋를 收集해 가지

고 後退하여 任務를 完遂한 것을 남
몰래 滿足한 적이 있었다.
이때부터 衣囊袋를 가리켜 지푸진
親舊들이 「逃亡 백」이라고 부르기始
作하였다.

☆ 信 義

「信義가 없다! 누구는信義가 있
는 사람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말이고 우리가
交友나 事業 相對者等을 選擇時 매우
重要視하는 基準이기도 하다.

軍隊社會에 있어서도 上下間 關係
가 單純한 命令과 服從으로만 成立되
는 것은 아니고 上司이 部下를 對한
때나 部下가 上司를 섬기는 일, 그리
고 同僚間에 있어서도 큰 問題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名
譽에 關係되는 것이므로 어느 特定人
을 指摘하는 것을 避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일을 여기에 紹介하여 보
려고 한다.

오래된 일이지만 나의 上營中을

한 사람은 每事에 責任을 지지 음는
이가 있었다. 自己가 한 일이라도 결
과가 좋지 못한 것은 他人에게 責任
을 轉嫁시키거나 심지어는 部下에게
뒤집어 씌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듯
이 廻避를 能事로 하던 사람도 結局
에는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을 나는 보
았다.

또 잘 알려진 事實이지만 自由黨時
節에 某軍의 某大領은 刑場의 「이슬」
로 사라지면서도 끝끝내 上官에 對한
信義를 지켰다고 한다. 信義를 지켜
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것을 所重히 여기며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못하다.

나 自身이것이 極히 重要的 것이
라고 느끼면서도 남을 爲하여 일하나
지켰을까?

☆ 失 敗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失敗의 連
續은 없다. 또 天才나 偉人이라 할지
라도 成功의 連續도 없다.

「연세지 재수 좋은 사나이」라는 賦
書에서 主人公이 成功만 하는 것은
例外이지만.

軍에서는 每年 目標을 設定하고 計
劃을 樹立하며 그 實踐을 向해 努力
한다.

그리고는 성과를 分析하고 報告를
한다. 「브리이핑·차아트」에 나타난
성과는 大概의 境遇 90% ~ 100%
이다. 그러나 表示되지 않는 失敗率
은 얼마일까?

1954년 내가 恤兵監時節이었
다.

지금은 이런 일이 다 消滅되어 버
렸지만 當時에는 各軍 共히 正式軍編
制속에 恤兵機構가 認定되어 있었고
또 그 役割도 큰 것이었다. 所謂 恤
兵事業이라 해서 軍用車輛表識의 民
間 卜력을 운행許可하여 每月 所定의
登錄金을 徵收하였다. 또 各種統制物
資(廣木·비누·고무 製品等)를 特配
받아 販賣하면 莫大한 이익금이 있
었다. 이렇게 하여 收入된 자금으로
戰沒將兵 遺家族에 對한 援護와 營外

將兵에게 生計費를 補助하였으며 娛
樂施設 및 體育獎勵等 多目的으로 이
용되었었다.

그런데 當時에는 需給狀態가 고르
지 못하여 物價時勢의 變動이 심한
때였다.

廣木 約 1만匹을 商工部로부터 特
配받고는 匹當 5 ~ 6천원臺의 時勢
로 賣買되었는데 7천원臺까지 오를
것으로 판단했기에 死藏시켜 놓았다
니 얼마後부터는 下落一路가 되어 結
局 4천원씩을 겨우받고 말았다. 經
験이 없고 판단을 잘못 하였기 때문
에 이런 失敗를 당하고 말았지만 如
何間 軍人들이 장사를 한다니 이거
될 말입니까?

☆ 顧問官들

釜山補給廠時節에 나는 두 명의 首
席顧問官과 같이 근무한 바 있다.

첫번째 顧問官으로 온 사람이 「웨
백」中領이라는 40歲난 獨身主義者였
다. 그는 내가 보기에 機械와 같은

人間이었다. 出退勤時間을 지키는 것부터가 그러했고 또 規程을 履行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했다. 몇 명 안 되는部下將兵에 對하여 日課後의 內務生活를 規則대로 강요했고 私生活까지도 일일이 간섭했다.

그러더니 2개월만에 轉屬되어 K-55로 가버렸다. 얼마 후에 그는 拳銃自殺을 하고 말았다. 그 理由는 來韓 4個月 동안에 다섯번이나 轉屬命令을 받았고 「리더쉽」에 대하여 自信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 後任으로 온 사람이 50歲난 「핀디」中領이었다. 作者의 性格은 前任者와는 아주 對照的이었다. 出勤時間도 一定치 않고部下에 對하여 寬大하였다.

그러나 그는 恒常自己자리를 지켰으며 午前午後各 1回씩 不時에部下들의 勤務處를 관없이 巡視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그 理由를 물었더니 그가 說明하기를 「Cat away house do play」 모양이 아니라 바리엔 생관들이 돌아간다라고! 내가 軍需局長 在戰時에 4名의 首

席顧問이 갈라졌다.

첫번째 顧問官인 S中領은 合同會議에서 나에게 計劃을 要求했다. 計劃에 依하면 最初의 「제트」機 2臺(F-86F型)의 廠整備을 K-13基地에서 遂行토록 되어 있었다. 그 中한 臺를 水原基地에서 成功裡에 整備하고 나서 두번째는 中斷되고 K-2로 내려가서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者의 高姿勢를 고쳐주게 爲해서 斷然히 要求를 拒否해 버리고 「너는 우리의 顧問이지 나의 上官이나 指揮官은 아니라」고 하였더니 다시는 강요나 지나친 것을 못하게 되었다.

그 後任者로는 「한트」中領이라는 好人이었다. 그는 우리 空軍發展을 爲해 誠과 熱을 다 하였고 新機種導入準備 裝備現代化計劃의 推進等 많은 貢獻을 한 사람이다. 한 두 사람의 善意와 理解로서 後方支援이 圓滑히 될 수 있다는 좋은 證據였다. 다름은 「C」中領이다.

本國에서도 夫人과 別居하였었고

나와의 交際에 있어서도 家族이나 家庭에 關해서는 一言半句도 달하지 않는 것이었다. 業務面에서도 非協調的이었다.

그는 얼마 가지 못하고 轉職되었고 服務期間을 채우지 못하고 되돌아 갔다. 네번째 顧問이 W中領이다. 夫婦共히 「MARTINI」를 얼찬 程度는 거론히 마시는 酒黨이었으며 매우 社交的이고 家庭的인 사람이었다.

韓國을 理解하려고 무척 努力하였으며 友好的인 態度를 단복 보여준 사람이다.

☆ 合同勤務

國防부가 臨時首都 釜山에 位置했을 때다.

나는 當時 大尉로서 管理局 軍需課의 糧秣係長을 한 일이 있다. 陸海空軍 및 海兵隊 將兵이 合同勤務를 하였으며 各已 自軍의 이익을 爲하여 暗暗裡의 鬭爭을 했다. 合同勤務의 經驗이 있는 사람이면 理解가 관 것이다. 나는 끝내 비용을 받고 못지 않았

는데 높은 분들이 空軍을 爲해 일한 勞苦를 致賀하여 慰勞해 주어서 후련 해졌다.

國防研究院 教授時節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유니폼」은 人種보다 더 親하다. 8 軍將校 「콜럼」에서 美獨立紀念日 祝賀 「파티」가 있었다. 여기에는 韓 美軍 將星들은 勿論 各國武官들과 連絡將校團等 人種展示場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누구의 主張도 아닌 데 모여든 「그루우프」를 보니까 人種 區分없이 「유니폼」끼리 모여서 지껄 리고 있었다. 내가 진한 「그루우프」의 話題는 勿論 空軍에 關한 이야기부터 始作해 끝내는 某軍에 대한 비방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또 國防研究院에서는 每年 한 번씩 各軍參謀總長의 講義가 있다. 이때에는 學生間에 서로 他軍 總長의 講義를 追詰하고 이리쿵 저리쿵 꼬집고 나서는 自軍總長이 한 講義를 은근히 두들기며 자랑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버렸다.

이것은 냉정히 생각할 때 좋은 現 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自軍을 자랑하는 所致라고 보아 잘못 일까?

☆ 가 고 있다.

1957年 내가 釜山에 駐屯한 第 40 補給廠長 時節이다. 우리部隊에 不 意의 事故로 新任少尉한 名이 순직 해서 며칠 후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 있었다. 이때 軍牧이 吊辭에서 한 말이다.

『우리는 모두 가고 있는 것입니다. 中學生은 大學으로 大學生은 社會로 혹은 軍人으로……또 少年은 青年으로 또 壯年은 老年을 向해서 가고 있습니다.』

結局 누구를 莫論하고 모두 죽음을 向해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라고 이 때 軍牧이 강조코자 한 內容은 죽음을 슬프게만 할 것이 아니라 價値 있게 삼을 갖는 것과 또한 價値있는 죽음을 追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때때로 이말을 回想하며 오

날에 이르렀다. 나도 역시 이 말대로 가고 또 가서 近 20年間의 軍人生活을 마치고 社會人이 되어 버렸다. 오늘도 「가고 있다.」

人生의 黃昏을 向해서 생각하면 슬퍼진다. 나의 人生은 길고도 華麗한 줄만 알았었다. 그러나 앞날이 그리 긴 것도 아니다. 또 후일에 남길만한 일도 한 일이 없다. 國家에 奉仕한 것도 귀피리만 하다.

나의 親愛하는 戰友여!

여러분은 나와 같은 小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루를 보람있게 그리고 힘껏 나라와 社會와 家庭을 爲해서 努力하시기 바란다.

나의 마음의 故鄉은 空軍이다. 험벗고 廢墟가 된 故鄉을 願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봄이 오면 내 故鄉山川에 꽃피고 香氣드높기를 바라듯이 내가 아끼고 키우며 장해지기를 바라던 우리의 空軍이 오늘날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서 希望의 空軍, 無敵의 空軍, 자랑스런 空軍되기를 現役여러분께 바라 마지 않는다.

昨今の「베트남」

空中戰

「MIG機사냥」과 「미사일」

文 甲 龍

北爆制限의 解除와 더불어 격화되어 가는 越盟 上空에서의 空中戰은 가끔 심심치 않은 「뉴우스」를 던져주고 있다.

67年 5月 13, 14日 兩日間만 越空軍의 F-105 「신너치프」機와 F-4C 「팬던」機들은 「하노이」와 「하이퐁」地域 上空에서 越盟의 MIG-17戰鬪機와 치열한 空中戰을 벌여 10臺씩이나 할꺼번에 격추시켰던 것이다(美軍機에는 피해가 全無하였다고 報道하였다).

이 空中戰에서 사용되는 空對空「미사일」의 實戰化와 이에 따른 性能効果는 武器體系의 檢討를 要求하고 있는 바, 空中戰에서의 「미사일」爲主에 修正이 加해지고 있기도 하다(67年 5월 14일에 있었던 越盟上空에서의 空中戰에서 美空軍 F-4C 「팬던」戰鬪機는 최초로 최신폭「개틀린」機銃을 사용, 1분간에 6千發 發射) 이 제 越南에 있어서의 空中戰概況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越盟의 地對空 「미사일」과 北爆作戰

越盟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製 地對空 「미사일」(SA-2)이 北爆作戰에 참가한 美軍機에 최초로 발사된 것은 65年 7月 24日이었다.

그後 약 3百發의 「SAM」 미사일이 발사되어, 이것으로 격추된 美軍機는 14臺가 있었다고 外誌는 傳하고 있다.

이러한 5% 정도의 격추율은 越盟으로 하여금 「미사일」로서의 命中期待를 포기하기까지 이르도록 있는 데 이는 바로美軍側의 효과적인 「미사일」對應策이奏効한 데에 있는 것이다.

이美軍側의對應策이란, 첫째, 越盟의 「미사일」요격을 피해서 低空爆撃을 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S A-2 「미사일」은 指令誘導 또는 「B E A M」追跡이기 때문에 「레이다」에서 目標을 捕捉한 다음 「미사일」發射臺 上空을 지나갈 때까지 高度 2千미터 以上을 날으는美軍機에 對해 激擊할 時間的 餘裕가 없게 된다.

둘째, 北爆機 出擊에 앞서서 美軍은 先導機가 나서서 電子妨害로 越盟의 「레이다」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美空軍 R B-66機 같은 것이 敵의 「레이다」電波를 捕捉해 가지고서는 E C M裝備로 專門搭乗員들이 이 電波攪亂作戰任務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地上에 있는 越盟軍의 「미사일」과 「레이다」가 電波妨害를 입게 되어 目標의 測定이 곤란케 될 뿐더러, 發射한

다해도 不正確하게 된다. 美海軍機로서는 A-6機가 E C M作戰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北爆參加機가 作戰途中 「미사일」 激擊을 받았을 때는 급격한 機動·操作으로 「미사일」 회피방법을 쓰는 것이다. 急上昇急降下 등으로서 「미사일」 피격화를 벗어나는 데에 最善의 操作을 敢行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以外에도 北爆參加機에는 自動警報裝置가 되어 있어서 「미사일」基地의 地上으로 좌측내의 非常燈이 켜져 操縱士에게 事前警報를 指示해 주며, 「미사일」이 激擊해 올 경우에는 赤外線探知機에 의해서 警報가 되기 때문에 「미사일」 피격을 미리 막아 내기도 하는 것이다.

現在까지 越盟에 소련製의 新型 「미사일」 배치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異種周波數 「레이다」나, 低高度用的 「세미·액티브」方式 S A M이 出現된다면 美軍機도 다시 새로운 對應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사이드·와인더」와 「스펠로우」-3型

美軍機에 의한 北爆作戰은 空中戰에서 「미사일」이 사용된 本格的인 戰爭이라고 할 수 있다.

1958年 金門島 上空에서 벌어진 自由中國과 中共機關에서의 空中戰에서 自由中國空軍의 F-86F 戰鬥機가 「사이드·와인더」(GAR-8)를 사용해서 大戰果(14對1의 격추율)를 올린 적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空對空 「미사일」空中戰을 벌인 것은 越南戰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越南戰(主로 越盟 北爆時 17度以 北)에서 使用되는 空對空 「미사일」은 美空軍과 海軍機가 「사이드·와인더」와 「스펠로우」-3型이 있다(越盟機 MIG-17에는 소련製인 「ATOL」을 장비하고 있음이 推定되고 있음).

지난 65年 4월에 있었던 海南島(中共) 부근에서 있었던 美海軍艦載機 F-4B 機가 中共 MIG-17에 「사이드·와인더」

로 격추시킨 바가 있었다. 「스펠로우」-3型으로는 65年 6月 北爆作戰時 F-4 B機가 MIG-17越盟機를 격추시켰었는데 「사이드·와인더」가 敵機의 꼬리를 물고 後方에서 發射해야 하는데 비해, 「스펠로우」-3型은 側方이나 前方에서도 命中이 되기 때문에 MIG機의 機首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사이드·와인더」는 赤外線追跡式이기 때문에 目標機의 後方에서밖에 發射할 수가 없고, 命中率도 目標機의 後部排氣區域에서만 可能하다. 그러나 「스펠로우」-3型은 「세미·엑티브」方式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F-4 B機의 機上「레이다」電波를 目標에 發射하고 그 反對波에 의해 追跡針路를 自由自在로 調整할 수 있어서 方向에서든지 激擊이 可能하고 機首를 命中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이 「사이드·와인더」에 比해서 「스펠로우」-3型은 커다란 利點을 지니고 있으나, 機上에 特殊「레이다」裝備를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目標機에 「미사일」이 命中될 때까지 追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行動上의 制約이 있는 것

이름이 된다.

美國으로서의 政治的 問題를 고려해서 特히 中共機와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空中國을 벌일 때, 반드시 國籍을 확인하고 공격하기를 北爆操縱士에게 指示하고 있기 때문에 前方에 나타나는 MIG機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펠로우」-3型 「미사일」사용의 利點이 많이 制約을 받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DOG·FIGHT」(꼬리물기)이라는 古典的 空戰 方法을 쓴다면 「스펠로우」-3型 「미사일」보다는 「사이드·와인더」나 機統의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도그·파이팅」의 경우, 操縱士에게 오는 급격스런 「G」(重力)가 걸리게 되어 「미사일」보다는 오히려 機統의 命中率이 높을 수가 있기도 하다.

美軍機가 北爆作戰時에 사용하는 空對地 「미사일」에 있어서는 目標誘導調整을 하지 않는 「BULLPUP」型은 아직 實戰化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미사일」이 地上目標에 命中될 때까지 目標上 空에서 머물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敵地

上砲火로부터 피격위험률이 많다). 越盟 SAM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데는 「슈타이크」型 空對地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 最近에는 이보다 더 最新型인 「텔레비전·호우밍」式 滑空爆彈이 使用되고 있어서 그 成果가 注目되고 있기도 하다.

用語 풀이

連鎖효과 (Linkage Effect) 가 하나의 産業이 건설되면 다른 聯關産業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예컨대 기계공업이 육성되면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를 만드는 제철공업이 활발해지고 제철공업이 활발해지면 1次原料조달을 위한 鑛業이 발달하게 되는 一聯의 과급효과를 말한다. 이와같이 어떤 産業이 건설되면 그 産業에 投入되어야 할 生産要素에 대한市場을 마련하게 되고 이에 따라 生産要素를 조달하기 위한 産業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한편 그 産業의 生産物은 다른 産業에 投入요소로서 사용된다.

空 輸 飛 行 團



擴
大
된
作
戰
空
域

金
相
泰

△中領·第5空輸團▽

11年前 바로 이 基地에서 不過 數臺의 C-46 航空機로 發足한 空輸飛行大隊가 오늘의 榮光스러운 大空軍의 空輸飛行團으로 創團되기까지는 모든 逆境 속에서 피와 말로 發展에 發展을 거듭해 온 努力과 犧牲의 結實임을 생각할 때 空輸團의 一員으로서 感慨無量함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이 있기까지 밤낮을 分別없이 24時間의 하루를 우리는 해와 달과 별만이 있는 저 넓은 하늘을 舞臺로 生死의 岐路에서 瞬間을 이어가는 時間과 空間을 보라매로서 痛快하고 보람있게 살고 날아야만 했던 不死鳥였다. 日課가 끝나기도 전에 또 日

課가 다시 始作되는 任務는 단골에 한창 안겨야 할 그 時間에도 愛機와 더불어 달과 별을 빗살아 졸음을 달래가며 밤하늘을 누렸고, 미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기류진 피막 속에서 몇 時間을 싸워야 했던 지난 일들이 새삼스럽게 보람되게 느껴진다.

이러한 惡條件에서 얻어진 經驗과 實力은 操縱士로서 제구실을 못하던 병아리에서 全天候飛行을 遂行하도록 했고 國內空輸에서 國外空輸로 活動舞臺가 進出되었을 뿐 아니라, 至今은 東南亞를 마음대로 누리고 또한 世界로 向하려는 時點에 놓

여 있는 空輸部隊가 되었음은 表現할 수 없도록 感慨無量하며 새로운 앞날의 設計와 反省의 機會를 마련해 준다.

오늘의 榮光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戰友를 잃었고, 또한 愛機와 더불어 괴롭고 고된 임무를 달갑게 받아 이겨야만 했었다.

이렇게 發展해 온 우리 部隊는 防空의 눈이요 中樞가 되는 韓國全域에 자리잡은 防空「레이더」基地를 비롯해서 秒를 다투어 싸워야만 했고 祖國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戰鬥飛行團을 支援하는 任務는 중하기만 했다. 現在의 防空力을 增強하는데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 部隊의 자량이요 重責이기도 하다. 또한 世界에서 제 4位를 자랑하는 陸海 및 海

哲 賢 斷 想

인간은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을 다시 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기만을 밝히는 자로서, 그리고 진리의 선을 깨우치는 자로서 태어난 것이다. 그때 문에 인간은 단 일초라도 지나간 것을

兵隊를 支援하고 國家元首를 비롯하여 政府 各層의 各層의 官公수를 全擔하고 있음은 또한 자랑거리로 하고 싶다.

특히 猛虎와 靑龍, 白馬部隊가 國威를 떨치고 있는 越南戰線에 定期空輸를 全擔하게 되었음은 다시 한번 5空輸飛行團의 威力를 誇示하게 되는 機會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決코 안일 속에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위로는 指揮官을 비롯해서, 밑으로는 2等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努力의 所産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듯

複雜多端한 우리의 任務는 母基地를 中心으로 우리나라 全域에서 열리는 越南基地에서까지 여러 모양으로 任務가 展開되는 것이다. 恒時 나는 數10臺의 航空機를 安全하고 効果의 運營하기 위해서 不足

에 머물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해를 한시간마다 새로운 생활을 가져오며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 대자연에게서 배움이 있어야 한다.

△ 에 미 스 V

한 通信網에 하루가 저무는 飛行統制官의 苦心은 이루 形容할 수 없으며, 暫時의 태만이나 단 한번의 과실도 허용할 수 없는 正確하고 高度化된 技術로 機長을 中心으로 모든 乘務員이 一心同體가 되어 數10名의 乘客을 安全하게 目的地까지 空輸해야만 하는 責任은 莫重하기만 하다. 산폐지 조종사가 때로는 안전한 中性이 되어 양전해야 하고 기를과 機械에서 하루를 한 시간처럼 싸우다가 날아온 한 장의 흐뭇한 片紙에 自慰하며 다시 明日의 任務에 오늘을 아끼는 整備士의 勞苦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처럼 逆境 속에서 創團의 榮光을 맞이하게 된 全將兵은 오늘을 轉換點으로 名實 共히 唯一無二한 空輸飛行團으로서 또 世界로 向하는 空輸部隊로서 우리의 能力과 實力培養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어야겠다. 指揮官을 中心으로 過去 어느 때보다도 加一層 犧牲精神을 發揮하여 不足하고 어려운 環境 속에서도 보다 安全하게 우리의 基本任務를 遂行하게 될 때 오늘 榮光은 길이 빛날 것이며, 空輸飛行團의 將來에는 눈부신 發展이 約束되어 있을 確信하는 바이다.

銀馬部隊



銀翼의十字軍

盧在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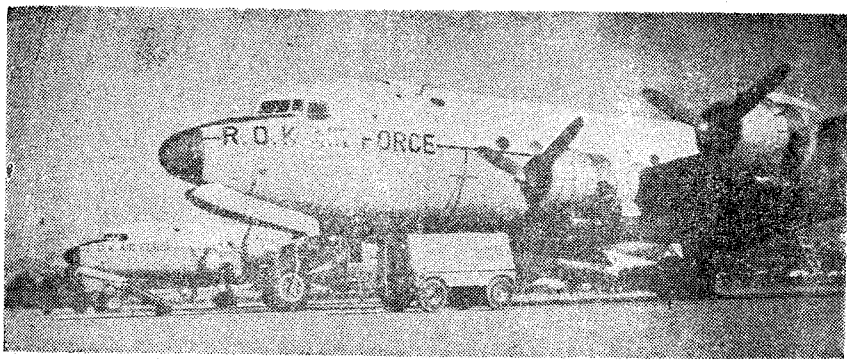
△少領・第5空輸團▽

東南亞 自由友邦의 하늘에서 國威를 宣揚하고 우리 空軍의 자랑과 名譽를 지니고 名實共히 銀翼의 十字軍으로서 越南空輸作戰任務를 遂行하고 있는 第8空輸大隊는 1966年 6月 1日 創設된 以來 過去 C-46의 배대란급이 入課하여 各課程別 3次에 걸친 C-54 轉換教育을 修了한 C-54要員들이 계속 科學的인 技術研磨, 最善의 努力과 強한 實踐力을 發揮하여 오늘의 銀馬部隊로서 先進友邦國의 空軍과 어깨를 나란히 越南의 하늘을 누비고 있다. 이것은 우리 空軍力이 現代化, 戰力強化를 爲한 實力養成에 많은 苦難과 逆境을 克服하여 이제는 世界를 向해 第一의 巨步를 내딛게 된 것이다.

한편 同大隊는 40여명의 인원과 8천 파운드의 화물을 싣고 3천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신구도입 C-54 항공기를 보

유하고 있으며 駐越 猛虎, 青龍, 白馬, 白鷲部隊將兵들의 空輸支援任務의 莫重하고 崇高한 使命을 띠고 比律賓의 「코라크」基地, 越南의 「탄손누트」, 「취논」等地的 基地에 대한 完全한 空輸作戰에 萬全을 期하고 있다.

빨간 머플러의 에이코맨더(機長)를 中心으로 한 이들 空中근무자들의 活動무대는 이제는 祖國의 하늘 뿐만 아니라 東南亞의 하늘을 주름잡고 있다. 季節에 對한 感覺조차 초월한 체 긴장과 사주경계를 要하는 越南上空에서나 또 한 變化 많고 惡天候의 遠거리 飛行에서 도 결코 敗할 줄 모르는 이들(조종사, 항법사, 기상통신사, 기상정비사, 기상적재사等)은 정녕 異體同心의 象徴인양 自由友邦 또한 世界平和의 使徒로 보람된 來日을 期約하면서 오늘의 피로를 잊는다.



銀
談座兵將
馬

越南空輸作戰任務를 맡으면서……

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銀馬

—編輯室—

사회: 임무에 바친 신중에 이처럼 참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銀馬部隊가 새로 도입된 C-54 4발기를
갖고 韓越間 空輸任務를 수행해 온지도
헛수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부여된 작전임무 완수를 위해 불철
주야 노고가 많으셨겠는데요, 이 기회에
여러분의 활동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銀馬部隊의 韓·越
間 航航의 意義 및 軍人으로서의 보람, 기
타 임무 수행중 보고 듣고 느끼신 것을 기
단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소령님께서…….

노소령: 쌍발기를 조종하다가 새로 도
입된 4발기 C-54를 조종하게 되니 長
時間 비행이 가능하고 안전도가 높아 좋
습니다. 전에 국내비행을 할 때는 비행기

리가 짧았으나 越南을 갔다 왔다 하니 수십시간 비행하게 되어 넓은 우주로 나온 느낌입니다.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심소령 : 월남취항으로 한국 공군이 새로운 비약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술로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고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니 비행기에 애착심이 붙어 몹이 상으로 아껴주게 됩니다.

사회 : 배소령님이 조종사로서 느끼신 점은 어떻습니까?

배소령 : 66년 하반기에 烏山基地에서 과정별 C-54機種 전환교육을 3차에 걸쳐 받았고, 오키나와 대만 등 장거리 비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술면에서는 별로 애로가 없습니다. 또 C-46이나 C-54나 조종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자랑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조종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 박대위님은 어떻습니까?

박대위 : 지금까지 우리는 의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받아 왔는데 막상 越南에 가서, 등을 위해 같은 대열에서 싸우는 우

리軍人을 보니 정말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역시 C-54를 물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열에 참가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때 : 67年 2月 3日

곳 : K-2基地 조종사대
기실

▲ 참석자

노재성 소령

배병호 " 조종사

박양우 대위

성보경 소령 : 기상정비사

현규철 대위 : 항법사

김갑술 상사 : 기상적재사

이규림 중사 : 기상통신사

▲ 사회 : 김순경 소령(점훈 감실)

배소령 : 우리 나라의 國威선양은 물론 현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들도 턱 극기를 단 비행기를 보고 아주 사기백배 해줍니다.



사회 : 네, 정관 차량스파운 일입니다.

그 C-54의 차량거리라면 무엇입니까?

박대위 : 우선 장거리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과 월남간을 무착륙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C-54라는 비행기는 이것을 완전 마스터 하면 다른 어떤 비행기라도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배소령 : 우리가 이제까지 쓰던 비행기는 정말인데 C-54는 4발입니다. 그래서 안전도가 높고 실내 설비가 좋으며 화물 적재량이 많습니다. C-54는 수년 전 까지도 태평양을 횡단하던 비행기입니다.

노소령 : 레이 다장비가 좋아 악천후시에도 비행이 가능하죠.

현대위 : 이 레이 다가 가장 특이한 장비입니다. 「서이치 레이 다」이기 때문에 200 마일 이상도 날지 가능합니다. 지난 번 후련차 대판에 가는 도중 짙은 구름 속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레이 다를 사용하여 통과 나갈 수 있었습니다. C-46이라면 힘든 얘기죠.

사회 : 승무원 및 탑승 가능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박대위 : 승무원은 조종사 3명, 항법사 1명, 통신사 1명, 기상정보사 2명, 기상정보사 1명, 군의관 1명, 위생병 2명 등 11명이고 탑승 가능 인원은 약 40명인데 필요에 따라 좌석을 불렀다 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화물 및 연료적재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김상사 : 연료적재량은 2천 820갈론이고 화물적재량은 단거리일 경우 1만 5천 파운드, 장거리일 경우 8천 파운드입니다.

사회 : 다음은 越南비행중의 느끼신 소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소령 : 처음은 C-46을 몰고 갔었는데 그때 C-46 비행기록이 2천 500시간 된 때였습니다. 비행중 적정되는 것은 海上으로 비행하는 시간이 5, 6시간이 되는데 도중 엔진이 꺼질까봐 가벼운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음의 C-54는 그만큼 안전하다 할까요? 작년 11월 23일 월남의 「탄·손·누트」공항에서 이륙해서 1만 천 피트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우박, 소나기가 쏟아져 엔진이 꺼질 정도로

식고 방향을 보강하지 못해 혼났습니다. 항법사가 제일 애를 먹었지요.

현대위 : 모든 장비가 워진하기 때문에 배운 것을 실제로 완전히 활용하면 되었습니다.

김상사 : 작년 연말 때 대동명 화사품을 공수할 때 인데요, 2대의 C-54가 동시에 날랐지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더 많이 싣느냐가 문제였지요, 현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우리 장병들의 반가와하는 모습들을 보니 저도 기쁘더군요.

사회 : 구체적으로 월남까지의 루우트는 어떻게 됩니까?

노소령 : 대구에서 출발한 후 김포에 가서 화물과 승객, 연료를 적재하고 필리핀의 「클라크」공군기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연료 보급과 정비를 한 다음 월남의 「탄·손·누트」로 향합니다. 최종 기착지는 「케논」인데 항상 밤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3泊 4日로서 왕복거리를 따지면 지구의 반을 나는 셈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서울과 부산간 왕복거리의 약 30배나 되죠.

사회 : 비행중의 느끼시는 곤란한 점은

없습니까?

배소령...비행중에 잠도 자야 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 관계로 피로한 것이 없지 않더군요.

현대위...조종사는 3명이므로 교대자가 능하지만 항법사는 1명뿐이므로 우선 피로를 이겨야 되고 惡天候시는 때이다에 때 달려서 적은 고비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중사...기상변화에 의한 통신장치는 귀찮은 일이지요. 그러나 장거리 통신기재가 2개나 있고 海上에서도 交信이 가능합니다.

성소령...C-54는 조종사가 하던 일을 기상정보사가 직접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의 60%정도를 기상정보사가 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행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자기의 능력의 확대 때문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회...각 공항을 들릴 때는 소중함을 아십니까?

바다위...비 13공공원이 주둔하고 있는데는 다른 공공원의 지어는 비는 장벽의 열성적 지원해 주며 상당의 받겨 맞이합니다.

그래도 직접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편리할텐데요.

노소령...탄·손·누트 공항 부근에서는 3천 피트 이하로 날면 영남없이 배 트롤의 소화가 공적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착륙시에는 높은 고도를 날다가 정도로 급강하해서 착륙합니다. 이때 귀가 아프고 기분이 나빠지지만 배트롤의 공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죠. 이륙시에도 3천 피트까지는 급상승합니다.

배소령...그 공항에는 45초에 1대씩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하루간 사방에서 비행기들이 다치기 때문에 처음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루에 1천 600회나 이륙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항공기 전시장 같이 각종 비행기로 파차 있습니다.

이중사...착륙시는 2명의 조종사, 항법사, 무선사가 모두 사주정계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머지 조종사가 통신 연락까지 겸하게 되죠.

사회...귀는 공항은 어떻습니까?

노소령...우리 나라의 장은 기지 같은 형편인데요, 활주로의 길이는 5천 피트라

지만 1천 피트는 공사관계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활주로가 상당히 미끄러워지고 30노트의 바람이 불어떨니다. 미공군은 아주 기를 꺼려하는 공항이지요.

성소령...그 때문에 연료를 직계 실어 가리게 해서 착륙합니다. 우리의 항법사가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실정입니다.

사회...월남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어떻습니까?

성소령...도시의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많은 것이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김삼사...기후관계도 있겠지만 대체로 국민들이 검소하고 여자들이 활동적인 것 같습니다. 기온이 25~30도 정도이고 겨울복장이 나오고 대부분의 맨발이나(슬리퍼)정도였을입니다. 부자일수록 白色 옷, 翁者일수록 黑色 옷을 입는 것 같더군요.

배소령...귀는 「에서 공군 제대자인 파월기술자를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를 보면 고국의 향수를 달래고 정취를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중사...음식없이 비싼 것 같아요. 식사가 귀찮...를라를 대신 사 먹어야 합니다. 우리 민요를 들려주고 한국「칼렌더」도 보여주고 우리 말로 서인비스하는 중국 요리점도 보여 줍니다.

현대위...월남인인구 대체로 弱하고 顔面이 작더군요. 그러나 불란서 혼혈아는 미인들이라고 하더군요.

사회...월남에 있다가 우리 국민이나 미군들이 銀馬部隊의 활동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노소령...우리 국민은 미군비행기를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군요. 비행기의 태극기 표지에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C-54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를 대할 때 그들의 자기배배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김상사...연젠가「퀴논」의 조종사 대기실에 앉아 있으러니 명문부대 수색중대원이 찾아와서 자기들 내부반으로 우리를 초대하더군요. 불고기를 굽는 등 야단법석을 하는데 미국에서 생생한 전우애를 느껴줍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를 자랑으로 알고 있더군요.

현대위...「퀴논」의 비행호사관 방문시 모두

장병들이 하는 말이 조국은 멀다고 느꼈는데 국기가 달린 비행기를 보니 감정이 깊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우리의 비행기가 직접 공중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노소령...주월 미군들도 우리 국민의 대해 굉장한 신뢰와 찬사를 하더군요. 미군 지역보다 한류군주들 지역을 제일 안전지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박대위...한국 일락장교들이 미군기를 타는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C-54가 월남 내에서 작전하면 이런 애로는 해소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사회...한국도 독자적인 공수「부우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필)...그렇습니다.
사회...하루 바빠 우리도 우리의 가진바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남 공수인부 수행중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든가 문제점, 또는 기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소령...기상정비사들이 隨行하는 근본적 의의는 비행도중의 생기는 결함들을 수리해서 비행인부를 완전하게 마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上司로부터 결함이 생기는 자체에 대해 꾸지람 들을 때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 보다 이해가 있어야 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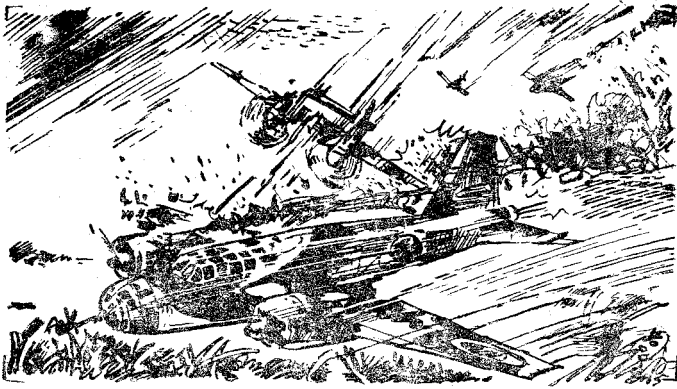
노소령...우리 심정으로는 비행기도 타고 내려서 고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체적으로 부리를 하는 편이죠. 각공함마다 따로 우리의 정비분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군들이 잘 협조해 주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비행기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마음의 놓이지 않습니다.

김상사...越南을 왕래하는 우리 군인들이 C-54를 타고서는 내부시설이 좋다고 흐뭇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노소령...결국 우리 한국국민도 세계를 무대로 조금도 손색없는 활약을 하고 있다는데 크나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노소령...파월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회...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우리 국민의 위용과 명예를 위해서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第2次大戰・美空軍操縱士의 實戰記

나는 「山本五十六」을
擊墜시켰다.

이 돈 영 (역)

葬禮式 날은 유난히도 비바람이 불어왔다. 관을 덮었던 星條旗가 몹시도 떨려거렸다. 「앨링턴」國立墓地的 한 귀퉁이에 우리 짐식구들이 모여 2次大戰은 벌써 끝났음에도不拘하고 이제야 겨우, 幽明을 달리해서 南太平洋으로부터 말없이 귀국한 귀영들이 동생 「찰스」의 무덤가에 둘러서서 불복히 하관식을 치르고 있었다.

구성지면서도 익숙한 牧師의 기도소리를 듣고 있는라니까 나 자신과 동생과 그리고 한 번도 본적이 없는 敵國인 日本海軍總司令官인 「야마모토·이소루구」 제독이 「솔로몬군도」의 한 섬으로서 「바이얼린」처럼 생겨 먹은 음침한 「부우전빌」섬을 가운데 두고 이상한 삶의 인연을 맺고 있었음이 새삼스레 생각되었다.

x x x

日本軍의 眞珠灣 奇襲으로 美國이 本格的으로 參戰하게 되자, 第1次世界大戰中 美陸軍操縱將校로서 勇猛을 떨쳤던 父親으로 모시고 있는 나와 동생이 비행사가 된 것은當然한 것이었다. 내가 「파덜커널」섬으로 1個 P-38 戰鬪機大隊와 함께 파견되어 있을 때, 동생 「찰리」는

아직도 美海兵隊의 전투조종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3년 3월 어느 날 戰鬥哨戒任務를 마치고 歸還하던 나는 無電「라디오」를 通해 待望에도 동생「찰리」의 반가운 音聲을 들을 수 있었다. 동생도 임무를 마치고「과달카넬」(島上空)을 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래 수주일 동안 우리 형제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어떤 때는 日本의「零」式 전투기와 友의 공중전에 함께 말려들기도 했고 한 번은 機體異常으로 日本軍이 占領하고 있는「산타 이사벨」(島)로 非常脫出을 하려는 시도해야만 했던「찰리」를 내가救出해준 적도 있었다.

1943년 4월 17日 午後 늦게쯤 되어서「샌더슨」基地의 작전狀況室으로 出頭하라는 指示를 받은 나는 우리 第339 전투飛行大隊의 先任將校로서「과달카넬」(島)에서 評判이 좋은「훈·미첼」(少領)과 함께 出頭하였다. 비좁고 혼탁한 작전狀況室을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甚가 重大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실에 있는 高位將校들은 모두 여기 몰려와 앉아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얼굴이 잔뜩 긴장된 海兵少領이「丁級秘密」이라고 써 붙인 電文을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야마모토」와 그의 高位參謀들이 4月 19日 航空機便으로「부우전빌」(島)에 到着豫定임. 第339 P-38 전투기

太平洋戰爭을 前後하여 日本海軍의 最高責任者로서 그 勇맹을 全世界에 떨쳤던 日本의「야마모토·이소로구」(山本五十六)는 戰線觀察次 南太平洋을 飛行하다가 情報을 探知해 낸 美軍에 依해 擊墜되었다. 다음은 現在 美空軍 豫備役大領으로서「야마모토」를 직접 격추시켰던「토마스·G·랜피어」씨의 手記를 抄譯한 것이다.

大隊는 死力을 다해 이를 격추시킬 것. 大統領閣下께서는 이를 重大視하고 結果를 기다리고 계심. 電文內容은 대강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海軍長官「블랭크·녹스」의「사인」이 들어 있는 이 電報에는「야마모토」一行이 6機の「零」전투기의

연호를 받는 2機の 爆擊機에 分乘하여 올 것이며 그밖에 자세한 飛行「스케줄」이 적혀 있었다.

室內에는 잔뜩 緊張한 空氣가 감돌고 있었다. 「야마모토」도 말하면 日本海軍의 首領일 뿐만 아니라 교활하면서도 비정한 기습공격으로 진주만을 攻擊하여 美太平洋艦隊를 괴멸시키고 2천명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한 張本人이었던 것이다.

「미첼」(少領)과 나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부우전빌」(島)는 여기「과달카넬」섬에서 3百「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우리의 愛機인「로키드·라이트닝」P-58機만이 이 위험한 邀擊작전任務를 遂行할 수 있었다.

올해 59살의 작달막하고 表情이 없는「야마모토」는 日本海軍을 現代化시키는 데 決定的 役割을 담당했으며 야간전투와 魚雷전법을 開發한 張本人으로서 飛行機 조종에도 能通하여 무서운「零」전투기의 開發에도 參與하는 한편 航空母艦을 中心으로 하는 革新的인 海軍작전도 개발하였다. 그런데「아이로니컬」하게도「야마모토」는 兇惡한 親美主義者로서 한 때는「하바

드「大學의 우등생으로서, 駐美日本大使館의 海軍武官도 지내고 英語를 유창히 하고 「포커」놀이와 야구를 즐기기 때문에 極端的 軍國主義者들의 暗殺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당 日本이 美國을 相對로 전쟁을 벌이자 「야마모토」는 독특한 方法으로 日本海軍을 指揮하여 祖國에 忠誠하였다.

그러므로 「야마모토」가 탑승한 飛行機를 공격하자는 결정은 그렇게 간단히 취해지지 못했다. 이와같은 情報는 美軍의 情報網이 日本軍의 秘密暗號를 盜聽하여 解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야마모토」가 極秘裡에 我軍에 近接한 最前線에까지 出現할 것이라는 情報는 「루즈벨트」大統領과 「어네스트」킹 해군참모총장에게까지 報告되었으며, 「야마모토」를 擊墜시키는 것이 전쟁遂行을 爲해 不可避한 것이나, 아니면 單純한 殺人이나 하는 것으로 政府 및 軍最高位層에서 激論이 벌어졌으나 「야마모토」를 대신할 만한 人材가 日本에 없을 만큼 그의 存在는 日本軍에 커다란 價値가 있으므로 그를 반드시 이 기회에

除去해야 한다는 「체스터·니미즈」제독 등의 강력한 主張이 끝내 채택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重大한 작전수행을 指示받은 「과달카널」基地작전 狀況室에서는 最善의 邀擊方法을 案出하기 爲한 激論을 벌인 끝에, 「야마모토」는 「부우진빌」島의 巨大한 「카릴리」飛行場 滑走路에 다음날 9시 45분에 着陸할 것이므로 우리 편은 그가 着陸하기 10分前인 9시 35분에 着陸地點에서 35「마일」 떨어진 北方上空에서 擊墜하기로 最終結論은 내려졌지만 別自信이 서지 못하였다. 우리가 動員할 수 있는 전투기는 겨우 18機에 不過한데 比하여 日本軍은 「카릴리」基地에 만도 1百機 以上の 전투기를 保有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補助燃料「탱크」까지 사용한다 하여도 우리 편 전투기들이 「야마모토」가 탑승한 爆擊機를 長時間 目標地點에 오래 지체할 수 있게 할 만큼 燃料를 싣고 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부여받은 任務는 成功의 可能性이 극히 稀薄한 그마름 더 時計의 秒針과 같은 正確性을 要求하고 있었다.

잠시 후 활주로 주변의 언덕에 있는 잔

디밭에서 우리 隊員들에게 「미켈」少領은 다음과 같은 內容을 「브리이윙」하였다.

『來日 아침 07시 25분에 離陸한다. 14機로 編成된 飛行機群을 本官이 指揮하여 2萬「피이트」高度를 유지하여 「카릴리」基地에서 出擊해 올 日本 전투기群을 邀擊할 것이며 「랜피어」少領은 3機를 指揮, 1萬「피이트」의 高度를 維持하고 있다가 틀림없이 야마모토」를 擊墜할 것, 以上.』

한 陸軍情報將校가 추가로 나와서 우리 一行들에게 「야마모토」가 日本海軍에서 絶對적으로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를 잃음으로써 日本軍의 士氣는 여지없이 떨어질거라고 說明했다.

日曜日인 4月 18日 「과달카널」基地에 도 달게 갠, 그러나 약간 濕冷한 아침이 밝아왔다. 내가 먼저 가던 剌판활주로를 滑走해 나갈 때 僚機조종사인 「렉스·파머」中尉가 내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보이며 武運을 빌고 있었다. 07시 25분 正刻에 「미켈」少領機는 爆音を 뒤에 남기고 上昇해 올라가고 나와 「파머」中尉도 그의 뒤를 따라 離陸하였다. 그러나 내가 직접

指揮하기로 된 4機中 2機는 한機는滑走路上에서 「타이더」가 터졌고 또한機는 胴體에 있는 燃料탱크가 제대로装着되지 못하여 離陸치 못함으로써 내가 賦與받은 이 重大한 任務를 遂行하기爲한 작전이 開始된지 不過數分만에 2機나 喪失한 꼴이 되어 나의 초조감이 더해갔다. 「미켈」少領이 이 사실을 알고 「홈스」中尉와 「하인」中尉를 내 指揮下로 남겨 주었다. 우리 編隊群은 日本軍의 「레이다」監視網을 避하기爲해 海面上을 낮게 떠서 「갈」자로 일호를 그리면서 「카릴리」島上空에서의 日本機와의 「관대부」를爲해 一路 北으로 機首를 돌려 飛行하였다.

타는 듯한 南洋의 아침햇살을 등에 받으며 요란한 폭음을 울리고 있는, 16機로 짜여진 우리 編隊群들은 無續「라디오」通信을一切 中止한 채 飛行하고 있었다. 近 2時間 동안이나 심하나 보이지 않는 茫茫한 大海 上空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飛行한 것이다.

近 一百回나 되는 出擊을 해오는 동안 나는 勇氣에도 二深度의 差가 存在한다

는 事實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떤 날은 조종사 自身도 異常히 단 큼 죽음을 不辭하는 勇氣를 發揮해 보기도 하지만 기분이 내키지 않는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몸을 아끼게 된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순간의 우리 一行은 어떤 일도 해치우겠다는 確연한 마음의 준비와 決意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드디어 北西쪽 水平線上에서 「寶物섬」을 發見하였. 너른 이어 해안가가 이까지도 「정글」로 가득 덮여 있는 커다란 「부우진빌」섬의 윤곽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海岸線을 가로지르고 있던 「미켈」少領機가 그의 휘하 編隊群을 이끌고 2萬 피아트」高空까지 急上昇하기 시작하였다. 나도 내 휘하에 있는 3機를 이끌고 곧 1萬 피아트」高空까지 上昇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계기판 시계가 9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分 동안 이 飛行해야 하는 것이다.

9시 34분—攻擊開始豫定時間 1分前이다. 上昇을 繼續하면서 敵機의 出現을 待하면서 茫茫한 하늘을 휘둘러 보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점점이 떠도는 뭉게구름 뿐이었다.

그럼 正確無比를 자랑하는 「야마모토」계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로 이때 「미켈」少領의 編隊에 끼여 있던 조종사가 正方 10時方向에 敵機가 出現했다는 急報를 나직히 알려 왔다.

충히 머리를 돌려 그 方向을 돌아다보니 果然 멀리 V字型 隊列을 이룬 까만 點들이 接近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느 程度 피아간의 거리가 좁혀져자 나는 敵機群의 正體를 識別해 낼 수 있었다. 2機는 초록색으로 偽裝한 雙發「베터」爆擊機였고 이를 6機의 「零」전투기가 엄호하고 있었다. 時計를 보니 9시 35분 정각이었다. 「야마모토」계독이 이처럼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하여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애 바로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하자만…….

나는 부피가 큰, 胴體에 달린 燃料탱크를 떨어뜨리고 攻擊態勢를 갖추었다.

正面上空에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日本機 編隊群들은 아직도 우리의 出現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불리한
물말사고 하나發生하였다. 내 휘하에
있는 編隊의 第2組長이던 「홀스」中尉의
愛機가 燃料탱크를 빼어 버리지 못하자
「홀스」中尉는 이를 빼어 내기 爲해 機體
를 심하게 진동시키며 선회하다 뒤집혀
미끄러져 내려가므로 「하인」中尉機가 그
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적작 邀擊의 重大任務는
나와 「바버」중위, 단 둘이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와 日本機編隊 사이에 달
어져 있던 1「마일」의 거리가 急速度로
단축되자 日本軍의 「零」戰鬪機들이 우
리들을 發見하고는 급히 機首를 우리 쪽
으로 돌리면서 燃料「탱크」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先頭에 있던 爆擊機 1臺가 급히
「정글」쪽으로 急降下하고 또 한臺는 곧
장상승해 왔다. 「야마모토」가 탐승한 비
행기가 저 첫번째 폭격기일거라고 추측하
고 이를 추격하기 위해 내가 急降下하자
3機의 「零」戰鬪機가 내게 달려 들었다
급히 愛機를 돌려 기관포를 겨냥한 나는
敵의 先導機와 거의 충돌할 만을 가까이와
졌을 때 기관총탄 세례를 加하자 敵機는

한쪽 날개를 잃은 채 화염에 싸여 곧두
박질하며 추락했다. 이 순간 나는 거의
수직으로 急上昇하여 내가 混戰中 놓쳐 버
린 爆擊機를 찾아 보았다. 이때 나는 「바
버」中尉가 數機의 「零」戰鬪機와 어울려
混戰하고 있고 다른 敵機 2機가 내게 덤
벼오고 있음을 간파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敵爆擊機가
정글 위에 던져 놓고 있는 초록색 그림자
를 발견했다. 나도 急히 下降하여 나무를
이 만큼 내려와서 敵爆擊機를 向해 會心
의 銃彈을 퍼부었다. 敵機의 右側「엔진」
과 左側 날개가 被彈되어 화염에 싸이더
니 곧장 「정글」속으로 추락해버렸다. 이
때 「바버」中尉도 나머지 爆擊機 1機를
바다 속에 처넣어버렸다. 무거운 責任을
끝낸 나는 前後左右로 機體를 急진회시키
면서 내 뒷편에 박작 달려들어 따라오는
「零」戰鬪機를 빼어 내려고 애썼다. 그러
나 갑자기 나는 急降하게도 日本軍基地인
「카힐리」飛行場 한 구석 上空을 飛行하고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때 동기지에
서는 日本戰鬪機들이 뿐만 먼지를 일으키
며 大舉 出擊에 나서고 있었다. 나는 急

히 이곳을 빠져 나와 最大上昇速度를 내
어 점차 日本機들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
었다.

基地로 歸還하는 飛行도 緊張에 가득찬
것이였다. 뒷대는 被彈되었으므로 全機의
燃料가 말리고 있었따. 맨 마지막으로 활
주위에 내린 내 愛機의 연료탱크에는 한
방울의 기름도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조
종사, 정비사, 해병대원, 그리고 G工들
이 비행기로 몰려와 조종석에서 나를 끄
집어 내어 하늘 높이 치켜 올렸을 때 나
는 마치 決勝點을 얻은 美式총구의 「하
프」·「백」이 된 기분이었다. 「바버」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그는 爆擊機外에도 2機의 「零」
戰鬪機도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런데 애
석하게도 우리의 친근한 벗이었고 有能한
조종사였던 「레이·하인」中尉만은 敵機에
게 擊墜되어 生死를 알 길이 없었다.
이날 밤 우리는 「스레이크」와 作箱과
冷麥酒로 만찬을 즐기었으며 「콜린스」장
군과 南太平洋地區 美海軍司令官인 「철
시」제독 등으로부터 祝電을 받았다.

그런데 「바버」中尉가 겨우시켜 바다 속
으로 추락한 폭격기에서는 「우가끼」제독

과 「기다무라」제독 등 日本海軍高位將星들이 重傷을 입은 채 구출되었다. 내가 겨우 시킨 폭격기는 「정글」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서 儀式刀를 손에 꼭 잡고 죽어 있는 「야마모토」 제독의 시체도 발견되었다. 火葬하고 남은 그의 유해가 東京으로 돌아오자 수백만의 日本人들이 「트라팔가」해전에서 戰死한 「빌슨」제독의 葬

〈名談逸話〉

뜻밖의 橫財

太院君의 失勢時代의 이야기.

고(高) 대구리라 일컫는——者가 대원군 때에 자주 출입을 했었는데, 그 자가 大院君을 찾아가니까,

『외로게, 이걸 한번 써보지 않겠나? 이번엔 새로 산 천냥짜리 일세.』

하더니 안경을 내 보였다.

고 대구리가 그것을 받아 쓰자 그만 大院君께서는 대성복소를 하면서,

『그걸 쓰니 꼭 개 대구리 같도다.』

禮式以來 가장 規模가 큰 그의 葬禮式에 參席하여 그의 죽음을 哀悼하였다.

그가 죽은 지 꼭 한 달만에 東京放送은 「야마모토」의 죽음을 公式發表했지만 美國側은 戰爭이 끝날 때까지도 상세한 내막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는 美軍이 敵의 暗號를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축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이렇게 혼자서 연신 대소를 하였다.

그러자 덩달히 앉았던 고 대구리는 안경을 쓴 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였다.

『아니 가려면 안경이나 벗어놓고 가네.』

하고 大院君께서 이르자 그는 정색을 하면서

『황궁하옵게 개 대구리에 씌웠던 안경을 감히 어떻게 드려겠나이까.』

마침내 그는 그 안경을 팔아 큰 돈을 잡았다고 한다.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야마모토」 겨우 사건이 있은 지 꼭 두 달만에 4機의 「零」戰鬪機를 겨우 시킨 戰果를 올렸던 내 동생 「찰리」가 8機의 「코르세어」機를 지휘하여 「부우진반」島의 「카일리」基地를 機銃攻擊하다가 擊墜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야마모토」를 겨우 시킨 바로 그 자리로 떨어진 「찰리」는 生存하여 「라바울」에 있는 日本軍의 포로 수용소로 수감되었다. 그래서 美國政府는 내 동생 「찰리」에게 日本軍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내가 「야마모토」 제독을 겨우 시킨 장본인임을 밝히지 않았다. 동생 「찰리」는 美海兵隊가 수용소를 解放하기 꼭 2 주 전에 脫疽症을 앓다가 「라바울」에서 死亡하였다.

X X X

이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알링턴」 묘지에 들러서서 동생 「찰리」의 장례식을 지켜 보노라니 戰爭의 悲哀와 虛無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야마모토」를 겨우한 바로 그 자리에 동생 「찰리」가 또 겨우되었다니 그럴마나 「아이로니컬」한 얘기인가.

△討論△……韓國의國防政策方向

崔 星 烈
△少尉·飛行學校△

1. 序 論

紀元前 1496년부터 今日에 이르기까지 約 3,500年間에 걸쳐 우리 人類는 14年半만에 戰爭을 한번씩 치루어야만 했던 것이다.

1945年 世界第2次大戰 終結後 1949年 中華人民共和國 수립으로 인한 國民政府 追放에서의 中共侵略, 1950年의 共產北韓의 侵略으로 인한 韓國戰亂, 1965年 수에즈운하 占據에 있어서의 英·佛의 出兵事件, 또는 韓加리에 對한 소련의 武力行使, 美國의 레바논에의 出兵, 中共·인도 國境紛爭, 쿠바事態, 인도·파키스탄戰爭 現在도 進行되고 있는 越南戰爭等 28回의 大小 武力衝突의 記錄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戰爭이 韓國에서 再演되지 않으리라 斷言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休戰線에서 韓國軍과 對峙하고 있는 約 40萬의 軍事力을 가진 北僞는 強大한 中共軍과 소련 極東軍을 背景으로 政治, 經濟, 社會心理, 軍事等 諸分野에서 戰爭潛在力의 強化에 全力을 다하고 있다. 언제 다시 侵入할지 豫測을 不許하고 있는 狀況에 놓여 있다.

此際에 우리는 그들의 侵略意識을 粉碎하고 萬一에 戰爭이 勃發하였을 境遇에 이를 勝利로 이끌 수 있는 戰略의 樹立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

한 國家의 國防政策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그 國家의 人的資源, 產業, 物的資源 및 그 地理的 位置 등의 諸觀點에서

出發하여야 한다. 本論考에서는 이러한 출발점에 앞서 반드시 考慮되어야 할 戰略理論의 研究方向과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制度上의 問題, 끝으로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는 國民의 國防意識의 強化面에서 다루고자 한다.

2. 本論

(1) 軍事學教育의 普通化(戰略理論強化)

美國의 著名한 戰略理論家 「바나드 브로디」박사는 그의 著書 『A Guide to Naval Strategy』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民間人이 戰略에 미치는 影響은 決코 無視할 수 없으며 全의 軍人이 戰略을 取扱한다면 不幸한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知識人이 戰略을 다룬다면 그 結果는 無難한 것이다」고 했고 「크레멘신」은 「戰爭은 極히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將軍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에는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重大한 軍事的 冒險이나 계획은 純全히 軍事的 判斷과 決定을 내리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許容할 수 없다」고 力說했다. 事實에 있어 戰爭을 遂行함에는 本質의 으로 보아 非軍事的인 性格을 지닌 일이 많은데 이와 같은 非軍事的인 일은 民間人이 더 잘 수행한다. 그러나 民間人이 이러한 일을 할 때는 軍事戰略의 諸問題가 잘 理解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恒久的인 平和를 樹立하려고 渾身의 努力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戰爭에 관한 研究를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平和를 計劃하는 大部分의 사람들은 戰爭問題에 對하여 의사와 같은 態度로서 이해왔다. 그리하여 疾病自體를 研究하려는 努力은 하지 않고 治療만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取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 結果는 戰爭의 現實에 비추어 보면 極히 幻想的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藥품을 길다랗게 羅列하는 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試行錯誤가 문제를 解決하는 한가지 方法이라고 主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民들의 生命과 국가 자체의 存立이 바로 그러한 問題解決에 依存할 경우에는 그 支拂하는 代價가 莫大할 것은 明白하다. 未來의 指導者가 될 우리들은 전쟁 現狀을 觀察하고 지난 歷史에서 그 과오점을 이해하고 國家를 戰爭의 慘禍에서 救出하도록 準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戰略研究의 學習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현명한 지도자들은 戰爭을 효율하게 회 避해 왔으며 일단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에 이르러서는 勝利를 爭取해 왔던 것이다.

家屋를 建築하겠다고 하는 單純한 希望이 큰 建物の 建立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勿論 첫째로 그 希望이 提出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家屋의 形態를 갖추기 前에 건축가는 自己가 使用하여야 할 工具의 用法을 알아야 할 것이며 建築에 必要한 材料는 如何히 供給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木手의 責任者가 監督하지 않는다면 세워진 建物は 完全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戰爭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軍人は 勿論이고 政治家는 各者 自己의 任務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西洋의 戰略思想家「조미니」는「君主는 政治와 軍事 양면에 對하여 徹底하게 教育을 받아야 한다」고 強調했다. 特히 國土가 兩斷되어 그 政治的 經濟的 諸問題를 自力으로 解決할 國力이 不足한 나라는 戰爭에 勝利할 수 없다고 믿고 資源과 技術의 優勢를 軍事戰略上的 優勢와 同一하다고 생각하는 傾向을 갖고 있다. 그러나 歷史는 戰略理論上的 우월성이 資源에 있어서의 優勢와 거의 같이 勝利의 要因이 되었다는 것을 例示하였다.

1940년 獨逸은 그 戰略理論이 優越하였기 때문에 그 장비에 있어서는 거의 同一하며 數에 있어서도 우세하였으나 時代에 뒤떨어진 戰爭概念에 執着하고 있었던 英·佛 聯合軍을 敗北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古來 佛蘭西人들은 무수한 변화에 눈을 감고 많은 의문에 對하여 귀를 막고 巨大하고도 豪華로운 塹壕 즉 「마지노」 방어진지를 構築해 놓고 이 塹壕外에는 아예 다른 생각이 없이 삼패인 酒에 醉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戰略理論을 조금만 더 研究했다면 「마지노」線을 建立하는 돈으로 6,000臺의 방크를 製造했을 것이고 이것으로 20個의 機械化師團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英·佛과 獨逸의 戰爭은 資源이 아니라 理論 게임이었던 것이다.

「나폴레옹」, 「한니발」, 「체스카」, 「프레드릭」 등 역사에 有名한 지도자들의 勝利는 資源에 依한 勝利가 아니라 理論에서 바둑판의 大勢가 決定되었던 것이다. 生存을 爲한 戰爭에 直面했을 때 국가의 군사력을 勝利로 인도할 天才가 갑자기 出現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런 任務를 擔當할 미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런 力量을 갖도록 育成하기에 노력을 傾注해야 될 것이다.

「토마스·제퍼어슨」은 1813년 「제임스 몬로」에 다음과 같은 便紙를 보냈다. 「……우리는 全國의 男性을 訓練시키고 군사교육을 大學의 正規課程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完成되지 않는 限 우리 安全은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주장이 150년을 지난 오늘 미국은 하버드 大學을 中心으로 거의 大部分의 大學課程에서 戰史, 戰略을 重要한 科目으로 研究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戰略을 軍人 못지 않게 民間人이 研究하고 있다는 事實은 한국의 국방정책의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軍계통의 학교는 勿論이고 일반 大學에서 군사과목을 정규과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교육에는 의국의 일조도 외부의 지원도 불필요하다. 우리들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만으로 解決할 수 있는 問題이다. 따라서 經濟開發과 아울러 裝備의 近代化, 나아가서 人間の 積極的인 意志가 지닌 教育의 價値, 軍事學教育을 重視하고 이를 普遍化함으로써 勝利의 潛在力을 國民 모두가 질려야 할 것이다. 즉 더욱 넓은 面에서 民間大學에서 戰史, 戰略敎科 科目의 設定이 要求된다.

(2) 制度強化

전쟁에서 勝利의 획득은 理論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를 실제 活用하고 應用할 수 있도록 制度로써 規制化되어 있어야 한다.

軍事的 準備을 하는 데는 時間이 오래 所要되는데 우리들이 미리부터 切實하게 制度上으로 準備을 해 놓지 않으면 불과 몇 시간 동안의 싸움에서 다비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2, 500년전 兵學思想家 孫자가 말한대로 「싸우기 전에 充分히 戰爭準備을 하지 않고 또 이를 實際訓練을 通하여 실험하지 않고서는 勝利할 수 없다.」 「政治的, 地理的, 自然的 指導者의 戰略理論, 모든 것이 制度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事實 진정한 戰爭은 軍事作戰이 開始되기 전에 이미 戰取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보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랍계국의 강적들과 싸워 승리하여 국가가 존립할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皆兵主義의 原則下에 民兵制度를 擇하여 온 國家 國民이 一大 軍事力化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스위스」가 獨逸, 佛蘭西, 「오스트리아」, 伊太利等 強大國들의 틀바구니에서 中立을 지키는 것도 그들은 一朝有事時 48時間 以內에 80萬의 大兵力을 動員할 수 있도록 教育訓練이 되어 있고 또 民兵制度로써 一大 軍事國家라는 것이다. 第2次世界大戰의 경우 動員令이 내린 不過 6時間內에 完全한 裝備를 갖춘 50萬의 軍隊를 戰鬪配置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가 雄大하였던 것은 그들의 組織과 制度에 依하여 結合되었을 때 그들은 융성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를 등한히 했을 때 나라는 「고트」와 「가웨스」에 征服되고 「로마」帝國의 멸망은 不可避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眞正으로 國家를 存立시키고 民族의 理想을 追求하기까지는 반드시 自身을 防禦한 戰略理論과 兵役制度를 가지고 있었다. 事實 平和와 守護國家는 潛在的인 侵略者보다 더 優秀하고 強力하고 進歩된 軍事力을 維持할 수 있는 制度를 가지고 있어야만 戰爭을 이겨내고 勝利할 수 있었다. 「스위스」는 國防動員局(Office

of Defense Mobilization)을 두고 政策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 戰爭이 일어나야 兵力動員令을 내릴 수 있고 戰時體制로 바꿀 수 있다. 韓國과 같이 地理的인 位置에 있는 국가는 戰爭 潛在力을 즉시 軍事力으로 轉換할 수 있도록 制度로써 規制되어야 하고 平時에도 實戰과 같은 훈련이 要求된다.

(3) 國防意識強化(國民의 戰意)

總力戰은 흔히 廣義로 軍事的인 用語로서 使用되나 그것은 軍事的인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政治, 經濟, 產業 및 國民의 國防意識이 여기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戰爭遂行이 主로 將軍이나 提督들의 關心事였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騎士時代의 中世的인 概念은 말라졌다. 國民의 支持없이 軍隊는 戰鬪할 수 없다. 軍隊組織을 通하여 最善의 制度를 採擇하더라도 萬一에 國民들의 尙武精神(Military spirit)을 同時 育成시키지 않는 限 何런 일이다. 百年戰爭의 女神이었던 「잔다크」도 싸움은 언제나 士氣가 旺盛할 때만이 勝利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폴레옹」은 「精神의 物質에 對한 比率은 3對1이다」고 하였고, 「클라우제비츠」는 「物質力이 木製의 칼집이라 할 것 같으면 精神力은 칼의 시퍼런 날」이라고 하여 兵站이나 兵員의 數보다 精神을 戰爭의 要素로서 가장 重要視하고 「스탈린」도 역시 그러했다.

事實 戰爭에 있어서는 두 개의 兵力數와 物質의 힘이 아니라 두 개의 精神力이 衝突하는 것이다. 따라서 精神力이 強한 者가 勝利한다고 할 수 있다. 人口의 寡多가 國力의 크기를 決定한다고 볼 수 없다. 強大國으로 남아 있어도 人口가 많아야 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人口가 많다고 해서 絕對的으로 戰略遂行의 要素가 될 수 없다. 그 좋은 例로서 第2次大戰時 英國의 植民地였던 「인도」는 3億5千萬이라는 巨大한 人的資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은 이를 充分히 戰力化할 수 없었다. 第2次大戰 때 悲觀主義者들은 英國人의 國民性을 理解하지 못하고 英國이 生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히틀러」自身도 英國을 간단히 屈服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戰爭中 「처어진」이 그의 軍事顧問들에게 英國의 戰略方向에 對한 質問에 對하여 「인도」는 보기에 獨逸이 有利한 카아드를 다 가진 것 같다. 그러나 眞正한 마스트는 우리들의 싸움은 軍人和 國民의 士氣가 獨逸이 保有하고 있는 數的 物的 優勢를 相殺할 수 있는나 없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確信한다」고 하였다.

國民性은 國防의 要素로서 大端히 重要한 것이다. 積極적인 獨逸의 機械化部隊도 忍耐力있는 소련 國民을 屈服시킬 수가 없었으며 殘忍한 空中爆擊과 無制限潛水艦戰도 堅忍性있는 영국의 國民性 앞에는 무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戰意가 全히 造成되어 있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戰爭 潛在力은 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940年の「체코」나 「덴마크」의 支配의 意思는 「폴란드」나 「핀란드」와는 對照的으로 壓倒的으로 優勢한 敵에 對하여서는 戰爭을 하지 않고 屈服할 意圖였다. 「체코」나 「덴마크」는 經濟的 資源 또는 其他 戰爭 潛在力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戰爭에 있어서 그들의 戰爭能力은 全無하였던 것이다. 軍事의 手段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政治의 및 地理的 手段이 無力해지면 軍事의 手段은 價値가 없게 된다. 우리들이 所謂 戰線에서 武器를 取扱하는 軍人과 관련해서 매우 重大한 것이다. 現代戰에서 成功하려면 國民 大部分이 自進하여 모든 혼란을 잡아가는 同時에 또한 自進해서 죽음의 길을 달릴 수 있게 하는 國防意識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3. 結 論

韓國과 같이 國力이 不足한 나라는 自主的인 國防政策을 樹立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키성거」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優勢한 戰略理論은 兪세한 資源을 補充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裝備와 物質面에 있어서 多少 兪세하다라도 戰略理論, 制度, 指揮能力, 士氣, 戰術 등에 있어서 優勢하다면 이것으로 相殺할 수 있거나 或은 相殺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능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歷史는 이를 여러 곳에서 實證하고 있다. 「마담 스미스」는 防衛가 富보다 重要하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文弱에 빠져 李珣先生의 十萬養兵論을 理解하지 못한 것과 對照的이다. 우리 軍隊는 이제 模倣에만 그치지 말고 성장하고 努力하고 研究하고 創造하는 단계가 되어야 하겠다.

建軍 18년의 歷史를 累積된 年度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間에 얻은 經驗과 敎訓을 살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實情에 適合한 戰略敎理科를 만들어 우리에게 適合한 制度로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精神的 培養에 온 國民이 다같이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韓國이 生存할 수 있고 繁榮을 누릴 수 있는 礎石인 國防政策의 方向인 것이다.

△編輯者註 本原稿는 筆者가 空士第4學年在學時 陸士主催 제9회 「진국남녀대학 학술세미나」에서

유수상(국방장관상)을 받은 것이다. √

國防과 經濟發展

姜 哲 洙

△空士·4年▽

1. 序 論

韓國經濟는 民族의 悲劇인 南北分斷으로 半身不隨가 된데다가 史上 類例없는 大規模 局地戰이었던 6·25 動亂으로 日帝 植民地時 形成된 脆弱하고 偏僻的인 經濟基盤이나마 송두리째 破壞되어 廢墟化했거나 美國을 爲始한 自由友邦의 莫大한 援助와 不屈의 再建意慾으로 苦痛스러운 試行錯誤를 거치면서 近代化의 基盤構築을 目標로 한 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1966年으로 매듭짓게 되어 이제 跳躍過程에 進入하였느냐의 如否를 論議할 만큼 發展을 하였다.

한편 韓國의 國防力 역시 飛躍的인 發展을 하여 現代化된 裝備를 갖춘 60萬 大軍을 지녀 世界 第4位의 莫強한 軍事力으로 北傀 및 假想敵國으로부터의 直間接의 侵略을 粉碎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越南派兵을 함으로써 極東에 있어서 自由의 十字軍으로서의 役割까지 다할 수 있음을 誇示하게 되었다.

勿論 이렇게 長足の 發展을 한 國防力은 韓國經濟의 自力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自力만으로는 維持할 수도 없는 것이다.

休戰後 每年 2 億弗 以上の 直接軍援 및 經濟援助와 總歲出規模의 3分之1에 達하는 國防費 支出에 依한 값비싼 것이었다.

이렇게 過重한 國防費는 美國의 對韓經濟援助의 많은 部分을 蠶食하여 總資本形式을 沮害하고 赤字財源에 依한 國

防費의 調達は 「인플레이션」을惹起시켜 資源을 非生産의인 方向으로 誤導하여 資源의 浪費를 招來하고 가장 活動的인 靑壯年의 많은 部分이 國防을 爲해 非生産의인 軍에 從事함으로써 勞動人口를 減少시키며 軍用으로 徵發된 土地 역시 적지 않아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그 反面 國土防衛를 基本任務로 하는 軍이 道路、港灣、通信施設等의 社會間接資本의 建設 및 擴充教育訓練을 通한 技術水準의 向上等에 依하여 經濟發展에 寄與하는 바가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이 論考에서는 國防이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面과 寄與하는 面을 比較 分析하고 軍·經濟援助의 減少 및 國防費의 增大傾向으로 말미암아 점차 그 負擔이 過重해질 國防의 問題와 國家焦眉의 課題인 經濟發展問題의 調和的인 解決策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2. 國防이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面

(1) 國防費의 規模 및 構成

莫強한 國防力을 維持하기 爲한 總 軍事費는 1959~61年 年平均 5억2천萬弗이 所要되었으며 그 중 軍裝備増強 및 現代化에 必要한 1억5천2百萬弗과 軍維持에 必要한 3억6천8百萬弗의 43%인 1억5천8百萬弗이 國庫負擔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해야 할 點은 豫算에 計上되며 흔히 論議되는 國防費는 總 國防費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國庫負擔인 國防費 역시 急激한 增大를 보여 1953年의 32억 6천萬圓에서 1966年의 3백8십5억 3천6百萬圓으로 12倍의 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總 歲出豫算의 30% GNP(國民總生産)의 6%를 占하여 美國의 47.8%에 다음가는 高水準이며 後進國의 國防費가 一般의 GNP의 3% 未滿임을 考慮할 때 韓國의 經濟力에 비해 얼마나 過重한가를 알 수 있다.

다음에 豫算上 國防費의 支出構成을 보면 1964年의 경우 給與費、給食費、被服費等의 個人維持費는 國防費總額의 83%、指揮管理費、軍需費、營繕費等의 部隊維持費가 15.7%、나머지가 教育訓練費로 되어 있어 國防費의 大部分이 兵力維持에 必要한 基礎的인 經費에 充當되고 있다.

이러한 個人維持費는 原則的으로 그 所要額이 兵力數에 比例하여 策定되는 것이므로 現兵力水準을 維持하는 限 國防費의 減縮은 不可能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過重한國防費가經濟發展을 沮害하는 作用을經濟發展의 基本動因이라 할 수 있는 資本、勞動力、土地와 關聯시켜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國防費와 資本形成

經濟發展의 基本要因이 資本이라고 斷言할 수는 없으나經濟發展이 國內投資에 動員되는 資源의 量과質、換言하면 投資의 規模와 그 生産性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따라서 國防費와 資本形成의 關係를 國防費 支出이 投資의 總體的인 規模에 미치는 效果和 投資의 配分乃至 그 生産性에 미치는 效果로 分類하여 考察할 수 있겠다. 우선 國防費 負擔이 投資의 量的 側面에 미치는 壓縮效果를 살펴보자.

1953年~64年에 걸쳐 政府豫算上의 國防費의 58%가 美國의 援助로 充當되었으며 이것은 美國의 對韓經援(對充資金)의 43%가 國防費로 轉入되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그만큼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었던 資源이 非開發的인 用途로 轉用된 셈이다.

한편 1957年~60年에 걸쳐 國防費는 總 資本形成의 50%를 充實 上廻하는 高水準에 達하고 있으며 61年以後 그 水準이 低下되고 있으나 57~63年 全體를 通해서 볼 때 總 資本形成의 44%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國防費의 負擔으로 인한 潛在的 資本形成額의 壓縮效果는 年平均 國內資本 形成額의 44%로 推算할 수 있으며 이 壓縮效果를 諸外國에 比較해 보더라도 美國의 58.3%를 위파르는 높은 수준이며 戰後 類例없는 高度成長으로 經濟繁榮을 謳歌하고 있는 西獨과 日本이 各各 16.7%、6%임을 考慮할 때 그들의 高度成長이 「莫重한 軍事 費負擔」으로부터의 解放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겠다.

同期間에 있어 國內總 資本形成의 50%에 該當하는 財政投融資와 國防費를 比較하더라도 後자가 前者의 96.2%로 거의 對等한 水準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國防費가 財政投融資의 增大와 租稅負擔의 輕減을 通한 民間의 自發的 貯蓄의 增大로 全部 資本形成에 動員되었다고 假定하면 GNP의 6%에 達하는 資本形成의 增加로 資本係數를 3이라 하면 年 2%의 經濟成長率을 提高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過重한 國防費는 量的 側面에서 資本形成을 沮害했을 뿐만 아니라 財政赤字를 通한 惡性「인플레이션」을 惹起시켜 資源의 浪費를 招來했던 것이다.

1953~64年 동안에國防費의 9.3%를 中央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으로 調達했는데 이것은 同期間中の 通貨增發總額의 32%에 達하는 것으로서 意欲過多했던 財政投融資과 더불어 休戰後 慢性的인 惡性「인플레이션」의 主要原因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惡性「인플레이션」의 계속은 投資의 量을 壓縮할 뿐만 아니라 投資의 生産性도 低下시켰다. 換言하면 이러한 惡性「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적은 生産資源의 誤用을 일으켜 國民經濟를 攪亂시킨 뿐만 아니라 短期的인 在庫投資乃至는 商品投機를 助長하고 長期的인 固定投資의 경우에도 호화스러운 住宅이나 建物과 같은 非生産的인 不動產投機를 刺戟함으로써 投資方向을 誤導하고 資源浪費를 促進시켜 그 結果 慢性的인「인플레이션」의 進行은 總資本形成에서 차차하는 生産的인 投資의 比重을 현저히 萎縮시킴으로써 資本의 生産性을 低下시켰다.

(3) 國防과 勞動 및 土地

國防에는 많은 經費뿐만 아니라 人力과 土地가 所要되는 것이다.

國防을 爲해 直接 必要한 兵力數만도 60萬으로서 相對的으로 先進國에 比해 적은 經濟活動人口의 比率을 減少시키고 있다. 軍은 國土 防衛라는 無形財를 生産하는 第3次産業에 屬하는 것이므로 가장 活動이 강한 靑壯年 60萬을 軍이 包容하고 있다는 것은 短期的인 觀點으로 볼 때 經濟發展에 적지 않은 沮害要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國防의 目的으로 軍에서 徵發하여 使用하고 있는 土地 역시 絕對的으로 不足한 耕地面積을 考慮할 때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面이 적지 않다 하겠다.

3. 國防이 經濟發展에 寄與하는 面

軍은 外國으로부터의 侵略을 防禦하고 國內治安을 維持함으로써 國民經濟가 活動할 수 있는 舞臺를 마련해 주는 重要한 任務를 擔當함으로써 有形財貨의 生産단을 生産勞動이라 하여 非生産 勞動을 輕視하던 「아담 스미스」조차도 國防을 國家의 至上 課題의 하나로 重要視했던 것이다.

軍은 國土防衛라는 基本任務 遂行過程에 있어서 直接으로 經濟發展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다. 先進國에서는 有効 需要의 不足으로 因한 過剩生産을 解決해주는 突破口로서 經濟의 軍事化가 試圖된 史例가 적지 않으며 戰後 西歐經濟가 커다란 景氣의 波動없이 完全 雇傭을 達成해 가면서 高度成長을 持續해 온 데는 宇宙開發費와 함께 冷戰激化에 따

은國防費支出의 增加에 힘입은바 큰은 西歐의 學者들도 認定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特히 傳統社會에서 近代化에로의 過渡期에 있는 後進國의 經濟發展에 軍隊가 커다란 寄與을 하고 있음은 「밀러칸」教授가 強調하고 있다.

첫째, 道路, 橋梁, 鐵道, 港灣, 通信施設 等の 社會間接資本의 建設이다.

이러한 社會間接資本은 國防이라는 至上課題를 達成하기 爲해 建設된 것으로 一定期間동안 軍만이 使用하는 경우 도 있으나 이것이 外部經濟의 創出을 通하여 經濟發展에 寄與하는 面이 크다 할 수 있다.

休戰後 前後方에 있어 軍用道路의 建設이 每年 活潑히 進行되었으며 5·16 革命 直後 國土 建設團에 對한 軍兵力 및 裝備動員은 좋은 實例라 하겠다.

둘째, 文盲率을 低下시키고 技術을 普及시킨다. 農村出身의 많은 文盲者가 軍에 入隊하여 國文을 解得게 되며 車輛 武器 其他 諸裝備의 取扱 및 使用에 關한 教育을 받고 直接 使用함으로써 工業技術의 基礎를 더욱하게 된다.

또한 船舶, 航空機, 通信, 電子機械와 老大한 組織을 能率的으로 運用함으로써 資本管理技術의 發展을 先導하는 役割도 한다.

셋째, 近代市民 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增進 普及시킨다.

過渡期 社會에 있어서 軍隊는 다른 어떤 組織體보다도 일찍 近代化되어 合理的인 組織과 運營이 이루어지므로 地緣血緣中心의 前近代의인 共同社會로부터 能率과 共同利益을 目標로 合理的으로 運營되는 共同體의 一構成員으로서의 資質을 軍隊生活를 通해 涵養한다.

특히 農村出身의 軍人은 現代化된 軍 및 都市生活를 農村에 移植시키는 中繼所의 役割을 擔當하게 되어 二重社會를 解消시키는 役割을 하게 된다.

4. 結 論

政策的 提議

國防을 爲한 資本, 勞動, 土地等의 資源의 過重한 支出은 資源이 不足한 韓國經濟의 發展을 阻害하고 있으나 反面 國防의 附隨的인 效果이긴 하지만 社會間接資本의 建設, 技術普及, 精神教育等 經濟發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살폈다. 그러나 國防이 어떻게 經濟에 寄與하는 面이 있기는 하지만 國家의 存亡을 左右하는 國防問題가 國家

의死活을 左右하는 經濟發展에 가장 큰 阻害要因이 되어 왔으며 外援의 減少傾向과 國防費의 增大傾向을 考慮할 때 國家 安全保障과 經濟發展이라는 兩問題의 調和의 解決策을 摸索하는 것이 緊急한 當面課題라 생각되므로 약간의 政策的인 提議를 함으로써 이 小論을 맺고자 한다.

1. 消極的 方案

첫째 國防費의 對美依存度가 莫重한 處地에 비추어 對美外交를 강력히 展開하여 軍經援助의 減少를 막도록 努力해야 하겠다. 勿論 美國의 國際政策이 韓國의 特殊한 狀況이나 강력한 外交活動에 依해 轉換되거나 韓國만을 特別히 우대해 주리라 樂觀할 수는 없으며 經濟開發計劃의 實施과 越南派兵에 따라 軍援移管計劃이 中斷되었음을 想起할 때 全히 無成果하리라 悲觀만 할 問題는 아니다.

한편으로 總軍事費의 殆半을 負擔하는 美國도 軍援移管計劃 등에 依해서 國防費의 國內負擔을 增大시키기 以前에 韓國經濟發展이 보다 積極的인 支援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特別히 軍需物資의 國內調達에 對備하여 軍需産業의 發達에 보다 강력한 支援이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머지않은 將來에 國防費를 自體負擔해야 할 處地에 놓여 있으며 또한 그것이 原則的인 것이라 할 때 增接 努力은 消極的이며 彌縫的인 方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國內의 努力으로서 國防費의 節約이 切實히 要請된다.

現下 韓國의 軍事의 事情으로 兵力 減縮에 依한 國防費의 節約은 論議의 餘地가 없으나 不要不急한 經濟支出이나 其他 經費의 濫用이 全無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經費節約의 餘地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軍用地의 많은 部分이 遊休地로 버려진 채 있으므로 이를 副食調達 主食의 補充을 目標로 하는 自給生産活動을 振作시켜 國防費의 節約을 期해야 하겠다.

2. 積極的인 方案

國防費의 美依存 계속이나 節約에는 明確한 限界가 있음을 考慮할 때 國防과 經濟發展의 調和的 解決을 爲한 積極的인 方案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다.

換言하면 國防費支出의 生産의 效果를 提高시키기 爲하여 軍隊를 直接 經濟發展에 利用함으로써 國防費의 負擔을 間

接으로節約할 수 있는 方案의 講究가 時急하다.

이러한 方案으로 첫째 大規模 組織과 機械한 機動力을 지닌 兵力과 裝備를 直接 社會間接資本의 建設 및 擴充에 이용하는 方案이 있겠다. 軍隊를 直接 經濟發展에 이용한 例는 「Aarvik」의 「더어키」와 中共에서 그 實例를 求할 수 있으나 그들과는 狀況을 달리 하는 韓國實情을 勘案할 때 軍의 產業的 이용 卽 生産軍으로서의 軍의 性格轉換에는 明確한 範圍의 限定이 不可避한 것이지만 平和時에 軍의 一部를 經濟開發에 積極 參與시킬 必要성과 可能性은 存在하는 것이다.

現在까지는 非計劃的으로 非組織的으로 軍의 對民事業의 일환으로서 또는 災害復舊事業으로 軍이 產業活動에 間接的으로 直接 參與해 왔으나 보다 組織的이며 計劃的으로 보다 廣範한 參與를 爲해서는 經濟 및 技術專門家와 軍指揮官의 協議體를 指揮機構로 하고 兵力의 一部를 差出하여 「生産軍團」을 組織한 것을 提議한다. 生産軍團의 산하에는 各師團에 位置할 「生産大隊」와 特殊한 事業이나 技術을 要하는 個別事業과 軍이 駐屯하지 않는 地域의 開發事業에 動員될 特殊生産部隊를 둔다.

生産軍團의 軍事活動은 主로 道路 및 鐵 建設, 通信網의 設置, 水利 및 灌溉施設 建造, 測量事業等의 社會間接資本의 建設이 主要 活動이 되겠지만 또한 軍 自給을 爲한 農作物栽培 역시 重要한 活動이 되겠다.

이러한 軍의 經濟發展에의 積極的인 參與는 軍民合心の 霧圍氣 造成에도 密與하는 附隨의 效果를 얻을 수도 있겠다. 勿論 生産軍團의 創設과 活動에는 戰鬥力의 消衰, 經濟的 效率性, 民間經濟와의 競合等의 考慮가 前提되어야 하겠다. 軍隊를 經濟發展에 이용하는 方案으로는 全將兵으로 하여금 그 資質의 程度에 따라 技術教育, 管理教育, 精神教育을 實施하여 軍服務期間 軍人으로서의 任務를 다하고 軍務를 마치고 轉役하였을 때 生産하는 市民으로서의 職分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小論에서는 하나의 政策의 方案의 提示를 試圖해 보았을 뿐이니 經濟的 基盤없는 國防力은 空虛한 것이며 國防 없는 經濟發展은 不可避한 것임을 생각할 때 國防과 經濟發展의 調和的 解決을 爲한 努力이 계속 傾注되어야 하겠다.

△編輯者註 本原稿는 筆者가 空士第3學年 在學時 陸士로 催 제9회 「전국남녀대학 학술 세미나」에서 우수상(합동참모회의 의장상)을 받은 것이다. <

◇趣味◇

藥水터 周邊

金 喜 鍾

△時事通信社長▽



趣味가 規
模있는 生活
이나 精神的
인 餘裕의 副
産으로 道樂
이라는 말과
도 通하는 自

己生活를 享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면 그러한 意味에서는 요즘의 40代는
昔 不遇한 時代의 逆流 속에서 살아 온
것 같다.

少年期는 日帝의 侵略戰爭의 渦中에 있
었고 解放 6·25사면 등 急流에 휩쓸
려 오는 사이에 어 느덧 青年期 고비를 넘
어 이른바 壯年期 문턱에 와 있으니 그

◇趣味◇

세월들은 生活의인 社會의인 基盤을 닦는
데 매어서 살아 온 셈이 되었다.
그래서 막상 내 놓으려고 보면 두드러
지게 趣味라는 것도 없이 지내왔다는 것을
세삼 確認하게 된다.

그만큼 自己個人生活에 不充實했고 人
生을 無味乾燥하게 지내왔다는 말도 될
것 같다.

사람은 平生을 60年이라고 볼 때 그 3
分の 1인 20年은 자느라고 消費하고 出
勤해서 退勤까지는 職場에 매이고 보면
정말 自己人生을 즐기는 時間은 짧다. 그
나만도 술잔이나 親舊들과 어울려 노닥거
리다보면 어차피 空手來 空手去라지만
정말 너무 虛無해진다.

젊을 때 한결같이 내세우는 讀書라는
趣味는 하나의 傾向이지 嚴密한 意味의
趣味일 수는 없을 것이다. 趣味는 그 사
람의 性格 生活로 自己 나름일 것은 勿
論이고 그 옴 속에서 自己를 매만지고 다

◇趣味◇

듬고 음미하는 한 方便이 아닐까 싶다.

요즘 하나의 流行인지는 몰라도 젊은
층에 「성남」을 모은 다든가 「軍徽章」을 모
은 다든가 하는 「코믹선」趣味가 盛行하는
것 같은데 人生의 成熟과 餘裕를 뜻하는
것 같은 호젓한 느낌이이다. 그래도 덤을 부
친다면 보다 積極의인 意味에서의 自己生
活과 그 흥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면 더
욱 좋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도 近年에 와서는 趣味라기 보다는 西
歐의인 思考의 Hobby라는 뜻의 生活習癖
같은 趣味를 갖게 되었다.

이 이야기기가 氣像 높은 空軍의 보라매들
에게 받아질가를 생각하면 勇氣를 잃게 되
지만 그래도 나의 나름이라는 自慰에서 敢
히 붓을 들었다.

即 아침 6時頃에 일어나서 비슷하게 登
산을 兼한 아침 散策을 約한 시간하는
것이다.

藥場洞집을 出發해서 南山八角亭을 거

◇趣味◇

◇趣味◇

저 藥水터로 가서 南山放送局 앞길로 돌아오는 코오스인데 約 40餘分이 所要된다.

이 藝場洞 코오스가 藥水터行으로는 가장 險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그마한 운동이 지만 自己의 健康能力을 再確認하게 된다.

結局이 習癖의 趣味인 藥水터行 散策은 따지고 보면 健康保存의 方便에서緣由된 것 같기도 하다.

藥水터에는 10餘年을 하루같이 다니는 60客들에 依해 南山健親會라는 「시어클」이 만들어져 있다.

人生의 막바지에 선 그 老古들의 藥水터行은 한결같이 健康保存에 있고 사실 山길을 올라와 藥水 한 잔을 마시노라면 設使 그 물이 水道물과 같은 성분이라도 藥水의 効力을 몸으로 느낄 것 같이 된다. 原始的의 이진해도 그것은 곧 非은동의인 데서 始作되는 機械化都市의 副産의 必要惡의 分泌 속에서 本然의 自身을 찾으려

◇趣味◇

는 抵抗의 試圖가 아닐 수 없겠다.

더우기 頂上에서 寂寥한 市街의 俯瞰展 望은 浩然之氣에 自信을 갖게 한다. 속이 후련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자신이 「코오스」에서 老古들의 經驗談과 數年을 東樂洞에서 藥水터에 오신다는 張德昌將軍(前空軍總參謀長)이나 10餘年을 두고 「山길」茶房에서 아침 「커피」를 드신다는 高在旭(東亞日報 社長)氏 같은 분과의 歡談은 좋은 社交일 수도 있고, 그 體驗談들은 산 良識이기도 하지만 60客의 切實함이 스며있다.

그분들은 아침 登山이 큰 日課의 始作이라 했다. 趣味가 習慣이 되어 生活化한 것이다. 머칠을 쉬면 몸도 不便해 버리고 머리도 흐려지는 때가 있어 日課가 엉망이 된다는 심자한 이야기다.

이쯤되면 趣味도 20代의 氣分領域이나 30~40代의 利己領域을 벗어나 生活的의 이라기보다 切實한 原點으로 歸一하는 사실

◇趣味◇

다. 趣味라기보다는 生活로 性格의 趣味의 힘을 立證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또 趣味는 없거나 매일반이 되는 것 같다. 산다는 것의 많은 表現과 方便에 循環의 奧妙함도 그제 있는 상심나.

인제 성기영

成慶麟

△國立國樂院長▽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애타게 그리는 연인이었다. 그러나 그 연인하고는 결혼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런 비련으로 끝나야 하였다. 그러니 자연 결혼은 애인 아닌 만사람으로 낙착이 될 밖에 없다.

◇趣味◇

◇趣味◇

나의 직업은 이르자면 바로 이런 경우와 광분하다 할 것이다.

나는 문학을 주기로 동경하였는데 인연은 그 아인파 맺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애인 아인 베릴이라고 한 평생 비운이라고 읊부짚지는 아니하였다. 얼마나 잘 공경하고 존중하였는가는 몰라도 그의 음악에 이 날 배어달렸고 그러면서도 문배에도 그러는 문학애의 미련은 또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스스로도 파하다.

일이 이쯤 되니 국악은 존엄한 직업이 되었고 문학은 취미인 위치로 고정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책을 좋아한다는 것은 위의 서술로서 어느만큼 짐작이 설 것이다.

가려서 읽는가는 몰라도 나는 어려서부터 소설이라든가 무엇이나 열심히 탐독하였고 지금도 문학자의 창작관은 빼지 않고 주위 읽는 축이다.

읽는 것으로 만족치 않고 스스로 쓰고

◇趣味◇

싶은 흥동을 또 어찌지 못해 신문이나 잡지의 어떤지런 청탁을 나처럼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도 드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글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비록 수필이요 잡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무슨 창작이라도 쓰는 것같은 착각에 젖어 한결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별로 자랑일 것도 없어 내세우지도 않고 그러니 그 저 가까운 사이에는나 알고 있는 터이지만 그동안 내가 소비한 원고지의 분량도 계산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하여 방송된 라디오 창규이요 국악무대를 성운봉이란 이름으로 장장 10여년을 계속하였으니 스스로도 대견하다.

매주 한편씩 교박교박 써내야 하였었고 회치는 대개 50장을 내리지 않았다. 작주의 여가인 것이다, 집필은 반드시 일요일

◇趣味◇

이 되었고 전방지개 일요일 없는 생활이라 해도 짜증도 없지 않았으나 주간잡은 원고로도 그거요 무엇보다 젊은 날의 꿈을 그런 제작으로 달래고 있는 것도 되어 일요일이면 등산이나 낚시다 하는 부대은족 후에는 매일 바가 못되었으나 즐거움이 또 그 속에 있던 것은 물론이다.

월일인지 저절로 잔흥이 일어 그렇게일 고지에 대하는 일이 나에게 전혀 없다. 아마도 이전 내 생활이 별로 한가하지 않은데서도 오는 거지만 그렇게 바쁘이되어 있지 않은 때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사의 청탁을 정녕 고맙게 여기고 있다.

약속은 하고도 짧은 글 몇 장이라도 다 써 놓고야 안도를 하는 그런 소설이면서 이래도 이렇게 한 편 두 편 모이는 재미를 또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많이 읽고 많이 지으라는 것이 옛사람의 교훈이지만 꼭 많이 지으려는 욕심보

◇趣味◇

◇趣味◇

다내 마음을 내 생활을 보다 풍요히 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더 좀 넓게 많은 책을 읽으려고 버린다.

下午의 靜思(바둑)

鄭 成 煥

△翻譯文學家▽



오래동안 서울 안에 간혀 살다보니 이따금 우물 속의 개구리라는 말이 聯想된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끔 旅行을 떠날 機會를 가져 볼 만한 처지라면 그렇게도 앉겠지만 몇 해를 두고 旅行다운 旅行 한번 못해 보고 있으니, 우물 속에 서만 이리 뛰고 저리 뛰우는 개구리 신세와 같다는 한탄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하루밤만 자

◇趣味◇

고나도 늘어나는 人口와 여러가지 騷音이 무서운 壓迫이 되어 神經을 못살게 굴고 있다.

요즘 내가 며칠에 한 번씩 棋院을 찾아가서 고요한 때를 보내는 것을 唯一한 나으로 삼게 된 때에는 답답하면서도 시끄러운 都市 生活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잊어 버리려는 심정에서 인저도 모른다.

내가 처음 바둑을 익히게 된 것은 벌써 23 24년 전이다. 中學 시절에 同宿하던 어느 學友한테서 배우기는 했으나 그 후 부지런히 들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가 釜山에서 避難生活을 할 때 처음 생기기 시작한 棋院에 간혹 드나들면서 차츰 級數도 높고 그 眞味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激務에 시달리다가 오랜만에 바둑판 앞에 앉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가라 앉고 자질구레한 雜念이 짝 가지면서 아늑한 雰圍氣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勝負를 겨루는 동안의 無我的 境地에 自己를

◇趣味◇

담고 있는 동안만은 시름 많은 婆娑世界에서 완전히 벗어난 解放感의 極致를 맛보면서 온몸을 즐다를지는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모든 運動競技가 勝負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參加에 의의가 있듯이, 바둑 역시 그런 精神을 獲得하지 않고서는 神仙들음에 도끼 자루는 다 7는 그 참말을 즐길 수는 없다. 이걸, 생각만 하고 局面을 좋아하면 勝負 때의 失望은 그만큼 크며, 조금한 性格의 사람은 不快感마저 느끼게 되어 그 날 하루의 즐거움이 半減하게 된다. 어지러운 世上事를 잊고 思索에 集中하는 데서 精神의 休養을 취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 데서만 바둑의 妙味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趣味이며 休養의 한 方便에 그쳐야 하지, 日常生活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잊혀 놓고서까지 거기에 빠져 버려서는 안 된다. 棋院에 가 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出勤하다시피

◇趣味◇

◇ 趣味 ◇

달마다 나와서 마뜩으로 消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중 되면 完全히 中毒이라 하고 아니 할 수 없다. 失職을 했거나 老後에 할 일이 없어진 閒暇한 이들 같으면 首肯이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버젓한 職業人이 재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欲望 때문에 마뜩판에만 앉아서야 자기가 해야 할 일, 맡은 일을 充實하게 할 수 없을 것은 確한 인이겠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趣味生活을 즐기는 경우에도 中庸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文學의 消費

崔 殷 範

△延世大·講師
△空軍V誌

의 編輯室로 부터 △나의 趣味V라는 題目으로 글을 써달라는 請託을 받고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注文의 하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 理由는 △趣味V라고 이룰할 만한 것 特別有形的인 趣味對象을 참말로 生活속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請託人의 期待를 失望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窮餘之策으로 한글辭典의 어느 페이지를 뒤져거나 △趣味V라는 말이 △어떤 美的對象을 鑑賞하고 判斷하는 能力V이라고 解說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 趣味라는 말과 類似한 것이 조각들이라도 할 때 주어 모아서 내 나름의 趣味組立을 하여야겠기에 이 글을 쓰기로 한다.

高等學校를 卒業하고 進學할 때 이야기이다. Y大學校의 入學願書를 사다가 내 손으로 적어넣은 志望科는 國文學科였다. 文學을 專攻해 보겠다는 心思입이 分明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周圍에 있는 權力病的 어른

들의 勸誘와 壓力으로 그것은 一躍(?)法學科로 變해 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 후 나는 法學分野에 몸을 싣고 研究生活을 繼續하여 現在 母校에서 法學講義를 擔當하는 身勢로 어쩔 수 없이 굳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나의 大學 學憲時節을 돌이켜 보면, 文學에의 未練에 가득찬 外道의 過程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勿論 다른 理由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저어도 내가 法學徒임에도 不拘하고 그 많은 學友들이 다 처분 高等考試에 願書도 한번 못 썼던 것이 主因은, 文學에의 鄉愁가 내 말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서슴지 않고 말하고 싶다. 이웃의 E女

大와 合同으로 開催되는 △文學의 午後V나 △文學의 밤V엔 빠지지 않고 參席했으며, 또 어찌다가 認定을 받아 프로그랜에 오르면 북바치는 感激을 누르면서 嚴肅하게 못 視聽의 集中엔 壇上에 올라가 自作詩朗讀도 했다. 또한 校內新聞에 習作詩

◇ 趣味 ◇



◇ 趣味 ◇

◇ 趣味 ◇

◇ 趣味 ◇

를 몇 번發表하고學會誌에도 나의創作小說이活字化되는등한法學徒의外道는 자못甚했다. 그때 같은 길벗으로 어울렸던學友了君은 오늘날詩壇의中堅으로 있으면서,只今도 나를 만나면文學에의入門을은근히중용하기 일수이다.(이상은 너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늘어 놓은 너 두리가아닐을 독자들께서 이해하시길...)

그러나 나는 일찌기나 자신의文學에 대한 강한熱意가 하나의趣味的傾向이지 天的으로內在하는素質이 못된다는 것을 일찌기發見할 수 있었던 것을 多幸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는人文學의生産이란 莫重한領域엔敢히 손을 대지 않으기로 하였다. 다만,文學을 아끼고 사랑하던 내 마음이었기에, 그殘影은亡靈처럼 나의感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결과 나는文學作品을 吟味鑑賞하고 또 내 나름의批評까지 해보는 것은確實히 나의趣味가 된 것이다. 現代經濟의原理가生産

◇ 趣味 ◇

과消費의均衡을重要視한다면, 오늘날文學이그消費人口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우리나라에서着實한人文學의消費人口층에 내가 건다는 것은 자랑스럽기만 하다.

나의文學趣味는 크게 세가지로組立된다. 첫째로 매달 教養誌나 純粹文藝誌에 실리는 作品(특히 小說)을 읽고 나서 는 그 뒤엔新聞이나雜誌에 실리는文學評을 꼭 찾아서 읽는다. 둘째로는外國作 品의 경우, 作家中心으로 읽는데 그의代 表作品과 다른 作品을 적어도 5篇을 읽 음으로써 그의文學思想에 관해體系를 세 워理解하려 한다. 셋째로는 國內文壇의 方向을 캐치하기 위해 해마다 各新聞에서 公募하는 新春文藝入選作品과 關係記事 를 모조리(○)오려서 스크랩해 두고 읽 어 보는 것이다.

大學卒業 謝恩會 때 어느親舊가 나를 이 살스레紹介하느라고 八法·文學專攻生

◇ 趣味 ◇

이라고 해서 여러사람을 웃겼던記憶이난다.事實내體質에는冷嚴한法學과多情多感한文學이共存하고 있는셈이다. 그러나文學이란 다른 말로 人生에 관한學問이라 할 수 있을진대, 人生의秩序를 세우는學問인法學의教壇에서 古典世界文學作品 가운데 나오는事件을 引用해가던C教授의講義가 매우 구수하고人氣 높았던 것을回想하면, 이 두가지가 내안에 서 平和로이共存할 것이라 自信이 든다.

환상 속에서 그림을

吳澄子

△梨花女高教師▽



나는 취미가 다양한 편이다. 음악도 좋아하고 운동도 즐긴다. 연극과 그림을 사랑하는

◇ 趣味 ◇

◇ 趣味 ◇

가하면,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크다.

먹는다는 것보다는 마시는 것을 훨씬 좋아 하지만, 이틀이면 커피와 배주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파듯해진다. 단 이는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만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까닭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 좋은 영화는 물론 그렇지 못할 수 없다. 그럼 여행은? 여행이란 생각만 해도 가슴의 설렘이 난다.

흔히들 취미를 독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내 경우엔 독서를 취미라고 할까? 말할 수가 없다. 책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내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반면에 무한한 노력과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책을 손쉽게 적당히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제부터 이런 확신이 섰는 지는 모르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내 필생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버렸다. 책을 읽을 때 나는 반드시 책상 앞에 정좌하고

◇ 趣味 ◇

굳은 자세로 읽는다. 마치 천신을 그 일에 투신하는 것처럼. 그때서인지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취미라고는 선뜻 말이나 오질 않는다.

여행은 지금까지 나열한 여담까지 일들은 나에게 인생을 긍정하고, 이 세계를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하는 커다란 뒷받침이 되어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따금 한가할 때 혹은 쓸쓸할 때,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몇 쪽의 그림이 있으니 그 때마다 나는 진기한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것은 바로 『고호』의 구리빛 황금의 해바라기일 수도 있고, 『무오』의 적갈색 피얇일 수도 있다. 저두반은 시인인 『아르포』의 음산하고 우울한 영혼을 노래한 『뫼베』의 초상화일 때도 있다.

나는 그림을 좋아한다. 학교 다닐 때는 전람회도 꽤 다녔고, 잡지에서 그림을 많이 오래 내었다. 활자가 뒤에 가득히 비

◇ 趣味 ◇

치는 초라한 그림들이 지금은 그리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 알찬 종이에 찍힌 강렬한 색채와 청상은 아직도 내 머리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나는 수시로 그림들을 회상해 본다. 그리고는 앞에 보이는 대상들을 놓고 나름대로의 색채와 형상을 부여해 본다. 환상 속에서 내 스케치는 무수히 지워지고 채색되었다. 여행을 떠날 때,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은 스케치북을 들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거나 쓴다. 나의 그림은 오직 환상 속에서만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오직 생각할 뿐이다. 그러면 달에 나는 수시로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커피에 합승안에서 내 앞에 앉았던 한 노인의 길은 주름살을 보고 여러가지 그림을 생각해보았다.

◇ 趣味 ◇

존 · 스타인백

朴 昌 烈

作家로의出發

「스타인백」은 1902년 2월 27일 캘리포니아州 「몬트리郡」 「셀리너스」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같은時代의作家 「해밍웨이」(1899년생), 「포크너」(1897년생), 「존·도스·파소스」(1896년생)와 나이는 그리 큰 차이는 없지만, 그文學활동은 연대적으로 몹시 뒤떨어진 감이 있다. 그들이 一次大戰 직후의 허무와 절망의 사조를 정면으로 反映한데 그는 별로 관련이 없었으니 말이다. 하물며 「파리」클럽의 화려한 활동에도 전혀 어울려든 정향이 없고 소위 「질량은 世代」에 속하는 일도 없었고 「시카고」文壇에 知

友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골의 일개 대학생으로 시골농장의 아들로 자라던 그였다. 그러나 作家生活에 대한 꿈은 차차 굳어져 그는 마침내 완전히 대학을 중퇴하고 「파나마」를 하를 거쳐 가는 화물선편으로 「뉴우욕」을 찾아가다.

그 당시 「뉴우욕」이라면 文學青年들의 꿈의 서늘이었다. 당장에 배가고픈 시골 青年 「스타인백」은 마침 신문기자로 취직이 되었다. 그러나 기자의 사명은 「사실」을 말끔하게 재빨리 보도하는 데 生命이 있었으니 그의 생리와 희망엔 맞지 않았다. 신문사를 나온 그는 혹은 벼돌나르기, 「케인트」조수, 혹은

약종상 혹은 하루 품팔이꾼으로 천천하면 서 밤을 벌어들이다가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오자 「세라·네바다」山中의 「타호」湖 옆의 어느 별장저기로 취직이 되어 마침내 한가히 들어앉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앞서 「뉴우욕」으로 올라가던 길에 「파나마」지방에 잠시 묵는 동안에 素材를 마련해둔 海賊 「헨리·모건」이 야기를 엮어서 『金盞』라는 「로맨틱」한 장편으로 꾸며냈다. 이것이 나온 것이 1929년 그의 처녀작이었다.

『핀노크』 포도처럼 『에서 본

그의思想

1929년이 라면 미국 金融界에 大恐慌이 휩쓴 유명한 해다. 「해밍웨이」의 大作 『武器』 잘 잊겨라! 며, 「레마르크」의 『西部戰線 異常었다』가 출판된 것도 같은 해였다. 戰後의 虛無한 失望 속에서 自我의 再生을 찾아 사공치는 거센 時代思潮가 『金盞』뒤에 「로맨틱」한 옛날 얘기를 좋다고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의 處女作은 참패했다. 몇 부도 팔리지 않았다. 그

러나 하여튼 이것으로 그가 일개 作家로 출발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후부터 그는 作家로서 자기의 세계를 찾아나아갔다.

그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점도 고향 「벨리더스」 일대의 산과 계곡을 자기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다. 거기에서 사는 소박한 농사꾼들의 생애, 그 속에 사는 못생물, 지저귀는 참새, 밤에 우는 송냥이 소리, 자연의 속삭임에 그대로 통하는 원시적인 인간들의 소박한 감정, 이런 것이 그의 독자적인 세계를 열어 주었다. 그리고 이 세계를 그는 거칠없이 그려 나아갔다. 그의 문학은 이런 세계 속에서 차차 익어나갔다.

둘째번 작품 『하늘의 목장』은 章마다 독립한 短篇이면서 전체가 그 계곡지대의 하나의 風俗圖를 이룬 것이었다.

그 계곡지대에서 살고 고민하고 울적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叙情의으로 그려낸 사랑스러운 作品집이다. 이 속에는 어떤 象徴의 세계가 엿보이기 시작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역시 그다음 작품

『未知의 神앞에』와 같이 번번히 팔리지 못했고 궁한 생활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네번째 작품 『토리야村落』은 잘 팔렸다. 비로소 그의 이름이 인정된 셈이었다.

『몬트리』 근처 산속에 「파이사노」라는 「스페인」·土人·「멕시코」系 混血族이 사는 데 그들의 천하대평한 生態를 그린 作品이다. 인제나 우정과 信賴를 의지하여 키리끼리 모여 난탕으로 재미나게 살아나가는 이 야릇한 種族과 그 生活를 作家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 原始的인 人間相互의 信賴, 약삭빠른 文明社會에 對한 抗辯이 더한 것이 그 主題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윽고 나온 것이 『勝算 없는 싸움』 『켈리호오니아』 州의 과수원 일꾼들의 동맹파업을 소재로 삼은 作品이다. 좌익 소설이라고 주목을 끌었지만 진짜 좌익들한테서는 政治性이 퇴박하다, 선동력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았다. 作家로서는 政治의 左右보다도 짓눌린 人間들의 강인한 生活力—生存을 위한 끈세 抗爭—에 焦點을 두었다고 볼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그 시대를 휩쓴 세계적 不況과 공산주의의 침투가 또한 농동자 농민을 잘 아

는 「스타인베」의 마음 속에 어떤 영향을 안 끼쳤다고 보면 그것은 안 될 말이다.

현실을 直視하여 조금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이 솔직대담한 표현력을 갖추게 된 것은 作家 「스타인베」로서 큰 소득이었다. 그러나 그는 좌익작가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의 抒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人間の 全面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생쥐와 人間』 이것으로 그는 처음 성공했다. 현실과 서정이 얽히며 詩的 분위기를 풍기어 독특한 세계를 마련해낸 이 作品은 그 구성이 회곡을 본만 것이었다. 「뉴우유」에서 회곡으로 상연되어 2백7회라는 장기간연의 기록을 냈다. 우리 나라에도 번역이 이미 나와 있다.

이때 벌써 大作 『忿怒는 葡萄園처럼』의 구상은 서 있었다. 1937년 1월 그가 자기 出版人 「매킨토쉬·오우더스」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 作品이 어느 정도 긴장력이 될지 아직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생쥐와 人間』이 소설과 연극으로 대성공을 거둔 덕분에 거기서 나온 돈으로 그는 부인 동반으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여행했다가 돌아온 후 그대로 원고를 계속했다. 이듬해 1938년 9월, 마지막 原稿로 넘어서면서 저우 題名을 결정했다 한다. 『홀륭한 작품이 되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지? 균형이 제대로 잡혔는지 어떤지 나로서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뜻의 글을 出版業者에게 보내고 있는데, 출판되자 세상이 떠들썩하게 책이 많이 팔렸다. 작가 본인도 놀라고 당황했다. 강연회나 뵈니 자꾸 물어다니는 바람에 일이 잘 안 돼서 그의 知友 海洋生物學者 「리케츠」 박사와 함께 「백시교」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한다. 농민출신의 作家라 그는 社交에 능숙치 못하고 지결이기를 꼭 싫어한다는 世評이다.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O. 레니 단절選』에 解說者로 그 畫面에 나타났었는데, 역시 그런 성격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 듯했다.

『忿怒는 葡萄처럼』은 갖가지 이야기 다 채워놓고 힘차게 워힌 大長篇이다. 우선 미국 남서부 「오를라호마」州의 농민 「조오드」一家가 자연의 災害와 경제적 곤색과 또한 농업기계화로 말미암

은 사회변동에 물려 자기 집과 땅을 잃고 고향을 쫓겨나 「켈리포니아」州로 옮겨 가서 고생을 계속하는 미참한 모습을 중심으로 그 당시 미국의 큰 사회문제를 소재로 삼은 장편이다. 作家 「스타인백」의 경험과 재능은 여기에 集大成된 감이 있고 그 迫力과 多面性을 따를만한 작품을 그 후의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1929년 大經濟恐慌을 수습하려던 미국정부의 「뉴우딜」政策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大不景氣의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고 수많은 失業者가 공궁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익사업가, 금융업자, 대농장주들은 도처에서 謀利만 꾀하며 정부시책을 막치고 있었다. 『나는 어서 가 봐야겠오, 가서 내 힘으로 저쪽 일농들의 대장통이라도 까부술 방도를 알아 봐야겠오. 이것은 「스타인백」이 당시 자기 출판인에게 보낸 글이다. 살인죄인 모리배들의 공통을 쳐부수겠다고까지 그를 격분케 한 義憤이 이것이 곧 『忿怒는 葡萄처럼』을 완성하게 된 직접 동기가 된 것 같다.

25판을 헤아리는 땅일은 淨潔農民들이 희망의 나라 「켈리포니아」에 모여들었으나 노동력은 남아 돌아가고 품상은 大農場主 마음대로 짊어내리는 판, 온 집안 이나가서 해가 저물도록 쉬지 않고 일할 해도 겨우 한 끼를 버기 힘들 정도, 그러나 그런 일자리라도 걸리면 다행이었다. 단제항쟁을 해 보려 해도 그러면 곧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여 머무니없는 박해를 하는 바람에 별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발달하는 「오우키」(흔시 「오를라호마」의 농민이라는 뜻)들의 힘주림은 차차 분노로 변했으니 「켈리포니아」의 肥沃한 平原에 포도는 주렁주렁 소담스레 열매를 맺었지만 移住農民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었고, 한편 이주농민들의 가슴속에는 그 葡萄처럼 忿怒만 부르익더라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이다.

1939년이 작품이 나오자 이것은 社會問題를 다룬 한낱 抗議文學이다, 좌익이다 하는 소리가 많았고 애초부터 이 작품은 단순히 社會問題를 다룬 한낱 抗議文學으로만 인식되어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도 이 작품은 미국의 사회

현실을 폭로한 것이라 하여 미국에 敵
意를 품고 있던 나라, 특히 「나치스」독
일에서 선전에 많이 이용했다.

물론 前作 『勝算없는 싸움』과 함께
『忿怒는 葡萄처럼』 역시 노동문제, 사
회문제를 취급한 점은 左傾한 소위
△33년대 작가V들에게 공통한 社會寫
實主義라는 時代풍조에 안 끌렸다고 보
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社會學的 傾向은 藝術的
傾向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 全篇을 감
싸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原始的 「후
머니즘」이요, 그가 내세운 것은 庶民의
생활의 원동력을 이루는 원시적인 생활
력이요, 그가 사랑한 것은 그들의 생활
자체였지 社會意識만 가지고 그들 생활
의 一角을 정그림계 기계적으로 잘라내
보내여 주려는 데 그의 도가 있던 것은 아
닌 것 같다. 『忿怒는 葡萄처럼』의 「소설
리얼리즘」이 성공한 이유가 여기에 있
을 것이다.

그 속의 「조오드」 一家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局面은 다채롭게 변모하고

있다. 처음 시골의 여러 인물들 「유머」스
럽게 그려낸 부분은 호불하고 구수한 「콜
드웰」의 「타바코 로우드」 비슷한 농촌 기
분이 난다. 다음 고생을 하며 西部로 달
리는 부분과 국영수용소의 이주민들의 牧
歌의인 생활은 「실러」의 『윌해름·텔』에
흡사한 영웅 기분과 서민정서를 풍기는
것 같고, 始終하여 주정하고 구차스러
운 환경 속에서 섹씩하게 고난을 이겨나
아가는 줄거리는 또한 갖가지 고생을 겪
으면서 위험한 바닷길을 고향찾아 돌아가
는 「오디세이」 비슷하다. 그러나 본래 작
가의 의도는 原始 「그리스도」敎시대 「나사
렛」의 예수의 이야기 비슷할 효과를 노렸
던 것이라고도 하는 데 만일 그것이 사실
이라면 결국 이 절만은 우스꽝스러운 용
매가 되고만 것이 아닐까 한다. 이밖에도
발속에 혼자 남은 임자없는 빈절이 천천
히 무너지는 詩的인 대목, 약따른 싸구려
자동차 고물상이 농사꾼 손님을 구슬리는
대목 따위, 우리 현대의 갖가지 面을 다채
롭게 그려내고 있다. 어딘 남태 「주니」와

「원필드」의 세계 역시 인상있게 묘사되어
있다.

이런 多面性을 볼 때 一貫된 社會의식
만 가지고 사회문제와 정면으로 씨름하며
自然主義手法으로 이를 무차별하게 폭로
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목적 같지는
않다. 옹대하고 박력 있는 構成의 솜씨를
보여준 그가 자기 主題를 그렇게 支離滅
裂하게 형틀어 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런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작품의 구성은 全篇이 30章인데 그
중 1, 3, 5... 奇數章은 모두 일종의 中
間章(幕間)으로, 「플롯」은 따로 그 예기
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조건, 자연조건,
지리조건을 짧게 압축해서 일반적으로 설
명해 주고 있다. 또한 「플롯」은 偶數章에
서만 진행되고 여기서 人物·사건을 직접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文體도 兩章은 서
로 단판이다. 奇數章이 때로 詩的인 「리
듬」으로 「파노라마」같은 분위기를 일으키
며 대체로 표준어를 쓴 平叙文인데 때
해서 偶數章은 회화가 많고 그 속에는 方
言, 俗語俚語가 마구 튀어나오고, 오히려
난잡한 정도다. 어딘게 아니라 出刊當初
엔 이런 난잡한 말투가 一部 미국 양반들

의 큰 비난을 샀었다 한다. 대체로 소박하고 얼핏 보기에는 아무技巧도 안 쓴 듯한 무척하고 動的인 필치인데, 극력 主觀을 누르고 非情의 客觀的 表現을 위주한 文章은 「레밍웨이」에게서 배운 듯하며, 이것이 오히려 「스토리」의 劇的 분위기를 돋우어 주고 있다. 그러면 가하면 詩 비슷한 「리듬」을 타고 혹은 화려하게 혹은 유창하게 흘러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메모 비슷하게 單語만 죽 나열해 나아가는 대목도 나와 변화 많은 文體를 구사하고 있다. 모두 그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音調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독자의 기분과 눈에 지루함을 일으키지 않게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奇, 偶兩章을 交叉시키며 普遍을 연결시키는 한편(스토리)와 背景을 따로 취급함으로써 또한 「스토리」(偶數章)의 짐을 덜고 그 서술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偶數章에서도 그는 作中人物의 心理를 그리지 않았다. 人物은 모두 밖으로부터 즉 行動을 통해서 그린다. 그 內部를 그럴 때는 영화의 手法처럼 回想의 형식으로 外面化되어

提示된다. 「스타인벡」의 作品이 많이 영화화되고 또한 그가 영화 소설도 그 후 몇 편은 사실과 판권이 있을 것도 같다. 이런 手法이 가능한 까닭은 첫째 이 「忿怒」는 葡葡처럼 안의 人物이 벌써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나타내는 單純素朴한 人物들이고, 둘째 배경 설명은 이미 만 곳(奇數章)에서 해놓은 때문이었다.

『忿怒』는 葡葡처럼의 전체 구성은 舊約聖書의 「出埃及記」 및 그 속편 「民數記」를 그 原型으로 삼은 것이다. 「오를라호마」 농민의 같은 운명을 이룬 原型에 넣어 그려냄으로써 이 作品은 한 시대 한 나라를 초월한 普偏性을 띠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作品의 主題도 짐작이 갈 것 같다. 땅과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생하는 「오우키」들의 소박한 「제스처」 속에 은은한 그 무엇이 있다. 우리는 이 장편을 읽을 때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작가 「스타인벡」이 그들의 生活意識을 사랑하고 그 울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人間社會가 변하고 山水가 변해도 우리는 「폴. 조오드」의 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이다. 미국이

사랑하는 民衆詩人 「W. 윌트먼」도 『백성들은 계속 살아나간다』고 썼다. 『사람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끝까지 살아나간다』 『케시』 어머니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이 말은 곧 그들의 신념의 표현이다.

부잡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명 때문에 없어지는 본능적인 애정과 원시적인 生命力이 이것이 『토티아村落』에서 『忿怒』는 葡葡처럼에 이르기까지 「스타인벡」이 그려내려고 한 主題였던 것 같다.

그는 투쟁적인 「프롤레타리아」 작가는 아니다. 소박한 人道的 信念에 사는 겸손한 작가였다. 그의 作中人物은 언제나 착한 人間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惡人도 散在하고 무잡한 살인의 장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폴로트의 進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뿐이지 철저한 惡의 묘사를 주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사람을 두 번이나 죽인 「툰」의 성격이 얼마나 착하며, 「조오드」네 가족의 기둥기둥을 하는 그 어머니의 착하고 소탈한 마음씨, 모두가 맑고 맑은 「生의 肯定」 속에서 살고 있다.

<連載>

文章講論 ①

文章作法

朴

致

遠

△國學大學 教授▽

目次

| | |
|-------|----------|
| 제 1 장 | 文章作成의 態度 |
| 제 2 장 | 本 論 |
| 제 3 장 | 文章의 要素 |
| 제 4 장 | 各種文章의 要領 |
| 제 5 장 | 小說文章 |
| 제 6 장 | 長篇小說의 構成 |

제 1 장 文章作成의 態度

1. 말과 글

①

말은 생각의 기호 또는 상징이며 글은 말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입을 통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요, 글은 글자를 통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표현 방법이 다를 뿐 그 표현의 본바탕은 꼭 같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분일치(語文一致)라고 해서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이 다를 수 없다는 생각이 발전하여 오늘날에서는 말과 글이 거의 같은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은 말을 글자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입으로 하는 말과 글로 쓰는 말이 서로 달랐던 것은 글을 일부분사란

에게만 소속된 특권처럼 여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은 민족의 징표라고 합니다. 민족과 더불어 생긴 말은 민족적인 특이성과 민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 애정을 느끼고 또 우리 말에 자존심을 가지는 소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글에도 민족적인 특이성과 민족적인 전통이 깃들어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 글에 대해서는 애정과 자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래문화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계인지 우

리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외국 말과 외국 글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라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경멸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나라 문화발전이 그 나라의 말과 글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좀 더 사문화의 우리 문화를 높이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②

말은 때와 곳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옛날 말과 지금 말이 다르고 북방 말과 남방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말에 호흡과 작각과 제위와 색감이 따라 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말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몇 십년 전에 쓰던 말을 지금 그대로 쓴다면 고리타분하다거나 신과조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벽는다는 말이 잘못은다, 자신다, 처버는다는 등의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예쁘다는 말에도 끝다, 아플답다 등 같은 말이 많습시다. 때와 경우에 따라 작각의 맛과 말을 골라 쓸 줄 안아야 합니다. 사물의

성격과 사건의 발전 과정에 따라 말에는 무게와 가벼움이 있고 빠름과 느림이 있으며 또 길음과 짧음이 있습니다. 글이 말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글 자체가 말의 일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생동적일 때 글은 부동적일 수 있을 것입니까?

말과 더불어 글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동적이 아니라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말에는 몸짓, 눈짓, 손짓 같은 표정이 말 뜻을 도와주기 때문에 토라는가 그 밖에 말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글에는 그러한 신체적 표정이 있어 완전한 말로써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회화를 그대로 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말이 되 정리된 말로써야만 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란 음성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을 받고 또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되풀이하여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힘들고, 따라 오게 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글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극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의 선후

를 분별하고 내용을 선택 정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문화 발전의 살아탑이 될 것입니다.

③

글을 잘 지으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는 도리 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많습니다. 즉 글짓는 법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은 법을 가지고 글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그리려면 머리와 몸과 꼬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글에는 글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고도 말을 합니다. 따라서 생활 자체가 말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말 잘하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글자는 따로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연습하지 않으면 글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에서 수사학(修辭學)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글보다 알았기 때문에, 변론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는 글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생명의 길고

나의 空軍時節



韓 寅 燮
△豫備役 中尉▽

나는 1959년 4월 9일 대전기
술교육단에서 入隊申告를 하고 196

3년 8월 31일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除隊申告를 할 때까지 滿 4年 5個月
을 空軍에서 복무하였다. 그 기간에 국
가적으로는 4·19義擧와 5·16革命
등 역사적 대사건들이 잇달았고, 개인
적으로는 대학교문을 막 나선 社會初年
兵으로서 24세부터 28세까지의 青春
의 황금기의 일부를 공군에서 보낸 셈
이다.

그리고 空軍에 있어서는, F-86 D
전천 후 요격기의 도입과 작전사령부의
창설, 光州基地의 항공 등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었다.

내가 공군에 입대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대학교 4학년 초였다. 그 때에
친구들의 대부분은 1년반만 복무하면
제대할 수 있는 學徒兵을 지원하고 있었
다. 따지고 보면, 학도병을 택하는 것
이, 3年(그것도 우리에게는 4年으로
연장되었지만)이라는 복무연한을 마쳐
야 제대할 수 있는 空軍將校에의 지원
보다 소위 出世하는 면에서 파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공군의 가야

나가서는 글의 세력이 커져 인류문화
를 지도하게 되며, 수사학은 수식법으로
전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
우지 않고 능숙해 지는 말과 같이, 자기
나라 글이면 배우지 않아도 글을 지을 수
있다고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글짓는
법에 등한하기가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글이란의 기록이라면, 글은 문필가만
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말을 기록해야 할 현대인은 누구나 알아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글은 문필가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글자의 그 밖의 지식이 풍부하면
글은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면 전체적인 생명체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일부뿐만
그리지 않도록 전체적인 설계와 선택과
조직과 발전 그리고 통제같은 것이 필요
합니다. 말이란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껄이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글이
란 그것을 정리하여 완전한 것으로 만들
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된다는 확고한 信念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空軍將校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空軍— 이것은 아마 東西洋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매력을 지닌 것 같다. 현재 나는 직업상의 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공군출신이라고 하면 으레 히 그들은 「오! 에어 포스!」 하고 일단 감탄사를 발하는 것이다.

20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기술교육단에서 입대서약을 한 것은 1959년 4월 9일 오전이었다. 「지금부터 해치면 내 부반에 들어가서 冬內衣 冬正服에 타타이 배고 오바일고 칠모쓰고 배낭배고 매트리스를 너리에 없고 3분내로 선착순 집합!」— 이것은 쯤는 뜻이 무더운 7월 어느 날의 대낮 일그리진 구대장의 입에서 떨어진 추상같은 명령. 20週의 이와같이 고된 훈련중에는 「학과」가 있고 그 중의 하나가 「意思傳達法」— 소위 「5分間 스피이치」로서, 후보생들이 차례로 교단에 서서 5분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 이 「5分間 스피이치」에는 처음에 청중

의 관심을 끌 動機賦與가 있어야 되고 또 정연한 理論적 視線 視線配置, 제스 추어, 音聲, 補助材料(철판이나 차아트 등)의 사용 結論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5分間 스피이치」에서 훈련기간중에 달성할 나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그 당시 나의 체중은 50킬로 내의였는데 우선 55킬로로 늘리자는 것, 둘째 나의 볼장수 같은 저그덕거리는 걸을걸이를 고쳐보자는 것(후보생의 步行態度는 특히 엄격히 다스려졌으니깐). 그리고 끝으로 어리석음을 줄이는 사람이 되자는 것.

우리의 생활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더불어 새 것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표현인 글에 있어서도 새 것의 표현과 새로운 표현이 필요해 집니다. 새로운 표현으로 완전한 글을 만드려면 그 방법에 대한 기술이 절대 필요한 것인 만큼, 글짓는 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짓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지식을 가졌고 아무리 아름다운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똑바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글의 표현

① 글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여 그것을 구현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과 아름다운의 창조를 사명으로 한다고도 하지만, 선이라든가 아름다운의 진리를 탐구함이 없이는 그것을 창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구현하는 것이 글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며 또 어떤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알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人間 (將兵)들의 정신이 불려 있고 또 그들의 思想이 그 큰 인도된다면 어떠한 결과 가 나타날까?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政訓監室에서 나는 처음에 「코페트」(지금의 「공군」[誌]와 「공군」인클린) 지금의 「주간공군」을 편집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정훈교육부부를 맡게 되었다. 지금도 계속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에는 「指揮官直接教育」이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매월 참모총장이 각 참모 및 부대지휘관에게 「참모총장 직 정훈교육문서」를 하달하면 그 지휘관 참모들은 그 문서를 토대로 휘하장병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학급부대는 또 그 휘하장병에게 실시하고…… 이렇게 사다다리식으로 실시되는 정훈교육의 한 방식이었다. 나는 매월말 경에 이「참모총장 직정훈교육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한 번은 外誌에서 中共軍이 압록강변에 兵力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판박하게 지나치는 記事를 읽고 이를 그 문서에 인

용하였었다. 참모총장님의 결재를 받으려 올라가셨던 정훈차감님이 허겁지겁 내려오셨다.

「어이, 한중위! 중공군이 압록강변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 어디서 알았나?」

『네, 의지에서 읽었습니다.』

『어디 찾아봐!』

그때부터 타임, 뉴스위크, 뉴우오오크 타임즈 등을 들추기 시작하였으나 좀처럼 그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열의이 중위, 민대위도 동원되어서 수색하였으나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 문구는 「事實無根」으로서 삭제되어 버렸다. 그 후에도 中共軍集結說은 영영 事實化되지 못하였다.

나는 제대 후 역시 公報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나의 경우 軍과 社會가 직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軍隊에서의 산 경험이 아주 귀중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미를 가나 空軍의 선배 혹은 후배들이 要所에서 참 홀름히 활약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空軍家族」의 一員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소위」 「한중위」의 그 몇몇인 시절은 벌써 추석의 장막 속으로 살아져 가는가.

야야 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그가 어떤 문장력을 가졌다 해도 생명에 있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곳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또는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달 하나를 가지고도 과학자와 저자와 문학 청년이 서로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진리처럼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며 그것을 구현한다면 무엇보다도 관찰력과 이해력이 필요 합니다.

관찰력이란 보는 눈이 넓고 깊고 정확함을 말합니다. 다리만을 먼저 보고 코끼리 전체를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만큼 코끼리 전체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생리나 성격까지도 알아야만 코끼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코끼리를 쓴다는 것은 말발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코끼리를 잘 알도록 관찰을 정

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 정확한 관찰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정확한 관찰의 기본임에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관찰에는 정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스킷 먹는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에게 비스킷식의 음식만 먹인다면 코끼리는 굶어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부족입니다. 진리를 발견했다 해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진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려면, 무엇보다도 관찰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용이한 말 같지만,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물의 위치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방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할 때라야만 비로소 이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② 문학과 있어서 독자에게 만족을 주려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전형적인 인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 모든 의할 청년의 대표로 하트맨(세익스피어 작)을, 동상가의 대표로 동키호오데(세르반테스 작)를 그려 그 작가들이 유명해졌다는 것은 그 주인공들을 가장 투성 있게 그려나 전형적인 인물로 살렸다 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 가운데 세계적인 작품이 없음을 전형적인 인물 위대하게 그린 작가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말은 사물에 있어서 보편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동시에 그 사물의 개성을 살피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성이 없는 사물은 없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으나 그 별 하나 하나가 서로 다르며 서로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편성만을 그린다면 그것은 재미 있는 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이 있으면 남의 글과 다른 맛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 하려면 사물의 개성을 독특 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작가의 글 자체가 개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사상과 취미에 따라 글도 달라집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글

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본 받으려 해도 자기의 성격과 사상과 취미가 맞지 않으면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자기의 개성의 성격과 사상과 취미에 맞는 자기만의 문장을 창조해 내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 없는 글이란 것은 결국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쓴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남과 다른 수법으로 쓴다는 것은 결국 사물의 독특한 개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성이 산 글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③ 글은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마음이 악한 사람으로 좋은 글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모두가 성인 군자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글 쓰는 사람으로 사학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도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에 진실성이 없으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간 있는 글이라도 그 속에 것
들이 있는 자기의 태도가 진실하지 않게
보인다면 그 글은 가치를 잃은 버리게 된
니다. 「말하자면, 「말들이 아무렇게
사람의 태도, 아름다운 태도를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아름다운 말이나 글을 찾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글이란 실감이 있을 때 비로소 독자에
게 감동을 줍니다. 실감이란 결국 작자의
정실한 태도와 정실한 문장에서 흘러나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
을 자랑하려고 현학적인 낱새가 풍기게
쓴 글이라는 독자의 인기를 끌려고 사
실보다 과장한 말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가일부러 아름다운 말을 꾸미려고 이를
리지 않는 미사여구를 집어 넣은 글같은
것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정실성이 적을 때, 태도가 진정인 কি否를
깨닫을 느끼게 됩니다. 남에게 불쾌함을
줄 바라는 글을 쓰지 않는 편이, 도리어
정실한 태도 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더불어 글을 쓸
때의 태도가 정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읍
니다.

3. 文章修業

①
학문이나 기술이나 또는 운동같은 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읍니
다. 천재라는 것이 없지도 않으나 천재라
고 불릴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을뿐
더러 아무리 천재라 해도 노력없는 천재
는 근면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법입
니다.

특히 글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제아
무리 글에 대한 천분과 소질을 가졌다 해
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문장가가 될 수
없읍니다. 글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입
니다. 기술이란 되풀이해서 연습을 계속
하는 데 비로소 체득되는 것입니다. 더구
나 글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요 하나의

생명체를 창조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수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어지
고 분이 둔해집니다. 말을 기록하는 것이
글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글을 수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결국은 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니
다. 프랑스의 자연주의의 대표적 작가(에
밀 졸라)는 연습시대에 쓴 원고 용지가
자기의 키로 한질이 되었다는 말이 있읍
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문필자인
「프랭크린」은 어렸을 때, 권위 있는 영국
의 잡지 「스피테이더」를 구독하여 그것을
가지고 글공부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
입니다.

그는 잘 쓴 논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몇 개 간단히 적어 두었다가 며칠
지나 뒤 그 논문의 문장을 읽어 버리게 되
었을 때, 간단히 적어 두었던 문구만을
보며 논문을 썼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지에 실린 논문과 대조해보고 자기 글의
잘못된 곳을 지적하며 정정했습니다. 때
로는 활취한 문구를 여러 개 뒤섞었다가,
며칠 뒤 그것들을 순서있게 골라 놓고 문장
을 지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글을 짓는 데 있어서 내용과 문장과 그리고 순서같은 것을 연습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프랑크린」은 이렇게 노력한 결과 문장가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문예에서도 적지 않은 문필가가 나왔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문필가에 비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력만 하면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이 없드시, 글도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2)

문화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의 말을 글로 기록할 수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문화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글의 전통이 오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글의 남의 나라 글보다 쉽다는 생각에서, 글공부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글의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쉬우나 글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글을 넘보는 수가 많습니다. 글자만 알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말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알면서도 우리 말문을 모르는 것은 자기 나라 문화를 정밀하고 자세히 보는 불성실한 태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나라 말을 알고 우리나라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겠읍니다.

문법에 충사하는 사람들의 글을 유심히 읽을 때, 그들의 글 가운데도 말문에 틀리는 문장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의구 사람의 글에는 문법적으로 틀린게 별로 없다).

사실에 있어서, 문법에 틀리는 글을 쓰면서 글을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문필가 가운데도, 말문에 틀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 말의 말문을 얼마나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글의 토대는 말문입니다. 말의 토대를 글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화는 표현과 또는 화정의 도움으로 말한 그

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야만 글로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서 성립안 된 문장을 가지고, 어찌 상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말문을 알아야 하며, 그 다음 단계로 수사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법에 얽매어 도리어 자유스런 글을 쓰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 문체를 지나치게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스럽고 아름다운 글을 쓰기 위하여 우리 말과 우리 감정에 맞는 글 쓰는 법을 습득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호적박사는 과거의 수사법을 고쳐려고 다음과 같이 갈은 여러 가지의 조부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1. 언어만 있고 사물이 없는 글을 짓지 말 것(공연히 아아 오오 같은 애상에 쫓리지 말라는 것).
2. 빈없이 실음하는 글을 짓지 말 것(공연히 아아 오오 같은 애상에 쫓리지 말라는 것).
3. 전고를 일삼지 말 것(옛날 글을 함

부로 인용하지 말라는 것).

4, 허황한 미사여구를 쓰지 말 것.

5, 매구를 중요시 하지 말 것.

6, 문법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말 것

7, 고인을 모방하지 말 것.

8, 속어 속자를 쓰지 말 것.

이렇게 글쓰는데 금해야 할 일이 많거
늘, 하물며 글 쓰는 데 필요한 조건이 어
찌 적을 수 있겠습니까? 글을 쓰는데 반
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것이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을 체득하고 글을
쓰는 사람과 체득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
람이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말본의 획득과 아울러 수사법의 체득이
글쓰는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③

말본과 수사법만을 체득했다고 해서 반
드시 아름다운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말이 풍부하여 적당한 경우에 적당
한 말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으리만큼 말
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말은 모
름으로 해서, 표현이 거칠고 뜻이 달라도
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널리 알려
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의 글 속에서 모르는 말을 배우기
도 해야 하겠지만, 각계 각층의 사람과
담화를 하는 가운데서 여타가 지 말을 배
워야 할 것입니다. 즉 언어 경험을 풍부
히 함으로써 말을 많이 알고 또 어떤 경
우 어떤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골
라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④

글을 쓰는 때는 글 자체가 문장으로 성
립되어야 하겠지만 글 짓는 법을 안 뒤에
는 글 속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
야 할 것입니다. 즉 무엇을 써야 하는가
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쓴다고 해서
훌륭한 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장과
더불어 내용이 훌륭해야만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내용을 가지려면 두 말할 것 없
이 글쓰는 사람의 머리가 훌륭해야 합니
다. 머리가 가볍고 얇으면 훌륭한 글의
내용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두껍고 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색력이 얼마나 두껍고 길이나 하는 데

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체
힘을 늘리는 것은, 모두가 사색력을 풍부
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
색력이란 많은 지식과 많은 체험에서 올
어나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
식이 적으면 머리가 빈곤한 것이고, 체험
이 적으면 식견이 좁을 것입니다. 머리가
빈곤하고 식견이 좁은 사람이 어찌 남을
감동시킬 글을 창조해 낼 수가 있을 것이
니까.

독서를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해야만
글은 쓸 수 있다는 말도 이런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식과 체험
은 머리의 활동을 민활하게 할 수 있고,
높은 상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
게 합니다.

시나 소설을 창작이라고 하지만 모든
글이 개성에 의해서 생산되는 창작물이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에는 창작의
독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창력없는
창작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창력의 원동력인 사색력이 없이는 글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榮光에의脫出 ⑩

— 엑소더스 —



1939년 9월 1일.

연달아 두경분규를 조작해내고 있던 두 일군이 「폴란드」에 침입했다. 「벤델」과 「우」는 큰 아들 「문테크」와 함께 군대의 들어갔다. 독일군은 불과 26일간 계속된 전투에서 「폴란드」를 산산 조각 내놓았다. 「벤델」과 「우」는 「폴란드」의 군복을 입은 3만명의 다른 유대인 병사들과 함께 전사했다.

「란다우」네 가족들은 배가 배라 슬픔에 잠겼을 겨를도 없었다. 「문테크」는 파감한 그러나 소용없는 「와르소」 방위전에

△래온·유리스 原作△
文 赫 (抄譯)

서 「란다우」 일가의 가치가 되어 돌아왔다. 독일군이 「와르소」에 들어왔을 때 개혁파는 한 자리에 모여 행동요건을 의문했다.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희망적인 대다수의 「폴란드」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폴란드」 전후의 개혁파와는 다른 시온주의 단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일군의 점령과 함께 중대한 위기가 앞에 가로 놓이게 됐다는 것을 확신했다.

개혁파와 여러 개의 다른 시온주의 단

체는 함께 단결해서 통일한 행동을 취하며 그 행동의 제약을 받기로 결정했다. 독일군이 침입했을 때 안전의 보급을 노려 「폴란드」의 동반부를 잠식하려고 진출한 소련으로 달아난 단체도 몇몇 있었다. 지하활동을 시작할 단체도 있었고 또 도망할 「비밀철도」를 가설하려드는 단체도 있었다.

개혁파에서는 「와르소」에 머물러서 내에서 저항운동을 하며, 「폴란드」 전후의 다른 개혁파 단체들과 연락을 맺기로 결정했다. 「문테크」는 만 열아홉살도 못했지만 군사지도자로 선출됐다. 「루스」의 의중의 사람인 「안」은 「문테크」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독일군의 정권을 말꼬 「한스 프랑크」가 총독이 된 순간부터 곧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률이 선포됐다. 예매는 금지되고 여행은 제한되고 체류는 파종하게 부과됐다. 유대인은 공무원직이든 피선거권이든 모든 공공부서에서 추방됐다. 유대인은 빵 보급을 타는 줄에 걸 수 없었고 공공장소에 나가지 못했다. 유대인은 학교에서 추방됐다.

「갯토」부활의 소문이 퍼돌고 있었다.

독일당국은 여러 제한법을 실행하는 등 시에 「폴란드」인들을 위한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책임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기왕의 여론이 한층 더 힘을 얻었다. 독일인들은 독일 군 진주의 책임도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군 진주는 「폴란드」를 「유대인 볼셰비크」의 손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와르소」와 그 밖의 도시에는 수녀를 강간하는 수염난 유대인들의 그림과 유대인의 「못된 짓」을 말해주는 그림의 그림들이 수없이 나돌았다. 수염, 자르기와 유대교회 모독과 공명심상에서의 유대인도 유행어는 장대됐다.

「독일」 「베를린」

베를린에서는 나치의 최고 간부들이 『유대인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S D 책임자 「하이드라히」는 유대인을 잡아 인질권을 받아낸 다음 대량으로 추방해 버리자고

했다. 재정문제의 천재 「샤프트」는 유대인의 재산을 서서히 고갈시키자고 했다.

여러가지 생각이 제시되고 토의됐다. 유대인을 모조리 「마다가스칸」로 실어 보내자는 옛 계획이 되살아나 토의됐다.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실어 보내자는 자들도 있었으나 영국의 봉쇄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다.

S S(친위대)의 「아이히만」대령은 오래 전부터 유대인 「전출」사무를 보아 왔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헤브라」이 「어른」 유창하게 했으므로 유대인 문제의 최종해결의 책임은 말는데 가장 적합한 자라고 지목됐다. 「루트케르슈텐슈트랏제」 46번지에 본부가 설치됐다. 최종해결책이 서가지까지 집단전출계획이 필요하리라는 것이 우선 확실한 일이었다.

대다수의 나치들은 「폴란드」가 전출대상지로 적합하다는 일치본의 견해를 말했다. 첫째, 「폴란드」에는 3백 50만의 유대인이 있었고, 둘째, 청구에서처럼 일반의 본격을 다 소나무 숲 우렁가 없었다. 독일 「출동」 「한스 프랑크」는 더 많은 유대인을 「폴란드」에 몰아넣는 데 반대했다. 「폴

란드」의 유대인을 옮겨 죽이려 했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총살도 하고 교수형도 하고 있는 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크」의 반대는 「베를린」의 최고 기획자들에게 짓눌려 버렸다.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잡아들이는 라고 「폴란드」 전토에 그물을 쳤다.

명령이 있는 즉시로 숨겨반이 촌락과 소도시를 습격해서 유대인을 잡아들였다. 유대인들은 화물열차에 싣려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송됐다. 전혀 짐을 휴대하지 못하는 수도 흔히 있었다.

몇몇 사람의 유대인은 짐거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도망을 하거나 돈을 내어 기동 교인의 가정으로 숨어들어 가려고 했다. 유대인을 숨겨주는 모험을 하는 「폴란드」인은 극히 드물었다. 대다수는 유대인에게서 마지막 한 톨까지를 털어낸 다음 독일당국에 넘겨주어 상금을 받았다. 일단 유대인의 전주(轉住)가 끝나자 유대인은 「다비드」의 별이 있는 흰 완장을 차라는 포고가 나왔다.

「폴란드」 「맨마르크」와는 달랐다. 「폴란드」인들은 이 포고에 반대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완장을 차고 잔등이에도 또다
리드」의 별을 달았다.

1939년 겨울

「와르소오」

「란다우」페일가에게는 고난의 나날이
었다. 「멘델 란다우」의 죽음, 다시 떠도
는 「겟토」 부활의 소문, 독일당국의 전후
계획, 불자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은 몹시 괴로웠다.

1940년 초의 어느 날 아침 「란다
우」페일문에 「노크」소리가 났다. 독일
군과 협력하고 있는 「폴란드」청의(靑衣)
경찰의 사람들이 밖에 있었다. 그들은 「란
다우」에게 불쑥 두 시간 안으로 집을 꾸
리고 유대인 거주지로 정해진 「와르소오」
의 다른 구역으로 옮겨 가라고 일렀다.
집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요 「티
아」가 20여년의 결혼생활에서 모은 물건
들을 추릴 여유도 있을까 말까 했다.

「란다우」페일을 비롯한 「와르소오」의 유
대인 가정들은 시 중앙의 철도 잔전선분근
의 어느 구역으로 전할했다.

「문테크」와 「얀」은 재빨리 서둘러서 백
여명의 개혁파 회원들이 주력과 본부로
를 3층 건물 한 채를 얻을 수 있었다.

「란다우」페일은 다섯식구는 작은 침대의
자 두 개가 있는 단칸 방을 얻었다.

유실과 부업은 다른 집들과 공동으로
했다.

유대인들은 「에르조림스카」거리에서
모지까지 이르는 길이가 12「블로크」폭이
블과 6「블로크」가 되는 좁은 구역 안으
로 몰려 들어왔다. 개혁파가 있는 곳은
「페즈도」거리의 「브라쉬마아커스」구였
다.

「리아」는 보석 몇 개와 그밖의 값나
는 물건들을 숨겨두고 있었다. 「문테크」
가 아직 빵 굽는 일을 했고, 개혁파 회원
들이 공동주방에 양식들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한 일은 없었어도
앞으로 쓸모가 생길지도 모를 물건들이
였다.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와르소오」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길게 줄을 지어 휴대
해도 좋고 허락받은 물건들을 망태에
넣거나 손수레에 싣고 왔다.

그들은 한 차가 들쳐 싣려와서는 유대
인 구역 가까이의 측선(側線) 정류장에
내렸다. 좁은 구역은 금사에 사람들로 가
득했다. 「얀」네 가족이 「란다우」네 가족이
있는 방으로 옮겨왔다. 단칸방에 아홉 사
람이 살게 된 것이다. 「루스」와 「얀」의
「로맨스」는 공개의 비밀이 됐다.

독일당국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역의 자
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게 했으나 이 위
원회는 곧 독일측 명령을 실천하는 이용
기관이 되고 말았다. 독일측과 협력하는
계상책이라고 느낀 다른 유대인들은 유
대인 특별경찰대에 들어갔다.

이 좁은 구역의 인구는 5십만을 넘었
다.
「폴란드」정복 1년 후인 1940년 말
독일군은 수천명의 유대인으로 강제노동
대를 편성했다. 「와르소오」의 유대인 구
역 주변에 높이 열자의 벽돌담이 쌓여졌
다. 담 위로는 철조망이 쳐졌다.

열다섯 개의 출입문은 「폴란드」청의
경찰과 「리두아니아」병들이 지켰다. 「겟
토」가 「폴란드」에 부활한 것이다! 「겟
토」에서 담 밖으로 나가는 길은 거의 완

전히 막혔다. 밖에 일터를 갖고 있는 「몬테르」는 실직자가 됐다. 「갯토」안에서 배급되는 양식은 그 안의 인구의 반도 못 먹일 정도로 줄어졌다. 양식물 얻을 가망이라도 있는 것은 「노동카아드」를 가지고 여남은개 되는 강제노동터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들 뿐이었다.

「갯토」가 생각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렸다. 일부 유대인들은 재산을 양식과 바꾸기 시작하고 또 일부는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피신할 길을 찾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도 망망하던 차는 담 밖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다.

담 안쪽의 생활은 차츰 차츰 생존을 위한 하루 하루의 싸움으로 변했다.

「몬테르」라다우」는 지도자로서 등장했다. 개료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때문 에 그는 유대인 위원회로부터 몇 구테 안 되는 「갯토」내의 병영장 하나를 경영하는 허가를 얻었다. 이렇게 단결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그르우프」는 목숨을 유지하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갯토」안의 생활도 어둡으로만 찬 것은 아니었다. 아주 우수할 포항악단이 배

주 연주를 하고 화교는 「예정대로」 운영되고 또 작은 구단들이 조직됐다.

원하면 언제나 토론회에 질 수도 장의를 들을 수도 있었다. 「갯토」신문이 한 가지 나오고 「갯토」에서 발행한 돈이 불 견을 사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었다.

비밀배도 열렸다. 이 또한 예배와 활동들을 저평시키기 위한 중심의 활은 개혁파에서 했다. 어떤 「도브」는 개혁파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가족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시키려고 그를 학교에 보냈다.

1941년 3월

「틀란트」를 18개월 후 「아르프」의 틀러」단 유대인 문제 해결의 최종단언을 내렸다. 명령은 두루로 전해졌다.

6주일 후 「SD」책임자 「하이드리히」는 「그로스라제」에서 열린 「SS」 「SD」 및 그 밖의 나치 관리들의 비밀회의에서 총회의 단언을 발표했다.

최종단언은 민족구결이었다. 전출입(轉出入) 전부가인 「SS」의 「아

하만」 명령은 「유련」의 지표(地標)에서 유대인을 제거하는 책임을 맡았다. 수개월 안으로 「아인사즈코만도」 행동대는 「아인사즈코루벤」 특별행동단」으로 편성됐다.

이 행동단은 일반민족구결의 사명을 띠고 「틀란트」 「탈트」 「제쿠」 소련전령지구를 휩쓸었다. 특별행동단의 초기 행동은 일정한 바탕에 따라 전개됐다. 그들은 유대인을 검거해서 외판 곳으로 데려가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무언을 파게 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옷을 벗긴 후 무덤가에 무릎을 꿇게하고 마린의 총을 대고 쏘았다.

소련 「키예프」시 교외의 「바비אר」라는 곳에서 이들 동안에 3만 3천명의 유대인을 체포한 다음 인질나제 큰 음모를 파놓고 그 열에서 총살을 감행한 것이 특별행동단의 활동의 절정이었다.

「아인사즈코루벤」 지방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독일인들의 대 유대인 감정의 표명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바비אר」의 학살은 슬라 「우크라이

나「인」들의 작책 속에서 진행했다.

「아인사조코만도」가 쓰는 방법으로는 일민족 근절의 전반 계획을 완전히 수행키 어렵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총살은 느리고 수효로 끊어 죽겠다는 협조정신을 발휘해 주지 않았다.

「아이히만」, 「파울 볼로텔」, 「힘다슈트 릿헤르」 그리고 그밖에 나치의 최고 간부들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만들어냈다. 이 계획을 위해선 철도종찰이며, 인구가 많은 곳 가까이에 있는 외딴 장소를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장소에 설 수용소는 가장 우수한 기술자들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형을 대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했다. 독일 내의 기성 강제수용소의 간부들이 승진되어 이 새 수용소의 책임을 맡게 될 판이었다.

1941년 겨울

「와르소오」 「겟토」에서는 「바비 아르」의 음 속에서 죽은 사람의 수효가 무색하리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람들은 수십 명씩, 수백명씩, 수천명씩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허약해서 울음소리도 못내는 갓난애들과 기도를 울릴 힘도 없는 늙은 이들이 수백명씩 죽어갔다. 아침마다 「겟토」의 거리거리는 새 시체들로 덮였다. 위생관은 삼을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시체를 손수레 위에 쌓아 올렸다. 갓난애, 어린이, 여자, 남자란 것 없이 두름히 쌓아올려 화장터로 싣려가서 화장했다.

「도브」는 열한 살이 됐다. 그는 「문데크」의 빵가게가 문을 닫게 되자 양식을 구하려 다니는다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개혁파같은 「그부우프」의 형편도 말이 아니었다. 「도브」는 살아 남는 피를 「겟토」의 생활에서 배웠다. 그는 교활한 짐승처럼 쓰다니다가 귀를 기울이고는 교활하게 행동을 했다.

「란다우」의 밤들은 오랫동안 빈채로 있었다. 식구들이나 다른 개혁파 사람들이 음식을 한꺼도 마련할 수 없게 됐을 때 「리아」는 숨겨두었던 보석 한 개를 양식과 바꾸었다.

길고 피로운 겨울이었다. 닷새 동안을 굶은 뒤에 「란다우」의 식구는 밤을 한 끼 먹었는데 그 대신 「리아」의 손목에서는

결혼팔자가 자취를 잡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개혁파의 사람들이 말한 편을 구했다. 높고 뼈가 앙상하고 또 종교가 금하고 있는 짐승이었지만 맛은 더 말할 나위없이 좋았다.

「루」는 열아홉이 됐다. 그 해 겨울 「안」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너무 말라서 도저히 아를 낳다고는 할 수 없겠음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란다우」의 다른 식구네 사람과 「안」네 다른 식구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단칸방 안에서, 신혼기간을 지냈다. 그러면서 아이 젊은 한 쌍은 저희들끼리만의 시간을 어디선가 찾는 모양이다. 「블이」 되어 「루」는 임신을 했다.

개혁파의 지도자로서 「문데크」가 해야 할 일의 하나는 의부와 연락을 취하는 일이었다. 돈으로 「플란」의 청의경찰과 「리아」나 「아」들을 매수할 수는 있었지만 「문데크」는 더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돈을 아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수도를 통해 「담밀」로 「겟」 안팎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플란」인 장폐들이 도망해 나온 유배인

에게서 금품을 약탈하거나 당국에 넘겨주
고 상금을 타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와르소오」로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의
였다.

개혁파에서는 회원 다섯 사람을 잃었다
장파들에게 체포되어 「제슈타포」에 인
계됐다. 결국 교수형의 처해진 마지막
회원은 「루스」의 남편 「얀」이었다.

어린 「도브」는 살아 남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었다. 그는 「문데크」에게 하
수도로 드나드는 연락원 노릇을 시켜달라
고 말했다. 「문데크」는 처음엔 들은척도
하지 않았지만 「도브」는 그냥 고집을 부
렸다. 금발과 푸른 눈 때문에 「도브」는

전모습이 다른 누구보다도 유대인답지
않게 보였다.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의심도
제일 덜 받을 것 같았다.

「문데크」는 동생이 빈틈없고 재빠르다
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차마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이틀 동안의
여섯번째와 일곱번째의 연락원을 잃은 그
는 「도브」에게 한번 시켜보기로 결심했
다. 「문데크」는 어차피 모두들 매일같이
죽음과 회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
고 생각했다. 「리아」도 이해하고 아무말
도 하지 않았다.

「도브」는 「켓도」의 가장 우수한 연락원
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는 △담 밑으로

△ 트 피 >

세계의 飲酒國인 역시 佛蘭西가 톱

불란서인들은 세계 제일가는 음주(飲
酒)인종이다.

최근 불란서에서 발표된 통계에 의하
면 불란서인은 연간 60인 「달리」의 포도
주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 양은 그의 연하

증가되어가고 있다. 「알콜」의 소비량
(1인당 연간소비 「리터」)을 각국별로
보면 역시 불란서가 「톱」인데 그 순위
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佛 26 · 8 | ② 伊 24 · 0 |
| ③ 瑞西 12 · 5 | ④ 西獨 11 · 5 |
| ⑤ 白 9 · 1 | ⑥ 美 8 · 2 |
| ⑦ 英 7 · 1 | |
- △ 東洋 >

▽ 통하는 길을 여남은 개 마련해 놓았
다. 그는 「와르소오」의 땅 밑을 아취를 통
기며 흐르는 미끈 미끈한 석은 물을 속을
따올 놓고 다녔다. 때때마다 「도브」는 어
깨까지 오는 더러운 물 속에 잠겨 어둠
속을 왕래했다. △ 담 밑으로 > 나서면 그
는 「워다」라고 이름만 아는 어떤 여자가
사는 「자브로우스카」 99번지의 어느 「아
파트」로 갔다. 그는 밥을 한끼 먹고 나면
권총, 탄환, 돈, 부전기의 부분품 그리고
만 「켓도」의 소식 「피르티산」의 소식 등을
갖고 「하수도」로 돌아갔다.

「도브」는 일주일에 한번씩 이런 여행
을 하지 않을 때면 「문데크」와 「레벡카」
가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개혁파 본부
에 가 있었다. 「레벡카」는 여행중 명목과 여
권을 위조하는 일을 했다. 「도브」는 그것
을 구경하기를 즐겼고 얼마 안가서 그는
그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곧 「도브」에게 서류를 모사하고 복사하
는 비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는 보는 눈이 날카로웠고 일하는 손이
침착했다. 나이 열두살에 그는 개혁파에
서 제일 우수한 은사 위조자가 되었다.

내가 걸어온 오솔길

洪 淳 正

△上士・11戰飛團▽

慶南 晉州에서 約 50리 길을 접어들면 남산 갈나무골이란 아담한 부락이 말없이 흘러내리는 南江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가 私心없는 淸貧한 功勞者로 認定되어 各新聞, 방송,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걸어온 12년이란 세월을 발잡도 제대로 못하고 피와 땀으로 살아올린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6일 상오 10시 반 서울시민회관에서 서 베풀어진 경향신문사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國民이 주는 希望의 賞을 受賞케 되므로 대동령각하와 面談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내 인생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영광된 오솔이 있기까지 나에게 주는 피눈물어린 역사가 점철돼 있다. 내 加軍에 들어오기 직전인 1954년 4월 어느날, 일요일이었다. 우리 집에는 농사를 좀 짓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불갑독이 누두령을 치러 오라는 말을 했다. 집안은 모두 독실한 基督敎信者로 아버님은 南山敎會 傳道師로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마침 安息日이라 작업을 나갈 사람이 없으니 하루의 일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敎會에는 나가기 싫고 술은 잔뜩 먹고 싶은 마음에서 아버지를 때 삼을 때고 불갑독을 따라나섰다. 그러나 누두령을 치는 일을 해 보지 못한 나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꾼들은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눈치였지만 나는 술을 마셔보겠다는 욕심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자청한 것이다. 고대하던 점심 때가 왔다. 대동령에서 술동이들이 이곳 저곳에서 가르고 왔다. 농꾼들은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큰사발이 나에게도 한 잔 돌아왔다.

그러나 한 잔으로는 나의 酒量에 도저히 量이 찰 수가 없었다. 『한 잔 더 주세요』 나는 좀 엄치 좋게 잔을 내밀었다. 두 잔째를 받아들고 막 마시려는 순간 불갑독이 하는 말이 『저놈의 자식은 洪鐘鶴의 새끼가 아니다. 主日이라고 지어 아버지 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와서 술만 마시고 있으니 말야. 자네 아버지 天堯갈 때 두루따 자락이나 잡고 따라올라 가거라』 하며 나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수처와 모욕감으로 하여 나는 얼얼이 달아올랐다. 술을 먹고 주정을 한다고 집에서 늘 술 먹지 말라고 타일러 왔지만 그 버릇은 고치질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당한 수도로 주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내가 그때도 洪傳道師의 아들이었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자아반성은 내가 술을 먹으므로 自身을 망치고 父母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며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얼마나 방해를 하여 왔던가, 나는 이 순간부터 술을 마시지 않기로 決心했다.

공군에 入隊하는 전날 밤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家族이 모여 家庭禮拜를 하고 나서 父母님과 兄님께서 軍에 들어가더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시는 것이었다. 『軍에 나가서 술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걸거타에서 누어 있으면 어느 누가 너를 도와주겠는가, 부디 時間 있는 대로 教會에 나가 信仰生活를 잘하라』는 충고였다. 나는 술 먹지 않고 우리 집에 서 제일 가는 信仰家가 되었다고 父母님 앞에 맹세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결심했다. 첫째 나는 軍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도 술을 먹지 못한다는 사람으로 인식시킨다. 둘째로 부모님이 신임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 보겠다고, 1954년 9월 28일 공군에 入隊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술을 입에 대어본 일이 없다. 어떤 會食場所에서나 또는 舍坐席에 앉아도 술 마시

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술잔까지 오지 않은 때가 허다, 어떤 때는 한 잔하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었지만 물감놀이 하는 말 『이놈아, 너 아무지 天堂갈 때 두루막 자락이나 잡고 천당 올라가면 될까, 그렇지 않은 이상 너는 다 틀렸다』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기 때문에 12년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술을 입에 대어본 일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올바른 信仰生活이 시작되었다. 1955년 2월에는 공군 제 50기상전대(대우지방) 인사과에 근무하면서 낮이면 고된 근무에 시달리고 밤이면 교회 일에 充實하였다. 그 결과 當時 丁仁榮(空軍中尉)軍牧의 소개로 大邱市 新岩洞 五區 새마을에 天禧 하나를 세워 丁軍牧이 새마을 舍村에 살면서 경제난으로 國民學校도 다니지 못한 불우 兒童이 많은 것을 개탄하여 東岩俱樂部라고 이름을 짓고 國民學校 교과과정과 聖經을 가르치다 나에게 인계를 하였다. 대단하지 않고 軍業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나는 국민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쳐 주었다. 空軍 一兵이 밤마다 불우한 兒童들에게 술을 가르쳐 준다는 소문은 매우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외국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서 美國宣教師 감부열牧師와 崔明順牧師가 찾아왔다. 崔牧師는 이런 곳에 教會 하나를 세워 무부수로 불쌍한 영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요청했다. 이리하여 大邱市 新岩洞 五區(새마을)에 東岩教會를 美國 감부열宣教師의 원조로 짓게 되었다. 그 후 나는 崔牧師와 敎人들의 권유로 東岩教會 執事로 任命을 받았다.

나는 1958년 11월 15일 공군 제 11전투비행단 초기에 비행전대 인사와 인사사관으로 보직받아 일해 오던 중 비행전대본부, 111전투비행대대, 제 112전투비행대대, 101전투비행대대가 차례로 각각 장설되었는데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완수하면서 각 처에서 전입되는 將兵들의 배속 및 각종 명부작성 문서 처리 및 비행전대 제반 후방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1959년 12월 내부반장으로 任命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휴무일이라 定期外出을 하고 없는 사이에 內務班에서는 K 上兵이 S 二兵을 상대로 內務生活에 誠實하지 못하였다는 理由로 심한 구타를 가한

모양이었다. S 二兵의 所屬長인 J 上官이 내부반장인 나와 K 상병을 불렀다.

나는 내부반장으로 불리어 가서 教育을 잘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베트」 5대를 맞았다. 그날 저녁 19시에 全員集合시키라고 내부반장에게 말하고는 기합을 줌 주어야겠다고 벌렸다. 아무런 생각해도 J 상판에게 맞은 것이 억울했다. 내부반 선임자들이 報告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의 더욱 나를 분개시켰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聖經을 펴들고 보니 요한복음 8장 3절-11절이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女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先生任이여 이 女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律法에 의하면 女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先生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어떻게 말함은 고소한 條件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므로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

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聖經句節을 읽고 나는 생각을 돌려 30분 동안 教育할 수 있는 원고를 만들어 놓고 內務班에 가보니 침구정돈, 청소상대, 제동작이 전에 찾아볼 수 없이 매우 양호했다. 반원들은 긴장되어 모두 사물통 위에 앉아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내부반장이 J 將校에게 당했으니 당연히 기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홀이 다 죽어 있었다. 나는 한 손에는 칩대봉봉이를 들고 한 손에는 교육시킨 원고용지를 들었다. 오늘까지 제관들이 결어은 모든 소행을 생각해 보라 한 내부반에서 무엇보다도 하급자를 사랑하고 돕고 선도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심한 가혹행위(구

타)를 하였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요한복음 8장 3절-11절을 상기시키며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율법에 의하여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아머마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고소한 그들, 돌을 던지는데 죄없는 자가 돌을 떨어 치라고 하였다. 돌을 던지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보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버리고 다 달아났다. 예수님은 이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하였다니 피해자 S 이병과 가해자 K 상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후로는 내부반원들이 제작 기술선수범하여 內務生活에 充實하였고 과거보다 내부반 청결정돈, 제규정 이행 상태가 대단히 良好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부반원 중 반수 이상이 基地敎會로 나갔다. K 上兵과 S 二兵은 제대하고 있었지만 오늘까지 片紙를 보내오고 眞實한 敎人이 되어 信仰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 1월에는 永登浦 果海洞敎會 洪卿壽목사와 알게 되어 그 敎會에 나가게 되었고 곧 執事로 任命받

았다. 果海洞은 바로 김포공항 이웃 마을로 약 1백여호에 5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이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6·25사변 때 월남해온 북한출신 피난민들로 洪牧師님은 家庭 환경 때문에 자녀를 進學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란 실정을 알고 있는 홍복사님은 아동들에게 中等教育을 실시하여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學校設立에 대한 문제를 敎會職員會에 재의하여 논의케 하였다.

그러나 職員들은 過半數 以上이 이를 반대하였다. 그 理由로는 敎會 운영도 어렵운 실정인데 더구나 어떻게 學校를 設立할 것이며 더구나 무보수로 가르칠 敎師진도 없으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단독으로는 어렵으니 바행단에 협조를 의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대구에서 내가 실시한 東岩俱樂部를 상기시키며 반대하는 職員들에게 理解시켰다. 마침내 敎會職員會에서는 敎會기관으로 公民學校를 設立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는 동회 유지를 위해 보내는 公文書를 기안하여 동내 유자들의 집을 찾아 다니다면서 배포했다. 1960년 8월

30일에는 2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회 내에서 가르치면서 학교 이름을 高明高等 公民學校로 하고 시작하였다. 그해 6월에는 40여명의 學生들이 모여서 편입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책상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17명만 편입시켰다. 이 학생들은 낮에는 家事를 돕고 밤이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中等全科目을 담당할 敎師가 없었나와 홍복사는 當時 11전비軍牧任으로 제시던 趙完杰大尉를 찾아 도움을 청하였다. 다행히도 信友會側에서 講師로 자격이 인정된 만한 基督士兵 8명을 파송해 주겠다는 인약을 받았다. 60년 11월 7일 趙軍牧使서 團長任에 상신하여 講師 8명과 겨울 난방장치를 해결해 줌으로써 어려운 難題들이 다 解決되었다. 그러나 62년 3월에는 제 3回 新入生을 募集하여야 할 것인데 學校校舍가 없었다. 40여명의 신입생의 원서가 들어왔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수용할 능력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주만을 지배하시고 人間들의 生死禍福을 주창하신 의의 하나님 우리 실명교동공민학교를 잘

보살펴 어떤 독자가 나타나 敎室 하나 지어줄 수 있는 귀한 기적을 주옵소서 하고, 입학된 학생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고 다른 중학교로 편입하는 학생이 늘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잊지 않았다. 기도한 보람이 있었던지 우연히 홍복사와 나는 K-14 미군적재부 사령관 「센넬스」少領을 찾아가 學校의 청편을 애기했더니 그후 「센넬스」少領의 후의로 物心兩面으로 적군 협력해줄 것을 다짐했다. 學校建物 1棟을 建築하게 되어 나는 士兵의 몸으로 후가를 얻어 밤 늦도록 일하였다. 피곤한 것도 잊고 기쁘고 즐거웠다. K-14 미군적재부 사령관 「센넬스」少領에게 무엇으로 감사할 도리어 할지 불우한 學生들에게 복음자리를 만들어 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돈한 돈만 지어주고 무보수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는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이 날로 클머리를 아프게 하였고 배에 따라서는 아무런 뒷받침없이 이때로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11전비 기독교장로회에서 매일 천원이란 장학금을 지

불해 주고 있었다. 이력저력 6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3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고등학교

김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 또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는 학생 중에 내가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그들이 직접 찾아와 기

△로 피▽

50年後엔 90億突破

世界人口하트 18萬名增

세계인구는 1966년
매일 18만명씩 불어났으
며 지난여름 33억 3천 5
백만명선을 돌파했다고
미국인구통계국이 발표.
만약에 지금의 인구
폭발율이 그대로 계속된
다면 세계인구는 50년
내에 90억이 될 것이며
1백년후인 서기 206
6년도에는 2백 40억이
될 것이라고.

【와싱턴 UPI】

世界最古의 骸骨

★케냐 2千5百 萬年前

세계에서 저명한 인류학
자인 루이스 리키박사는
지금으로부터 2천만년
전의 인간의 실존을 발
견했다고.

리키박사가 발견했다
고 하는 지금까지 알려
진 가장 오래된 인간 선
조의 화석은 나이로비서
쪽 4백 80 KM 떨어진
키쿠우 근처 빅토리아호
수 투성이섬에서 발굴된 9
명의 남녀 및 어린이들의

뼈조각 11개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1천
9백만년내지 2천만년
전의 인간의 뼈라고 단
정. 【나이로비 로이터】

音聲도 指紋처럼

美法廷에 聲紋機

사람의 목소리를 지도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여
지문처럼 그 인자를 식
별하는 성분기(聲紋機)
가 최근 이곳 법정에 등
장했다.

「로렌즈·커스타」(58)
란 전 화선본가가 발명한
이 기계는 97「퍼센트」의
정확성을 가졌다고 한다.

【뉴욕 6로이터 同和】

쁨의 소식을 전할 때 나는 가장 큰 보람
과 행복을 느낀다. 이 學校를 시작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그것이 열매 맺
기를 기다리거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6일 시민회관에
서 배풀어진 △國民이 주는 希望의 賞▽
시상은 나의 一生에 가장 감격적인 일이
였다. 國會와 정부와 그밖의 눈으신 많은
어른들이 자리한 가운데 △감사의 賞▽을
받는 순간 軍人과 나의 대민봉사의 생활
가운데 여러가지로 과거에 어퍼했던 일들
이 되살아와 나는 그만 감격의 눈물을 흘
리고 말았다. 宜當하여야 할 自身의 使
命으로 생각한 것뿐이지 어떤 찬사나 賞
을 바랐던 것은 아니다. 오직 두렵고 떨
리는 마음으로 참회를 禁할 수 없으
며平生에 이를 보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더구나 國民의 이름으로 賞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앞으
로 할 일은 모자라는 건물한 등을 증축
하는 것과 고등공민학교로의 인가를 받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욱 진지하고 성
실한 태도로 근무에 충실한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한다.

孫子兵法으로 본 韓國戰爭

⑥

—將帥가 有能하며 또 國王이 干涉하지 않는 者는 勝利한다— 謀攻篇

李 鍾 學

△少領·空士校教材室長▽

5. 論 評

韓國戰爭에 있어서 中共軍의 不法介入 그리고 「맥」將軍의 解任은 여러가지 面에서 研究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프레드릭」大王·「나폴레옹」처럼 언제나 政治家와 將帥가 兼職되어 있다면 兩者의 關係를 研究할 必要性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境遇란 過去에 있어서도 많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바라기 힘들 뿐만 아니라, 韓國戰爭에 있어서 이것의 不均衡으로 因하여 統一의 好機를 상실하였으니 더욱 研究할 價値가 있는 問題인 것이다.

共產陣營의 「스탈린」·毛澤東은 政治家인 同時에 一流의

軍事戰略家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그렇지 못하였다. 一線의 野戰司令官인 「맥」將軍과 戰爭指導를 擔當한 美行政府의 高位政策家와의 意見衝突은 그 좋은 本보기이다.

「맥아더」將軍은 그의 戰爭目的을 다음과 같이 表明하였다. 즉 『數十年間 解釋되어온 一般的 定義는 戰爭은 政治의 最後 手段이라는 것, 즉 모든 政治的 手段이 失敗로 돌아가는 境遇暴力에 呼訴하게 된다는 것, 暴力에 一旦 呼訴하게 되면 支配의 均衡, 即 主要關心이 賦與되어야 하는 것은 軍事의 支配하는 것, 一旦 戰鬪에 들어간 以上 勝利의 機會를 減少시키는 政治란 이를 下

의 어떠한 策略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데 反하여 美合參議長인 「브라운」將軍은 『戰略적으로 重要な 價値를 지니고 있지 않는 지역에 우리의 海軍力과 空軍力을 拘束시키게 되며, 이 戰略으로 우리는 그릇된 時期에 그릇된 場所에서 그릇된 敵과 싸우는 戰爭에 關係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戰爭指導者와 野戰司令官 사이의 不調和로 因하여 戰爭의 이니셔티브는 언제나 敵에게 빼앗기고 있었으며, 또 不利한 戰爭만 계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몇 가지 問題點에 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다.

(가) 中共軍의 介入... 1950年 9月 27日 美合參本部가 「맥아더」將軍에게 보낸 指示의 체가지가운데 마지막의 『소련과 中共이 어떻게 戰爭에 介入할 것인가』 그 事態發展을 報告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政策樹立家들이 다루어야 할 政治的인 問題이지 결코 野戰司令官이 다루 性質의 것은 아니다.

「웨이크」會談에서 「트루만」大統領이 「맥아더」將軍에게 中共이나 소련의 介入에 대한 質問에 대하여 前述한 바 그의 對答은 純軍事的인 立場에서 不可能하다고 對答한 것이었다. 즉 그가 使用할 수 있는 軍事的 手段(滿州爆發) 中共沿岸封鎖 및 自由中國軍의 使用(을)을 생각할 때 中共이나 소련의 介入은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트루만」大統領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國府消息通으로부터 中共이 戰爭에 介入할 것이라는 警告를 「맥」將軍의 情報參謀인 「윌로비」將軍은 本國政府에다 報告하였는데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950年 7月 8日 中共軍은 이미 韓滿國境上에 있는 安東지역에 到着하였다.

▲ 同年 8月 15日 「W·에베릴·해리만」氏는 UN에 提出하기 위한 資料로서 中共軍이 滿州에서 兵力增強을 계속하고 있으며 北平政權은 北韓에게 軍事的 援助를 提供하기로 同意하였다는 內容의 報告를 받았다.

▲ 同年 8月 31日 華中地方으로부터 滿州로 中共軍의 兵力移動이 增加되었다는 것은 韓國戰에 參戰하려는 豫備的 行動인 것으로 보인다. 滿州에 있는 中共軍의 總兵力은 正規軍이 24萬 6千이며, 國民保安軍이 37萬 4千으로 推算된다.

▲ 同年 9月 8日 北韓傀儡軍이 一定한 期間內에 韓國으로부터 UN軍을 逐出하는데 失敗하거나 北韓傀儡軍의 勝利가 疑問視되면 林彪將軍의 中共軍 第4野戰軍이 參戰하게 될 것 같다.

▲ 同年 10月 5日 모든 情報機關의 關心은 鴨綠江과 林彪將軍이 指揮하는 中共軍의 移動狀況에 集中되고 있다. 中共軍이 韓滿國境에 沿해서 增強되고 있다는 事實이 여러 系統을 통해서 報告되었는데 그들이 安東과 其他國

境지역에 集結되고 있는 것은 確實한 것이다.

▲ 同年 10月 14日 美軍이 38線을 넘어선다면 北韓에 들어갔다고 위협한 中共指導者들의 最近 宣言은 아마도 外交的 脅迫이란 範圍에 屬하는지 모른다. 그들의 戰爭決定은 一線 情報機關이 判斷할 수 없는 限界에 屬한다. 即 參戰決定은 「크레블린」이나 北平의 高位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滿州에 大兵力의 軍隊가 集結되어 있는 것은 既定事實이다. 鴨綠江에 沿해서 越境할 수 있는 여러 地點에 24個 師團이 配置되고 있다. 安東 近處의 中共軍은 南方으로 넘어오기에 適合한 道路에 位置하고 있다.

▲ 同年 10月 28日 滿州에 있는 中共軍 正規軍은 34個 師團으로 編成된 31萬 6千名이며, 이 以外에 34萬 7千名의 非正規 및 保安軍이 있다. 모든 正規軍은 韓國戰爭에 配置될 수 있을 것이다. 이 正規軍의 大部分은 鴨綠江에 沿해 國境을 넘어올 수 있는 많은 地點에 자리잡고 있다.

UN 空軍이 國境을 넘어가는 것이 禁止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安全하게 集結하고 있다. 滿州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있는 總兵力의 3分之2 即 29個 師團이 即時 出動할 수 있다. 中共軍의 戰鬥能力은 戰鬥가 한참일 때 훌륭히 訓練된 北韓 傀儡軍 兵士가 發揮할 수 있는 程度와 同 한 것이다.

이러한 情報은 美國 高位政策家들의 關心을 환기시키지 못하였고, 또 「맥」將軍도 그의 軍事的 見地에서 中共介入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中共은 原子彈을 保有하고 있고 또 完全한 制空權을 파악하고 있는 美國을 相對로 地上軍을 投入한다면 國府軍을 臺灣에 겨우 追放하여 國內 問題를 整理해야만 할 段階이고, 또 貧弱한 工業基地가 破壞당하고 소련으로부터 오는 補給線이 破壞될 때, 戰場에서의 大兵力을 維持할 必要한 資源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北平政權 自體의 存立이 위태로운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련과 中共은 韓國戰爭 介入을 어떻게 꾸며왔는가 하는 것을 考察해 보기도 한다. 1949年 末 毛澤東은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40餘日이나 묵었다. 그때 「크레블린」을 訪問한 毛澤東은 「스탈린」으로부터 強壓적으로 韓國戰爭에 介入토록 指示를 받았다. 毛澤東은 근심에 찬 얼굴로 돌아오자마자 꼬박 一週日 동안 中共 指導者들에게 中共의 韓國動亂 介入與否에 關한 진지한 討論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韓國戰爭은 「스탈린」의 計劃에 의거 틀림없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意見은 贊·反 兩論으로 갈렸다. 中共이 韓國戰爭 介入을 發表한 것은 50年 10月 25日인데 그 發表가 있기 전 차츰 동안 毛澤東은 거의 寢食을 잃고 골골한 생각에 잠

계방안을 오락가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執權 1年만에

안되는 中共으로서 國內問題를 整理하기도 前에 美國을 相對로 戰爭에 휩쓸린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指示를 어길 수는 없는 形便이었다.

그런데 中共軍은 왜 UN軍이 仁川上陸作戰後 直刻의 北韓 傀儡軍을 援助하려 오지 못하였는가? 그 理由는 아주 간단하다. 즉 鴨綠江의 橋梁과 그 附近의 여러 軍事基地가 UN 空軍에 의해 爆擊을 당하게 되는 날이면 成功的인 介入은 水泡로 돌아갈 것이 明白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0年 10月 15日 「트루만」大統領과 「맥아더」將軍이 「웨이크」島에서 會談을 하고 있을 때, 中共軍 精銳兵 12萬名은 이미 北韓에 와 있었다. 그리고 10月 과 11月 사이에 中共軍이 北韓에 들어왔다는 事實을 美國 情報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또 中共이 大兵力을 가지고 戰爭에 介入한다고 하더라도 UN軍으로부터 破壞攻擊도 받지 않는 避難處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 換言하면 美國 空軍이 UN軍의 生命과 安全을 保護하기 위하여 敵의 軍事目標과 施設과 軍隊에 대하여 原子彈을 投下하는 것이 許諾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떤 길을 밟아 들어갔는지는 모르나 中共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맥아더」將軍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맥아더」將軍은 有能한 參謀長 「히키」將軍에게 이렇게 말했다. 「司令官이 自己 將兵의 生命을 지키고 部隊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가 지닌 戰鬥力을 使用하는 것을 禁止당한 일은 戰爭史上 처음 있는 일이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將來 極東에 悲劇的인 事態를 가져올 징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나는 이번 일에 말할 수 없는 衝擊을 느끼고 있다. 이런 事態로는 몇 천이라는 美國 兵士의 목숨을 잃고 全部隊가 위태로워진다. 北韓의 中共과의 連絡通路가 安定하다는 것을 敵의 司令官은 어떤 方法으로 알고 있음에 틀림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만치 태연하게 鴨綠江 다리로 兵力을 대보낼 理致가 없다」고 하였다. 中共軍의 野戰司令官 林彪는 中共 안에서, 「맥아더」將軍이 나의 補給路에 대하여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을 「와싱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더라면 나는 攻擊을 開始하여 部下들로부터 軍人으로서의 나의 評價를 위태롭게 할 어떠한 行動도 절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公開發言을 배부하고 있었다.

中共軍 介入으로 인한 UN軍의 敗北는 孫子兵法의 「敵의 힘을 알고, 我軍의 힘을 알고 있으면 百戰하여도 위태롭지 아니하며, 또 敵과 我軍의 힘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敗北한다」(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不知而每戰

必敗……謀攻篇)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라 하겠다.

(나) 制限戰爭……1950年 11月 6日 「맥아아더」將軍에 依하여 鴨綠江 鐵橋爆擊을 命令하였는데, 그 目的은 말할 것도 없이 中共軍의 補給路遮斷이었다. 그러나 爆擊 數時間前에 美合同參謀部에 依하여 中止되었다. 아울러서 滿州國境에서부터 5「마일」以內的 目標에 대한 모든 爆擊을 保留하라는 命令을 받았으며, 1950年 10月 21日에는 水豊「엔」爆擊禁止令을 받았다. 北韓지역내의 戰略 目標에 대하여도 爆擊이 禁止되었으며, 敵情判斷의 좋은 資料인 航空寫眞偵察이 禁止되었다.

中共介入으로 UN軍의 軍事的 敗北의 可能性이 커지자 美合參은 「맥」將軍에게 韓國에서의 撤收與否에 대한 그의 見解를 打診했을 때, 「맥」將軍은 對中共 戰爭의 擴大를 建議했는데, 이것을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滿州爆擊……「맥」將軍의 意見은 中共이 美國의 攻擊과 같은 程度의 反擊을 在日美軍基地에 加할 空軍力이 없으며, 또한 이로 因하여 소련의 介入이 促進되지 않는다고 贊成하였으며, 또 美極東空軍司令官 「웃도널」將軍의 意見은 「나의 部隊가 滿州內의 中共基地와 補給線을 完全히 攪亂시킬 能力이 있으며, 北韓內에는 戰略爆擊의 價値가 있는 目標은 남지 않았다」고 贊成하였다. 「트루만」大統領은 中共人民의 反美輿論을 刺戟한다는 理由로 反對를

主張하였으며, 美合參은 첫째, 中共이 共產陣營의 戰爭物 資生産의 主要根源이 아니므로 그 効果가 疑心되며, 둘째, 美國側 避難處인 日本 및 沖繩의 基地는 滿州의 그것보다 密集하고 脆弱성이 많고, 셋째, NATO 諸國과의 事前 協議없이 亞細亞에서 單獨行動을 取한다면 美國의 地位가 動搖될지 모르며, 넷째, 對소 戰爭抑制을 위하여 爆擊部隊를 그대로 保存할 必要가 있다는 등의 理由로 反對하였다.

② 中共沿岸封鎖……「맥아아더」將軍은 海上을 통한 輸入에 代替할 수 있는 唯一한 輸送手段은 시베리아 鐵道인데 이것은 운행되고 있지만 原爆이나 空中攻擊에 脆弱하다는 理由로 贊成하였으며, 當時 海軍參謀總長 「세먼」提督은 美海軍에 依한 單獨行動은 對外的으로 不和를 일으킬 것이며, 또한 마카오, 香港, 大連等 非中共港口 封鎖에 難點이 있다고 反對하였으나, UN海軍에 依한 封鎖를 實施한다면 效果的인 것이라는 意見을 披擲하였다.

③ 自由中國軍 使用問題……「맥아아더」將軍은 自由中國軍으로 하여금 南部 中國沿岸을 襲擊케 함으로써 韓國內의 軍에 대한 壓力을 緩和시키지만 이는 매우 制限된 範圍로 局限한다는 意見을 들어 贊成하였다. 그러나 「트루만」大統領은 이것은 戰爭挑發行爲라고 생각하였으며, 國務省은 自由中國을 認定하지 않는 NATO 諸國을 刺戟

하게 되고 中共과의 協商은 더욱 困難하게 한다고 判斷하였고, 美合參은 自由中國軍의 戰鬪態勢가 아직 疑心스럽다는 理由로 反對를 表明하였다.

④ 소련의 參戰可能性……2次大戰後 美國은 戰略空軍과 核彈을 中心으로 한 全面戰爭에 對備한 戰略을 세워두었다. 그런데 아이라니컬하게도 美國은 韓國戰爭에 있어서 全面戰爭을 가장 두려워한 나머지 共產主義者의 戰略에 이끌려 戰爭을 制限시키고, 또 勝利의 必要性을 認識하지 않고 또 이것을 爭取하려는 決斷性도 없이 戰爭을 指導하였기 때문에 努力에 대한 所得의 代價가 없었던 것이었다.

만약, 當時 中共이 戰爭에 介入했을 때 「맥아아더」將軍의 計劃대로 戰爭을 遂行하였더라면 果然 小련이 參戰하여 3次大戰이 勃發하였을까? 이 問題에 대하여 「맥아아더」將軍의 意見은 다음과 같다. 즉, 가령 小련이 積極的인 參戰을 바라다 해도 그것은 軍事的으로 거의 不可能할 것이다. 「시베리아」에 있어서의 小련의 態勢는 必然的으로 防衛的인 性格의 것이고 限定된 補給線에 依存한다는 致命的인 弱點을 가지고 있다. 이 補給線은 단 한 가닥의 鐵道線이고 보면 우리들은 거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空中에서 切斷해 버리는 立場에 있었다. 더구나 「시베리아」東部에는 現地補給의 能力이 거의 없었고 小련은 軍需物資의 補

給을 全面的으로 단일 輸送線에 의지해야만 했다.

따라서 世界에서 이곳만큼 小련의 戰略的 位置가 弱한 곳은 또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當時 우리들은 原子爆彈을 가지고 있었지만 小련은 아직 原子爆彈을 開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小련이 積極的으로 戰爭에 介入해 오리라는 危險性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自己의 軍隊를 희생시키지 않고 友邦 여러 國家의 軍隊를 使用한다는 것이 小련의 政策이고 보면 第2次大戰以後 그 龐대한 小련軍勢의 擴張은 小련 兵으로 하여금 戰爭터에서 단 한 발의 彈丸도 쏘지 않고 達成되었다.

基本的인 問題는 小련은 과연 世界征服을 軍事的 手段으로 達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平和的인 說得이라는 手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만약 武力에 依하는 것이라면 小련은 自己가 主導權을 갖고 擇한 場所와 時期에 있어 싸울 것이 當然히 豫想되므로 우리들이 韓國問題 解決을 위해 어떠한 行動을 取하는 그것은 世界大戰을 일으킬 支配的인 要素는 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勿論 韓國戰爭은 3次世界大戰으로 擴大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기는 하지만, 筆者역시 「맥아아더」將軍의 見解와 마찬가지로 中共軍이 介入한 後에 UN軍이 勝利에 대한 確固한 意志와 斷乎한 決斷力으로 對決하였더라면 戰鬪地

域을擴大시키거나 소련의 介入 또는 歐羅巴에서 3次大戰을 誘發하지 않고도 充分히 勝利하고 우리의 國土는 統一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共產主義戰略의 本質을 살펴 보면 더욱 明白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련의 軍事戰略의 基礎를 만든 이는 소련의 參謀總長「스웨칭」將軍이 著述한 『赤軍의 戰略』일 것이다. 특히 「스웨칭」은 歷史上 아시아와 歐羅巴를 征服한 軍事的 天才인 成吉思汗戰法の 研究 家이기도 하였다.

「스웨칭」將軍의 研究에 의하면 蒙古人의 戰略은 戰爭을 準備이를 하는 하나의 企業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根據地를 擴張하고 또 作戰이 進行함에 따라 隣接지역의 住民을 兵力으로 採用해서 自軍의 勢力을 擴張하였다. 이러한 方法은 말하자면 外人部隊를 驅使하여 侵略戰爭을 實施하였다. 그래서 敗北할지라도 蒙古兵의 損失은 적었고, 勝利하면 새로 征服한 土地의 人民을 補充兵으로 採用하였다. 예컨대 「바치이」라는 成吉思汗의 孫子가 所有하고 있었던 兵力의 大部分은 被征服地의 人民兵이고 蒙古兵은 다만 5%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이 蒙古式戰法の 第一의 特徵이었다.

그리고 또 그들은 軍事的 決戰은 勝利가 確實한 境遇外는 極力 이것을 避하는 것이다. 소련은 中日戰爭에 있어서도 對日開戰을 하지 않고 主로 中國으로 하여금 代理戰

爭을 遂行시켰다. 2次大戰 直後 伯林封鎖의 危機에도 美國이 強硬한 態度로 나오니 곧 妥協으로 變했고, 韓國戰爭에 있어서 中共軍을 介入시켰지만 결국 소련軍은 出動치 않았다. 이라크, 쿠바 危機 때만 하여도 美國과 決戰을 回避하였던 것이다.

(다) 「맥」將軍의 解任……「트루만」大統領은 「맥아더」將軍이 政治問題에 屬하는 敵軍司令官에 대하여 單獨의 現地停戰協商要請과 韓國戰爭 擴大에 관한 그의 持論을 披瀝한 「마틴」上院議員에게 보낸 書簡이 일컫는 波紋 때문에 結局 UN軍司令官職에서 解任되고 말았다. 즉 「맥아더」將軍은 政府의 戰爭指導를 맡아들이지 않고 自己自身의 政策을 遂行하려고 하였다고 非難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上院證言席上에서 「맥아더」將軍은 그가 贊成하는 目的은 韓國의 侵略을 저지시키자는 것이요, 停戰協定을 保證하자는 것이요, UN의 目的대로 獨立되고 統一된 韓國을 樹立함에 協商하자는데 局限되어 있었다고 되풀이 主張하였다. 同時에 그는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滿州에 있는 飛行場을 爆擊하자는 것이요, 中共沿岸을 封鎖하자는 것이요, 韓國과 南部中國에서 自由中國軍을 使用하자는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手段을 提議한 것도 단지 UN의 制限된 政治的 目的을 보다 빨리 達成하기 위하여 損害를 보다 적게 하기 위하여 또한 3次世界大戰의

機會를 보나 적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맥아아더」將軍은 그의 國會에서의 演說에서 이렇게主張하였다. 즉 『一旦 戰爭이 우리에게 強要된 以上 그 戰爭을 迅速히 終結시키는 데 有効한 모든 手段을 適用하는 手 밖에 아무 道理가 없는 것임니다. 戰爭의 目的 그 自體는 勝利입니다. 결코 漫然한 優柔不斷은 아닐 것임니다. 참으로 戰爭에 있어서 勝利에 代身될 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니다. 여자가 지 理由에서 中共을 宥和하고자 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歷史의 明白한 敎訓에 대해서 盲目的입니다. 왜냐하면 宥和는 오직 새로운, 더 慘酷한 戰爭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歷史는 明白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임니다』고 하였다.

孫子兵法에 『將帥라는 것은 國家를 수레라고 한다면, 그 수레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채장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채장목이 密接하게 붙어 있으면, 國家는 반드시 強해지고 그와 反對로 兩者間에 틈이 생기면 國家는 반드시 弱해지는 것이다. 君主가 用兵에 밝지 못하면 3種의 患難이 생기는 것이니, 即軍이 進擊해서는 아니될 때 進擊命令을 내리며, 軍이 後退해서는 아니될 때 後退命令을 내리는 것이니 이와같이 戰場에 있는 將帥에게 進退의 自由를 노끈으로 엮어 매어 버리면 軍은 半身不隨가 되어

버린다.』(夫將者國之輔也 輔周則國必強 輔隙則國必弱 故君之所以患於軍者三 不知軍之不可以進 而謂之進 不知軍之不可以退 而謂之退 是謂廢軍)고 하였으며, 또 勝利의 다섯 가지 要因 가운데 『將帥가 有能하며 또 國王이 干涉하지 않는 者는 勝利한다』(將能而君不德者勝)고 하였다.

가장 좋은 史例는 壬辰倭亂 때 要時羅의 奸計로 朝廷에서는 御命으로 李舜臣將軍에게 『進兵』이라고 嚴命을 내렸다. 그는 上命을 어길 수 없어서 萬般準備를 갖추고 待機는 하고 있었으나 進擊하지 않았기 때문에 地位喪失은 물론 鞠問까지 당하였다. 그러나 「맥아아더」將軍은 그렇게 못하였다는데 우리들의 아쉬움이 있다.

「트루만」大統領은 「맥아아더」將軍을 解任시킨 自身の立場을 이렇게 表明하였다. 즉 『나에게는 단 한 가지 간단한 結論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맥아아더」將軍은 全面戰爭을 敢行할 用意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했는데 筆者는 다음과 같이 적어보았다. 즉 『나에게는 단 한 가지 간단한 結論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맥아아더」將軍은 勝利를 獲得할 用意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계속)



△短篇△

豫備役

金秉老

예비역 중령 이기삼(李基三)은 7월의 폭양 밑을 미친 듯이 달렸다. 런닝에 반츠붕 바람으로, 한 손에 굵직한 장작을 들고 양어장을 향해 마구 달렸다. 눈이다, 발을 가릴 경황도 없이, 그는 당장 무슨 일을 저지를 기세로 달렸다. 덩지덩지 갈아 놓았을 뿐, 계속되는 가름에 마를 대로 마른 버섯은 무논은 튀기에 거치장스러웠고, 곡식밭을 달리는 데 뒤에서 누군가가 악바친 고향을 질렀다. 기사는 체에 쫓기는 팽이 모양 날름 두렁에 올라섰다. 그리고 달렸다. 여진 군대군대 카지 덩불이 있어 장애트왔다.

△에잇!△

기삼은 하는 수 없이 행진로 내리서서 뛰었다. 양어장을 탈게 우회하는 길이었다.

어느새 기삼은 허허 허덕이고 있었다. 의외로 기운이 빨리 빠졌다. 싸움터에서 고지를 뛰어 오르던 가락이 아직 남아 있을 줄 믿었는데, 마을과는 달리 이렇게 빨리 지쳐졌다.

△끝았구나!▽

뛰기를 약간 늦추는 기삼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주색 때문에 그렸겠지만, 제대 후 거센 세파에 부대끼노라고, 그리고 실제로 번번하게 먹지 못한 탓으로 끝았으리라 생각했다.

기삼이 다시 뛰어서 양어장의 쪽을 오를 적인 편다기보다 슷제 범벌 기고 있었다. 두 무릎을 두 손으로 번갈아 짚어가며 간신히 쪽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앞을 봤다.

△만사휴이(萬事休矣)!▽

그는 꺼지듯 한숨 쉴으며 이렇게 내뱉었다. 그리고 풀석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못—아니, 양어장은 처참하다 해야 옳았다. 쭉발이 되 었더라는 말을 사람의 귀뿔을 들고 달려오기는 했지만 기삼은, 실은 이렇게까지 참정을 빚었으리라곤 생각지 않았었다.

양어장 바닥은 한가운데로 깊었다. 그리고 가운데에 십여 평 물이 남았을 뿐 번두리 사오십 평은 가뭄 때문에 감탕바닥이 들어나 있었다. 그리고 새로 들어난 감탕바닥에 방금 지나간 조무래기들의 무수한 발자국과 그 사이사이에 헛득헛득 잉어새끼들이 죽어 나자빠져 있었다. 물에 도너부죽이 고기를 죽여 죽어 떠있는 것으로 미루어 무슨 약을 썼음이 분명했다.

△육지를 가를 놈들!▽

기삼은 벌렁 일어났다. 그리고 장작을 켜 손에 힘을 주며 사면을 두리번 살폈다. 조무래기들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양어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면과 거의 접촉되어 있어야 하는 곤충유치등(昆蟲誘致燈)도 휘영청히 공중에 떠 있어서 훤히 빛고, 드러난 못바닥에 산재한 쇠뿔통(쇠뿔을 담아 양어장 물 속에 넣어 벌레가 생기게 하는 통)들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

기삼은 안광으로 따잡게 스며드는 밤방울을 손등으로 연방 닦아내며 못바닥을 응시했다. 쇠내와 함께 치받치는 거친 숨결이 가라앉질 않고 더욱 찾아지는 것 같았다.

노란빛 하늘에선 오후의 태양이 이끌거리고 타고 있었다. 기삼의 장작을 든 손이 푸르르 떨었다. 관자노리를 실룩거리며 일곱을 일그러뜨렸다. 그 순간, 그는 강한 스프링에 튕기우듯 못바닥으로 쏟아져 내려갔다. 장작을 휘두르며 헛득헛득 널린 잉어새끼들을 후들거렸다. 연한 물체들이 장작 끝에 무참히 흠어져서 감탕에 휘말려 버렸다. 물에 뜬 고기도 때릴 때마다 아까와는 달리 장작으로 때릴 때마다 잠박 물 속에 들어갔다. 못바닥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 기삼은 약이 빠져 울랐다. 옥락스레 물에 뛰어들어 손으로 고기를 주어서 물으로 던졌다. 감탕물로 몸이 흥건해진 다음에야 물으로 나온 기

삼은 아까 내던진 고기들을 발로 짓이겼다. 그리곤 두령으로 올라와서 곤충유치등을 부수기 시작했다. 전구들이, 햇빛에 번쩍이며 마구 박살져 나갔다. 거꾸걸거리는 전깃줄도 후려 끊었다. 다음은 쇠뿔뿔 차배였지만 이전 자신이 없었다. 드림통을 반동장난 것이 어떻게 만만해 되는 지 아예 부술 자신이 없었다. 포기했다. 그리고 대신 두에 무성한 풀과 나무를 후들겨 켜다. 이전 몫시 숨이 차다. 험허거리며 패기를 계속했다. 뒤에서 풍지(吉豊之) 노인만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기삼은 두이 반반해지도록 장작을 휘두를 번했다.

풍지를 보는 순간, 기삼은 가슴이 섬찔했다. 풀밭에서 독사가 발등을 넘었을 때의 느낌이 그럴 것 같았다.

「아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종령님?」

풍지는 양어장 주변에 되어진 일을 두리번 살피며 자못 놀란 기색으로 엉겨주춤히 섰는 기삼에게 다가섰다.

「이게 뭐기 착난인가요? 누가 이종령님의 생명 같은 양어장을 이 물결을 만들었나요?」

풍지는 장죽으로 샷대질을 하며, 따지듯 기삼을 다루었다. 기삼은 얼얼을 돌린 채 아예 말을 알았다. 고양이 쥐생각 좀 작작 하라고 쓰아부치고 싶지만, 늙은 사람에게 그럴 수도 없고—기삼은 죽 맘만 흘리고 있었다.

「자충주옥(忠州屋)에나 갑시다!」

어느새 풍지의 음성은 가라앉은 바리톤의 톤으로 변해 있었다.

「어서요! 속 타는데, 가서 털털한 막걸리라도 마실시다。」

여전히 의면한 채, 상대를 얹는 기삼에게 풍지는 아득 바득 달라붙었다.

「어서 먼저 가세요, 전 안 갑니다!」

기삼은 귀찮다는 투로 이렇게 내뱉었다. 풍지의 낯색이 금새 번했다. 그는 흰 테 안경 너머로 유리처럼 차가운 눈알을 몇 번 굴리고는 고개를 가우둥거리며 돌아서서 길쪽으로 걸었다. 저만치 풍지의 작은 등치가 멀어지자, 기삼은 이제 살았다는 듯 안도의 숨을 쉬었다. 풍지가 곁에 섰는 동안, 기삼은 양어장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만큼 풍지가 어서 곁에서 떠나주기를 바랬었다.

기삼이 풍지를 그토록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풍지는 철저한 위선자였다. 안팎이 송두리째 거짓으로 두루말려 있었다. 그는 분명히 인색한데 후한 척했다. 그는 분명히 잔인한데 관대한 사람으로 통하려고 했다. 꾀죄한 성격이면서 너그러운 척하고, 바리톤이 아닌데 애써 바리톤의 톤을 흉내냈다. 기삼은 풍지의 그런 위장(僞裝)이 싫었다.

아내 금희(朴金姬)가 도망쳤을 때도 풍지가 맨먼저 찾

아왔지만, 진실에서 위로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려 왔었다. 그때도 술 마시려 가지고 했지만, 그의 속셈을 뻔히 아는 기삼은 뿌리치고 가지 않았었다가 봤잖아 막걸리 사발이나 얼어 마지는 죄로 아주 저자세가 되어서 잔뜩 쿨대가 높아진 풍지의 싸구려 동정이나 반는 것이 고작일 텐데 막걸리에 환장을 했대도 그것은 못하는 기삼이었다. 그러나, 그 때에는 그런대로 기삼이 충주옥에 마음대로 드날 수 있는 처지라도 되었었다. 현대, 지금은 사태가 변해서, 기삼은 충주옥 곁에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다. 풍지는 기삼의 그런 처지를 알았다. 못갈 줄 알면서, 신심쓰듯, 다잡아 가자는 데 기삼의 반말이 그토록 장했는지 몰랐다.

기삼은 장작개비를 못 속에 동맹이쳤다. 그리고 풀이 흠어진 뒤에 풀석 앉았다. 멀게 풍지의 까다거리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아들의 퇴물인듯 고색이 창연한 통 넓은 양복바지에 퇴색된 구두를 신고, 흠이 오그라진 얼굴에 안경일랑 걸치고 어울리지 않게 큰 활개를 치고, 낮은 음성으로 절정을 빼는 풍지를 기삼은 혼자 실컷 고깝게 여겼다. 아들이 서울서 벼슬개나 한나니까 돈보이나 보내올 것이고, 그것으로 이 촌구석에서 활개를 쳐 본다는 믿음직한 인을 뿜(脬)해서가 아니라, 풍지는 거듭 말하지 말, 늘 위장을 하고 다녔고 그것이 기삼으로 하여금 생리

적으로 그를 경원케 했다.

따지자면, 그는 동리의 허드레꾼에 불과했다. 바꿔 말해서, 동리에서 누구든지 굶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이 풍지였다. 바탕이 그런 일로 자랐기 때문에 나이 든 지금은 직접 손을 안 대지만, 굶은 일에 젊은 일꾼들을 일일이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뿐이었다. 특히 초상집엔 절대로 빠지 못할 존재였다. 이쯤 되면 남에게 위세 부릴 건덕지도 못된다고 했는데, 돈이 생긴 지금은 전과는 달리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기술이라도 된다는 듯 자못 위세가 등용하다. 거의 체 키만큼이나 긴장하는 풍지의 얼굴엔 마치, 일선 지휘관의 그것 같은 위엄이 대담하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반발하기엔, 동리에서의 풍지의 위치가 너무 견고했다. 아들을 통한 권력과 금력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은연중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지가 충주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 기삼은 일어서서 행길쪽으로 걸었다. 발광을 한 탓인지 몸이 두두룩했다. 마음 한 구석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도 했다. 풍지의 팔따나 생령처럼 민던 양어장이 가름에 그리고 쪼무래들의 장난엔, 그 모양이 되고 말

았으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예비역이지요? 예비역이면 민간인한테 가야 합니다. 여긴 곤란합니다.」

기삼이 아무런 일을 하려 해도 일할 수 없는 위치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문득 애송이 수송지휘관의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머리에 떠올랐다.

△예비역!▽

그때 기삼은 분명히 예비역이었다. 동기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급을 하는데 자기는 계급정년으로 군복을 벗은 뒤였다. 군복을 벗었지만 기삼은 도무지 민간인이 되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결판 민간인이 되었지 속은 원통군인으로 체위저이었다.

갑자기 여행할 일이 생겼다. 그만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표를 돈과 바꾼다는 일 자체가 어쩐지 억울하고 밀지는 것 같았다. 무임으로 군용칸에 올랐다. 사복이 마음 쓰게 했지만 수사관인양 태연하려고 했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다. 마침 몇몇 알만한 장교들이 읊었다. 반가히 인사를 나누는 뒤에 소주잔을 나누기 시작했다. 취기가 어느 정도 돌았을 무렵에 수송지휘관이 승차권 검사를 시작했다. 하나씩 조사해 나오면 수송지휘관 육군중위가 기삼의 앞에 다다랐다.

「장교님, 승차권 보여주세요.」

기삼은 당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얼른 고자세를 취했다. 중위쯤 적당한 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승차권 말입니까? ……없습니다만, ……어디 좀 봐주세요?」

중위는 기삼의 아래위를 훑어보고 나서 안 된다고 잡았다. 출장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없더니까 휴가증, 신분증까지 요구했다. 끝내 우물쭈물하니까 굴렀다고 생각되었던지 종이가 끼인 나무판을 내밀며 거기다 관공과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하라고 했다.

기삼은 난처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짜 예비역이란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입장만 난처해졌다. 결국은 예비역이라고 우회해서 실토했다. 그 순간 수송지휘관이 당돌스레 내뱉은 말이 바로 지금 머리에 떠오른 말이었다.

그때 기삼은 결국 민간인칸으로 쫓겨 갔지만 예비역의 서러움을 그토록 독특히 당해 보기는 군복 벗은 후 처음이었다. 더구나 같이 술을 마지던 현역 군인들까지도 일언반구, 자기를 위해 조언을 얹는데 더 큰 실망을 느꼈었다.

싸움이 한창일 적에 기삼은 최일선에서 싸우며 많은 공을 세웠다. 남달리 진장한 체구로 늘 왕성한 정열을 지니

고남의 선두에서 적을 무찌르는데 용감했다. 싸움이 끝나면 술을 마시고 술이 깨면 또 공격하고—다른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그였다. 그래서 결국은 ○○고지의 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포창장과 훈장도 무수히 탔다. 물론 부상도, 자질구레하긴 했지만, 여러 군데, 당했다. 인제라도 바지가 맨이만 걸어 올리면 몇 군데 부상의 흔적을 보일 수가 있다. 그것이면 군인 중의 군인으로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휴전이 된 뒤로 사태는 차차 변해 갔다. 평화가 깃들자 군대에도 차분히 이론을 탐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각종 교육기관이 생겨서 지능과 학식을 겨룰 기회가 많아졌다. 술과 공격이면 제일이던 소박한 전사의 분위기는 짙그리 가시어졌다. 기삼은 곤궁에 빠졌다. 힘과 정력 그리고 두주를 불사하는 주량만으로 행세할 수가 없었다. 동료들에게 자구만 뒤져 갔다. 그래서 굶기야는 제금정년이란 명예롭지 못한 딱지가 붙은 전역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웃은 벗었지만 군인기질은 좀체로 벗어지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하급장교나 사병에게 길을 물을 적엔 으레 첫 반말을 쓰게 되고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앞서서 버럭버럭 소리를 잘 질렀다. 그러다간 곧잘 무안을 당하고…….

기차에서의 일만 해도 소위 역전의 대선배로서 전장(戰

場) 근처에도 못가 본 애송이 중위따위에 그런 수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점잖게서리, 그리고 공연히 차표를 사고 탔어야 옳았다. 아무러나, 이 사건 이후로 기삼은 속까지 군인을 벗노라 무척 애를 썼다.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누구와도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못가서 다시 「충주읍」 작부들에게 물세례를 준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도 기삼은 양어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우물에서 몸을 씻고 있었다. 이 때에 불쑥 「충주읍」의 두 작부가 나타났다. 백가와 오가였다.

「어떻게 여길 다 오구?」

기삼은 세수를 하다가 말고 이렇게 들을 맞았다.

「의상값 받으려구.」

백가가 언제나 하던 머뭇대로 건들거리며 뻔했다.

「돈이야기 같으면 치우라구…… 요사이 죽을 맛이야.」

「우리도 죽을 맛이오…… 주인 등살에……」

오가도 나섰다.

「그래도 나보다야 나를 데지, 저 녀마다 술은 마실 데니

까.」

기삼.

「한가한 소리 그만 하구 어서 돈이나 줘요. 우리 바빠

요。」

백가가 다 구쳤다.

「바쁘면 가라구 돈 없다잖아?」

기삼은 짜증으로 말하고 다시 몸 씻기를 계속했다. 두 작부가 불쾌하다고 응알했다. 잘 생각도 않았다.

「요것들이 가라면 가지 않고!」

기삼이 악바친 소리를 질렀다.

「뭐, 요것들? 뭐가 이런 게 있어?」

오가가 대들었다. 이 때였다. 기삼은 에잇! 소리와 함께 세숫대야를 들어서 틀에게 획 물을 끼얹었다.

「어머나!」

들이 기침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기삼은 허드렛물 등에서 구정물을 퍼서 연거푸 틀에게 퍼 띄웠다. 뛰다시 피뚝기는 물을 옥박지르듯 쫓아가며 기삼은, 틀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될 때까지 물을 끼얹었다. 맑은 물도 아닌 허드렛물이어서 거기 섞였던 별별 찌꺼기들이 틀의 머리와 옷에 너저분했다. 어느새 틀은 엉엉 울고 있었다. 구경꾼 중에서 누가 나와서 틀을 가까운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기삼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틀이 고발을 한대도 큰 탈은 없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친한 뜻밖에도 동리의 여

론은 한결 같이 기삼을 반대하고 있었다.

△ 그것들도 사람인데 그럴 수가……▽

△ 의상값 달랜다고 그런 봉반을 시킨담 누가 의상장사 하겠노……▽

△ 그제 짐승에게나 하는 짓이지…… 그것도 흉악한 사람이……▽

동리사람들의 이런 뒷공론이 끊임없이 기삼의 귀에 들러왔다. 기삼은 은근히 겁이 났다. 작부들이 고발을 하고, 동리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자를 동정할 적에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하였다. 이런 번두리에서 중론은 퍼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어서 한 사람쯤 추방하고, 심하면 스스로 죽게 하는 따위 일이 넉넉히 있을 수 있었다. 술집 작부들쯤 개, 돼지 다루듯 해도 까다없는 도심지의 생각만 하고 저지른 자기의 지나쳤던 행위를 기삼은 세삼스레 뒤우쳤다. 그러나 기삼의 염려는 기우로 그쳤다. 작부들이 고발도 않았고 동리사람들의 뒷공론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그라져 갔다. 이것도 번두리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다. 그래도 기삼은 참아 충주 우에 다시 나타날 순 없었다. 기삼이 집에 들어서니까 짐은 짐대로 난장판이었다.

「임맛!」

기삼은 이렇게 소리질렀다. 아이들 셋이 기침을 하고

동작을 멈췄다. 방금 취하고 있던 자세대로 굳어졌다.
기가 막힐 정도로 해괴한 정경이었다.

꿀꿀이 죽통을 두고 셋의 악착스런 쟁탈전을 벌이노
라 아버지마저 문앞에 다가서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죽
이 튀겨져서 얼골과 옷에 감자껍질 빵 뭉개진 것 따위가
몰려 있었다. 한 끼에 십 원어치씩만 사던 것을 오늘날은
절실점 저녁으로 먹는다고 이십 원을 주어서 미군부대
쓰레기장으로 꿀꿀이죽을 사러 보냈었는데, 시래기라
도 두고 끊어서 먹을 생각은 않고 서로 건더기 먹겠다고
이 난장판을 만들었으니—기삼은 확 달려들어서 셋을 모
조리 짓이기고 싶었다. 그러나 참아 그럴 수는 없었다.
아니, 그럴 만한 기운이 없었는지 몰랐다.

「성식과 성철은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벌떡! 성엔
윗목에 무릎 꿇고 앉고!」

기삼은 이렇게 셋에게 군대식 기합을 하명했다. 군대
식을 되도록이면 피한다면 서도 기삼은 급할 때면 항상
이렇게 군대식이 튀어나오곤 했다.

밧기는 나이가 열셋이나 되어서 철이 들 만한 때가 된
말, 성애가 제일 미웠다. 밧에 젖들을 어눌러서라도 그
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늘 같이 영켜서 그 야단
이니 말이다. 하기가 밧에 젖들이 들다 사내애요 또 작
기배가 다르고 거의 부모의 참된 애정을 모르고 자라니

까 놓아 먹인 망아지 같아서 다루기가 힘에 부치겠지만
정히 그렇다면 자기말이라도 그런 짓을 안 해야 옳을 것
아닌가? 기삼은 성애에게 제일 가벼운 기합을 준 것을
후회했다.

손바닥을 방바닥에 댔다 때었다 하며 죽 땀을 흘리고
절절매 하는 두 머슴애를 추는히 내려다보며 기삼은 제
속 방 입구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런 경우, 취할 만한
마땅한 포오즈가 생각나지 않았다. 기삼은 문득 아이들
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과 계집만 알
고, 홀려 넘치는 정력을 그리로만 쏟아 보니까 자꾸만
가정이 깨지고, 아내가 도망을 치고, 아이들은 눈치 속
에서 포확스레 자라고 한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늘이 빚어
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아예 포기했
음에도 아이들만 착하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독선 같
았다.

「일어섯!」

비칠거리며 셋이 일어났다.

「나갔!」

절름거리며 그러나 덤비며 셋이 방을 나가는데,

「이거 치우란 말이다!」 하고 성애에게 소리질렀다.

성애가 방을 치우고 나간 뒤에 기삼은 방바닥에 벌렁
누었다. 몸이 묵직하고 마음이 허탈했다. 이따엔 쌀이

알렸다.

〈어전담!〉

기삼은 짙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뇌었다.

기삼은 인제 울 때까지 왔다고 생각했다. 앞은 더 나갈 수 없는 절벽이었다. 제대 후 3년, 기삼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온 정력을 사업에 쏟았다. 꽤 많은 돈이 연금을 가지고 장사도 해 봤고 사업도 해 봤다. 모두 실패였다. 끝으로 양어장을 시작했다. 별로 돈 안들이고 그리고 항구적일 수 있는 사업이 양어일 것 같았다. 우선 자열못을 하나 빌려서 배수장치, 공충유치등장치 그리고 쇠펁통 등 양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었다. 그리고 잉어(稚魚였다)만 마리를 사다 넣었다. 은정력을 양어장에 쏟았다. 전시에 적과의 싸움에 쏟던 정력을 양어장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치어에서 큰 실패 없이 만 마리의 잉어는 제대로 자라기 시작했다. 기삼은 식생활에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잉어에 의해 용기를 얻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아무래도 기삼의 편에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몇 십 년째

처음이라는 심한 가뭄이 왔다. 도랑이 마르고, 강물이 줄고, 논은 모두 못 심은 채, 7월인데도 무논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기삼의 양어장도 점점 말라 들었다. 기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샘을 파고 물을 찾아서 양어장에 물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결국은 끝장이 나고 말았다. 땅 속에서 영원한 샘이 솟아 주질 않았다. 기삼은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

양어장에 수량이 줄어들고, 심한 태양열을 받으면서 잉어는 병들어갔다. 아침마다 너부축히 뜨는 잉어새끼를 전져 내면서 기삼은 반인 오천 마리만 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죽는 수효가 나날이 늘어서 이젠 오천 마리도 안 되리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넘엇 마을 주무대기들이 사냥을 해 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기삼은 드디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기삼은 문득 백가의 충고가 머리에 떠올랐다. 자기에 게를 베풀었을 때는 충주옥의 작부말이다.

「……얼굴에 철가면(鐵假面) 딱 쓰고 떠나요. 요즘 세상에 남의 생각하고, 찾아와서 동정해 주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요. 옛 전우들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설마 의면하겠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거두면 양어장의 고기를 배까지 배 두드리며 먹고 살 것이냐요?」

이렇게 백가는 기삼이 더러 구절행자를 떠나라고 종용했다. 얼핏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기삼은 백가가 인간, 이 기삼을 모독하는 것 같아 심히 불쾌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릴 하는가고 마구 쏘아

부쳤었다. 예비역이지만은 어엿한 육군중령이요, 후세에 6·25 전사를 펼치면 ○○고지 전투에서 용맹을 펼쳤다는 자기의 기록이 나올지도 모르는 데 이것 구결자로 나락(奈落)이 되라니 안 될 말이였다. 꼴꼴이 죽으로 연명을 하면서도 구결자와는 거리가 먼 위치를 유지해가면서 기삼은 멧뚝이 사노라 안간힘을 써 왔다. 그런데 지금—모든 것이 끝장이 난, 박궤 말해서 사회에서까지 예비역이 된 이 마당에 기삼의 머리에 백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죽을 생각은 아예 없고 살 생각뿐인 기삼에게 가능한 삶의 방법이 바래지는 건 당연했다. 그리고 당장은 백가의 말대로 구결행각을 떠나는 수 밖에 만 방법이 없어봤다. 아내 김희라도 있었으면, 이런 기회에 자길 대신해서 가 줄 수도 있으면만—생각되어서 기삼은 새삼스레 도망친 아내를 생각해봤다. 그러나 곧 그는 머리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남편이 술 줄 마신다고 생활이 좀 곤궁하다고 그렇게 매정스레 떠난 녀를 다시 생각하는 건 자신을 모독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셋씩이나 여편네가 도망치는 경우를 당한 기삼은 이제 여자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지 몰랐다.

기삼은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편지피지를 벗겼다. 그리고 넘적하니 방바닥에 었드린 채 편지를 꺼내 뒤적였

다. 대부분이 옛 전우나 부하들로부터 온 편지였다. 기삼은 다시 일어나 작업복 상의에서 수첩과 풍초가 된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편지에서 주소를 베끼기 시작했다. 머리 속에 있는 학교 동창, 지인들까지 합치니까 스무명은 좁히 되었다.

주소, 성명을 다 적고 나서 기삼은 수첩과 연필을 방바닥에 놓은 채 다시 벌렁 뒤로 몸을 뒤쳤다. 손가락을 겨서 머리 뒤통수를 받치고 눈을 지긋이 감았다. 다정하던 슬벗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기를 맞아 큰 주연을 베풀고 서로 법석을 떠는 장면도 떠올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거지꼴로 찾아간 자기를 거의 노골적으로 백안시 하는 전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삼은 어느새, 실제로 문에 떨고 있었다.

△에이, 배은망덕한 새끼!▽
이렇게 되며 기삼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미친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안 된다. 안 돼!▽
죽으면 죽었지, 구결행각을 떠나선 못 쓴다고 자신을 타이르고 기삼은 다시 누었다. 가슴이 답답해 왔다. 휴!, 휴!. 크게 한 숨을 쉬어봤다.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다. 눈을 감았다. 또 친구들의 환상이 떠올랐다. 이번엔 이상하게도 몽땅 자기를 받기는 장면을 뿐이었다.

기삼의 안 떠난다던 절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기삼은 다시 앞으로 옆드렸다. 그리고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찢어서 백가에게 쪽지를 썼다. 저녁 8시까지 풍지네 물방아간 뒤로 나오라고만 적었다. 성애를 불러서 충주우으로 쪽지를 보냈다.

백가에게 구걸행차를 떠나기 위한 노자를 요구하기 위해 기삼은 만나자고 했다. 이 동리에서 기삼이 돈 빌릴 만한 대상은 거의 없었다. 양어장 앞선관계로서로가 까와진 풍지만을 친숙히 아는데, 천하의 구두쇠인 그가 받을 기약도 없는 기삼에게 돈을 빌려줄 턱이 없었다. 보나마나 날짜만 질질 끌면서 사람의 애를 태우다가 끝장에 못한다고 나자빠질 것이었다. 더구나 조금 전, 양어장에서의 일도 있는데, 기삼이 풍지에게 찾아 그런 청을 할 수가 없었다.

백가는 불벼락 이후로 전혀 만나지를 못했지만, 어딘지 도르게 남의 딱한 사정을 알아주는 쪽 넓은 아량이 있어 보였다. 양채스런 사람이 이용하기 알맞은 헛점을 지니고 있어 봤다. 배우지 못하고, 화류계에서 놀은 사람이 라야 볼만한 성격이 번뜩이곤 하지만, 그러면서도 뒤가 없고, 팔팔스리워서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 많이야 못하겠지만 얼마간의 여축도 있다는 소문이었다. 작부노릇을 오래 한 전덕지이라 여겨졌다.

바른대로 말해서 기삼은 백가에게 이런 청을 할 염치가 없었다. 외상값도 안 갚고, 오히려 그녀에게 그 욕을 보인 장본인이 무슨 면목으로 이런 엄청난 청을 하겠는가? 그러나 별 수 없었다. 백가 자신이 말대로 철가면을 쓰는 도리밖에.

반신반의했었지만 백가는 제 시간에 오라는 장소로 왔다.

「이런엔 불벼락 주려 해도 물이 없네?.....」 뿌옇나 마른 개를바닥을 가르질러 기삼에게로 다가오며 백가가 이렇게 민청거렸다. 기삼은 씩씩히 웃을 뿐 말을 아니했다. 백가가 가까이 오자 기삼은 앞장서서 물 마른 개을 위에 덩글하니 신 물방아 바퀴 밑으로 갔다. 그리고 반반한 바위 위에 앉았다.

「전엔 미안했어. 또 오늘밤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고.....」

「미안 좋아하네! 참, 양어장 끝장났다면서? 남의 일을 안 됐다고 할 순 없구, 우선 축하합니다.」

「너무한 걸? 남은 절망중인데.....」

「나도 약간한 실망은 있지! 바다도 강도면 여기서 싱싱한 잉어회 좀 흡삼 먹을랬더니.....」

「약담, 치우지?」

「그럼, 용전함?」

기삼이 꼬부적거렸다. 백가가 지지하다고 간다고 했다.

기삼이 붙잡았다.

「돈 좀 있을까?」

「뭘, 돈?」

백가는 한참 동안 자즈라지게 웃어제꼈다.

「…………돈 좋아하는 모양이군? 남의 의상값엔 물벼락으로 응수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빌려라? 헛헛했…」

「진히 쓸일이 있어서…………꼭 갚을게…………」

「의상값두?」

「아이, 그러지 말고…………」

기삼은 자기 계획을 실패했다. 백가는 연신 웃으며 기삼의 말을 듣다가 쉽게 그러겠노라 승락했다.

「기왕 내친 김인데 아이들의 꼴꼴이 죽잖까지 내가 말지…………」

기삼은 아내에게 하듯, 백가의 등을 두들 두들겨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했다.

백가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기삼은 그녀들 아내의 위치에다 놓고 생각해 봤다. 괜찮아 봤다. 처녀였을 뿐, 응졸하기만 했던, 도망간 여된네들에게 비하면 백가는 화류계 출신이란 딱지는 붙겠지만, 마음이 확 띄고 절렁절렁한 품이 자기 같은 성격에 맞을 것 같았다. 곤궁할 적에 자기 대신 일마는 지생존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적했

다. 애까지 생각되고 나서 기삼은 혼자 짙 웃었다. 첫장가 들 적의 기분 같아서 쭈스려웠다.

이틀 날, 기삼은, 백가가 보내온 노자를 넣고, 가버운 마음으로 구걸행자를 떠났다.

기삼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 술 받아주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노자주고…………. 유쾌했다. 재미가 났다. 진작 그럴 것을 하는 후회마저 있었다.

기삼은 우선 옷차림부더 고쳤다. 속말로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굶어 죽는다고들 하지만, 기삼도 차림새가 너무 초라해서 남의 집에 찾아갈 때마다 몹시 신경이 쓰여졌다. 좋은 것으로 한 벌 맞춰 입었다. 어딜 가도 떳떳했다. 술도 막걸리에서 맥주로 바꾸고, 잠자리도 하숙집에서 여관으로 옮겼다. 기차도 3등에서 2등으로 변경하고 모닝커피, 토스트 따위 사치가 부활했다.

친구의 집을 방문머 동냥한 돈을 모조리 끌어박아도 구걸행각이 아닌 유람행각이 될 지금은 마냥 모자라기만 했다. 갈 만한 곳엔 모두 갔다. 이제 더갈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공동묘지 같기만 한 집에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백가가 있는 한 아이들을 굶어죽이진 않을 것 같았다. 또, 차라리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열이 친구는 가을이 되었을 적엔, 기삼은 세 바퀴째, 친구의 집을 돌고 있었다. 나타나면 문동이 찾아온 것만큼이나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기삼은 현상유지를 위해서 자꾸만 친구의 집에 나타났다.

「너, 자꾸만 이러면 친구끼리의 끈긴다. 장가 전이라면야 너와 나와 같은 집에 살면 어떻나? 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잖아? 어떤데 있구, 자식들 있구……. 제발 너두 무슨 직업이든 직업을 가지란 말이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러면 돕는 우리 마음도 좁은 날을 거야…….」

이렇게 신칙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심한 사람은 육지거리를 퍼북거나 아예 만나주지 않거나 했다.

기삼의 행색은 초라해 갔다. 마치 일 떨어진 가을나무의 그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옛종학 동창생 하나를 만났다. 점심을 얻어먹으며 기삼은 동창한테서 옛은사인 김(金光道) 선생이 가까운 읍소재지에서 종교교장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삼은 오랫동안 은사를 만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찾아가서 폐를 끼칠 수 있다고 기뻐했다.

동창과 헤어지는 즉시로 기삼은 김교장을 만나러 Y읍으로 달려왔다. 김교장은 처음 기삼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기삼이 구구히 설명하니까 아재네가 그 싸움 잘하고

장난꾸러기이던 이 기삼이 로구만 하고 무척 기뻐했다.

「…………내 언젠가 누구한테 자네 소식을 들었겠지……. 군에서 아주 훌륭히 뻬다구……. 반가우이 반가와…….」 김교장은 기삼의 손을 쥘 채 자꾸만 흔들며 기쁨을 못 감춰했다. 기삼도 반가웠다. 그러나 반가움보다는 김교장의 얼굴의 잔주름보다는 그의 생활형편 살피기에 바빴다.

첫눈에 김교장의 생활은 넉넉치가 못해 봤다.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살기에 펴고 달든 기색이었다. 그래도 김교장은 제자가 왔다고, 술 받아오고 특별한 반찬을 차리고 했다. 기삼은 하루밤 응송한 대접을 받고 이른날 아침,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내의(來意)를 말했다. 김교장은 기삼의 차림새를 새삼스레 한번 더 훑어보고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듯 머리를 기웃거리며 학교로 같이 나가자고 했다. 학교에서 서무주임을 불러 오천 원을 가불해서 기삼의 손에 꼬옥 쥐어준 김교장은 애정이 쏟아지는 말로 부디 성공하라고 기삼에게 당부했다.

학교를 나선 기삼은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다. 궁축(窮則通)이라더니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혼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에 나가기에 앞서 우선 중심가로 들어가서 다방을 찾았다. 들충나아보이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하나뿐인

레지가 의자를 고르고 있었다. 기삼은 의틀이 손님이었다. 모닝커피를 시켰다. 레지에게 K시로 가는 기차시간을 물었다. 오후 늦게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대답이었다.

큰일났다고 했더니, 레지가 기왕 Y읍에 오셨을 하루 놀다가라고 했다. Y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넌즈시 레지를 떠받치니 아니라고 했다. Y읍에서 모닝커피 마시는 사람이면 자기가 모두 안다고 말했다. 기삼은 재미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노는 것도 좋지만 의틀이로는 심심타고 했다. 짝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면서 뵈하면 자기가 짝이 되어도 좋다고 레지는 이상하게 쾅쾅 웃었다.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기삼이 다방은 어찌고 짝이 되느냐고 했더니, 음란한 하면 비빈인 언니와 교대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삼은 실뚝 그러자고 했다. 언니를 불러 다 놓고 기삼더러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안으로 사라졌던 레지는 잠시 후에 날뚫한 화장으로 나타났다. 참에됐다. 기삼은 정신이 쪼렷해 오는 숨은 환희를 느꼈다.

Y읍에 몇 대밖에 안된다는 택시 중 하나를 잡아 타고 들은 밤나무숲으로 갔다. 돈 많이 안 들고, 밤 구이먹기 좋다면서 레지가 권했다. 낙엽이 진 밤나무숲에서, 밤을 사다가 밤잎으로 구이먹는 흥취가 그럴 듯했다. 배가 부른 뒤엔 으쓱한 송림 속으로 들어가 단 둘만이 달콤한

시간을 가졌다. 기삼은 K시에 돌아갈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하루밤은 레지와 지내야 한다고 지레 마음먹고 있었는지 몰랐다.

어두어져야 Y읍에 돌아온 들은 한식 집에서 저녁을 먹고 곧장 극장으로 갔다. 극장에서 여관으로 가노라 다 들은 그만 짝에 들렀다. 레지가 맥주생각이 난다고 해서였다. 짝걸들이 모조리 레지를 아는 척했다. 큰 것 물었다고 한 잔 내라고 덤비는 추도 있었다. 기삼은 무겁지 못한 호주머니가 텅텅되었지만 레지에게 인색한 기색을 보이지 않기 위해 짝걸들에게 마구 인심을 썼다. 기삼도 레지도 그리고 짝 걸들도 취하도록 마셨다. 기삼은 레지를 으스스려져라 겨안고 마구 호등을 켰다.

「○○고지의 용사란 걸 모르나? 이 촌놈의 새끼들이!」

기삼의 아무렇게나 지른 촌놈의 새끼들이란 호통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Y읍에 불량배들과 싸움이 붙었다. 기삼은 맥주병을 휘두르며 ○○고지의 용사답게 용전부투했다. 빠는 삼시간에 수라장으로 화했다. 거울이 깨지고 유리창이 부서지고 탁자가 공간을 날았다. 기삼은 끝내 중과부적으로 남작하게 되도록 얻어맞고 마루바닥에 쓰러졌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 구치장에서 눈을 떴을 뻔, 기삼

은 어찌구니 없는 위치에 있었다. 만신창이가 된 상처도 상처였지만 맥주값이 작으니까 만 원대요, 뼈의 손해배상도 맥주값 못지않으리라고 일직순경이 눈을 부라렸다.

「…………중학교 김광도교장집에 왔던 손님이라면서? 교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거요!」

기삼은 아연했다. 취중에 자기가 저절인 모양인데 이 일을 어쩌나 싶었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아픔이 갔다. 기삼은 순경에게 말했다. 「모든 것내가 해결할 테니 김교장 오는 것 중단하게 해 달라고, 순경은 기삼더러 이만 원을 보이라고 했다. 기삼이 호주머니를 뒤졌다. 몇 천 원 있어야 하는데 한 푼도 없었다.

「요년아!」

레저를 생각하고 기삼은 이렇게 악을 썼다. 순경이 걸 걸거리고 오래 웃었다. 조금 후에 김교장이 왔다. 순경이 공손히 인사하고 기삼을 만나보라니까 김교장은 불필요 없다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테니까 어서 돌아 보내달라고 했다. 현금만 이만 원이 들 것이라고 순경이 말하니까 심만 원이라도 할 수 없다고 김교장은 잘라 말했다. 김교장의 이야기를 엿듣고 기삼은 혼자 입술을 깨물었다. 김교장이 돌아간 뒤에 기삼은 곧 경찰서에서 풀려나왔다. 돈도, 갈 곳도 없는 기삼은 걸름거리며 뒷골목을 하염없이 걸었다. 이제 군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예박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 編輯後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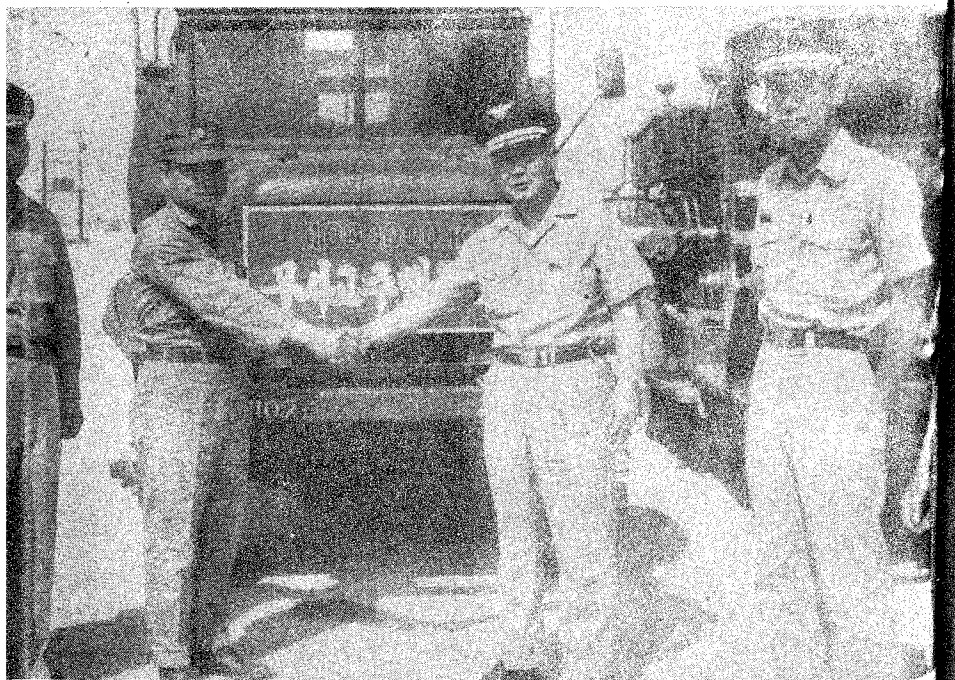
▲ 難境 속에서나마誌齡 100을 紀念하는誌齡 100號 紀念誌를 出刊하고자 本編輯室에는 한동안 軍内外 讀者들로부터 激勵과 讚辭가 絶不停인 忠告와 叱責의 소리가 울려져 들어와 一線編輯者들을 당황케 하였다. 本誌에 많은 期待를 걸고 있는 軍内外 讀者들의 熱意에 報答하고 不滿을 解消하여 더욱 健實한 公論의 唯一한 教養綜合誌가 되기 爲해 本編輯室은 全力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많은 讀者들이 本誌編輯에 積極參與하여 줄 것을 바라지 않는다.

▲ 熱風 속에 치루어진 5.3 大統領選舉와 6.8 國會議員選舉를 通해 朴正熙大統領이 이끄는 共和黨은 壓勝을 거두어 우리나라는 安定된 政局 속에 大國土建設事業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여기 兩大選舉를 通해 現政府가 굳게 그 實現을 約束한 第2次經濟開發 5年計劃의 전모와 主要部門을 해쳐 봄으로써 밝은 祖國의 來日을 占쳐 본다.

▲ 不知不識하는 가운데 軍隊에 있어서 「氣合」이라는 問題는 갖가지 憶측과 浪說속을 낳고 때로는 이로 因한 不祥事를 일으켜 一般社會의 물의를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果然 軍에 있어서 「氣合은 必要惡인가?」하는 問題를 둘러싼 各級將兵의 意見과 追憶談을 本誌에 모아 보았다. 軍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를 각급 將兵들은 「氣合」에 對한 올바른 認識을 갖고 從來까지 지녀온 「氣合」에 대한 오해를 풀어 더욱 明朗한 兵營을 꾸며야겠다.



◇...6월 1일 飛行學校에서는 白萬吉 校長을 비롯한 來賓과 全將兵이 參席한 가운데 開校 3週年 및 T-28機 4萬5千時間 無事故 飛行 記錄 (64年 6月1일부터 67年 5月2日) 樹立記念式을 盛大히 舉行하였다.



◇...107基地團 輸送大隊는 66年 12月 8일부터 67年 4月 22일까지 125日 동안 100萬Km 無事故 車輛運行記錄을 樹立함으로써 「完全無缺」의 획기적인 「에코크」를 장식했다(權大有團長이 最終車輛 운전병 국웅석 下士와 감독의 악수를 나누고있다.)

우리는
不死鳥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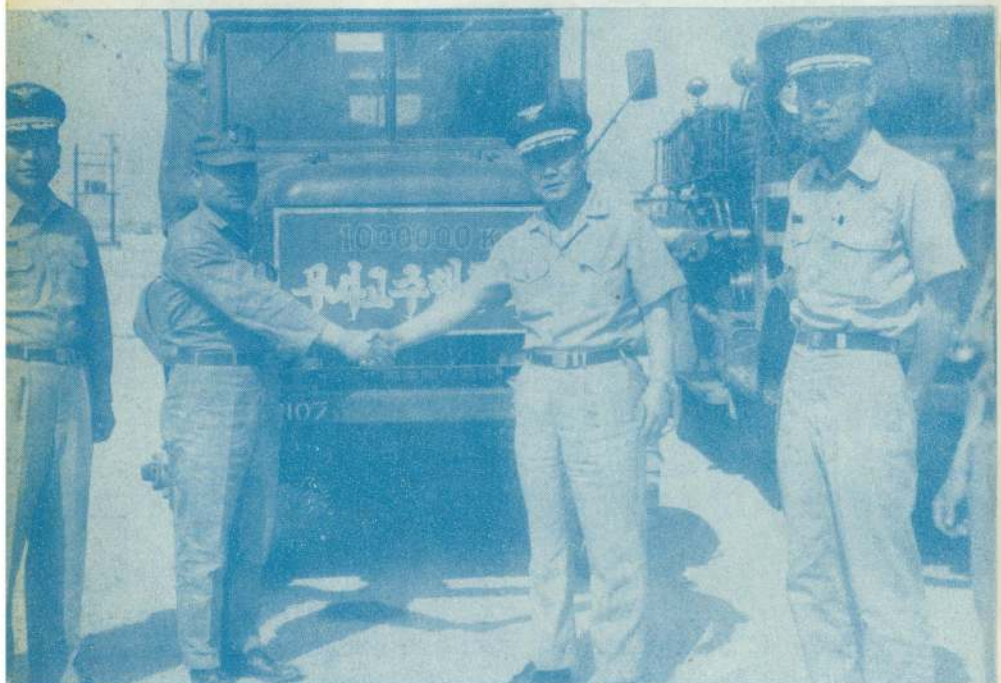


푸른 창공 저 너머 아침 해 뜨면
 오물도 솟구치는 우리 보라매
 조국의 부름속에 뚝쳐진 열
 아 찬하디 기의 이빨 대항의 무장
 항복이 아닌 영광 승리의 꽃
 나가자 발전가자 승진해 영광





◇...6월 1일 飛行學校에서는 白萬吉 校長을 비롯한 來賓과 全將兵이 參席한 가운데 開校 3週年 및 T-28機 4萬5千時間 無事故 飛行 記錄 (64年 6月1일부터 67年 5月2日) 樹立記念式을 盛大히 舉行하였다.



◇...107基地團 輸送大隊는 66年 12月 8日로부터 67年 4月 22日까지 125日 동안 100萬Km 無事故 車輛運行記錄을 樹立함으로써 「完全無缺」의 획기적인 「에포크」를 장식했다(權大有團長이 最終車輛 운전병 국응석 下士와 감격의 악수를 나누고있다).

우리는 不死鳥 공군



푸른 창영 저 너머 아침 해 뜨면
오늘도 손구치는 우리 보라매
조국의 부트산에 뭉쳐진 열
아름답다 그의 이름 대한의 영웅
하늘인 우리 영리한 장관의 방패

나가지 말라가자 승리를 위해